

건축사 건축

1999 **11** vol. 367

칼럼 왜 대한건축사협회기 (BIA)에 가입해야 하는가

특별취임 한국건축문화대상 이대르 좋은가

포커스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심회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 ㉮-제주(하)

'99 건축문화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設計 CONCEPT의 充實한 行動 파트너

효성드라이비트

효성드라이비트를 다양한 건축물에 친숙한 공법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달해 주신 건축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존 외벽단열 및 마감재의 획일적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저희 효성은 드라이비트공법의 도입개척자로서 그리고 업계 선두주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이미 알고 계시는 드라이비트의 장점과 새롭게 전개되는 효성만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능적 재료로서의 부가가치가 탁월합니다.
건축비용의 현격한 절감과 30%이상의 에너지절약으로 드라이비트의 실용성과 경제성은 여타 재료의 추종을 불허하며, 최근에는 외단열마감재의 영원한 과제로 여겨왔던 오염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내오염 마감재를 개발함으로써 적용한계를 초월하는 개가를 거두었습니다.

공신력 높은 업체로서 본분을 다합니다.
효성드라이비트는 국내 외벽단열업계에서 유일하게 사용 자재 일체(접착제, 마감재, 유리섬유 MESH, EPS Board, 내오염마감재)와 숙련된 시공력을 Total로 공급하고 사후 품질을 철저히 보증하는 회사이며, 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KS, ASTM(미국공인규격), ISO 9002등 품질관리상의 공신력 있는 규격을 준수하고 이의 인증을 획득한 신뢰받는 회사입니다.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합니다.
노후된 건물의 개보수에 최적인 외벽단열 및 내부마감공법은 공법 고유의 특징점의 에 효성의 창조적 기술개발과 환경친화적 기업정신의 실천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건축주에 제공하고 있으며, 용인에버랜드 등 자유롭고 섬세한 조형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시공을 통해 축적한 몰딩시스템(EM)의 Know-How와 내외장겸용 광범위 마감재인 유로스 타코를 보급함으로써 드라이비트의 고급화, 고품격화를 실현하였습니다.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를 아끼지 않습니다.
효성드라이비트는 외벽디자인 및 Coloring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IDEA를 제공하고, 제반 기술지원 서비스에 있어 일선직원은 물론 경영진까지도 건축사 여러분의 문의를 직접 받고 즉각적인 응답을 드리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직통: 02-518-3011)

이제 효성은 10년 이상 축적된 총체적 역량과 설계자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MIND를 바탕으로 작품의도를 100%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충실한 행동파트너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효성드라이비트(주) 대표이사

金 承 培

IntelliARC

건축설계지원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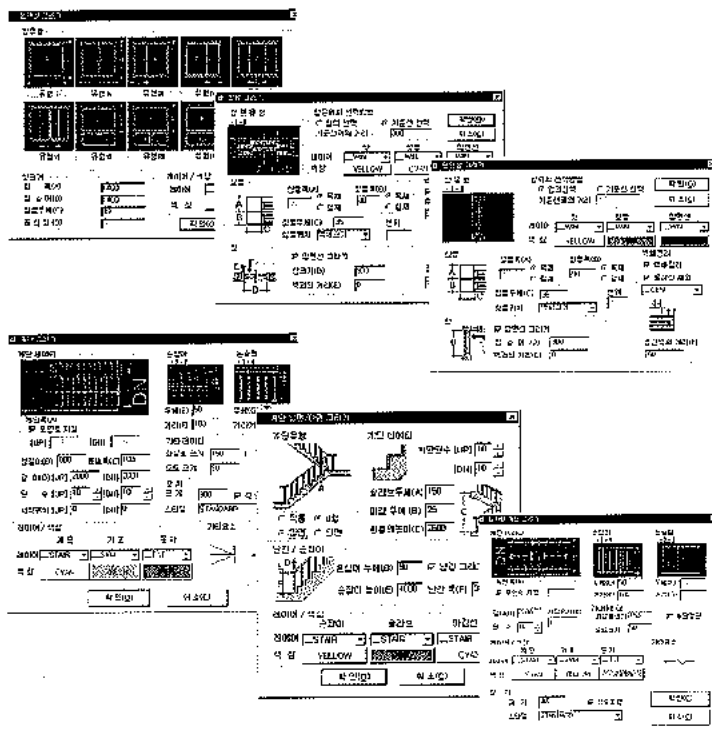
IntelliARC는 IntelliCAD를 국내 건축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CAD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설계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건축 전용 설계 지원 소프트웨어입니다.

주요기능

- IntelliARC Tools (건축설계 지원 도구)
- IntelliARC Utility (건축설계 응용 도구)
- Symbol Library (아파트 및 건축물 도면요소)
- User Library (사용자 예약심볼 볼록 DB)
- Drawing Manager (도면의 View & 도면관리)
- IntelliARC CAD 한글 (자체 CAD 한글 지원)
- IntelliARC Interface (IntelliCAD, AutoCAD 호환 및 설계자원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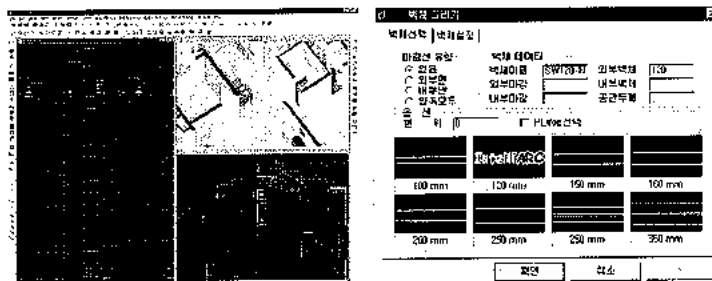
적용분야

- 건축물 설계
아파트, 상업건축물, 주택,
주상복합건물, 철골, 공장, 인테리어



IntelliCAD

- AutoCAD R11~R14와 완벽에 가까운 호환
- AutoCAD와 동일한 형식의 메뉴 채택
- 대부분의 Autolisp 프로그램은 변형없이 작동가능
- 동시에 수 많은 DWG 파일 Open하여 작업가능
- 진한글내장



건축사를 위한 특별판 프로모션

IntelliARC98+IntelliCAD98 → ₩1,645,000

₩850,000 → IntelliARC98+IntelliCAD98+진한글
(IntelliARC 2000 / IntelliCAD 2000 무상 업그레이드)

- IntelliCAD 2000 버전 11월 출시합니다.
- 프로모션은 12월까지이며 이후는 정상가격 환원합니다.
- 설치비, 전문교육비는 실비이며 사용자 선택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별도입니다.



다이나웨어 씨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2동 53-22 3F
TEL:02-2214-0586 FAX:02-2244-0386
E-mail:iarc (천리안,하이텔,유니텔)
http://user.chollion.net/~iarc

※ IntelliCAD는 Visio사의 등록상표입니다. AutoCAD는 AutoDESK사의 등록상표입니다.

물/전국총판: (주)인텔리시스템 (02)323-0286 누리컴시스템(02)557-3664 명인컴퓨터(02)877-7361 솔비테크놀로지(02)585-7595 이지웨어 (02)3663-8851 UNC컨설팅(02)878-3777 인터캐드(02)3463-2450 태성엔지니어링(02)679-1804 클릭정보(02)851-1198 해룡엔지니어링(02)3141-2492 해인정보통신(02)558-0220 인천:두리시스템(032)821-4380 경기:자이로소프트(032)654-6070 의정부:진시스템(02)354-0786 고양:월드NS(0344)963-8038 안산:캐드포커스(0345)494-3855 분당:4차원시스템(0342)707-0486 송남북/대전:시와과학(042)482-1231 천안:클릭컴퓨터(041)568-5797 광주:동서정보시스템(062)383-1182 전남:하이테크정보(662)81-7000 전북:미르(0652)277-2171 경북/대구:명성컴퓨터(053)422-7780 포항:해광캐드(0562)77-4404 구마:비류시스템(0546)473-5566 경남/부산총판:대창캐드프리스(051)636-3740 창원시스템(051)293-5180 울산:영창(051)991-8918 서울:에스비(02)557-3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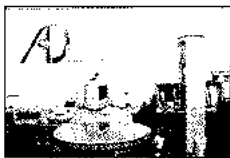
건축 용역



소장님 ! 마이 힘드시죠 !!!
이제 **에이디프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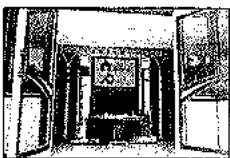
강남지사 02-3462-2638



서초지사 02-582-2638



인천지사 032-471-2638



부산지사 051-743-2637



광주지사 062-234-2637



경기지사 032-898-2638



충무지사 0337-881-2638



대전지사 032-698-2638



울산지사 052-257-2637

ADpro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용역전문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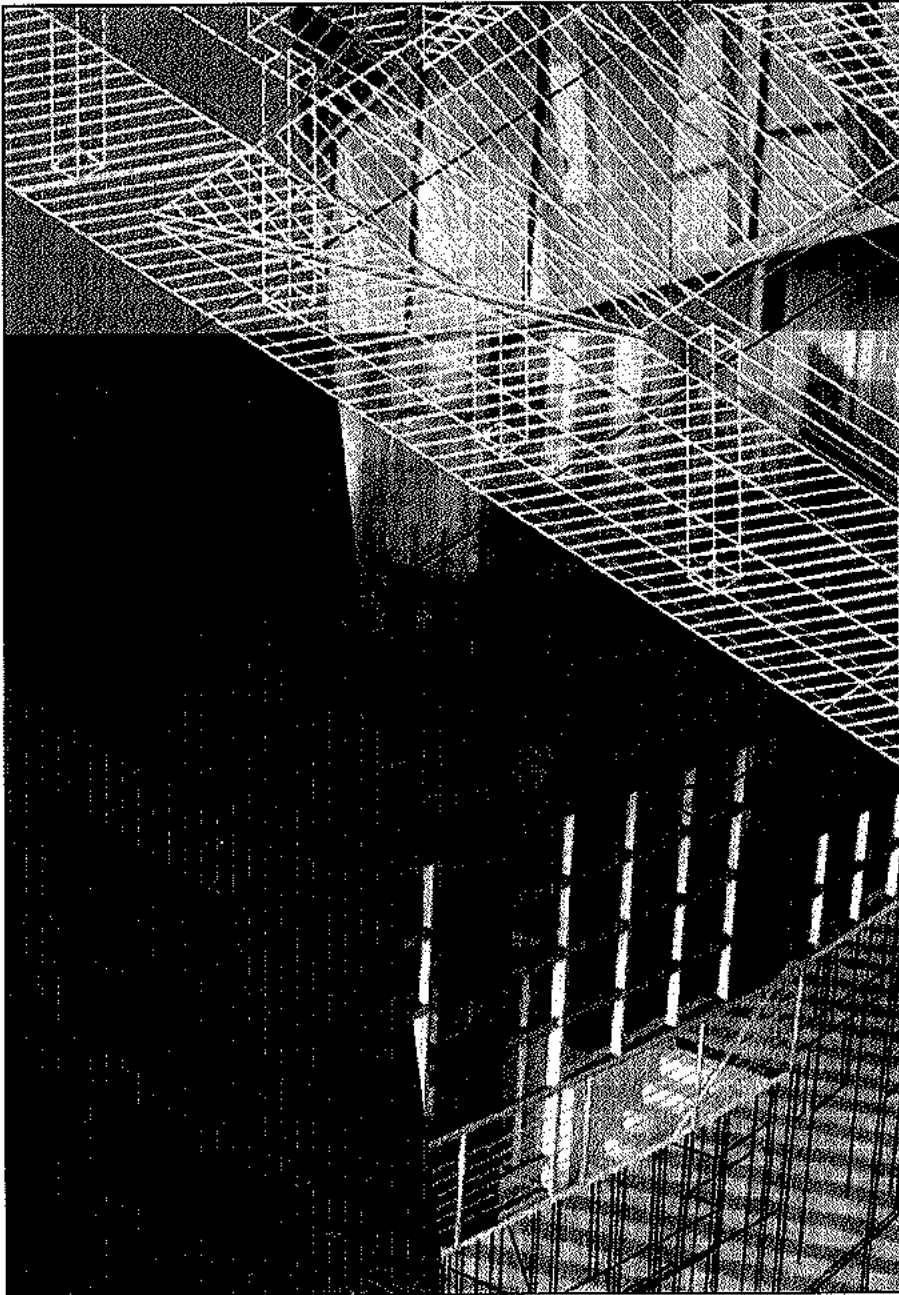
- 설계수주는 했는데 설계인원이 모자라십니까?
- 납기일은 다가오는데 아직 그려야할 도면이 많습니까?
- 아르바이트로 외주를 처리하자니 신뢰가 인가고 납품도면의 질이 걱정됩니까?
- 외주처리 이후의 설계변경시 도면 수정이 걱정됩니까?
- 건축, 구조도면 작성뿐만 아니라 설비도면, 구조계산, 내역서,투시도 등의 모든 업무를 한군데서 툰키로 처리하고자 합니까?

ADpro가 이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계획설계 이외의 모든 업무를 대행합니다.
-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대규모 업체입니다.
- 독자적인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 첨단 하드웨어와 통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 귀사의 컴퓨터시스템을 원격으로 컨트롤합니다.
- 경험이 풍부한 설계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싸고, 빠르며, 도면품질이 뛰어납니다.
- 특별히 아파트설계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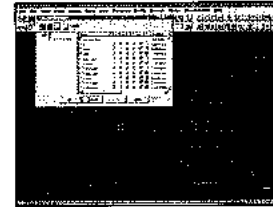
三位一體!

개념설계에서 실시설계,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 작업을 하나로 끝내줍니다!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R2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시설계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문을 불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넣는 작업이 한 번에 끝납니다.



주요특징

- 건축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 Model Explorer를 이용해 더욱 손쉬워진 Mass Study
- 유형기반 AEC 객체 지원 (벽체, 문, 창호, 기둥, 계단, 지붕...)
- 문맥 감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열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을 표현하기 위한 뷰 시스템에 의한 뷰 종속적인 객체 표현
- 건축요소와 관련된 각종 일람표 및 보고서 작성

ADT Visualization Suite

ADT R2+3DS VIZ R2통합 패키지

ADT로 작업한 3차원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편집, 렌더링, 애니메이션화 하여 통합 프리젠테이션 환경 제공

- 풍부한 재질 및 조명효과
- ADT파일과의 완벽한 호환
- Panoramic 렌더링 지원
- DWG Linking 및 ObjectARX[™] 애플리케이션 지원
- 수백가지의 AEC 객체 샘플 및 유연한 3D 객체 스냅

건축가를 위한
신개념 AutoCAD

건축/엔지니어링/측량 협력업체

(주)간캐드 584-6480, (주)리인테크시스템 569-1814, (주)에너텍 2271-1781, 한국씨.아이.엠(주) 515-3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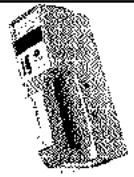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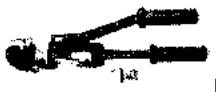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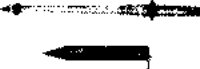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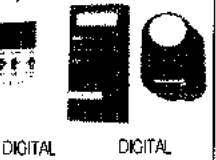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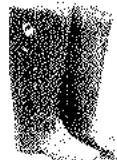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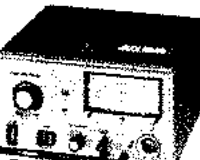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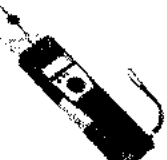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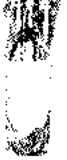
Architectural Desktop

ADT

계측기 및 전설공구·법정장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장비 판매중

활선상태에서 절연저항을 누설전류계로 비교측정

 자동용량측정기(AG 100 0.001~1.5%)	 콘도리테스터 한마 MSR기록식	 철근탐지기 SS-30	 도막두께 측정기 HSE-8601	 목재함수율측정기 M5700 5~36%	 진동계3140 KYORITSU 1999 접지 저항계 디지털 4105 0~2000Ω
 누설전류계 Multi 140 φ40 m/m 0.01mA~300mA 누전사고예방	 유압식 단자 압착기 9H-150(14"~150")	 전선압착기(유압식) EP 430(Y-35)	 유압식 절판전공기 SH-10(2"3"4")		 접지저항계 4102 0-1000Ω
 누설전류계 MCL-800D φ80 m/m 0.1mA~1.000A 누전사고예방	 유압 압착기 12호 A (14"~325")	 유압 수동 펌프 HP 700A	 특고저압검전기		 클크메터 MODEL 2007 600A 750V MODEL 2002 2000A 750V
 DIGITAL 절연저항계 250V 50M 500V 100M 1.000V 2.000V M/S-3D	 DIGITAL 소음계(1350) 조도계(1330) 35-130db 0.1~20.000	 비접촉식온도계 ST3150 -32~400°C ST6Lm -32~500°C	 비접촉식온도계 -50~500°C UT-01		 절연저항계 3165 500V 1.000M 3166 1.000V~2.000M
 절연저항계 3213A 500V 1.000M 1.000V 2.000	 DIGITAL 홀크온 메터 234301 650V 1.000A	 접지저항계 3235	 다기능계측기 MET500		 절연저항계(3123) 10.000V
 COS MOS 가스 측정기 LNG LPG X-P 702SA	 절연장갑 장화	 50.000V 내전압시험기	 후크온식 접지저항계		 온도기록계 SR 1.000 UR 1.000 UR 1.800
 DC Hydrot tester 60kV 5mA	 절연유상기측정기(HD 101)	 절연유 시험기(HD55)	 계전기 시험기(8510)	 접지공구	

취급회사 제품



KYORITSU

MULTI 누설전류계

IZUMI 압착기

국산

메가 홀크메타 아쓰테스타 소방장비 차압계

KIKUSUI 내전압 시험기

MUSASH O.T 테스트

HIOKI 계측기

YOKOGAWA

기록계

내전압 시험기 제작전문

(주)현대전기 계측기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 (02)279-0427. 278-3944

FAX : (02)273-8758



일산주택 III (임재용 작)



발행인: 이의규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순
 위원: 김정희, 조인숙,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266-4555
 광고: (주)이두컴 (02)518-6856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왜 대한건축사협회가 UIA에 가입해야 하는가?	김지덕	10
특별좌담	한국건축문화대상 이대로 좋은가?		12
포커스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1차 공청회		21
회원작품	천주교인보회 인보마을(봉사자관 / 성체유치원)	민승렬	28
	자산대학 도서관	박성길	30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사옥	김자호 · 김태집	32
	신탄진(상) 화물차 휴게소	안병모 · 이경훈	34
	정보통신 공무원 교육원	이영희	36
	최양업신부 기념성당(배론성당)	박재환 · 안영배	38
	일산주택 III	임재용	40
작품노트	향단 이데아	최동호	42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4]: 제주(하)		편집디렉터/김홍식	45
	제주건축의 어제와 오늘	김태일	46
	포토에세이: 도시내 건축의 역할	김태일	54
	제주 실내건축의 발달과정과 현황	이인호	58
	비제주인의 제주건축읽기	황태주	63
	포토에세이: 제주에서의 하루	황태주	68
	제주건축의 과제와 전망	김홍식	70
	좌담: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풍토성		76
건축마당	건축만평		90
	협회소식		91
	건축계소식		94
	현상설계		100
	해외잡지동향		108
	전시리뷰		115
	회원현황		12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999년 9월분)		124

Column

Why KIRA Must Take Park in UIA?	Kim Chi-Dok	10
---------------------------------	-------------	----

Special Conversation

Reflections on the Korea Architecture Award		12
---	--	----

Focus

A Public Hearing on Architecture Education and License System		21
---	--	----

Works

Blessed Sacrament Sisters of Charity, INBO VILLAGE	Min Seung-Ryeol	28
Jisan College Library	Park Sung-Kil	30
First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Kim Ja-Ho & Kim Tae-Jip	32
Sintanjin Service Area	Ahn Byung-Mo & Lee Kyung-Hoon	34
Training Center fo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ty	Lee Young-Hee	36
The Priest Choi Yang-Up Memorial Church	Park Jae-Hwan & Ahn Young-Bae	38
Ilsan Residence III	Im Jae-Yong	40

Design Note

Hyangdan Idea	Choi Dong-Ho	42
---------------	--------------	----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14]: Jeju	Kim Hong-Sik	45
Past and Present: the Architecture of Jeju	Kim Tae-II	46
Photo Essay: The Role of Architecture in the City	Kim Tae-II	54
The Development and Current Trend of Jeju's Interior Architecture	Lee In-Ho	58
Reading the Architecture of Jeju: An Outsider's View	Hwang Tae-Joo	63
Photo Essay: One Day in Jeju-City	Hwang Tae-Joo	68
The Issues and Prospects of Jeju's Architecture	Kim Hong-Sik	70
Conversation: The Regional,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Jeju's Architecture		76

Architects' Plaza

Cartoon		90
KIRA News		91
Archi-net		94
Competition		100
Overseas Journal		108
Exhibition		115
Members		123
Statistics		12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 6840 · 강북구건축사회/(833-3425 · 김천구건축사회/(934-7166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528 · 노원구건축사회/(933 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8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 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 9158 · 강선구건축사회/(8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832-2'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 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용양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60-8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31)247-8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963-3902 · 평택건축사회/(02)65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84 4121 · 양주지역건축사회/(0345)480 9130 · 양양지역건축사회/(0343)449-238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657-6149 · 여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8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8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8183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 266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869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금주지역건축사회/(0418)9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 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 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632 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56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6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8 · 순천지역건축사회/(0667)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85 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성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883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53)334-8258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3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943-6090 · 강혜시건축사회/(052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93)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6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85)883-4612

■ 제주특별자치도/(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왜 대한건축사협회가 UIA에 가입해야 하는가?

Why KIRA Must Take Part in UIA?

김지덕 / ARCASIA Forum 10 집행위원장

by Kim Chi-Dok

우리나라에는 건축설계 관련단체로 대한건축사협회(KIRA)와 한국건축가협회(KIA) 두 단체가 있다. 이들 두 단체중 대한건축사협회는 아시아 16개국의 국제건축사단체인 ARCASIA에, 한국건축가협회는 UIA(세계건축사연맹)의 회원단체로 각각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국내 건축설계 관련단체가 각각의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특히 실무건축사 관련단체들의 국제기구인 UIA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아닌 한국건축가협회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건축사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한국건축가협회가 국내 건축단체로서 활동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규모와 성격 등을 비교해 볼 때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사업무에 관한 법적인 자격과는 무관하게, 건축사면허가 없는 건축인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회원간의 친목과 건축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시험 및 건축사등록업무, 경력관리를 비롯한 국내·외에서의 건축사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대한 사무조직을 보유한 전문단체이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건축사만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33조에 의거,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일찍부터 UIA회원단체로 가입돼 있어, UIA관련업무는 물론 외국 건축관련 단체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모든 Practice Architect 업무관련 연락이나 정보교환이 형식상으로는 한국건축가협회를 경유하여 왕래되면서도, 실제 국내에서의 실무적, 법적 업무처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ARCASIA 16개 회원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처럼 2개 협회가 국제기구조직에 따로 가입하고 있는 예가 없이, UIA든 ARCASIA든 어느 경우든 자국내의 동일한 단체로 일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WTO체제가 정부차원에서 합의되어 뉴라운드에 이르는 등 격변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는 UIA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외국을 상대로한 협상에 있어서 주요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대내적인 제도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협상에 있어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간의 역할 정리를 위해서도 대한건축사협회가 UIA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내의 건축사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인정하는 등록건축사단체로서, 건축사관련 모든 업무는 물론 건축사 자격에 관한 UIA 국제기준권고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따른 국내 교섭당사자로서 정부측과 더불어 민간측 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건축분야의 국제기구로서 건축교육기준연한, 개업관련 사항, 건축문화 창달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UIA의 규정을 보더라도 "Architect란 국가가 인정한 건축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에 등록하여 개업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회원자격 또한 "건축사자격증을 취득 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 실제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한건축사협회가 한국의 건축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UIA에 가입할 수 있도록 UIA본부에 가입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은 등록건축사 7,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등록돼 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1,200여명의 전체회원중 약 75%가 건축사로서, 거의 모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이중등록된 회원이 많은데, 최근에는 정관을 개정해 건축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정회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사자격자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두 단체에 이중가입돼 있는 실정으로, 단체성격으로 보아 이들 두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더라도 각각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ARCASIA 16개 회원국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얼마전 서울에서 개최된 ARCASIA Council Meeting에서도 대한건축사협회의 UIA가입안을 결의한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후원아래 ARCASIA 회원국으로서 아시아 건축사단체간 정보교환 및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통신원 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각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제10차 아카시아 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폭넓은 국제활동을 해왔다.

특히 현재 UIA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구 가운데 하나인 건축사실무위원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에도 현 UIA회원단체인 한국건축가협회의 공식요청에 따라 한국측 대표자격으로 워싱턴 회의, 북경 제21차 UIA대회의 PPC회의, 1999년 체코 프라하 회의 등 매년 UIA의 PPC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건축정보 및 현황 등을 소개하고 각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밖에 미국의 AIA와 NCARB(건축사등록위원회)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 각국의 건축사제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 발표한 물론, 건설교통부, 대한건축학회와 더불어 건축교육관련 제도 개선, 향후 우리나라 건축학교육과 건축공학교육의 제도개선, UIA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한 정책 등을 연구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과는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축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건축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기 위해 건축사협회가 UIA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지만, 여기에는 건축가협회를 비롯한 우리 건축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일각에서의 우려처럼 대한건축사협회의 UIA가입이 단순히 국제사회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로 잘못 인식되어져 건축인들간의 불협화음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건축사의 의무와 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한국건축과 건축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축계의 대외 협상창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일원화되어야 한다.

한국건축문화대상 이대로 좋은가?

Reflections on the Korea Architecture Award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에 제정돼 올해로 8회째 시행되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 -

그러나 최근 건축계내에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당초 상의 제정취지와 달리 건축상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축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 등과 같은 건축계 일각에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민간이 아닌 관과 언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출품거부 등 단합된 행동으로 건축사가 건축문화의 실질적 주역임을 강력히 천명하지는 문건을 배포해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우리 협회 또한 이같은 건축계의 정서를 반영해 그동안 서울경제신문사, 건설교통부와 공동주최해 온 동행사에 올해부터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당국에 행사의 개선시행을 건의하였다.

대다수 건축사 회원들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향후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진정한 시상제도로 거듭나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축문화창달의 주역인 민간단체가 그 시행주체가 되어야 함은 물론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격려하는 진정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서울경제신문사 등 현 주최측은 건축계의 이같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건축계 전체의 행사인 만큼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건축사협회의 계속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요지의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 인사들을 초빙,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긴급 진단하고 아울러 건축상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해 의견을 듣는 특별좌담을 마련하였다. <편집자주>

일 시 / 1999. 11. 15(월). 14:00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

참석자 / 강석원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대표)

김광문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김석철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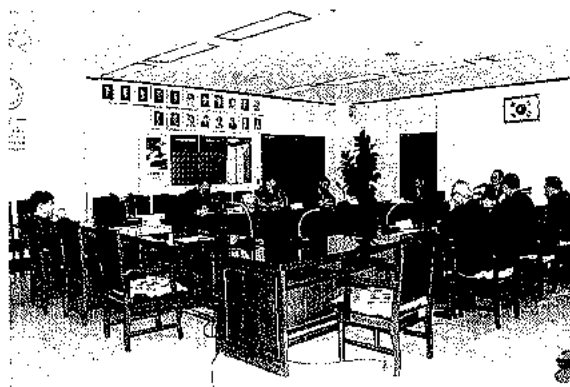
김인철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대표)

박서홍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안길원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병담 (현대산업개발(주) 부사장)

최영집 (사회/탐건축연구소 대표)



좌담장경

최영집 _____ 건축상 문제로 인해 올해처럼 어

수선했던 적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건축상이 거듭나기 위한 진통과정이자 건축상을 보다 권위있고 자랑스럽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건축계의 관심과 애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죄담은 국내 건축상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특히 올해 논란이 됐던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란 문제도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일반적으로 건축상이란 것이 어떤 목적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김석철 선생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석철 _____ 오늘 논의될 사항이 건축상 일반에 대해서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까지 한 데 묶어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강석원 _____ 사회자께서 오늘 죄담의 목적이나 전후사정을 먼저 간략히 말씀해 주신 후 논의에 들어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최영집 _____ 아시겠지만 현재 건축작품상의 성격을 지닌 시상제도로는 한국건축가협회의 대한민국건축대전이 있고, 서울시건축상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우수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건축시상제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환경문화상에도 건축부문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기성 건축사의 작품과 신인 학생의 계획작품을 심사해 시상하는 한국건축전을 지난 1971부터 개최해 오다가 1994년부터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와 함께 한국건축문화대상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출범당시의 취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신문사가 공동주최를 하다보니 각종 부작용도 생기고 상의 권위에 누를 끼칠 만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점차 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입김들이 커지게 되고 건설교통부 또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주도하려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를 맡으셨던 강석원 선생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 발단 과정을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신 후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계속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원 _____ 새로운 상을 제정한다든가 개선사

키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에서 사회자에게 건축상에 대한 사전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셨던 김광문 교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작년 심사위원중에는 정신과 의사라던가, 언론사 임원 같은 비전문가가 몇 분 계셨습니다. 심사위원 구성부터가 문제가 있었거니와 공식적으로 심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모 건설회사로부터 탈락사유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날라와 심사위원들을 어처구니 없게 했는가하면 현장실사를 위해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방을 다니는 중에 동행한 다른 모 심사위원으로부터 특정 건축물이 꼭 수상작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권유를 받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명칭 그대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심사하는데 있어 수준이하의 작품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한 데도 관례를 들어 특정 작품을 입상하게 하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심사가 끝나고 시상식 행사에 초대받게 되었는데 시상식 당일 신문사 측이 배포한 16면 짜리 한국건축문화대상 특집을 보았더니 심사평도 일부 심사위원의 글만 실리고 중간에 이의제기를 했던 심사자의 글은 빠져 있었던 것은 물론, 심사할 때 내용증명을 보냈었던 모 건설회사가 시공한 건축물이, 심사위원들이 선정하지도 않았는데 특별상을 받은 것으로 전면 축하광고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가의 양심으로 보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 건축사협회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더군요.

최영집 _____ 강석원 선생만 심사에 참여하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심사를 맡으셨던 김광문 교수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문 _____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박서홍 _____ 단편적으로 몇몇 문제점들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사항을 보충설명해 드리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크게 준공건축물 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으로 나누어져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계획건축물부문은 학생과 신인들을 대상으로, 준공건축물부문은 최근 국내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준공건축물부문이 건설회사, 특히 아파트 시공업체들의 경연장화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주최자의 성격에 관한 문제로

서,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를 하는 이상한 제제이다보니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인식하는 각각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해 언론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행사에 공동주최자 이상으로는 행동할 수 없는데도 어느 시점에서부터 정부표창을 끌고 들어온 것이 힘으로 작용해 주최자 이상의 입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아파트 때문에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해 심사하다 보니 주거쪽에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건교부 건축과의 입장이 있는데 건축과로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유일하게 대외 행사에 관계하고 기여하는 행사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상에 연연해 하고 미련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경제신문사의 입장 역시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정부표창을 영업전략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전제로 하다보니 여러가지 심사와 정에서의 파행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원사의 문제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전체 행사비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 반을 4개 후원단체와 건설교통부가 부담해 왔습니다. 후원단체는 건설교통부 산하의 4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이 주택관련분야의 단체들입니다. 그러다보니 후원단체들도 본래의 순수한 후원 개념에서 벗어나 자기 회원사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 시행위원회에서 모 후원단체를 대표해 나온 인사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원금 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후원에서 탈퇴하겠다고며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뜬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최영집 잘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원래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함께 자리하지 못하신 윤승준 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일전에 만나 빈 적이 있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길 초창기 자신이 심사를 맡을 당시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번질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건축사협회에서도 작년에 발생한 문제점 때문에 올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결국 공동주최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자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는 여러차례 협회의 계속적인 참여를 요청해 왔고 협회가 불참 의지를 바꾸지 않자 결국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만으로 행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대해 건축계 일각에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 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상들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일단 올해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불참을 했지만 이 상태로 가도록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는가란 자성의 목소리가 뜨거웠고 건축사협회 역시 어떤 형태로든 건축상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서두로 되돌아가서, 한국건축문화대상 문제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국내 건축상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순수하게 건축상이란 것이 어떻게 됐으면 좋을 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거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석철 선생께서 계속해 말씀해 주시죠.

김석철 일반적으로 건축상이라 하면 'PA



Award' 와 같이 계획안을 심사해 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AIA Award' 처럼 건축가단체에서 매년 준공된 작품을 대상으로 우수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AIA Gold Medal' 과 같이 평생의 건축적 업적을 기려 시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우리의 경우는 'AIA Award' 와 같이 매년 건축가들을 대상으로한 시상제도가 대부분입니다. 건축가협회상이나 각종 지자체 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이들 상 모두를 하나하나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건축사 뿐만 아니라 시공자나 건축주에게까지 상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건축물이 설계자와 시공자, 건축주가 더불어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라고 하는데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외국에도 많은 건축상이 있지만 시공자나 건축주에게 상을 주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음악이 연주될 때 연주자에 따라 감동이 다를 수 있는데, 건축은 단 한번 연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건축사협회가 주최하면서 시공자에게 상을 주고 거꾸로 시공자들의 잔치가 되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하나 강석원 선생의 말씀처럼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위원직을 사퇴하든지 문제제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PA Award' 같은 경우면 전문가들만 참석해야 되지만 준공된 작품의 경우에는 건축가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Pritzker Award' 같은 경우에는 반야상이 건축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거, 비주거를 구분해 꼭 주거용 건축물이 입상할 수 있게 하는 문제도 심사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작품을 내지 않았지만 심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돼서 사퇴하려고 한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심사위원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도해 온 행사라면 건설교통부나 서울경제신문사가 빠져야지 왜 협회가 불참을 할니까?

최영집 네,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건축을 창작하는 주역의 가치, 기여도, 그런 노력을 기리기 위해 주는 것이 건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이 과연 건축사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나, 건축주가 발주를 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해야만 건축물이 탄생되는 것이니까 건축사에게 상을 주면서 건축주와 시공자도 더불어 상을 주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건축가협회장상은 상금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별 문제가 안되는데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수상 작품이 광고처럼 곧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부각돼 버리니까 규모가 큰 아파트나 대형 건설사에게 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상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하게 아닌가 봅니다.

작품의 창의성이나 시대적 가치 등을 기리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무래도 이병담 부사장께서 건설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병담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점차 상업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울경제신문사도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했겠지만 아무래도 언론사도 하나의 기업이고 보면 상에 따른 부상, 막대한 경비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후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으리라 봅니다. 후원단체들도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상 자체를 프로모션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컨센스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쟁사회에서 상 받은 사실을 어떻게든 프로모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순수성을 잃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설계자, 설계작품의 상이 되어야 하고 부상 등 불필요한 경비를 대폭 줄인다면 비교적 좀더 순수성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발주자인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상을 주는 것도 좋은 건축물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 상호 지원과 협력이 잘되었고, 실력있는 설계자를 만나면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시작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듯합니다.

최영집 몇 년 연속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이나 하며 주택건설 업체들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아파트 부분은 주택관련 협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상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응모하셨던 분도 참석해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이병담 제가 한가지 더 첨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설계가 잘된 프로젝트에 상을 주고 있는데, 건설회사들이 전략적인 사이트를 선택해서 만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가 가져야 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가게 아니라 단일 프로젝트를 평균이상으로 부각시켜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프로모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최영집 시공회사들을 대상으로한 건설대상이란 시상제도가 새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점에서 이런 상 저런 상 해서 상들을 새로 만드는 것은 결국 경제적 목적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김광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광문 건축가협회상, 서울시건축상, 환경문화상 등 많은 시상제도가 있는데 나라가 발전하고 성숙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상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건축가협회가 행사에 불참하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분야의 시대적 산물을 매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신인 학생들이 무엇이 좋은 건축인가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유지시켜 나가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의 경우 지난해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비전문가의 심사참여 뿐만 아니라 시공전문가의 참여 역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현상설계의 경우도 보면 설비전문가, 구조전문가 등이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건축전문가의 입김이 약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사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나 예산이 문제가 돼서 현장심사를 소홀히 하는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공단체라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당장 그만 두기 보다는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면서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집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작품상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건축사협회 이외에도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등이 있습니다. 김인철 선생께서도 건축상의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김인철 앞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은 건축계 내부에서 본 것들입니다. 외부의 시각에서 본다면 상의 권위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건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한국건축문화 대상의 권위와 의미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잔치쯤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주최측에 경제신문사가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언론사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경제지인가가 문제입니다. 상의 성격과 홍보가 건설중심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 회를 거듭하는 동안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곳에서 뉴스를 독점하게 되었을 때 다른 일간지나 방송사 등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의 생리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을 만들어 시행하는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바람직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시상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라고 하는 삼위일체식 발상은 전근대적이고 계몽주의적인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좀더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문제는 기술의 분야로 독립시켜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상의 명칭도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올해를 '건축'의 해라고 하지 않고 왜 '건축문화의 해'라고 하는가와 같은 맥락에서 '건축상'으로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자재와 기술관련 전람회에서 구색 갖추기용 틀러리로 동원되는 것도 짚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최영집..... 어쨌든 지금까지는 건축이 문화라는 측면보다는 건설이나 경제, 부동산,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 문화로서의 감동이 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래들어 더욱 '건축문화'라는 용어를 자주 쓰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언론과 손잡고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시작했는데 그 언론이 경제신문이다 보니 우리가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인들 중에는 국내 건축상을 가운데 한국 건축문화대상이 가장 실리있는 상이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상으로 건축탐방의 기회도 주어지고, 그나마 신문에도 날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공동주최를 하다보니 대통령표창과 같은 정부표창이 주어져 수상자의 경우 PQ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실적이 축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길원 선생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원..... 대한건축사협회는 현재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위상을 알리고 동시에 우수 신인·학생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건축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출품거부 파문이 일게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 경제지가 주최하는 아파트 시상제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파트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이를 선전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하나의 타운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모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아파트가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 역시 왜곡되어져 언론사의 영업전략에 의해 본래의 의도가 단절이 되는 등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인철 선생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 언론의 속성상 어느 언론사가 주최한다든가 후원을 하게 되면 타 언론기관에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거기엔 언론사간의 경쟁심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한 언론사가 먼저 정보를 쥐고 기사화하게 될 경우 뉴스로서의 가치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게되는 데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제가 몇 년전 협회 이사직을 맡아 일을 할 때도 많은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많은 경비를 부담하면서도 주최자로서의 입지가 희석되고 해서 그 때도 불참여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결국 올해부터 불참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건축상을 다시 부활시켜 회원들의 위상도 제고시키고 또한 좋은 건축물을 디자인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건축상이 건축사, 건축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 나아가 건축3단체가 심도있게 논의해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영집..... 물론 아파트도 건축이므로 건축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가 꼭 상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부탁드리기는 건축상을 통해 얻게되는 실리적인 측면에 대해 여쭙았는데 수상경력이 있으신 안선생께서도 PQ가산점 등과 같은 혜택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안길원..... 서울시건축상처럼 관이 주최하는 건축상에서는 여러 혜택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영집..... 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최한 건축상에서도 가산점 혜택 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길원.....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영집..... 건축계 내에서는 가산점을 받아 좋다는 분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자유경쟁시대에 그런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후 다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가협회상이나, 건축학회상, 또한 현재 방향을 겪고 있는 건축사협회의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건축계내

에 여러 시상제도들이 있는데 건축가협회장을 역임하신 강석원 선생께서 향후 건축사협회의 건축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한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석원 _____ 저로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지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년 이 행사를 해오다가 문제가 생겨 울 해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두 공동주최기관을 이 행사에 빠지게 했다가 그들이 우리를 제외시킨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김교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행사를 해오다가 심호흡을 하기 위해 잠시 중단한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단추부터 다시 끼운다는 자세로 보다 혁신적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상을 만들기 위해, 건축사협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인사까지 포함한 소위원회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제 경우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외국을 나가면 그 해 그 나라에서 어떤 우수 건축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점을 찾아 그 해 건축상작품집을 찾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아까 김인철선생 말씀처럼 특정 언론사의 행사에 여타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에 관심을 갖고 상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조직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갔을 때처럼 외국안들도 한국을 찾았을 때 올해 어떤 우수 건축물들이 상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말이죠. 즉, 그 해 문화의 척도와 홍보를 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영집 _____ 신문사와의 공동주최는 별 의미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듯 한데 건축사협회만으로 단독 행사를 추진할 경우 신문사 역시 현 한국 건축문화대상을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 한국 건축문화대상의 명칭 사용문제가 생겨날텐데 98년도에 시행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박서홍선생께서는 그 행사명칭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서홍 _____ 그보다 앞서 몇몇 분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잠시 거기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 두 개 부문에 걸쳐 시상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얘기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계획건축물부문은 미래의 건축사 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 출발했다는 점

에서 준공건축물부문과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명칭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설교통부가 92년에 이 행사를 처음 제정해 출범시켰고 협회는 94년부터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경제신문사에 그 소유권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회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시상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또 21세기를 맞아 건축상의 순수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도부터는 건축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상제도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PQ가산점 부여 문제는 행사를 어디서 하든, 누가 하든간에 배제될 것으로 봅니다.

강석원 _____ 저로서는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을 구분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요?

최영집 _____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학생을 포함한 신인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과 기성 건축인 대상의 준공건축물부문에 구분해 응모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주로 준공건축물부문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계획건축물부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강석원 _____ 세 술은 새 부대에다 담는다는 자세로 건축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국내 건축상이 대개 유사한 형태와 방식을 지니고 있고 또한 모 건축상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 다른 건축상에서도 상을 받는 등 차별성이 없는 만큼 건축사협회의 차별화된 건축상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인철 _____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가 당장 통합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서로 성격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 건축가협회의 대한민국건축대전은 신인등용의 성격이 되고 건축사협회는 건축의 완성도와 작품성을 따지는 쪽으로 역할분담이 나누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획부문의 주된 출품자들이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성격의 행사들이 겹치는 것이 결코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같은 의미의 비판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고 여겨집니다. 준공부문에서도 건축가협회상과 건축문화대상이 겹칩니다. 상이 많아 기회가 열려있어서 좋다는 관점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보면 혼란일 뿐입니다. 나누어주기보다 제대로 정리해서 대중적인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격의 구분만 확실하다면 그때따른 다른 종류의

시상제도도 있을 수 있겠지요. 내부적인 논공행사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최영집___사실 건축상은 건축계의 얼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만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건축가 협회는 오래전부터 신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건축대전을 운용하고 있고 준공부문에서는 베스트 세븐이라는 상을 주고 있으므로 건축사협회가 새로 제정하는 건축상은 건축사협회만의 컬러를 갖도록해 차별화, 전문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철___이미 상을 받은 작품이 다른 상의 후보에서 제외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배타적 이기주의보다 폭넓은 사고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학예회나 장기 자랑대회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전문가집단의 전문적인 결과로서 내부적인 공감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제 손으로 올가미를 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영집___아시겠지만 건축대전은 건축가협회 뿐만이 아닌 범건축계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의 새로운 건축상도 범건축계의 권위를 부여해서 매년 시상제도로 권위있게 발돋움 해가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강석원___예전에는 건축가협회나 건축사협회의 건축상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지금은 각 언론사나 자치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나서 혼란스러운 감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협회가 새로 만드는 건축상은 상의 권위나 형식, 내용 면에서 독창성이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최영집___물론 운영의 묘에 달린 것이겠는데 어쨌든 전문가단체인 건축사협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건축사작품, 다시말해 준공부문의 시상을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나 언론에서 시행하는 건축상과는 별개로 건축분야의 권위있는 단체가 수여하는 건축상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건축사협회의 건축상은 반드시 설득력이 있어서 건축사단체상이라는 특별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문사가 행사를 계속 독자적으로 운영하든 어떻든 우리 건축상에서는 배제되는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건설교통부의 주최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들을 안하셨습니다. 과연 2000년대에도 관이 건축상에 개입해 주최 또는 후원을 해야하는지, 그동안의 관행으로 봐서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비중이 크니까 관이 개입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협회 임의단체 문제 등이 거론되는 등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의 계속적인 참여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건축사를 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으신 김광문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광문___저 개인적으로는 관이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관이 개입되면, 이쪽 저쪽 눈치를 보게될테고, 순수한 뜻에서 작품성을 본다는 차원에서 PQ가산점 부여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축사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타 공모전이 아닌 협회의 건축상에 응모

할 수 있도록 권위있는 시상제도를 만드는데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건축문화대상 심사를 하면서 다소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낀 것이, 제출된 작품자료들의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앞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그런 경우가 더욱 더 많아지리라 보는데, 외국건축사와의 공동작업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괜찮은 작품들이 출품조차 되지 않은 점도 아쉬웠습니다.

또 한작품이 여기 저기서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에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싶습니다. 매년 수상작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작품집 제작 및 보급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최영집___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하면, 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건축상은 존속돼야 하며 준공부문의 권위있는 에뉴얼작품상 성격이 되는게 좋겠다, 그리고 시공자나 건축주는 수상작의 주역이기 보다는 건축물이 있게한 협조자로서 예우는 하지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타 단체의 건축상과 조율해서 중복되지 않게 차별화 됐으면 좋겠다. 신문사나 관은 주최자로서 존속하는 것 보다는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WTO체제하에서는 우리 건축물이 우리 건축사에 의해서만 설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건축물이 국내에 지어진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건축사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임의단체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축계가 지금처럼 여

럿으로 나눠져 있어야 하는지, 통합을 해야 하지 않는지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장개방 문제라든가 건축상 문제 등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좀더 진지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인철 상의 운영방식에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응모해 온 작품을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타당한 방법론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표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선정위원회가 항상 가능하셔서 후보작을 체크하고 그 결과로 노미네이트된 작품들을 제출받아 수상작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최영집 예전에는 건축계내에 홍보매체가 별로 없어서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가협회에서는 건축잡지나 기타 매체를 통해 한해 동안 발표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을 발굴해 시상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많이 해왔습니다. 본인의 참가신청이 없더라도 미리 작품을 선정해 출품을 권유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 수 있겠죠.

김석철 오늘 좌담의 핵심은 아무래도 한국건축문화대상과 건축사협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재생각에는 기왕에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가 수년간 이 행사를 공동주최해 왔는데 올해는 건축사협회가 주최를 안하기 때문에 출품을 안하기로 했다고 해서 저 역시 이번엔 작품을 안냈지만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문제로 그렇거니와, 이 시점에서 왜 관이 계속 주도해야 하느냐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건축계의 큰 행사에 정부고위층 인사가 참석해야 적성이 풀리고... 그렇게 이중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기왕에 상을 만들어 지금까지 같이 해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든지... 제가보기에는 제대로 참여해서 심사위원회나 시행위원회를 통해 협회가 끝나갔다면 서울경제신문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간섭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이 건축계의 중요한 에뉴얼 어워드인데 무조건 과거를 부정하거나 역사를 다시 세우려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달리 심사과정에서 시공자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면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심사위원 선정이나 전체적인 진행을 건축사협회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신들의 유일한 에뉴얼 어워드를 스스로 포기합니까? 제 생각엔 서울경제신문 보다 좀더 큰 신문

사였으면 좋겠더라는 식으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홍보가 더 필요하면 한국일보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하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기왕에 해왔던 것을 깨뜨리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안됐을 경우 협회가 아닌 신문사나 관이 빠지도록 해야지, 에뉴얼 어워드 자체를 저쪽에 주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최영집 어쨌든 한국건축문화대상을 건축사협회 혼자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공동주최하기로 돼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예를 들어 경제신문사나 건설교통부는 후원으로 전환하고 건축사협회가 건축상답게 주도권을 가지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죠.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대로 주최하고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는게 1차적 목표일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계속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강석원 저로서는 사회자의 말씀이 납득이 갑니다. 명칭은 바뀌어도 그동안 건축사협회가 18회의 역사를 가지고 해 오던「한국건축전」과 통합하여 현재의 한국건축문화대상이 탄생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사협회에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과 신문사는 2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건축문화대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건축사협회 주도하에 행사를 계속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건축사협회가 임의대로 탈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의 탈퇴인지 아닌지 그런 어휘부터 바르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공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건축작품을 내는 것도 건축사이고 주관하는 것도 건축사협회입니다. 우리가 공동주최를 거부하면 거부되는 것이지, 왜 자측에서 마치 우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서홍 그것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이라는 타이틀 때문입니다.

강석원 타이틀이 그러면... 건축사협회에는 건축사란 잡지가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홍보를 강력하게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됐으면 여기저기서 작품을 내라 말아라 하는 전화도 안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것을 우리가 하는데 왜 다른 데서 딴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건축문화대상이란 명칭을 바꿔 한국건축대상 등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전 김교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관 주도의 행사들이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로 대부분 바뀌었는데 왜 건설교통부가 유독 계속 관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계의 축제를 우리 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시간을 끌어야 합니까? 건축사협회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담 _____ 건축문화대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이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들중에서도 주택업이 비교적 사업들이 많은데, 현재 몇몇 주택관련 단체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 단체들의 후원참여가 없다면 서울경제신문사측도 건축문화대상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지리라 볼니다. 다시말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통한 광고유치가 어렵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의 순수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건축사협회가 목적하는 에뉴얼 어워드 형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주택분야에 상을 주다보니까 건축의 기본에서 벗어나는 작품들이 출품되곤 합니다. 고급 자재를 쓰고 많은 돈을 들인 주택이 좋은 건축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이 소기의 목적을 벗어나 이렇게 엉뚱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행사 주체인 건축사협회가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빠져나와서 독단적으로 다른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좋을뿐더러 외부의 강한 영향력이 문제가 된다면 막아내고, 만일 행사경비가 모자란다면 별 의미없는 수상자 해외 건축탐방 경비 같은 것을 줄여서라도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영집 _____ 건축사협회로서는 준공부문의 건축상 만큼은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정통성을 이어나간다는 차원에서 존속시켜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안길원 _____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예전 한국건축전 때부터 오랜기간 건축상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같은 정통성을 어떻게든 이어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건축상제도를 회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축 3단체가 공조해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출품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영집 _____ 사실 그것은 협회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홍보할 수 있는 일이 못됩니다.

강석원 _____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작품을 내지말자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품기한까지 연장된 가운데 50여작품이 응모해 심사까지 마치고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또 심사에 우리 건축계 원로나 젊은 건축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말해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전에 건축사협회에서 해오던 한국건축전이란 행사명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단체가 이 시점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는 문제제기만 해놓고 세무사항은 건축사협회측에서 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영집 _____ 네, 그럼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건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존속시켜서 전통을 이어나간다는 개념에서,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설교통부는 공동주최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하되, 부득이 서울경제신문사 등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상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로운 건축상의 정통성이나 뿌리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축사협회 만이 아닌 범건축계의 인사들로 가칭 한국건축대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무사항들을 추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또한 계획부문에 관한 것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상의 권위를 높이고 건축계의 에뉴얼 어워드 성격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오늘 좌담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데 미처 못다하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안길원 _____ 저의 개인적인 생각 한가지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학생대상 작품전을 열거해 보니까 공식적인 것만 6개 정도 있습니다. 또 각 대학에서 축제형식으로 하는 작품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품을 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은 3, 4학년이 주가 되겠죠. 앞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

는데 건축사협회가 하는 계획작품상이나 기성작가들의 준공 건축물작품상에 건축가협회나 건축학회에서도 공동참여하마로써 상의 권위를 더욱 격상시키고 나아가 상을 받았을 때 널리 홍보도 해주고 예우도 해줘서 건축작가는 물론 많은 신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축계 내의 건축상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한번쯤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최영집 _____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1차 공청회

A Public Hearing on Architecture Education and License System

대한건축학회와 건설교통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동주최하는 '건축교육, 건축사제도 개선 및 건축교육인증원 발족을 위한 1차 공청회'가 지난 11월 19일(금)과 20일(토)에 대한건축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건축교육, 설계실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축교육의 국제화 및 국내건축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요명제하에 건축 3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하였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이명호(중앙대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교육제도 개선 및 교육인증」에 대해서는 이문섭, 박한규씨가,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에 대해서는 최관영, 박서홍씨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우성(아카폴랜 대표), 정의웅(영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영근(건설교통부 건축과 과장), 정진원(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최수태(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김광현(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김병현(장건축), 김영웅(진원건축), 심재덕(태두건축), 정태화(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 최동규(서안건축)씨가 참여했다. 이번호에서는 건축교육제도 개선분야, 건축교육인증분야,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 분야의 발표요약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건축교육제도 개선분야

On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Education System

책임연구원: 이문섭

연구원: 임창복, 제해성, 이연구

건축은 우리의 삶을 담은 공간을 창조하는 분야로서, 예술, 인문사회 그리고 기술의 종합체이며 또한 시대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건축교육은 건축사와 건축기술자를 동시에 양성하는 이원적인 교육목표하에 많은 건축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 개발과 해외의 건설수출에 큰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독자적인 건축문화 창달의 요구가 높아진 현 시대적 상황하에서 더욱 전문화되고 창의적인 건축인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대한건축학회를 중심으로 건축교육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대부분 구체적인 실천에 이르지 못한 채 제안이나 실험적 시도로 그치고

말았다. 더욱이 1996학년부터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의 일환으로 학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대학에서 건축(공)학과는 타의에 의해 인접학과와 통합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건축전문인력 배출이라는 건축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건축교육문제가 모든 건축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전문인력의 국제적인 상호인정과 국제경쟁력 제고의 요구는 건축사와 건축기술자의 자격과 그에 요구되는 건축전문교육의 수확연한과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등에 일대 혁신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로부터 건축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건설교통부의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건축사자격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대학건축교육제도의 개선방향과 건축교육인증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건축분야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경쟁력 제고와 국제적인 상호 인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수없이 논의되어온 우리 건축교육제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을 정리하면 ① 학제상의 문제, ② 교육과정의 획일화, ③ 자격시험제도의 문제, ④ 건축설계 교육의 문제, ⑤ 교육환경의 낙후, ⑥ 건축교육에 대한 장기적

비전의 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중 건축교육제도 개선분야에 있어서는 건축설계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동향 분석과 함께 외국의 건축교육제도와 국내 건축교육현황을 비교 고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학 교육제도의 개선방안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학교육은 UIA(국제건축가연맹)가 WTO로부터 위임받아 제시한 5년 이상의 교육연한을 이수하여야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건축교육은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공)학과에서 4년제의 학제로 건축사와 건축기술자의 동시양성이라는 교육목표하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국제적 건축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연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건축학교육과 건축공학교육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 건축대학 또는 건축학부에 있어서도 건축사 양성을 위하여 5년제의 건축학부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건축학부 4년제와 대학원 석사과정 2년제(4+2)를 운영하는 대학이 있고, 또한 건축비전공자가 건축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건축비전공학과과정 4년 + 건축전문대학원 3년제(4+3)를 시행하는 대학이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경기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이 건축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 건축교육상황을 고려하여 건축학개선안 학제의 모델로서 ① 건축학부(과)5년제, ② 건축학부(과)4년제 + 석사과정 2년제(4+2), ③ 건축비전공학과 4년제 + 건축전문대학원 3년제(4+3)를 제안하고 있으며, 학위명칭도 건축학사(B.Arch) 또는 건축이학사(B.S.Arch), 건축석사(M.Arch), 건축학박사 또는 Ph.D.를 제안하고 있다.

건축학과와 교육은 건축설계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도시, 조경, 시각디자인 및 사회학 등이 연계되어 교육되어야 하는 바, 실무감과 현장경험이 필수적인 건축설계교육에서 교수들의 실무참여와 실무건축사의 설계교육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건축학교육의 인증평가제도에서는 건축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기본적 지식, 설계, 커뮤니케이션, 실무실습 등으로 구분한 수행평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건축학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학전공 표준교과과정(안)을 위의 3가지 모델별로 제안하여, 각 대학에서는 그간의 건축교육전통의 바탕 위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교과과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교육인증분야

Accreditation on Architecture Education

책임연구원: 박현규

연구원: 전성남, 김형우

오늘날 세계를 지배할만큼 막강해진 미국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미국의 각 전문 연구기관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종합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본, 국민총생산(G.N.P.), 공업화, 문화수준, 그리고 인구조정 등 모든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진 조건 가운데에서도 미국만은 유독, 공업화의 정책을 제일 우선으로 삼아왔다는 점과 공업화가 잘 추진 될 수 있었던 제일의 근간은 튼튼한 공학교육체제였으며 공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제일의 요체가 바로 교육 평가의 방법으로서 인증제도(accreditation)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는 이 인증 제도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한편 미국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장점을 최대의 무기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정신에 반영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쌍무간 협상에서 제일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나라도 W.T.O.의 회원국이 되어버린 이상 궁극적으로 이제 이 인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설계의 국제 시장 개방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 것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부닥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1999년 8월 30일을 기하여 한국 공학 교육 인증원(A.B.E.E.K.)이 설립되었으며 우리 건축 교육 분야도 15개의 공학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의 이념, 교육편제, 교육연한, 수여학위, 교과과정, 교육시설 및 환경, 그리고 입학 및 졸업 조건 등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제도에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국제건축사협회(U.I.A.)의 교육 조건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A.B.E.E.K.의 교육 인증 규정이라든가 평가 기준에 불합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매우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 속히 건축 교육 인증원을 설립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해냄으로써 건축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축설계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한다.

• 건축 교육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건축사협회(U.I.A.)의 교육기준 및 유네스코(U.N.E.S.C.O.)의 건축 교육 현장을 비롯해서 모범적인 몇 개국의 인증 기준에 관한 자료 검토와 연구 분석을 수행한다.

• 우리 나라의 건축 교육 제도 및 건축사 자격 제도상의 미비점과 모순점을 파악하여 국제 상호 인정 수준에 상응하는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에 관해서 연구한다.

•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증원의 설립 주체 및 인증원의 조직과 재정적 근거에 대해서 연구한다.

• 인증원의 설립을 위해서 인증원의 정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 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증 사업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인증연구 지원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그리고 인증 사무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해 연구한다. • 인증 대상, 인증 단위, 인증 기준, 인증 지침, 인증 판정,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인증원에 보고해야 할 사항 및 인증 절차 등 인증원의 인증규정에 관해서 연구한다.

연구 내용의 요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은 인증 기준에서 인증 가능한 프로그램의 종류 즉, 인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최소 5년 이상의 교육 연한이 요구되는 학부 과정 전문학위 프로그램, 건축 관련 (공)학사 학위 취득 후 최소 2년 이상이 요구되는 대학원 과정의 전문학위 프로그램, 건축 비관련 학사 학위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이 요구되는 대학원 과정의 전문 학위 프로그램 등과 같다. 그리고 교과 과정 교육 수행 기준으로 51가지의 구체적인 이해와 능력이 요구되지만 표현 능력, 설계 능력,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건축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건축 설계 실무에 대한 이해 등 5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표현 능력에서는 언어적 표현과 시각적 표현 능력을 개발시켜야 할 것이며 설계 능력에서는 창의력과 종합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로서 역사, 건축론, 인간과 사회의 요구 등이 필요하고 구조, 환경 조절, 시공, 재료 등 건축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건축 경제, 프로젝트 프로세스, 건축사 사무소 경영 기술, 법규 및 제도 등 실무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인증원의 인증 규정에서는 14가지의 규정 항목이 주어지고 있으나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인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건축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설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 인증 단위는 교육 행정 단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단위로 하며 인증원의 인증 규정과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이 만족될 때 인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증 판정에는 5년 만기 인증, 3년 유효 인증, 2년 유효 인증, 인증 불가 등 4가지의 판정 기준에 의한다.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원의 인증 판정 결과에 불만을 가질 경우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으나 만약 인증 유효기간 인증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인증원은 인증 결과에 대해서 해당 교육 기관에 고지하고 또 각종 해당 기업체들로부터 교육 기관들의 인증 결과를 요청해 오면 인증원은 응답해 줄 따름이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원에 보고해야 할 11가지의 사항 가운데 몇 가지 요점만 들어보면, 간단한 교육 기관의 발전 계획 등 소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방향, 발전 계획 소개, 교육과 학문 특성, 교육과 학생, 졸업생의 건축사 등록 현황, 교육과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 자체 평가서, 각종 시설 환경 등 물리적 자원, 교수 직원 등 인적 자원 및 그 개발 대책, 정보 자원 및 시설, 행정 조직 등이다.

넷째, 인증원의 인증 절차에 대해서 보면, 어떤 교육 기관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으면 평가단을 구성하고 교육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체 평가서를 검토하며 필요시 방문 평가를 수행하는 등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상의 인증 절차 일반 규정 외에 24개 항목의 인증 세부 규칙을 수립한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교육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 건축학 교육 인증원(가칭)”을 설립한다. 그러기 위해서 총칙, 회원, 임원, 이사, 감사, 총회, 이사회, 조직, 회계, 해산 등 제 8장에 걸친 인증원의 정관과 인증 사업단 운영 규칙, 연구 지원부 운영 규칙, 사무국 운영 규칙 등 제 7조에 걸친 인증원의 운영 규정, 그리고 제 6-10조에 걸친 인증원의 운영 세부 규칙 등을 수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립 건축 인증원(N.A.A.B.)이라든가 영국의 왕립 건축사협회(R.I.B.A.)등 세계적으로 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건축 교육 인증 제도를 토대로 연구한 우리의 제정(안)이 수립되고 있다. 인증원의 인증 규정을 비롯해서 건축 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의 내용은 우리 나라 건축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국가간의 쌍무 협상에서도 손색이 없는 대안이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증 규정과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건축사협회(U.I.A.)의 건축교육조건에 합당한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연한이 우리 나라의 건축교육기관에서 확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 분야 Architecture License System and its Modifier Methods

건축사제도분야
책임연구원: 최관영
연구원: 최영집, 이관영

건축사보완분야
책임연구원: 박서홍
연구원: 김영섭, 김지덕

1999년 6월 제21차 북경 UIA 총회에서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 즉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건축실무에 관한 전문성의 국제권장기준에 관한 UIA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권고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161개 지역, 국가 단체의 회원이 참석하여 연구와 토론을 거친 끝에 확정된 것으로, 우리나라도 지침안 작성의 주체적 입장이자, 결코 결과를 권고받거나 강요받는 수동적 입장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권장지침이 우리로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구되어 오던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견)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받아들여 우리 건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일대 변혁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1. 상호인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구 분	우리나라 제도를 상대국이 받아들여도록 하는 경우	외국의 자격자를 받아들이는 경우
종 류	• 전체의 Scheme • 우리측이 발행하는 증명서의 주체, 절차	• 전체의 Scheme • 우리측에서 받아들이는 주체, 절차
교 육	• 교육기간/연한 • 교육과정의 내용 • 비대학 수료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 미국식의 3자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 교육기간/연한 • 교육과정내용 • 교육과정전체의 내용, 수준의 평가 방법 • 개인의 이수증명방법, 확인주체/방법
인정/인가/승인	• 도입할 경우 인증의 주체, 인증기준, Scheme • 기본적으로 현재제를 답습한다면 어찌되나	
인턴/훈련/인턴제도	• 인턴기간 • 현재의 인턴도 통산할 것인가? • 인턴내용/수준 • 내용의 증명방법/주체	
전문능력의 증명	• 시험의 수준 • 시험의 내용 • 시험없는 제도(독일, 프랑스) 경우의 대응 • 자격에 따른 업무범위가 다른 경우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대로 범위가 적은쪽에 맞출 것인가 (업무한정면허방식)	• 시험의 수준 • 시험의 내용 • 시험없는 제도(독일, 프랑스) 경우의 대응 • 자격에 따른 업무범위가 다른 경우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대로 범위가 적은쪽에 맞출 것인가 (업무한정면허방식)
등록/면허/증명	• 능력의 증명/보증이란 관점에서 현재 면허 등록제도대로 좋은가? (예: 미국 NY주에서는 면허는 종신이나 업무를 하기위한 등록은 갱신제)	• 등록/면허/증명의 방법, 주체
등록/면허/증명	• 등록 등에 관한 증명방법/주체 • 업무를 하기 위한 건축사사무소 제도와와의 관계	
계속교육	• 어느정도의 의무사항으로 할 것인가 • 계속교육의 내용 • 계속교육이수증명의 방법, 주체 • 면허와 등록의 관계(갱신제도 도입여부)	• 계속교육의 내용 • 계속교육이수 증명방법, 주체

기 타

- 제도개선 이전에 자격을 획득한 기존건축사에 대한 문제
- 시험대기자에 대한 문제

2. 상호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방침

상호인정은 2국간 또는 다국간의 교섭을 통하여 성립되는것이지만, 이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방침에 따르기로 한다.

- 투명성: 국내외의 제도를 비교하여, 투명성과 제3자성을 가진, 이해하기 쉬운 절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다.
- 공평성: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공평하게 합의되고, 우리나라의 발주자, 소비자, 설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특히 업무권한이 서로 다른 경우에 유의한다.
- 상호호혜성: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서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연성: 장래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현 제도와 유연한 대응성을 갖는 내용 체제로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 수시로 재평가를 거쳐 개선한다.
-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우리나라제도의 장점, 독자성을 살리면서, 국제기준(UIA기준, UNESCO 교육 헌장 등)과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 자격제도와 각 과정의 상호통용성: 자격제도의 상호통용은 물론, 교육, 인턴과정, 계속 교육 등 각각의 과정도 국제적으로 통용 또는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주요 내용

3.1 인턴제도

건축사가 되기 위하여는 정규적인 건축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일정기간의 인턴기간을 통하여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야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턴제도는 오래전 부터 내려오던 '도제식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건축교육이 대학이라는 정규교육제도에 편입된 이후에도 인턴이라는 '도제식 교육'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우수한 건축사를 양성하는 책임이 선배 실무건축사에게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지금처럼 단순히 건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인식한다면 개인적, 국가적인 시간낭비일 뿐 아니라 건축사의 자질향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인턴과정은 정규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과정이므로 인턴과정에 선행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확립이 선행문제이나, 연구의 편의상 교육제도가 UIA권장기준과 동등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 제도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인턴제도(안)를 제안하였다.

3.2 건축사시험제도

표 2. 2001~2008년까지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시안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 예비시험			비고	
과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과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건축법규	건축법 건축사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오답복 (자료소지) 객관식을 원칙 구성비 20%	건축계획	건축환경원론 및 건축설비	5%	예비시험 구성비 25% (필기 객관식을 포함)	
				건축계획각론	10%		
				도시계획및단지계획및 조경디자인	10%		
경영관리	사무소 경영관리 윤리	인터뷰/면접 10%	건축이론및 건축사	서양건축사	5%	구성비 10%	
					한국건축사		5%
기본계획 (Ⅰ) 및 건축설계	기초계획및대지계획 설계설명서(에세이/설계 개념스케치/구조및설비에 관한 개괄설명 포함)	실기 구성비 40%	건축구조	일반구조의 이해	10%	구성비 15%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철골구조		5%
	투시도(프리핸드) 배치도	실기 구성비 30%	건축시공	구조역학 사공일반 건축재료	5%	구성비 10%	
	평면도				건축적산		5%
	입면도				공사관리		
	주단면도 단면상세도			실기(free hand)	40%		구성비 40%

※ 장기적인 대안으로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건축사 자격시험만을 시행한다.

3.3 면허와 등록

(1) 건축사 면허와 등록의 개념을 단일화하고, "건축사" 칭호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자격 및 업무등록제의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즉 지금까지의 면허시험이란 개념을 등록자격시험으로 보고, 시험에 합격한 자는 어디까지나 등록자격시험 합격자이지 건축사가 아니다. 등

그림 1. 건축교육-인턴-건축실무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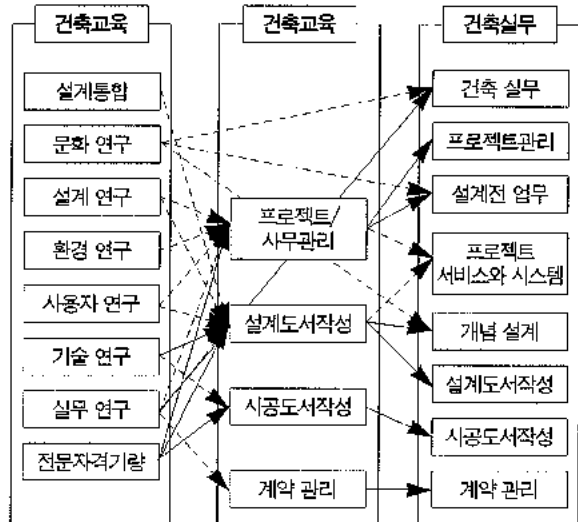


표 1. 각국의 인턴과정 비교

	UIA지침	영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기간	2년(3년)	2	3	2	3	5
내용규정	○	□	○	×	○	×
운영기관/위원회	×	○	○	△	○	△
기록관리기관	×	×	○	△	○	△
교육책임자	○	○	○	×	○	×
조언자	×	○	○	×	×	×

비고1: 관리기관에서 △은 경력관리기관임.

비고2: □은 기록양식의 내용에 근거함(다른 나라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거함).

비고3: 일본은 현 제도에 근거함.

록자격시험합격자는 등록을 함으로써 건축사가 될 수 있다.

(2) 호칭의 사용과 업무권한을 일원화하게 되면 현행 건축사법 상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는 용어는 계속 존치될 필요가 없으며, 등록의 갱신도 현재와 같은 단순 행정위기가 아닌 자격의 지속적 유지 및 개발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갖게 된다.

(3) 건축사의 등록제도를 개인등록으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상호인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진입문제에서도 문제가 될 사항이므로 미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업무 형태는 국내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건축사법에 규정되고 있는 건축사협회의 설립과 회원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은, 면허와 등록제도가 개선되면 건축사를 대표하는 민간의 자율적 기구로 발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건축사법에서 규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건축사의 등록과 갱신에 관한 업무는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며,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실제적인 업무는 여러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건축사등록위원회(가칭)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또한 정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할 경우, 계속교육을 등록갱신의 의무요건으로 함으로써, 건축사의 자질과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3.4 건축사 업무제도

(1) 오해소지가 있는 규제성격은 정리되어야 한다.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97년 여름('97 USTR)호에서 한국에 대한 사항은 "한국의 법과 규제는 너무 포괄적(inclusive)이고 임의적이다. 시장의 접근, 진입에 제한적이다. -너무 많은 법률과 규정, -암묵적인 행정지도, -자의적인 법해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건축사업무에 대한 통합규정을 제정한다.

건축사단체 등의 자율적 규정이나, 건설교통부규정으로 건축사업무를 규정하고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규정의 신설과 여러개로 분할규정된 건축설계도서 작성기준을 통합 한다.

(3) 건축설비 관련 규정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 법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규정의 기술적 규정은 각 법에 의한다고 해도 최소한 건축설계 착수단계에서 시공과 사용검사까지는 한 곳에서 종합조정 할 수 있는 법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건축설계가 따르지 않는 수리나 유지관리는 각 법의 규정에 존치시키되, 건축설계가 따르는 규모의 설계나 공사감리업무는 건축사의 조정에 의하도록 각법의 규정을 조정 한다.

(4) 건축사의 업무를 세분화 하고, 정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책임소재에 의한 분규를 명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계속교육

건축등록위원회에 소속된 계속교육(CPD)위원회는 전세계 계속교육(CPD/CES)위원회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건축사의 기본요건과 프로페셔널리즘을 평생교육의 근간으로 정보 지식의 미래형 프로그램과 안전, 보건, 복지의 공공성 프로그램으로 건축사들을 계속 교육함으로써 스스로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속교육의 결과는 평가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등록갱신의 의무요건으로서 권장되어야 한다.

3.6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경과조치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도 국제기준과 동등성을 갖는 제도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아무런 조건 없이 상호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실시 되도, 새로운 제도에 의한 건축사가 배출되기까지는 빨리도 8~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상호인정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 건축사가 상대국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경우

• 제1안- 협상당시 면허를 소유한 건축사 전문을 인정대상으로 한다. 각국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폭넓게 상호인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WTO의 기본자세라면 상대국의 자격제도를 인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시험이나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이, 상대국의 건축사 자격을 인정하고, 법규 등 필요한 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상호인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교육제도를 비롯한 여러 요건이 UIA기준에 미치지 못한 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상대국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안- 동등성의 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사를 선별 심사하여 우선적으로 협상에 응한다.

이는 1안이 벽에 부딪힌 경우 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교육이수정도를 비롯하여 실무경력,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인격적 소양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국제기준과의 동등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담심사기구가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대국과 합동으로 심사 증명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일단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을 취득한 후에는 상대국의 부가조건에 따라 법규 등에 대한 시험 또는 면접을 거쳐 상대국의 건축사 등록자격을 갖는다. 이 경우 심사에 응하지 않거나 동등성 증명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부분에 대한 보완등을 통하여 재심사를 받거나, 국내 업무에 한하여 종전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상호인정이 상대국의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이라는 전제로 한 것으

로, 만일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세계적으로 상호인정이 폭 넓게 진행되어, 새로운 건축사자격(편의상 상호인정건축사라 한다)이 일반화 됨으로써, 국내 설계업무에 까지 자격시비가 생긴다면 문제가 될 것이나 지금의 정보로는 그러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여러 관계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자격기준에 의한 건축사}가 세계시장을 지배할 것이라 보고 있으나 그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제도개선을 통한 {세계적으로 통일된 자격기준에 의한 건축사}의 배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상대국건축사가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을 갖으려 하는 경우

- 제1안-상대국 건축사 전원을 인정한다: 이는 우리 경우의 1안과 평등성을 갖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 제2안- 상대국의 건축가제도가 UIA Architect 권장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건축사취득을 희망하는 상대국의 건축가는 상대국의 자격증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또는 새로운 관리기구)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필요한 부가 기준에 대한 시험, 또는 면접을 거쳐 건축사 등록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 제3안- 상대국의 건축사제도가 UIA Architect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건축사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상대국건축사는, 우선 상대국 내에서 (UIA-Architect 권장기준과 동등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 증명을 받는다. 이 경우 역시 합동 증명기구를 운영해도 무방하다. 증명을 받은 상대국의 건축가는 (1)과 같은 절차를 거쳐 건축사 등록자격을 얻을 수 있다.

(3) 시험대기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험대기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향후 새로운 제도에 의한 건축사가 배출되는 8~10년동안은 기본적으로 현행시험제도(시험의 형태와 내용은 바뀔 것이나 시험자격은 현행과 같다. 다만 기술자격보유자에 대한 건축사시험 수험자격부여는 본 개선안이 시행되는 시점 현재의 합격자에 한한다.)에 따르거나,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한 요건의 충족으로 직접 {세계적으로 통일된 자격기준에 의한 건축사}로 배출 될 수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는 현행 기존 건축사에 대한 경과 조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후자 역시 심사를 받기는 하지만,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별 문제없이 심사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후자의 경우를 위하여는 인턴제도가 시급히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인턴제도의 시행을 위하여는 인턴제도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인턴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자격있는 건축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인턴제도를 위한 기구의 설립과 자격있는 건축사의 선정방법은 따로 논하기로 한다.

(4)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한 제도적 구제방법은 일단 새로운 교육 제도에 의하여 흡수,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새로운 교육제도만으로 흡수, 정비되지 못하는 인력은 앞으로 시험자격이 바뀌는 8~10년 사이에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긴 기간을 경과기간으로 둔 것은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인력수급으로 보더라도, 5년제(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는 무리하여 건축사를 지향하지 않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건축에 기여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본다.

4. 맺는말

어느 경우건 제도의 개혁은 막대한 대가를 치루게 마련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의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정부 관련부처는 제도의 개혁에 뒤따르는 법규의 제정 등으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교육기관은 교육제도의 개혁으로 재정적,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교육계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며, 이런 저런 관련기구의 설립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존 건축사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제도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계속교육이 그렇고, 상호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 그렇다. 그러나 이 모두가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고,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한 일임에 너와 내가 따로 일 수 없다. 더구나 이 모든 조치가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라면, 누구보다 건축사가 앞장서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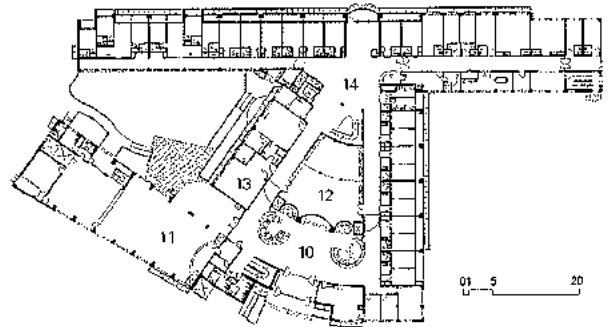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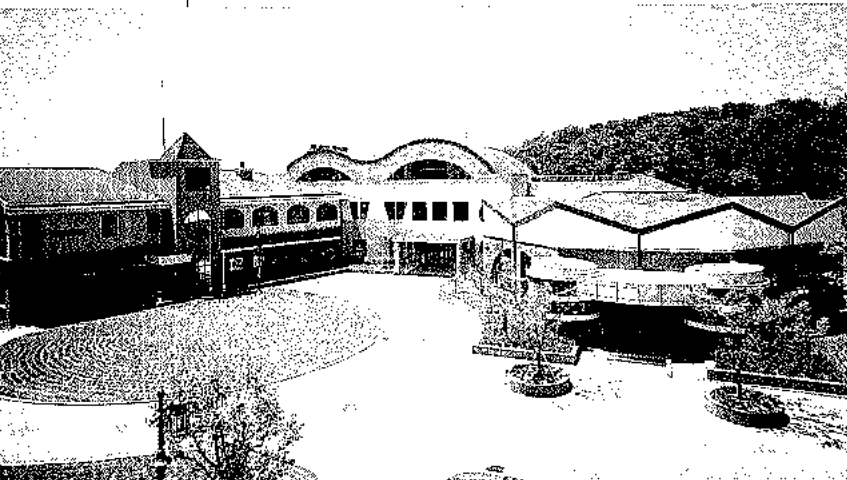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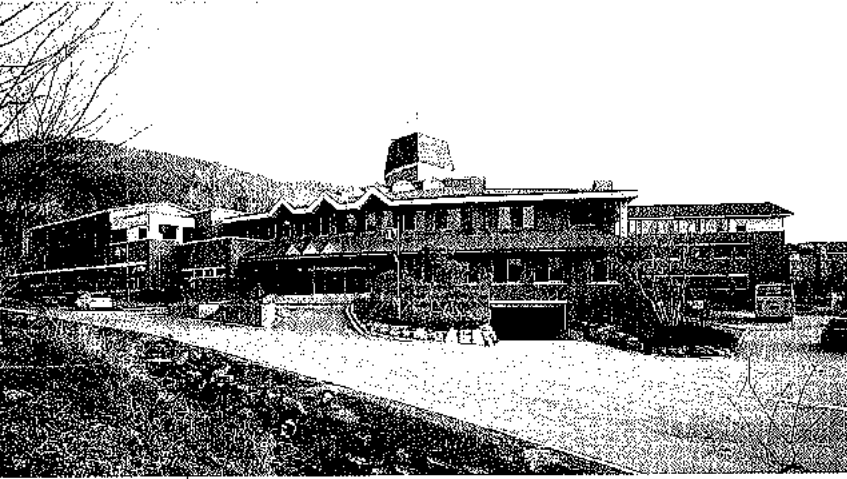
그러기 위하여는 자기 삶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이 고객으로부터 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전문인으로서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다. 행여 이러한 제도개선에 일부 부적격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정진하여 기준에 적합한 전문인으로서 새로 태어날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매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제도란 새로 만들기보다 고치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8~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도 그런 때문이다.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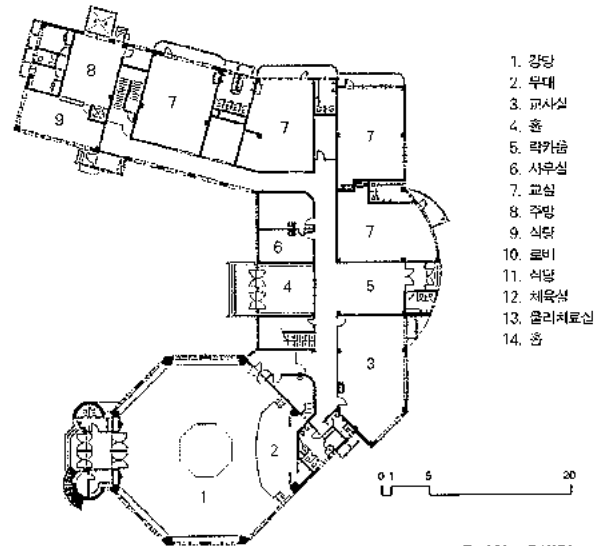
천주교인보회 인보마을(봉사자관/성체유치원)

Blessed Sacrament Sisters of Charity, INBO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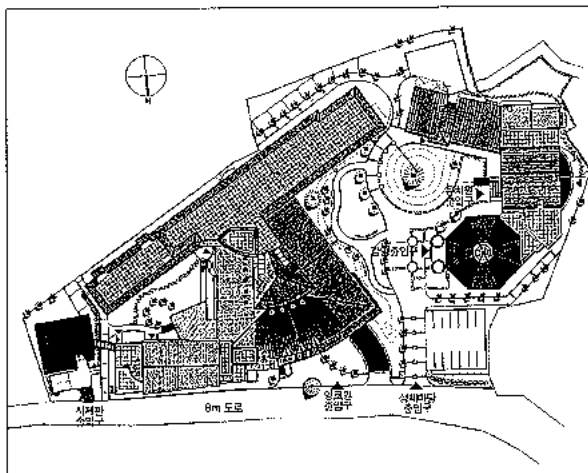
민승별 / (주)한빛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in Seung-Ryeol



봉사자관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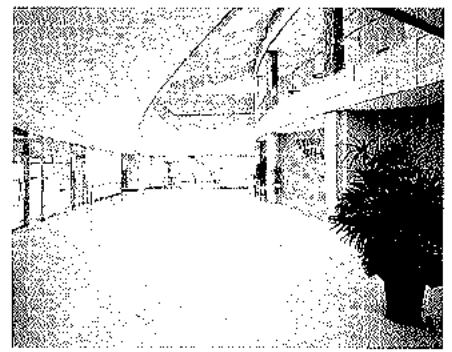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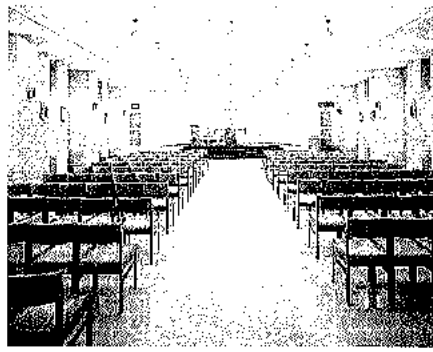
유치원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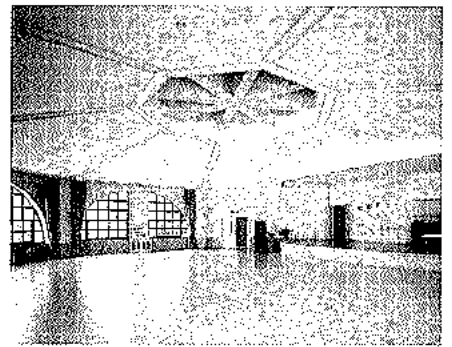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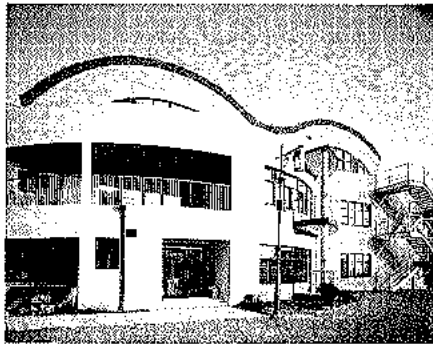
배치도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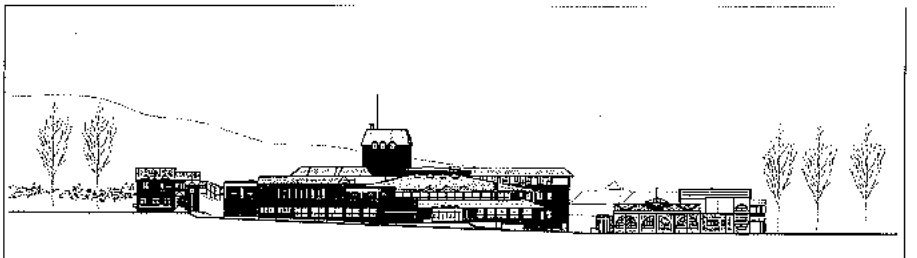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316-5외 13필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
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유치원, 사제관)
대지면적	9,864㎡
건축면적	4,362.77㎡
연면적	11,205.71㎡
건폐율	44.23%
용적률	91.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강당지붕)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이 프로젝트는 인보성체 수도회 수련원 부지에 위치한 양로원과 유치원이 다. 인보마을에는 수련원(인보성체 수도회)과 요한의 집(뇌성마비장애자 치료시설)이 이미 건립되어 있으며, 그 건립처지는 양로원의 노인들이 노성마비아동들을 돌보면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인생의 황혼기를 봉사활동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동시에 유치원 아동들이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장애아동들을 보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감사와 봉사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구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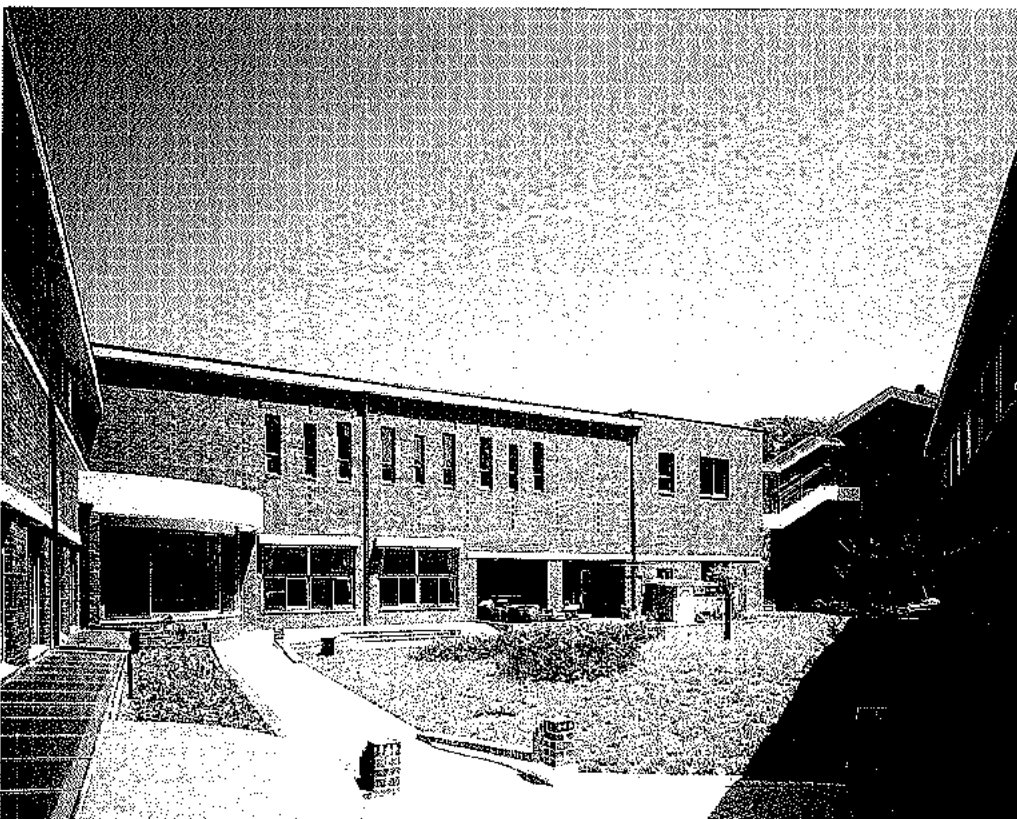
첫째, 양로원은 독실과 부부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향 위주의 배치를 고려하였고, 충분한 장애자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구비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교활동을 위한 성당 또한 마련되어 있다. 한편, 수녀님들 또한 은퇴하실 경우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그리고, 하루종일 노인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난 뒤 개인생활 및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녀원 또한 함께 구성되어 있다.



대지 입면도

둘째, 유치원은 기존의 경직된 박스(Box)형태에서 벗어나 희망과 꿈을 즐길 수 있는 색상과 형태를 배려하였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과 강당을 통해 신앙교육, 건강교육 그리고 충효사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같이, 인보마을에서는 각 세대의 조화로운 공동체상을 그리고 이에 적절한 건축적 배려들을 통해 인보의 작은 "마을"을 구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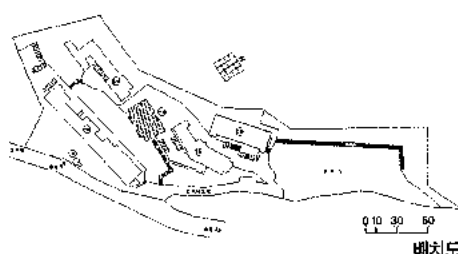
지산대학 도서관 Jisan College Library

박성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부산)
Designed by Park Sung-K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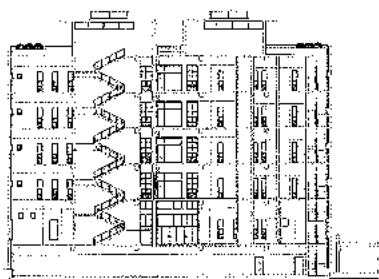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9번지
대지면적	35,973.00㎡
건축면적	847.44㎡
연면적	4,409.88㎡
건폐율	2.36%
용적률	11.4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6층, 지하1층
외부마감	적벽돌 치장쌓기+수성페인트 +알루미늄사트+드라이비트
내부마감	적벽돌 치장쌓기+물소수지도장 +수성페인트
시공	삼양건설산업(주)
건축주	학교법인 성모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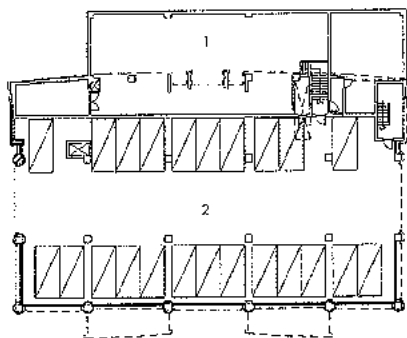
1. 기계실
2. 주차장
3. 관장실
4. 응접실
5. 사무실
6. 로비
7. 휴게실
8. 홀
9. 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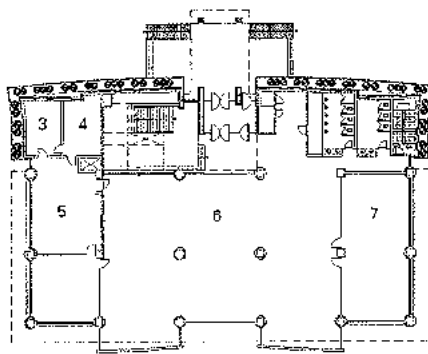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도서관의 충실한 기능, 본관동과의 연결성, 향에 대한 분석, 산 중턱의 입지에 따른 경관, 대학부지내의 최종 마스터플랜 모두를 충족시키는 작업이 되어야 했다. 정문에서 부지내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보이는 건물남 측면은 아래부분은 수직선이 강조된 기둥으로 1층상단부터는 띠장이 주는 수평선을 강조함으로써 이미지의 변환과 개방성을 꾀했고, 반대쪽 진입구쪽인 북측면에는 좌우매스 사이에 연장으로 분절시키고 옥상에는 이 연장의 흐름대로 날개형상의 구조물을 달아 분산시키므로써 건물이 주는 중량감, 둔탁함을 피하고 경쾌하게 보이게 하므로써 뒷산과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으나, 대학측 관계자들과의 의견 차이로 본관의 만남과 연계된 전면공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내부는 북쪽에 코어를 두므로써 명료한 공간배치 및 도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 관리공간의 집약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2층 로비공간의 적극적 활용여부가 대학의 중추적 공간으로써 도서관의 기능과 장소제공의 의미를 확보하는 관건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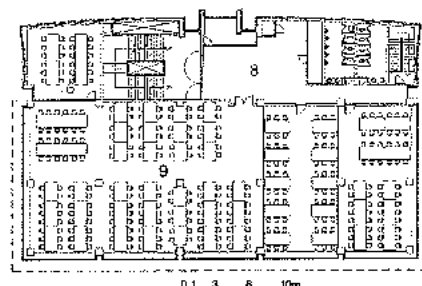
0 1 3 6 10m **침단면도**



지하층/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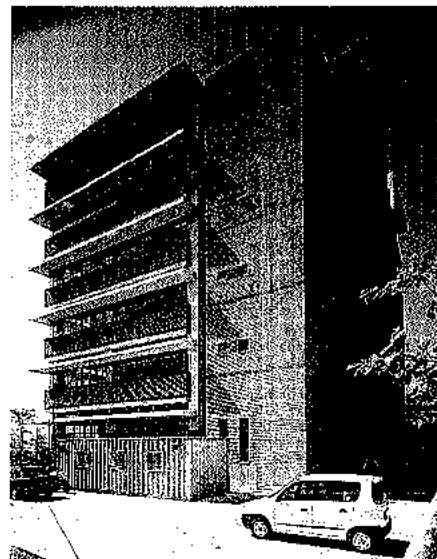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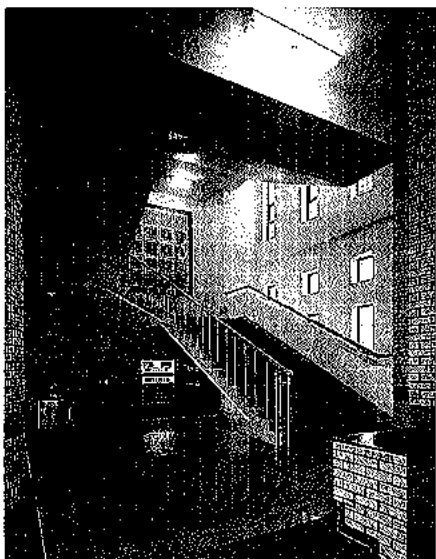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 1 3 6 10m
1 1 1 1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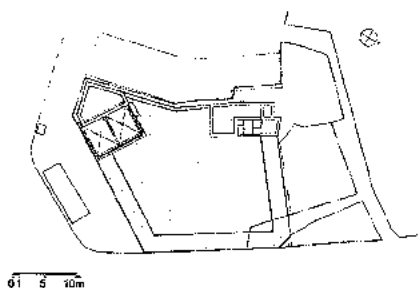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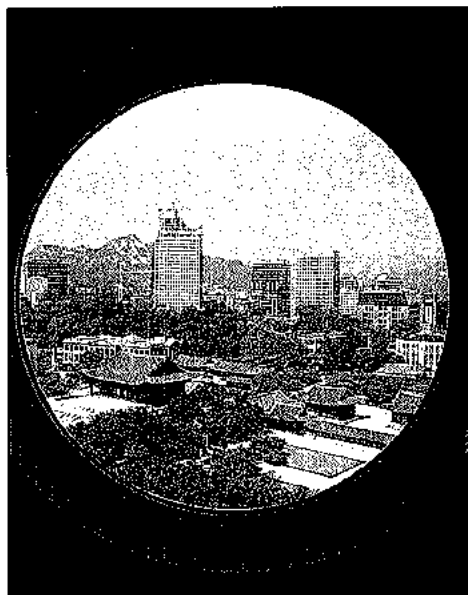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사옥

First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김자호 · 김태집 / (주)간 · 삼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a-Ho & Kim Tae-Jip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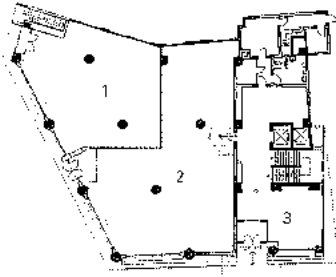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1, 7, 태평2가 370-2(3필지)
지역	일반주거지역(일부일반상업)
지구	주차장정비지구, 1종미관지구, 노선방화지구
대지면적	899.20㎡
건축면적	680.77㎡
연면적	8,640.61㎡
용도	업무시설(사무실)
층수	지하1층, 지상13층(최고높이: 47.8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폐율	75.71%
용적률	960.92%
외장재	①24복층유리, ②3AL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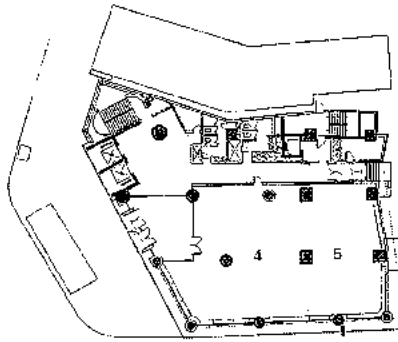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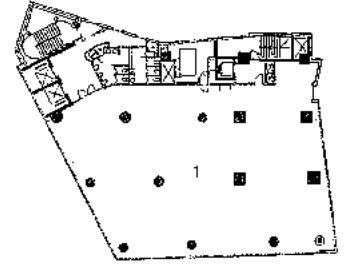
- 1. 사무실
- 2. 중합
- 3. 로비
- 4. 객장
- 5. 영입장



1층 평면도 (변경전)



1층 평면도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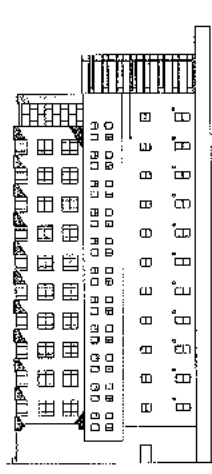


3~1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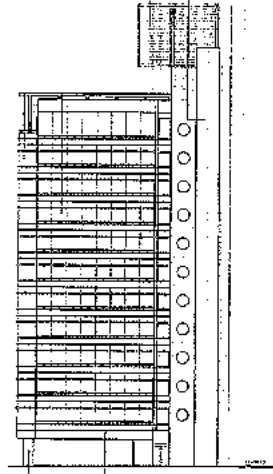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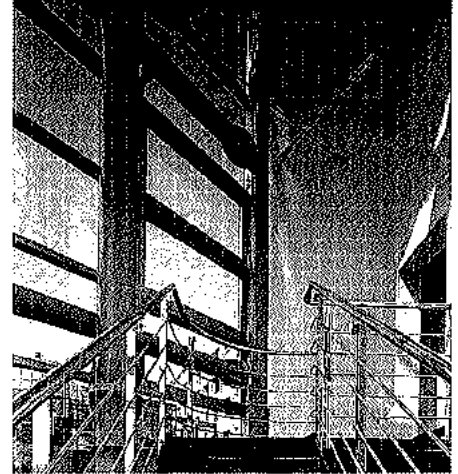
우측면도 (변경후)



배면도 (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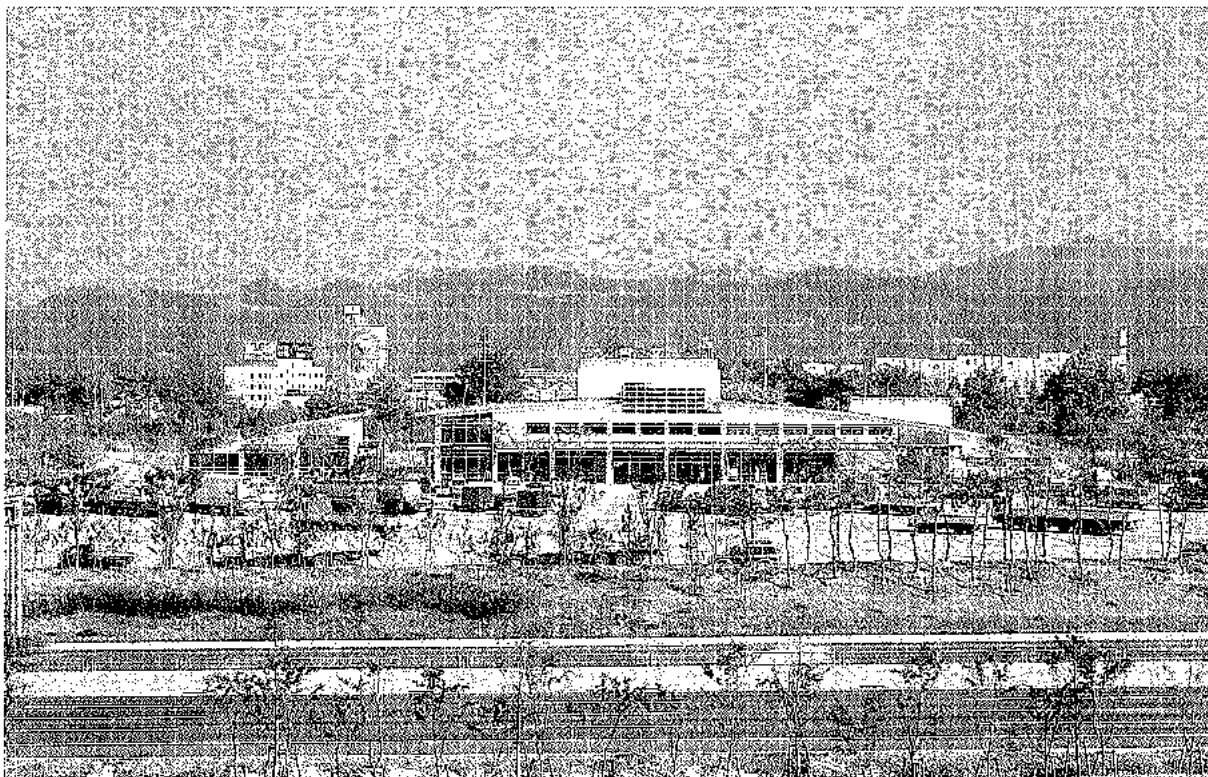
배면도 (변경후)



신탄진(상) 화물차 휴게소 Sintanjin Service Area

안병모 · 이경훈 / (주)유창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Byung-Mo & Lee Kyung-Hoo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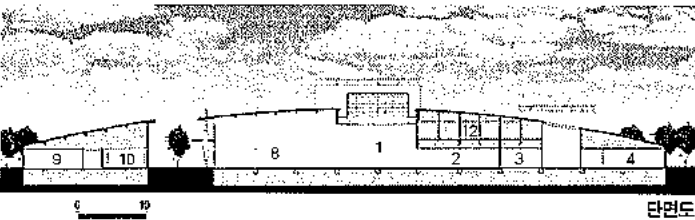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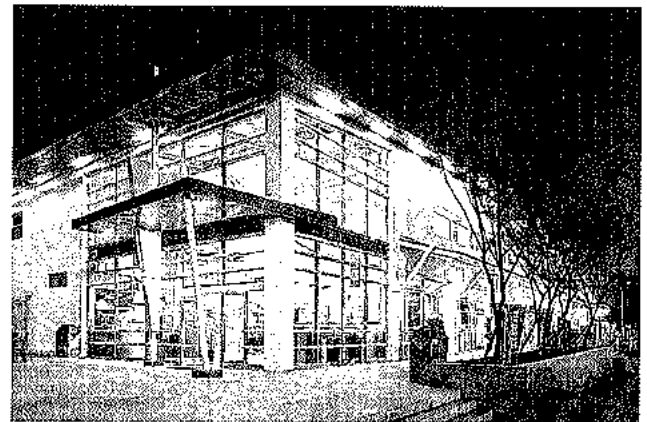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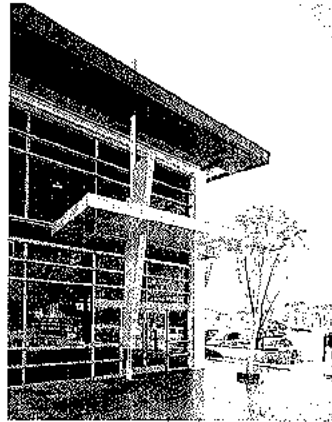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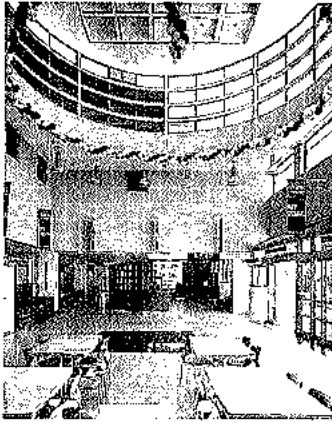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36-1외 72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63,846.08㎡
용도	관광휴게시설(휴게소)
건축면적	1,936.38㎡
연면적	2,793.39㎡
건폐율	3.03%
용적률	3.62%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동판각재심기, 범랑하니컴패널 컬러복층유리
구조설계	단구조
공사기간	1998.8~1999.8
설계담당	차동식, 이창환, 김오전

고속도로 이용 차량증가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의 양적,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과 양질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 최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개념과 조형의 휴게소 건립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의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현상설계의 당선작이며,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조형 및 공간감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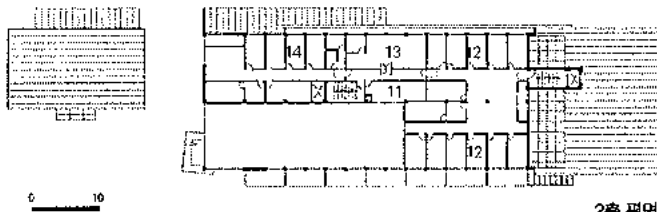
선적이면서 속도감을 갖는 고속도로의 이미지를 간결하고 강력한 곡면지붕으로 형상화하여 전체구성의 틀로 설정, 전개하고 그 곡면의 역동성과 이에 직교하는 접근축의 접점은 '반부 공간' 즉 된 투명 로툰다(rotunda)의 형태로 상징화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선적인 고속도로변에 새로운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다중의 이용객에게 자족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구조적인 조건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과장없는 사실적 전개가 전체조형을 이끄는 일관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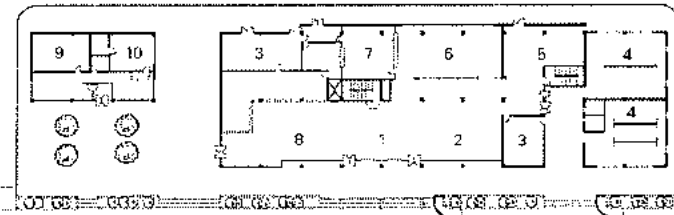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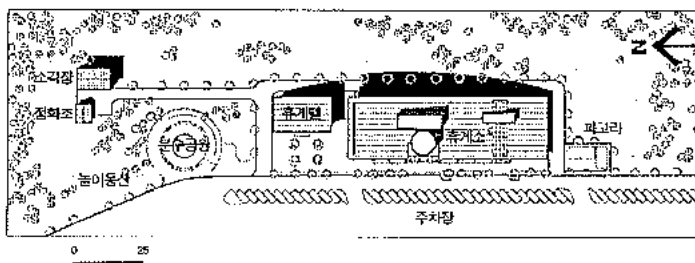
- | | |
|---------|-------------|
| 1. 로비 | 8. 매장 |
| 2. 휴게공간 | 9. 가연실 |
| 3. 창고 | 10. 복욕탕 |
| 4. 화장실 | 11. 소정실 |
| 5. 편의점 | 12. 직원숙소(여) |
| 6. 반식당 | 13. 사무실 |
| 7. 주방 | 14. 직원숙소(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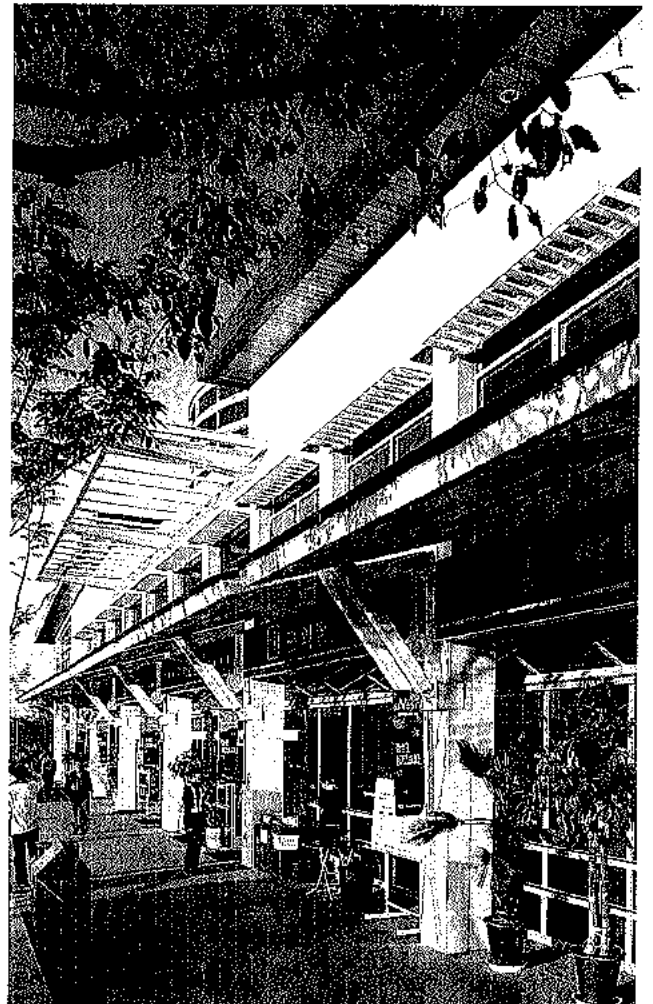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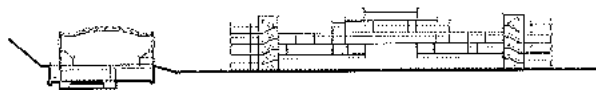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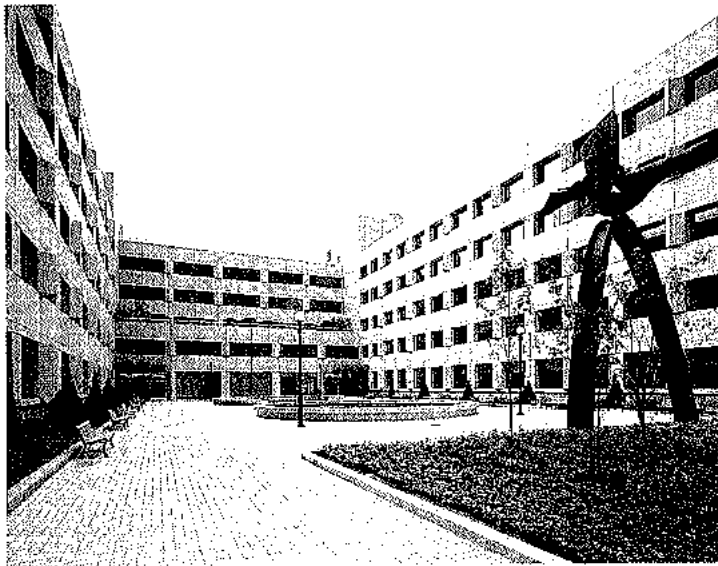
정보통신 공무원 교육원

Training Center fo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ty

이영희 / (주)하림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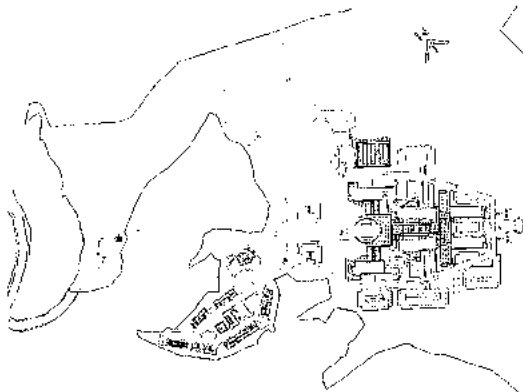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남 천안시 유량동 60-1와 57필지
지역지구 도시계획외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일부)
대지면적 545,437.00㎡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15,734.85㎡
연면적 63,633.26㎡
건폐율 10.50%
용적률 37.6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층수 본관동 - 지하1층 지상7층
체육동 - 지하1층 지상2층
직원숙소등동 - 지상 5층
외장재료 타일 P.C+18mm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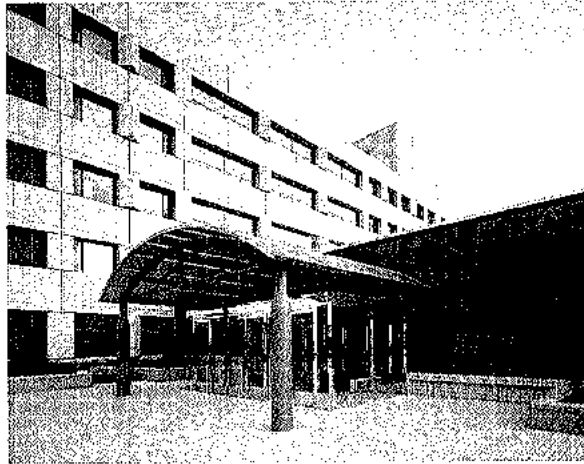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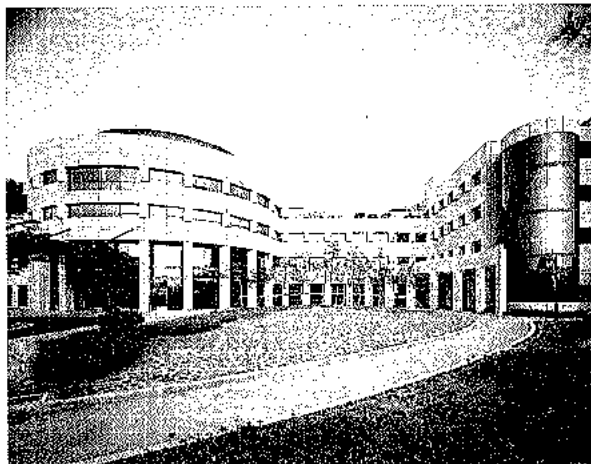
대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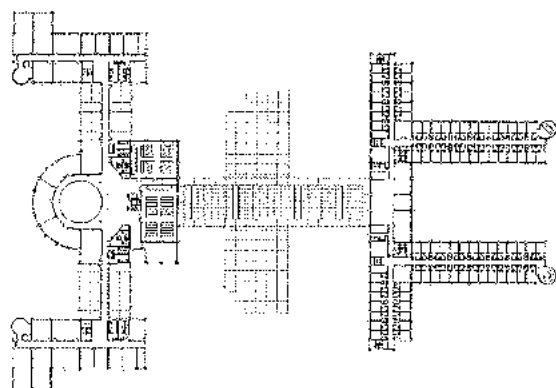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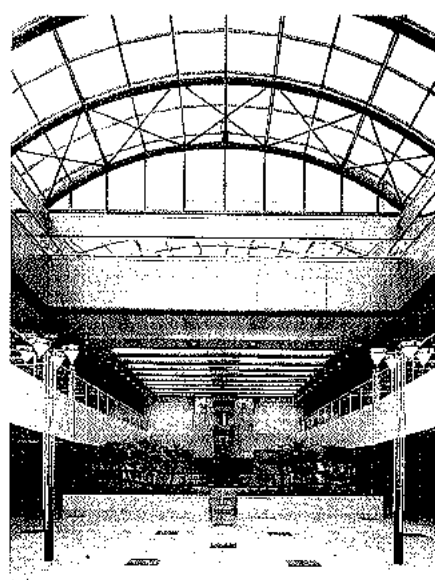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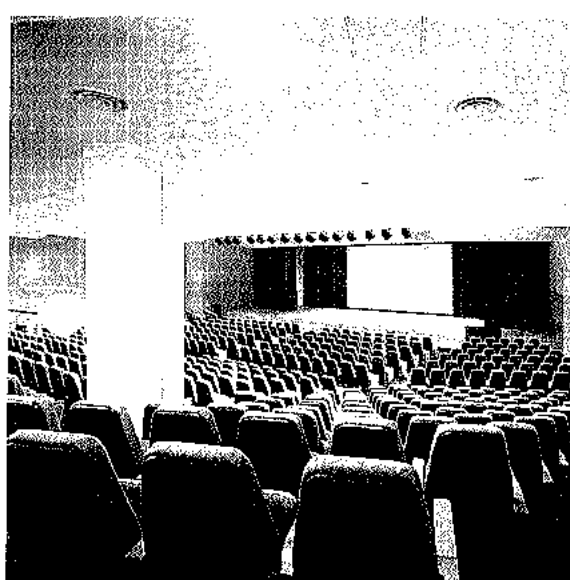


대지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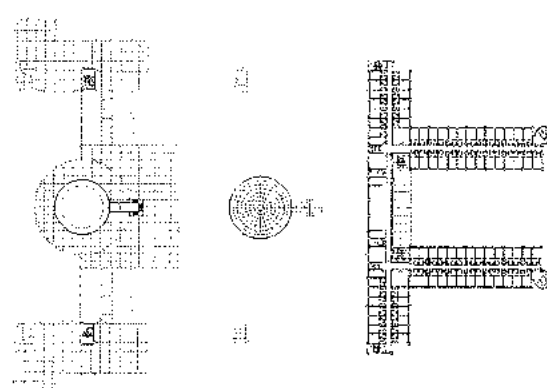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최양업 신부 기념성당(배론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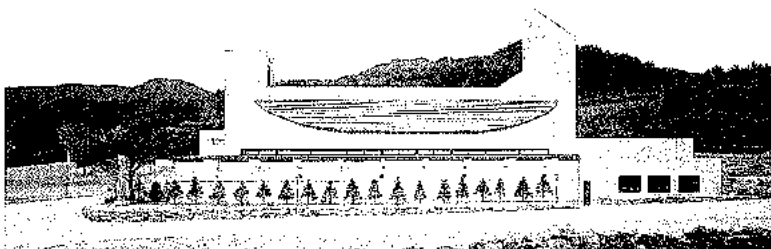
The Priest Choi Yang-Up Memorial Church

박재환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인영배

Designed by Park Jae-Hwan & Ahn Young-B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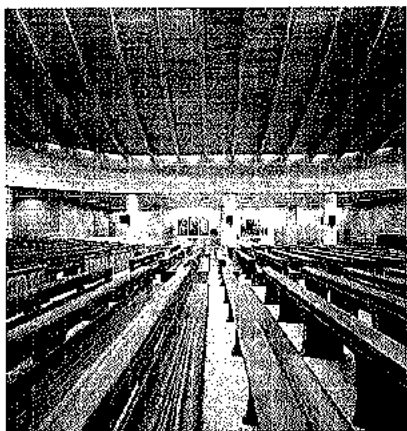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623 와 6필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8,468㎡
건축면적	2,011.68㎡
연면적	2,059.18㎡
건폐율	23.75%
용적률	24.31%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	지상1층
내부마감	신토석벽돌, 목재 마감
외부마감	노출 콘크리트, 베이스 패널
설계담당	박승민, 강성규, 김희주
시공	(주)태흥종합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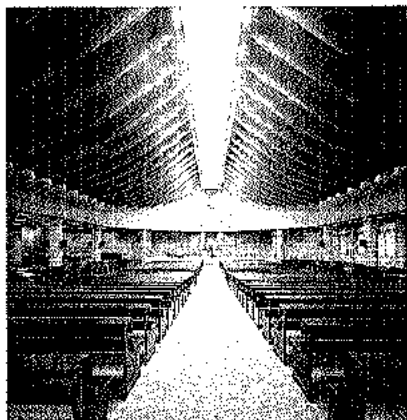
배론은 행정상으로는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로서 치악산 동남 기슭에 있는 구악산과 백운산의 연봉이 둘러싼 험준한 계곡 양쪽의 산골 마을로 골짜기가 배 밑바닥처럼 생겼다 하여 배론이라 불리어 오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와 화전을 일구고 웅기를 구워써 생계를 유지하며 신앙을 키워나간 교우촌으로 황사영이 그 유명한 백서를 쓴 곳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지역이며, 한국의 2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님의 묘소가 있는 원주교구가 관할하는 전국적인 순례 성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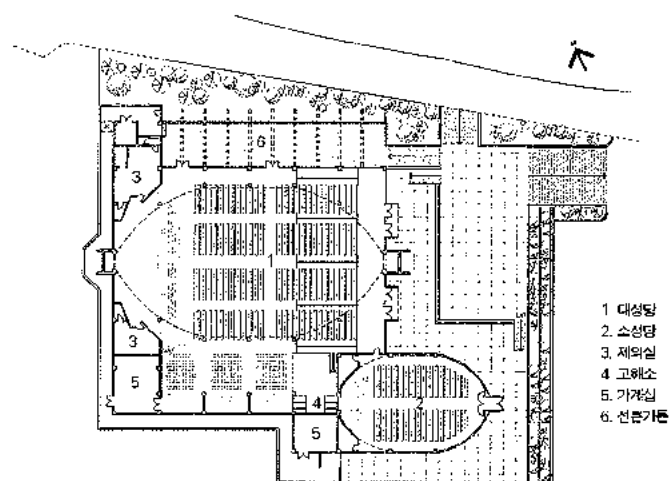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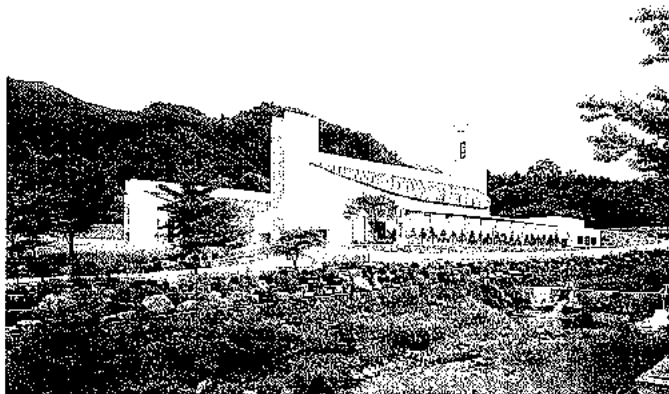
수십 만평의 성지 중 일부만 개발된 기존의 성지에는 황사영이 백서를 쓴 토굴을 비롯하여 순교자 현양탑, 피정의 집, 신학당, 성모동산, 무명 순교자의 묘, 소성당, 성물 판매소 등 전통적인 한국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소규모의 건물과 유적들이 평온한 성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계절별로 순례 신자들의 숫자는 차이가 심해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천여명이 넘게 성지를 찾아 오는데 기존의 소규모 성당이나 제반 시설들로는 성지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부족하고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약 1,000여명과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성당과 소성당을 비롯하여 식당, 관리사무소, 기념관 등을 새로이 계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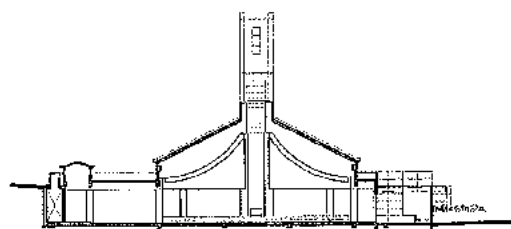
계획 초기부터 대두된 것은 건축양식에 대한 문제였다. 기존의 건물들이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이기에 새로이 계획될 성당의 형태를 기존에 세워진 한옥의 전통양식으로 계획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이며 상징성을 갖는 성당으로 건축할 것인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토론이 있었고, 이를 위한 계획안도 여러가지로 준비되었다. 목구조가 아닌 현대적인 재료와 구조 양식으로 재현될 수 밖에 없는 한옥 형태가 전체적인 성지 분위기나 정서에 맞다는 것은 상식적인 면에서도 틀림없으나, 1,000여명이 수용되는 대성당이 한옥 구조 양식으로 계획될 경우 기존의 소규모의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과 볼륨을 갖게 되고 공사의 어려움이나 특히 공사비의 부담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기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의 결정이 쉽지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이 성당이 최양업 신부 서품 1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성당으로서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 계획된 것은 성지가 배 밑 바닥처럼 생겼다는 뜻으로 배론이란 이름과 어울리는 성당의 형태를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하는 배모양으로 만들어 기념성과 상징성을 들어내는 계획안을 구상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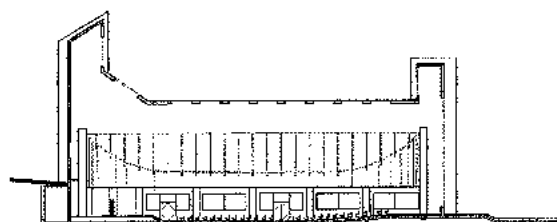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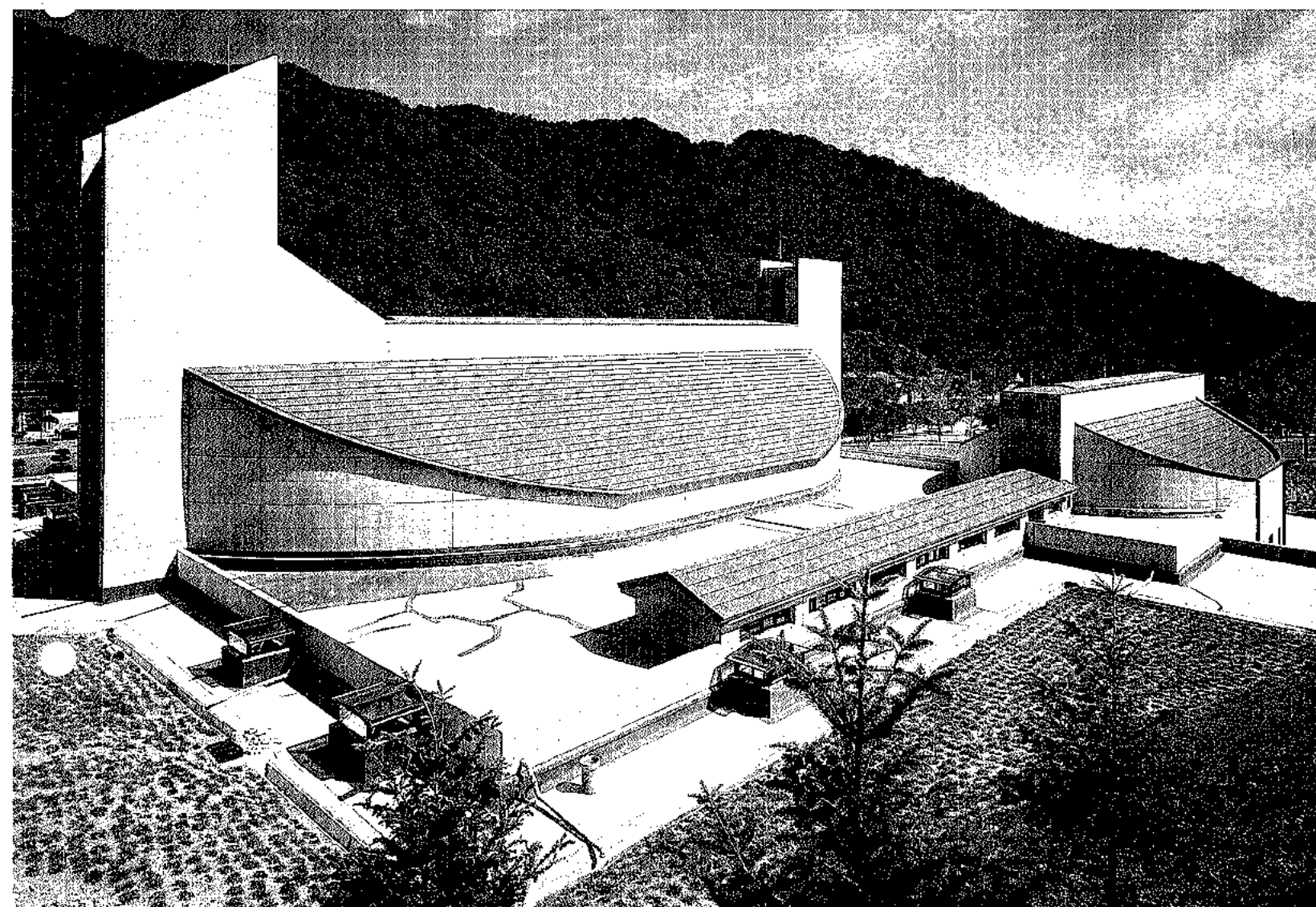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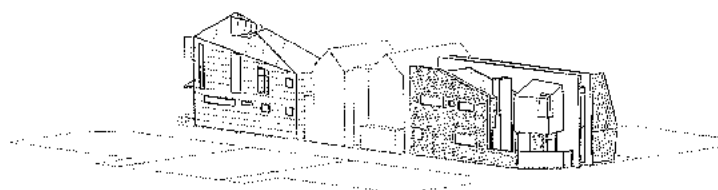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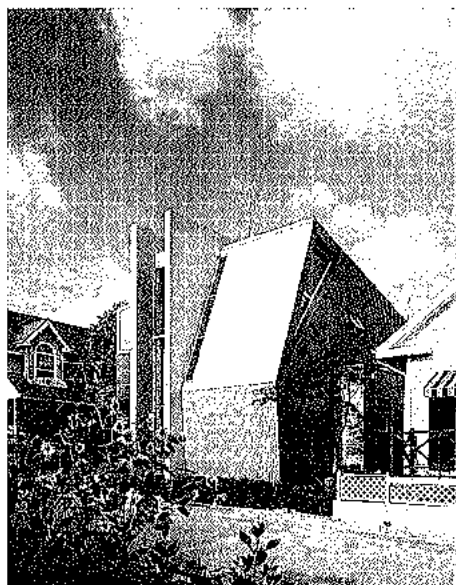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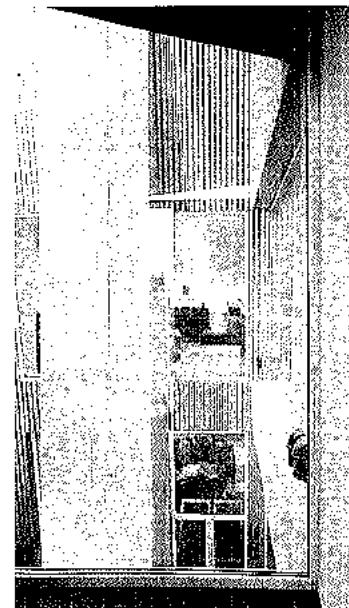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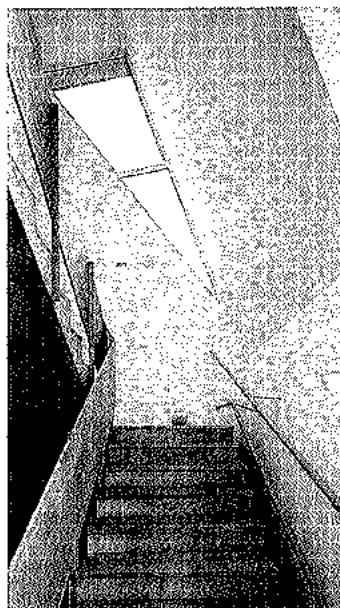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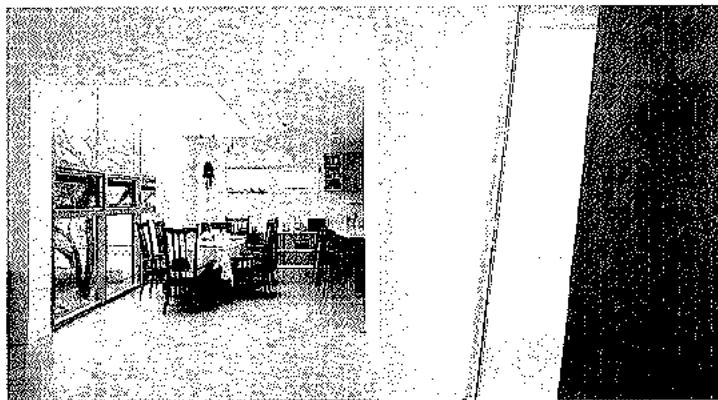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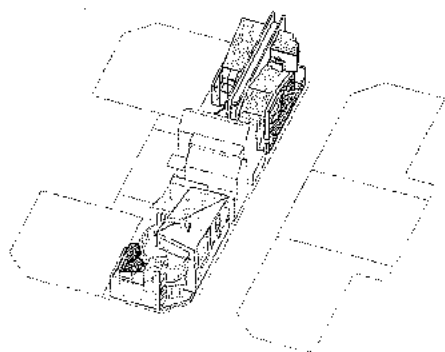


일산주택 III Ilsan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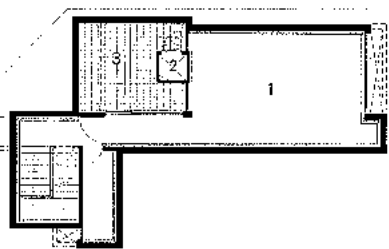
임재용 / O · C · A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Im Jae-Yong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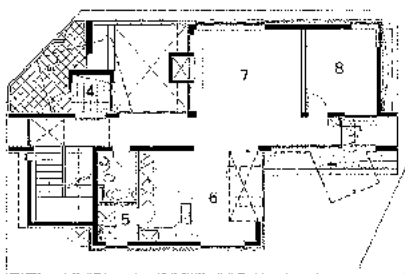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71-1
지역지구 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237.9㎡
건축면적 115.57㎡
연면적 274.68㎡
건폐율 48.58%
용적률 83.66%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2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벽 / 콘크리트 블록, 컬러강판, 코팅합판,
널페턴 노출콘크리트, 드라이버트
지붕 / 컬러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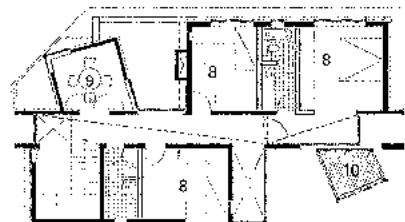
1. 가족실
2. 창고
3. 선반
4. 화장
5. 다용도실
6. 식당/주방
7. 거실
8. 침실
9. 서재
10.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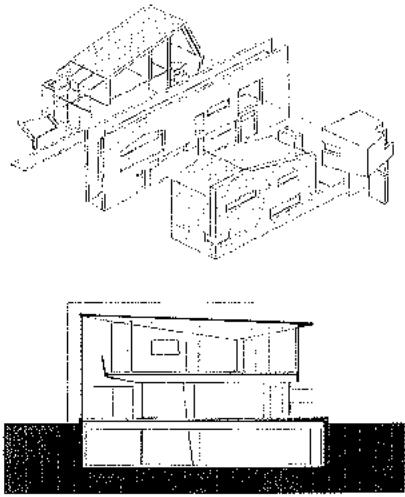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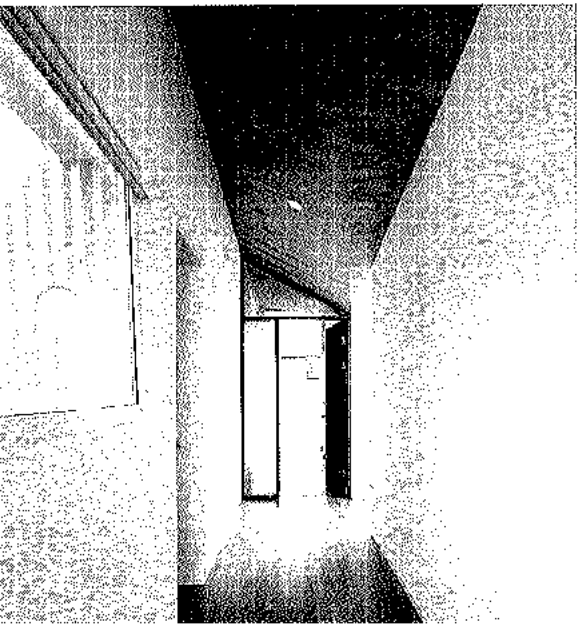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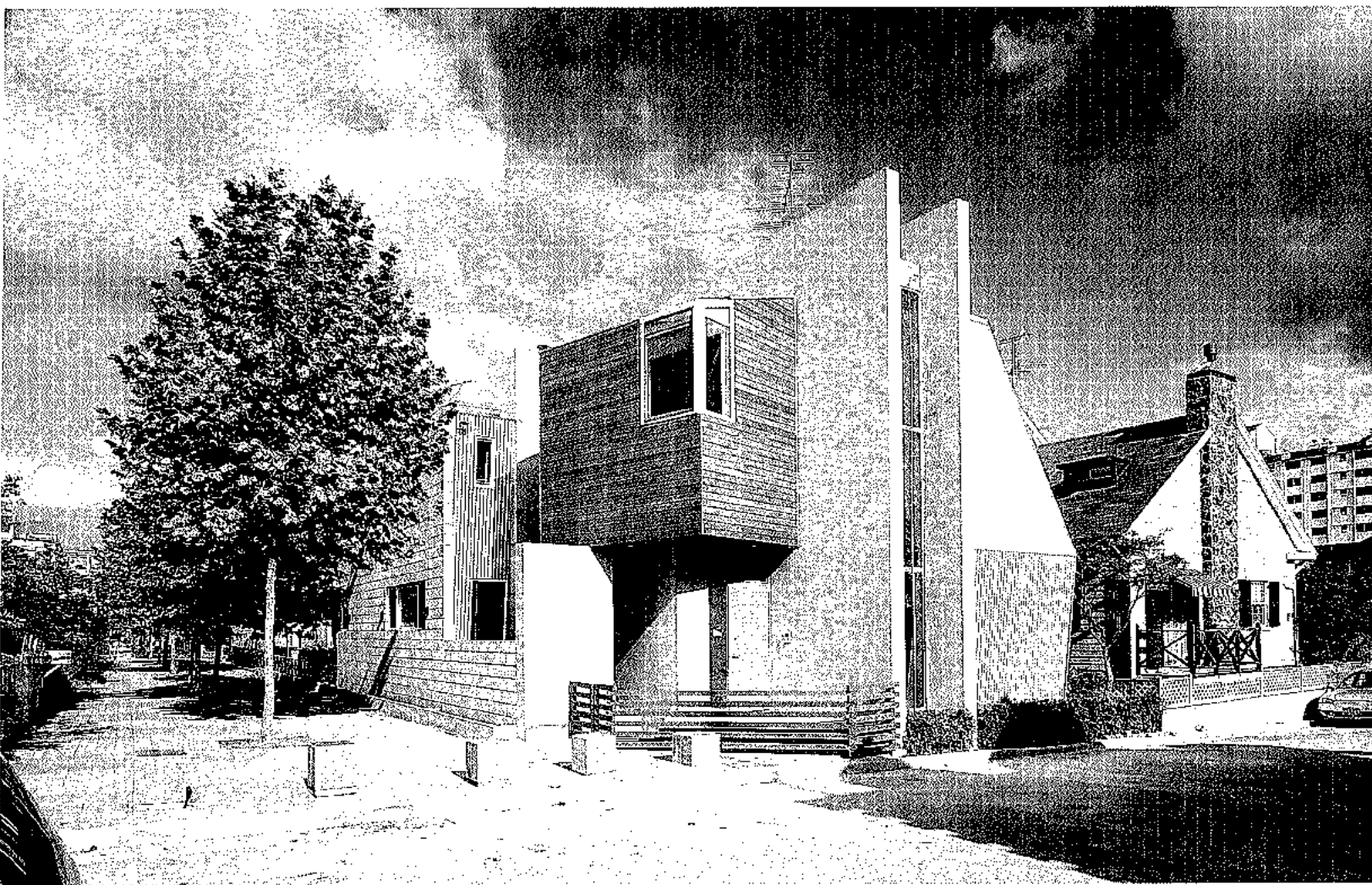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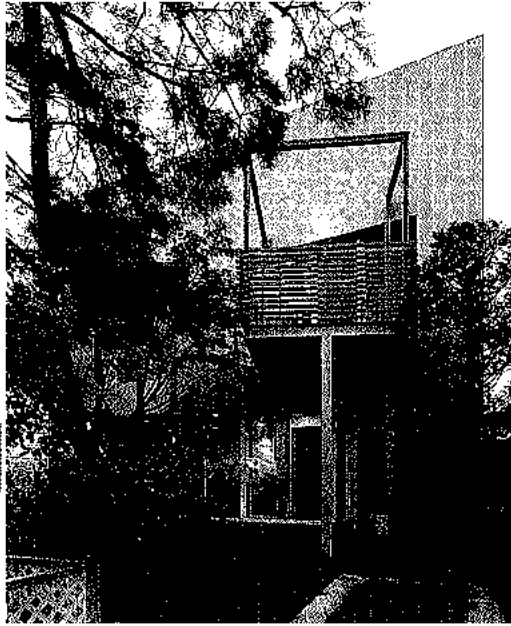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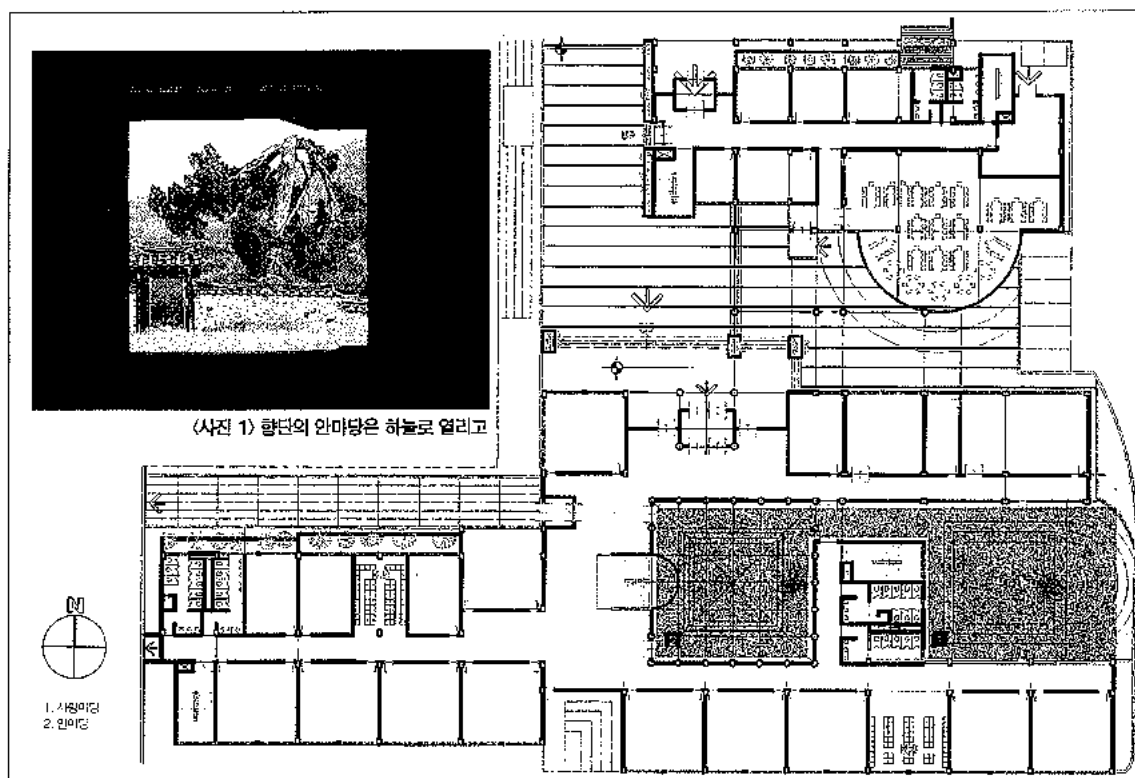
단면도



Hyangdan Idea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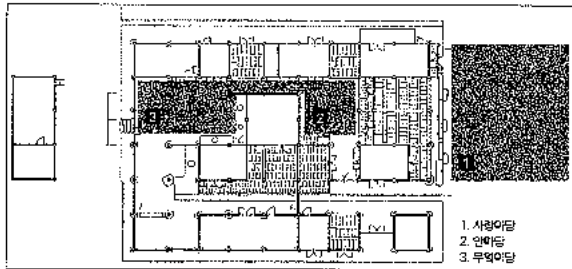
〈그림 1〉 D고등학교 배치 평면

몇해 전인가 전통가옥의 집구경과 마당구경을 할때 양동(良東)마을을 지나면서 향단(香檀)을 처음 보게 되었다. 이 집은 한국의 대표적인 반가(鑑家)로서 대단히 독특한 채의 구성방법과 또한 특별한 마당구성원리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규모는 38칸으로 16c초에 지어진 용자(用字)형의 평면(平面)을 가진 여강 이씨(麗江李氏)의 중가(宗家)로서 회제(晦齊) 이언적(李彦迪)이 경감사(慶尙監司)로 재직시 건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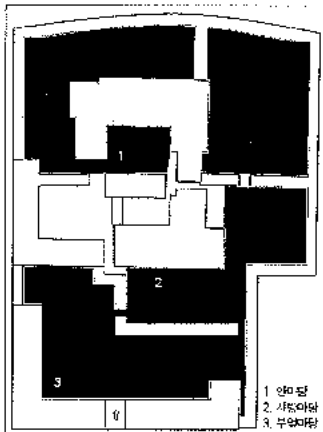
향단은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마당의 구성이 특이하다. 우선 몸채인 안채에 속한 안마당은 2칸의 규모로서 매우 작다. 그 크기는 가로 5.09m, 세로 4.42m로서 면적은 7평도 채 되지 않는다. 행랑채를 지나 행랑마당으로 올라와 안채의 안마당에 들어서면 우선 그 좁은 공간의 협소함(한국에서 가장 작은

마당)에 놀리게 된다. 그러나 이 마당이 작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순간이다. 그것은 이 집을 닫혀진 공간이 아니라 열려진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집의 안마당은 우선 하늘이 열려(사진1)있다. 그 다음 사랑대청의 툇를 통과하여 사랑마당을 향해 열려있다. 사랑마당까지 확장된 공간의 깊이는 무려 25m가 넘는다. 또한 이집은 좁은 마당을 2개나 갖고 있는데(안마당과) 부엌의 마당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공간은 특이하게도 전통가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통로를 이룬다.

이 집은 빈 공간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비어진 장소는 그냥 그자리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물고가는 경향이 있어서 휘모리 공간성을 갖게 되며 결국 빈 것과 자연이 하나로 만나게 된다. 도덕경(道德經) 제41장의 동이(同異)편에 있는 대상무형(大象無形) 가장 훌륭한



〈도면 2〉 탕단 1층 평면도(출처: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91. p.386)



〈도면 3〉 피산 김기용가옥 마당 구성도(출처: 홍익대 부설 환경개발연구원, "한일전통조경공통연구논집", p.8)

것은 형태가 없다)의 개념으로 보면 한국 전통건축공간은 우수한 구성원리를 갖고 있으며, 그 아이디어는 건축 공간에서 차지하는 바로 마당의-향단 아이디어-미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개념의 개념

건축

의 상위개념은 무엇이

고 어디까지인가? 아니면 한계 개념은 있는 것인가? 설계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이 바로 본질적인 개념설정에 있을 것이다. 과연 건축(개념)은 어떤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것인가?

여기에서 고민은 개념 선별능력 말고도, 어떤 본질적인 대상의 직접적인 표상(表象)방식이 아니라 단지 '모사(模寫)된 표상(表象)'에 대한 표상을 얻게 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이미 우리 머리속에는 훨씬 더 많은 가상(假象)(Schein)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질을 헤쳐가 일쑤이고 정당화하기 위한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잠깐 헤겔 사유 방식의 개념의 논리를 살펴보면서 정확한 개념읽기가 무엇인가를 보기로 하자. 헤겔의 '개념의 개념'은 '나무와 씨앗'이라는 예를 들면서 그의 '미학강의'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P.Szondi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나무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 헤겔의 개념 속에서는 실재적인 대상들의 모든 구체적 규정성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마치 씨앗 속에 나무의 모든 규정들이 미리 형성되어 있듯이 말이다. 헤겔 개념 정의는 '이념적 통일'이다.

아울러 이러한 헤겔적 개념운동은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의식에서 자기의식을 거쳐 이성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는 개념운동이 전개된다. 따라서 이 개념운동은 의식의 전체계를 포괄하는 시스템이 된다. 철학이 개념화하는 것이라면 '정신의 개념' 이기도 한데, 또한

건축은 헤겔의 사유의 방법으로 보면 정신적 산물들인 예술작품이며 하나의 과정을 갖는 것으로 본다. 그 예로서 이집트의 피라밋은 노예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신이 스스로를 깨우쳐가면서 만든 '정신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빈공간(chôra)의 공간정신

동서양을 비롯하여 공간개념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의 공간론을 보면 노장의 무용(無用)공간에서 나타나는 정신의 자유로운 해방을 뜻하는 무의 효용(效用)이라는 내용을 갖는 의미의 공간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수와 비례와 같은)조화로운 법칙에 의한 공간 등이 그 대표적이다.

유럽에서 건축공간에 관한 이론이 활발히 전개된 것은 19세기 후반(Schmarsow의 공간개념, 1890)부터였다는 논의가 제기된다. 그 전까지는 건축가들이 대부분 장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여, Van de Ven은 건축공간론(Space in Architecture)에서 "공간개념이 과거의 모든 역사 시대에 통용되는 예술적 개념으로서 설명되기 시작했던 것이 리글(Alois Riegl, 1858~1905)의 예술의지Kunstwollen이론이 소개된 1901년 이후부터였다."고 하고 있다. 도가(道家)에 나타난 무용(無用)의 공간은 서복관의 중국예술정신에서 노장의 초월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술정신의 바탕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장자정신의 요체가 되는 무용(無用)은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의 경지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된다. 플라톤의 공간개념은 그 코오라(chôra)가 빈 공간이 아니라 어떤 것이 차있는(place) 장소를 나타낸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여기 제3의 것 즉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불변하고 전혀 파괴되지 않으며, 일체의 창조물에 장소를 제공하고, -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떤 장소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 Tim, 52b〉

결국 건축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건축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건축은 직접적으로 공간을 다룬다. 건축은 재료로서 공간을 사용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자리잡게 한다. 기묘하게도 비평은 건축에서 공간적 가치들이 지니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간이 나타난다. 공간은 무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빠뜨리고 보게 된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것을 빠뜨리고 본다 할지라도, 공간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유명한 구절의 장본인인 B.Zevi의 말은 현대 건축가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이데아의 이데아

플라톤의 대화편 티마이오스(Timaios)는 우주론에 관한 책으로 최초의 건축가인 데미우르고스

(Demiourgos)가 등장한다. 그가 만들어 내는 우주는 무질서로부터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근본원리는 다름 아닌 선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하고자 하는 '선의 이데아(Idee des Guten)'에 대한 인식이다.

'향단의 이데아는 그 미의 이데아가 그 집속에 들어가 선의 이데아가 되고 - 즉 선의 결과가 미이다.' 이러하듯 이데아의 이데아는 최상의 것으로서 이상적인 목표의 최상위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몇가지 이데아의 표현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모든 아름다운 사물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미의 이데아이다." (Phaid. 100d), "사물들이란 이데아를 모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Parm. 133), "사물속에 현현된 이데아는 바로 사물의 본질이다." (Rep. 507b)

마당 미학과 작품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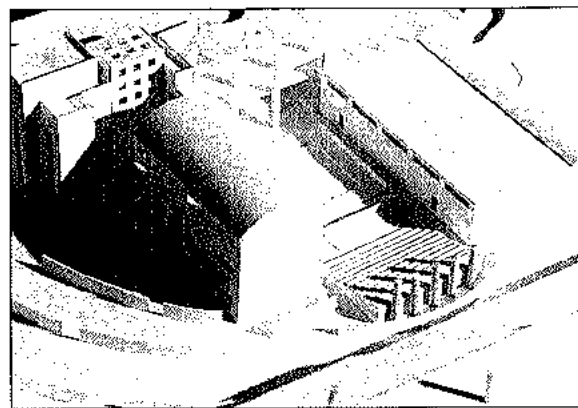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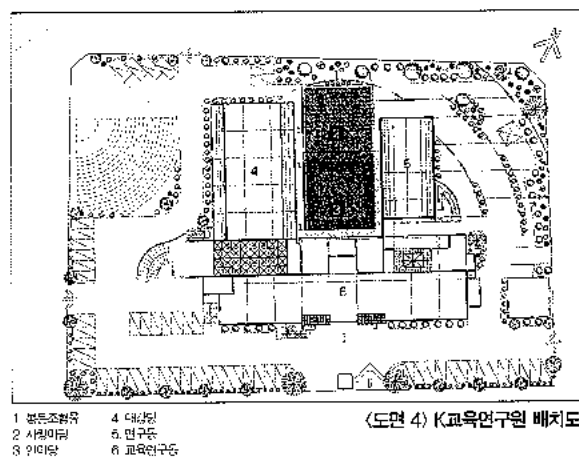
필자가 제시하는 2개의 프로젝트(응모작품)에 나타난 개념중에서 그 프로젝트만이 갖는 고유개념 이외에, 외부공간 구성방법에 대한 그 중요 개념만으로 국한시켜 보기로 한다.

첫번째로 K교육연구원(도면4)이다. 교육연구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하나로 묶어 놓은 형태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물론 상당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마당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사랑마당은 안마당과의 단 차이를 주어서 분리하도록 하였다. 한국전통기옥의 분화 과정을 보면 채의 분화로 각각의 고유한 마당(안마당과 사랑마당은 그 개념부터가 다르듯이)의 외부공간은 저절로 생기며, 또한 자연스럽게 위요공간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법칙이다. 이 교육연구원의 마당으로는 언제든지 몸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마당의 바닥재료로 잔디를 깔거나, 마루를 까는 등의 어떤 재료도 포장하지 않는 전통 흙 마감으로 고집하였다. 주출입구에서 안대청의 쉼과 같은 입구홀을 통하여 그 열린공간을 확장하여 안마당이 보이게 하였다. 안마당은 이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중심의 마당이 되도록 하였다. 그뒤에 붙어있는 사랑마당은 역사의 마당으로 화성 전통의 봉돈을 상징화하여 설치하였다. 이렇게 전통적인 문법을 응용하면서, 두개의 마당을 달리하며 합쳐놓은 <안사랑마당>으로 계획한 작품이었다. 비어있는 공간의 마당 미학은 비어있다는 그 비어있음이 바로 풍요한 정신성을 갖게함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프로젝트는 D고등학교(도면 1)이다. 36학급 규모로서 남녀공학이다. 여기에서는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작은 몸체의 쉼과, 분리하면서 일부는 사이를 잇는 사잇공간을 두기로 하였다.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지만 안채와 안마당, 사랑채와 사랑마당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외부공간에 나타나는 마당의 개념은 단순히 비어놓는다고 그것이 마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조음 처리되는

방법이 채와 채사이에 넓은 공간을 두고 이것을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을 잘 모르는 일이다. 즉 마당과 채와의 관계성을 인식하지 않고 외부공간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안마당은 안채라는 몸체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면위에서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거꾸로 칠해 본다면 전통마당의 구성이 한눈에 들어 온다.(도면2, 3) 이 학교는 향단의 몸체를 살펴본 후에 계획 한 것이다. 향단의 안마당과 부엌마당의 2개소의 마당처럼 적용시켜 보았다. 향단의 안채와 부엌사이의 그 사잇공간의 편안한 크기와 그 양증맞음, 그리고 그 사이를 넘나드는 감칠맛나는 공간의 분위기는 향단을 다녀온 사람은 모두 느낄 것이다.

나는 이 두 프로젝트를 경험한 후 과연 <향단 이데아>는 세계정신과 맞닿아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 그 답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싶다. '정신의 최고 단계인 이데아의 세계정신은 여기저기 도처에 있다. 향단은 바로 그 세계적 정신이 나타난 그 현상 자체이다. 그것은 한국만이 갖는 것이 라는 고유한 주관성을 뛰어넘어 자기의식의 발전단계(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오랜시간의 인내를 통하여 각 계기를 거치면서 정신의 최고 단계인 이데아를 향한 개념운동의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나타난 세계정신인 객관정신으로서의 보편적 정신이다.'



지역건축탐방 14 - 제주(하)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Jeju

제주는 고래로 독특한 민속문화와 경관을 가꾸어 왔다. 이런 이유로 제주의 주된 산업으로 관광이 떠오르게 되었고 60년대 이래 꾸준히 향토성 건축이 문제로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경제적인 여건이 선진국 반열에 끼기에는 열악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생산건축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지 아방가르적인 작품은 소수에 불과했었다. 이런 가운데 사회는 개방화 정보화로 진입하게 되고 경제는 대량생산의 전기산업사회에서 소량다품종생산의 후기산업사회로 변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외국과의 차별화 문제에 있어 더욱 위협받게 되었고 국내적 위치가 아닌 국제적 범주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의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제주의 건축을 사적 관점에서 돌아보고 해방후의 건축문화의 변화를 살펴 보므로서 새로운 제주 건축의 지평을 탐색해 본다는 점은 참으로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는 몰라도 이에 대해 치열한 역사의식을 지니고 천착한다면, 틀림없이 차세대 건축가에서 오늘날 우리의 고뇌와 모순을 해결하는 멋진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도의시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찾지 못할 것이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때라야 만이 질높은 해답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김홍식(명지대 교수) / 편집디렉터)

〈상편〉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 신석하(제주산업정보대 건축과 교수)	
	제주의 전통건축 / 신석하	
	제주 근대시기의 건축 / 양상호(탐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하편〉	제주건축의 어제와 오늘 /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46
	포토에세이: 도시내 건축의 역할 / 김태일	54
	제주 실내건축의 발달과정과 현황 / 이인호(제주 산업정보대 실내건축과 교수)	58
	비제주인의 제주건축읽기 / 황태주(서원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63
	포토에세이: 제주에서의 하루 / 황태주	68
	제주건축의 과제와 전망 / 김홍식(명지대학교 건축과 교수)	70
	좌담: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풍토성	76

제주건축의 어제와 오늘

Past and Present: the Architecture of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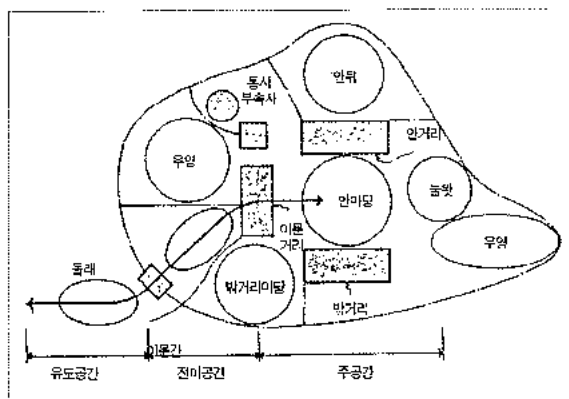
김태일 /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Tae-Il

제주건축을 바라보는 시점(視點)

건축은 형태와 공간적 기능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 요인, 지역적 제반조건과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이러한 장소성과 역사성이 가장 잘 표출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일 것이다.

제주도는 지리적 관계로 인한 제한적인 인적 물적 교류,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제주인의 삶 그 자체는 한반도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1700년대에 제작된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을 보면, 관아명과 지명성(城)·봉수·연대 등의 방어시설 뿐만 아니라, 한라산과 각종 오름¹⁾, 목장, 포구, 하천 등이 표기되어 있다(사진 1).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주의 주요경관요소가 바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각종 오름, 목장, 포구, 하천임을 알 수 있고, 제주인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독특한 삶의 문화를 형성하여 왔던 것이다.

제주적인 삶의 문화는 건축양식에 있어서도 잘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주의 전통건축은 멀리 한라산의 영봉(靈峰)이 보이고(사진 2) 바다의 수평선이 펼쳐지는 원풍경(遠風景), 그리고, 완만한 곡선과 높은 담장의 집을 중심으로 한 울안의 풍경으로 되어 있다. 울안은 마당을 중심으로 가족적 관계를 견지하면서도 철저한 세대구분을 하는 안거리와 밖거리의 공간적 계층화를 이루고 있는데, 진입방법에 있어서 『올래(유도공간)』 『올래목(전이공간)』 『안



(그림 1) 전통적인 제주주거의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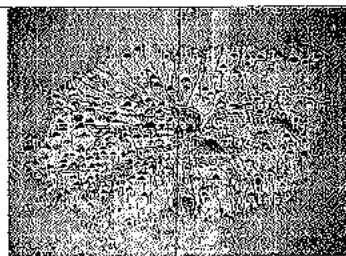
마당(주공간)』이라는 삼분할적 공간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또한 생활양식이 변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면, 건축양식 또한 변해가는(혹은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인은 해방이후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타의적으로 변화되었거나, 혹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면서, 역사성과 장소성이 강한 제주건축의 변화와 현대건축의 유입이라는 양면성을 지닌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건축의 어제와 오늘

본격적인 제주의 근대화는 1961년 5·16군사정권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의 개발은 5·16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에 최초로 아스팔트도로가 건설되고,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1970년대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제주개발을 두고 물의 혁명, 길의 혁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²⁾ 제주지역에 본격적으로 콘크리트구조물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제주의 현대건축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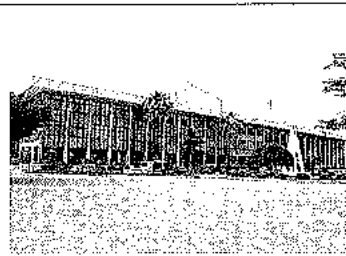
¹⁾ 오름은 '오르다'의 명사형으로, 한라산중턱에 존재해 있는 360여개의 기생화산으로 밤에 의하여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제주의 중요 경관이자, 자연이기도 하다. 명칭은 일반적으로 '~오름' 등으로 불리워지는 경우가 많지만, '~산' '~악' '~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²⁾ 제주도 공보과(1963), 제주도「新濟州」,「大洞州」의 建設誌 제9호, p.52



〈사진 1〉 1700년대에 제작된 제주삼현도(규장각소장)



〈사진 2〉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의한 마을배치.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 넓은 길과 마을의 전경이 펼쳐진다(『제주100년 사진집』 인용).



〈사진 3〉 제주교육대학(김한설, 1971년)



〈사진 7〉 KAL시원아파트(하나의 경사지붕속에 4가구를 처리한 것이 특적이다)

(1) 1970년대

정부는 제주도를 관광지개발에 정책적 중심을 두어, 1972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단을 구성하여 1973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73~1982)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관광지로서의 제주개발이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건축물은 관광시설물이 대부분으로 뚜렷한 작품이 없으나, 주목할 만한 건축물로는 모더니즘적 성향이 강한 김한섭선생의 제주교육대학(1971)을 들 수 있다. 김한섭선생은 60~70년대 건축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제주지역의 개척가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유행하였던 르 꼬르뷔제의 건축언어성이 짙은 모더니즘적 작품 성향속에서 제주적 문화에 바탕을 둔 건축철학과 언어를 가지고 실험적 건축을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수작(秀作)중의 하나가 제주교육대학이다.

제주교육대학(사진 3)은 무장식적 요소의 강조, 그리고 그 지역의 시공능력으로 건축 가능한 구조, 지역에서 구입 가능한 재료의 사용을 기본적인 설계목표로 설정하는 등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노력의 역모이다.

제주의 관광개발의 상징적 건물이 제주시의 KAL호텔(김희수, 1974)이다(사진 4). 이 건물은 건축형태가 비행관제탑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21층 높이로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었으며, 장미빛 제주의 미래발전상을 암시하는 건물로 관광제주의 이미지전달 기능을 충실히 하였는지 모른다. 현재는 고도제한에 묶인 제주지역의 건물과는 달리

제주시의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시범관광도시로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기상시가지의 지가(地價)상승억제, 주요 행정기관 등의 업무시설유치에 의한 도시기능의 증진, 주택난 해결을 목적으로 1977년부터 제주시 연동 지역의 2백만평 토지를 대상으로 신제주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었다.⁴⁾

그러나 신제주 구획정리사업은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에 초점을 두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 배치계획과 제주지역의 경관형성·유지를 위한 건축물 규제에 대한 배려도 없이 추진되어, 현 도시계획상의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관청건물의 이전으로 제주도청사(김희수, 1978), 북제주군청사(고영중, 1978) 등의 관청이 새로이 건축되었으나, 신제주지역과 개발계획상 관공서 부지 선정에 있어서 도시맥락상 관공서의 기능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사진 5).

신제주지역의 개발 붐에 따라 도시로 대량의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하여 주택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도 최초의 아파트로 제원아파트가 건설되었으며, 이후 KAL시원주택, 노남공무원 연립주택 등의 현대식(사용재료나 공법에 있어서 전통건축과 다르다는 의미) 중·고층아파트가 등장하기 시작함으로써, 제주의 주거건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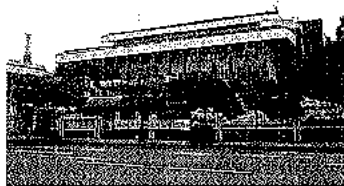
농촌주거에 있어서도 1973년부터 농촌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목표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주택개량과 취락구조개선사업은 8자형의 건축형태와 사용재료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원주거지계획이론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제주전통초가의 형태, 그리고 장소성 짙은 마을의 공간풍경이 사라지게 되고, 현대화된 주거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숙박시설의 급증과 이국적 주거문화의 도입으로 인한 도시경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차

3) 김성중합설계공사, 외감기념건축작품집·논문집「건축가 金漢淑」, 토릴디자인, p.64, 1984
4) 신 행철의 7인, 제주시회론, 한울아카데미, p.87, 1997



〈사진 4〉 제주시 KAL호텔
(1997년에 내외장공사를 하였다. 김희수, 1974년)



〈사진 5〉 제주도청사(김희수, 1978년)



〈사진 6〉 제주도내에 건설된 최초의 제원아파트



〈사진 9〉 탐라도서관(김석운, 1989년)

원의 도시미관과 건축형태에 대한 심의지침이 나왔고, 또한 시도별로는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축형태를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들 시책들은 어디까지나 관광객을 고려한 건축형태와 도시미관 심의였기 때문에 단순한 건축형태만을 중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이라는 건축의 본질에는 그 한계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⁵⁾

60년대와 70년대의 관광지 개발붐은 제주지역의 낙후성 탈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개발 그 자체가 도민 주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타지역민의 자본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었기 때문에 계층간의 괴리감과 함께 건축의 지역성·향토성 상실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안고 있었다.

(2) 1980년대

1980년대에는 비교적 대형건축물이 많이 건축되었고, 70년대의 무비판적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향토성에 대하여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계기는 제주건축의 정체속에서 김원의 「한국현대건축의 반성」이라는 제목의 제주강연은 지역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원동력이 되었고, 제주건축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⁶⁾ 이를 계기로 1982년 2월에 정규대학 출신의 건축사들이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를 결성하여 지역건축문화

를 주도하는 건축집단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지역적 건축문화의 형성을 위한 작업으로 건축미관심의를 실시하고, 지역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수미관주택상(1981), 제주특유주택설계 공모전(1982~84), 그리고 제주도 향토성건축 보급방안연구(1987)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관민(官民)의 지역적 건축운동은 전통적인 제주의 건축재료인 현무암, 송이의 사용을 통한 지역성 표출을 위한 실험적 모색이 두드러진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건축물로는 제주자연사박물관(김홍식, 1983), 제주국제공항청사(1984), 우당도서관(김중성, 1984), 한림공원 휴게소 및 안내소(김창우, 1986), 과원주택(백형철, 1986), 탐라도서관(김석운, 1989), 기당미술관(김홍식, 1984), 제주문예회관(김홍식·김상식, 1988), 제주도의회청사(강요준, 1989)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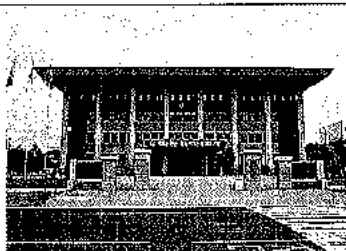
아천상을 수상한 탐라도서관(사진 9)은 제주건축이 가지는 강력한 대칭적 요소와 개방성과 폐쇄성의 내부 및 외부공간의 조화, 그리고 킷마루와 같은 매개공간을 도입하여 제주건축의 언어성을 적절히 표현한 점이 평가되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사진 10)과 기당미술관(사진 11)은 제주건축의 지역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독특한 설계접근방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공간구성을 울(律)의 의미로서 해석하는 천(天)이 되는 태양(太陽)과 소양(小陽), 지(地)가 되는 태음(太陰)과 소음(小陰)의 4분법적 공간구성에 접근하고 있으며, 건축형태에 있어서는 제주전통초가와 늘(곡식저장고, 사진12)의 형태언어를 도입하여 한림공원휴게소 및 안내소(사진 13)와 함께 지역성이 짙은 건축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제주문예회관(사진 14)에 있어서도 안거리와 박거리의 대립적 배치에 의한 명쾌한 공간구성과 완만한 지붕, 그리고 현무암에 의한 벽체 마감으로 향토성을 강조하고자 하

5) 김석운, 제주건축 - 지난 50년, 오는 50년(제주도 통권 100호), p.219, 1998

6) 김석운, 제주건축 - 지난 50년, 오는 50년(제주도 통권 100호), p.220, 1998



〈사진 8〉 제주도의회청사(강요준, 1989년)



〈사진 10〉 제주자연사 박물관(김홍식, 1983년)



〈사진 11〉 기당미술관(김홍식, 1984년)



〈사진 12〉 짚을 저장하는 놀의 외형

였지만, 무대공간의 프로세니움을 가지고 극장의 특성 때문에 이들 공간에 대한 처리와 건물의 비례감에 있어서 다소 어색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물의 규모와 기능에 상관없이 제주건축에 대한 건축언어의 요소를 초가집의 모양이나 놀 등의 형태적 요소를 직설적으로 해석, 도입하고, 마감재료에 있어서도 현무암을 그대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건축적 언어로 남게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 1980년대말에 불어온 지가상승의 열풍과 주택수요의 급증현상은 오피스텔과 아파트건축 붐으로 이어져, 고층화·대형화되어 모처럼 모색되어 왔던 지역성 건축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상실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상업주의에 의한 저급한 건축형태의 보편화현상 가운데에서도 몇몇 작가들의 작품에서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향토성에 대한 모색을 엿볼 수 있다. 이들 작품의 성향은 제주지역의 건축가에게도 자극되어 지역적 건축에 의한 논의와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3)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던 관광지로서의 제주지역개발이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바로 그

것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도민 및 시민 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저항을 받게 되었지만, 1991년 12월 31일 공포되었으며, 1993년 7월 5일에는 환경·경관영향평가·지하수의 보존과 이용·관광진흥기금 모금을 근간으로 하는 특별법 시행조례안이 공포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 최초로 경관영향평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개발에 의한 제주고유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지역성에 바탕을 둔 건축작업에 관심과 배려를 가지는데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경관영향의 평가방법과 제도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경관의 중요성이 제도권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에 관한 활발한 모임과 토론이 있었고, 지역건축가의 활동도 두드러져 제주건축작가초대전이 개최되었지만, 지역적 건축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라기 보다는 한라문화제의 연례행사에 머물러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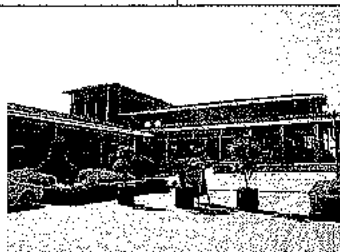
한편, 대한민국 건축대전에도 초대작가로 김수현, 김석운의 지역건축가가 중앙무대에 소개되었고, 이와 함께 김수현의 신산동주택(건축사 271호/91.11월호), 김석운의 탐라도서관(건축사 267호/91.7월호), 신제주성당(건축문화 120호/91.5월호), 그리고 강행생의 제주교육박물관(사진 15)이 한국건축연감(1996)에 수록되는 등 지역작가의 건축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건축가의 활동과는 달리, 80년대부터 이어진 호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주거건축의 건축물량의 과잉공급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건축작품이 없으나, 대형건물로서는 서귀포시의 파라다이스호텔(김호, 1990)과 신라호텔(박승, 1991), 제주시의 대한항공제주지점사옥(김성래, 1990), 교보생명제주사옥(시저펠리(Cesar Pelli), 1991)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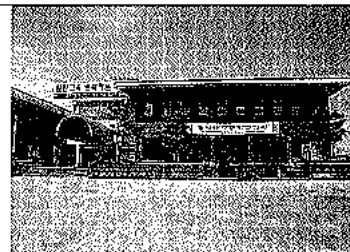
서귀포시의 파라다이스호텔(김호, 1990)과 신라호텔(박승, 1991)은 제주지역을 육지와 구별되는 문화=



〈사진 13〉 한림공원휴게소 및 안채소 (김창우, 1986년)



〈사진 14〉 제주문예회관(김홍식·김상식, 1988)



〈사진 15〉 제주교육박물관(강행생, 1996년)



〈사진 18〉 서귀포 중문관광단지내의 씨빌리지호텔(김인철, 1991년)

「이국적 이미지」로 해석되어지는 경향에 따라 건축된 호텔건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사진 16, 17). 이것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한 「도시환경문화상」에 이국적 정취가 가득한 서귀포 파라다이스호텔(1990), 신라호텔(1991)이 선정된 점에 있어서 도시적, 지역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호텔 씨빌리지(김인철, 1991)는 제주의 전통초가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의 호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대조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사진 18).

이들 건물이 상업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대한항공제주사옥과 교보생명제주사옥은 기업이미지의 홍보성에 비중을 둔 것이라 하겠다.

대한항공 제주지점사옥(사진 19)은 단순한 형태에 가능성이 강조되고 또한 전면을 유리로 장식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제주건축의 본래 이미지인 온순하고 순박한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다.

교보생명 제주사옥(사진 20)은 시저펠리가 설계한 주일 미국대사관 형태를 그대로 옮겨와 서울, 부산, 그리고 제주 등지에 건축한 것으로 지역적 정서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는 건축의 본질을 외면한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관광중심의 개발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투자효과를 거두기 위한 상업적 흥행성, 투기성과 저급한 장식성에 초점을 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왜곡된 제주의 이미지와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현상설계공모전을 통한 작품산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탐동 해변공원(김용철, 1995)을 제외하고는 각각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국립제주박물관(김기웅, 1992), 제주관광민속관(김희수, 1993), 제주도 지역경제종합센터(허영주, 1996), 남제주군청사(김성래, 1997), 제주시민회관(김희수, 1997, 사진 21), 제주의료원(삼우설계, 1997, 사진 22), 제주컨벤션센터(日建設, 1997, 사진 23)이다.

현상설계의 당선작품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의 작품이 제주의 정서를 바탕으로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 작품에 있어서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건축의 해석과 설계상의 적용방법에 있어서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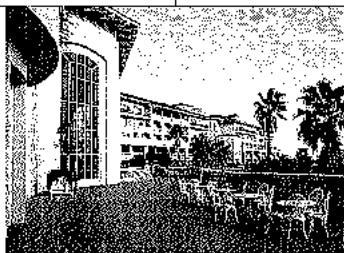
국립제주박물관(사진 24)은 제주 고유의 재료인 송이를 이용한 송이벽돌을 사용함으로써 차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나, 중문관광단지의 제주관광센터와 마찬가지로 제주의 초기집을 모사(模寫)한 듯한 완만한 곡선과 구체의 호형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붕을 동판으로 처리해, 오히려 주변환경과는 구분되는 이질적 요소로 작용되기 쉽게 느껴진다. 또한, 중정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배치형태도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탐동해변공원(사진 25)과 제주관광민속관(사진 26)은 제주의 방사탑(防邪塔, 사진 27)⁷⁾을 모사한듯한 건축언어의 형태로 지역성을 표출하고자 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다소 직설적인 언어의 모사로 인하여 제주적인 건축언어의 호소력이 오히려 약해지는 듯한 느낌도 든다. 또한, 제주관광민속관의 배치형태와 마감재료에 있어서 건축이 추구하는 기능성과 미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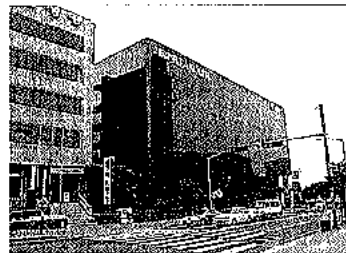
7) 방사탑은 중수지리적으로 나뭇 귀신이 침범하기 쉬운 장소나 마을의 경계되는 곳에 원통형의 돌담을 쌓아 불제와 풍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담(牆)'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방사탑으로 부르고 있다.



〈사진 16〉 서귀포시 파라다이스호텔 (김효, 1990년)



〈사진 17〉 서귀포 중문관광단지내의 신라호텔 (박승, 1991년)



〈사진 19〉 제주도 대한항공 제주지점사옥 (김성래, 1990년)

하였다.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진 28)는 지형을 이용한 내부·외부공간의 연결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한라산의 경관도입 등 제주건축이 가지는 형태성보다는 공간적 언어성이 돋보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붕의 형태와 마감재료에 있어서 제주건축의 언어성을 모사한 리얼리즘적인 형태가 지배적인 가운데, 제주도 공무원교육원(김석운, 1993), 씨빌리지(김인철, 1991), 제주영화박물관(김석철, 1993)에서 볼 수 있듯이 반원형볼트 형과 원통형의 지붕형태, 전통초가의 재료와 현대건축재료의 조화, 송이벽돌과 현무암 등 다양한 마감재료사용에 의해 지역성을 표출하려는 실험적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석철의 제주영화박물관(사진 29)은 태극형태의 도형이 사방으로 뻗어 가는 모양 속에서 바다와 들판의 공간이 한가운데의 수직원통에 몰입되는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외벽을 현무암 뿔칠로 마감되어 주변의 녹색과 대비를 이루면서도 절제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제주가 내포하고 있는 이면(裏面)적인 건축 언어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시험적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건축에 대한 관심과 몇몇 건축가들의 노력에 의하여 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중심이 되어 제민일보의 제주건축문화대상(1996), 제주시의 건축문화상(1996~)과 제주주거양식의 계승발전을 위한 주거건축의 표준도면선정(1998년) 등을 실시하여 독특한 제주문화에 바탕을 둔 지역건축의 보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제주도건축사협회(당시 회장 강행생)에서도 「제주도건축의 지역성 재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적 건축에 대한 토론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건축문화대상과 건축문화상, 주거건축 표준도면의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의 성향을 보면, 제주의 지역적 전통요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나름대로 건축 언어성을 구사하고자 하는 흔적이 엿보이고 있으며, 건축평면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공간구성기법을 도입한 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오는 전형적인 제

주건축의 형태적 언어성 표현의 한계를 넘지 못함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건축의 보급을 위해 실시된 이들 공모전 작품의 선정기준은 ① 도시경관으로서의 건축, ② 미래지향적 건축, ③ 제주적 삶과 표현이 갖는 건축에 두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원칙설정이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의 전반적인 작품의 성향을 보면, 지역적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다양한 건축언어요소를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송이벽돌 등 다양한 마감재료에 있어서도 사용하기 시작하여, 제주건축의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 건축계에 있어서 커다란 아픔이라면, 김중업선생의 구제주대학 본관의 철거를 들 수 있다. 김중업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주대학 본관건물(사진 30)은 1993년 5월에 보존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가졌지만, 결국은 1995년 8월 5일에 철거되어 버려, 제주지역에서의 건축문화의 한계성을 실감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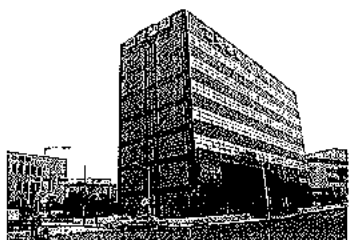
제주건축의 패러다임 전환

- 리얼리즘(Realism)적 형태에서 로칼리즘(Localism)적 공간으로 -

이제 제주의 건축문화는 크게 변하려 하고 있고, 변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21세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독창성과 개성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가장 지방적인 건축이야말로 가장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문화이고 세계적인 문화인 것이다.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주지역의 고유문화 형성에 시각을 맞춘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형태적 모색에서 기능적 모색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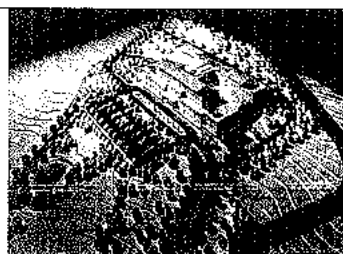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자연의 생명과 조형가운데서 그의 철학관을 발견하고, 그의 건축이념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이라 부르고, 생명력이 있는 다수의 건축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공간



〈사진 20〉 제주시 교보생명 제주사옥 (시저펠리,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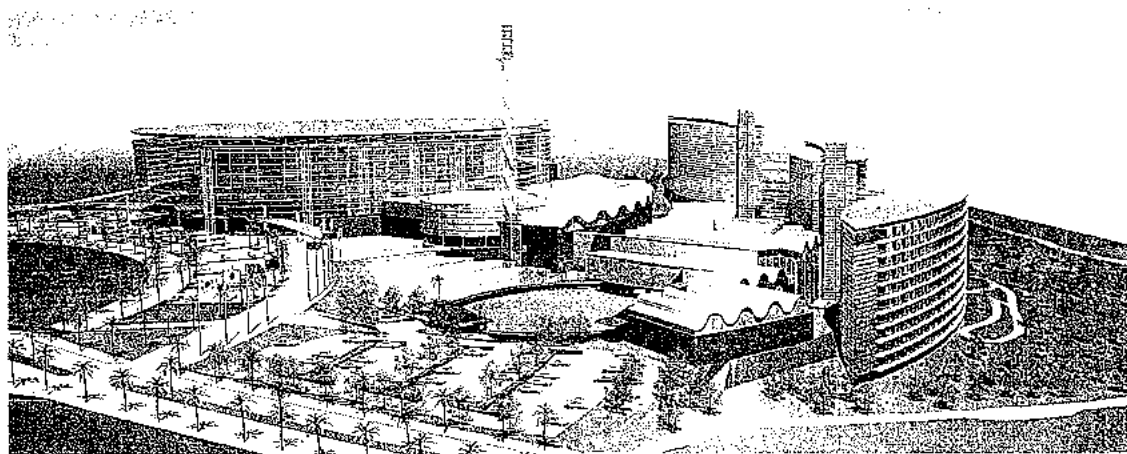


〈사진 21〉 제주시민회관(김희수,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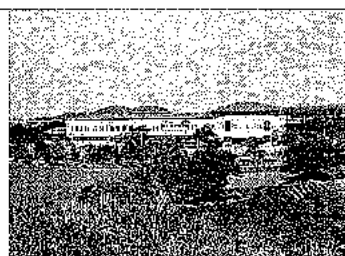


〈사진 22〉 제주의료원 조감도 (삼우설계, 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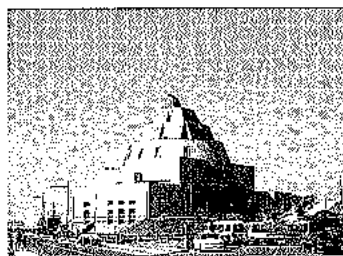
연도 시설명	1970	1980	1990
사회변화	- 제주공항확장(1973): 제트여객기의 이착륙 가능해짐 - 한림내안발전소건설(1979) - 취락구조 개선사업 실시(박공형식(八자형) 주택형식) - 신제주 구획정리(1975~1976) - 중문관광단지 조성 - 도시미관과 건축형태 규제를 위한 시책과 시군별 건축위원회 구성	- 제주도 건축미관심의 지침제정(1980) - 미관심의 지침개선(1989) - 우수미관주택상(1981) - 제주특유의 주택설계 공모(1984) - 향토성 건축개념 정립과 보급확대 방안에 따른 연구용역(1987) - 서귀포 「읍」에서 「시」로 승격(1981) - 제주도 건축사회 「제주건축1집」 발간(1986)	- 제주건축작가 초대전(1991) - 제주도 건축사회 「제주건축2집」 발간(1992)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1994) - 국내 최초로 경관영향평가제도 도입(1994) - 제주도 건축사회 「제주건축3집」 발간(1995) - 제주시 건축상(1996~) - 제민일보 제주건축문화상(1996)
상업시설	• 한라관광호텔(김한섭) • 제주KAL호텔(김희수) • 도림의료원	• 제주하얏트리젠시(VWAT & G) • 한림공원안내소(강창우)	• 제주관광센터(김기웅) • 서귀포호텔(부침건축) • 한국전통호텔 씨발리자(김인철) • 제주신라호텔(삼우설계) • 교보빌딩(서저렐리) • 제주관광민속관(김희수) • 제주의료원(삼우설계)
문화시설	• 제주방송국청사(김한섭) • 제주민속박물관(김한섭) • 구제주신문사옥(김한섭)	• 기담미술관(김홍식)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김홍식) • 우당도서관(김종성) • 신천지미술관(김석운) • 제주도문예회관(김홍식 · 김상식) • 탐라도서관(김석운) • 제주신문사 신사옥(강철구)	• 탐동해변공연장(김용철) • 제주교육박물관(강행생) • 애월문화체육관(김석운) • 제주도학생회관/도립도서관(강행생) • 영희박물관(김석철) • 국립제주박물관(김기웅) • 제주시민회관(김희수) • 컨벤션센터(日建)
주거시설 기타	• 제일이파트 • 제주교육대학(김한섭) • 제주대학교 수산학부(김한섭) • 제주완청건물군(김희수) • 북제주군청사(고영중)	• 과원주택(백형철) • 제주도청사(김희수) • 제주국제공항청사 • 제주도의회의사당(강요준)	•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김석운) • 서귀포시청사(한규봉) • 제왕교회(손신원) • 중소기업지원센터(허영주) • 제주상생어린이집(삼우설계) • 강정교회(김재관)



〈사진 23〉 제주컨벤션센터 조감도(日建設計, 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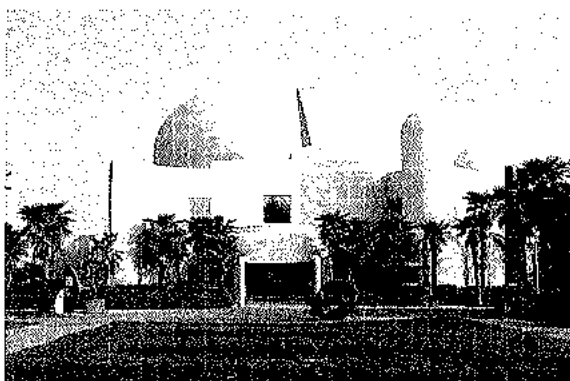
〈사진 24〉 국립제주박물관(김기웅, 1992년)



〈사진 25〉 탐동해변공연장(김용철, 1995년)



〈사진 26〉 제주관광민속관(김희수, 1993년)



〈사진 29〉 북제주군 남원의 제주영화박물관(김석철, 1997년)

의 전통성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건축가 안도 타다오는 노출콘크리트와 유리로 마감된 『住吉長家屋』작품을 통하여 현대건축의 내부공간에 일본의 전통공간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 받았다.

이와 같은 작가다운 건축이나 향토색 짙은 건축의 시도가 제주건축문화상이나 현상설계의 당선작에서 몇몇 지역건축가들에 의하여 제주다운 건축적 언어가 모색되고 있고, 이들 작품은 형태뿐만 아니라 제주다운 공간의 기능적 표현에 있어서 제주건축의 언어적 표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제까지 제주건축에서 모색되고 시도되어 온 것은 형태적 언어였다. 제주의 전통주거를 유추한 볼트형의 지붕이나 모임지붕에 한정되어 형태적 건축언어의 모색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듯하다.

건축은 3차원적 구성, 즉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적 기능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제주건축이 문화로서 계승 발전되기 위해서 한라산의 영봉(靈峰)이 보이고 바다의 수평선이 펼쳐지는 원풍경(遠風景), 집을 중심으로 한 물안의 내부공간구성으로서 안거리와 밖거리의 별동배치, 『올래(유도공간)』, 『올래목(전이공간)』, 『안마당(주공간)』이라는 삼분공간구성 등과 같은 독특한 공간적 구성에 대한 관심과 현대적 건축 형태로의 표출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자연경관과 조화된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추진이다.

향토건축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그 지역의 기후를 배려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삼다도(三多島: 돌, 바람, 여자)라 불리는 제주는 지질학적 특성상 현무암이 많다. 현무암은 거의 모든 건축과 담장, 심지어는 무덤에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주건축 재료이지만, 현대건축의 의장재료로서 사용상에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제주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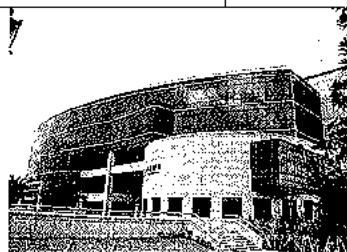
아울러, 뛰어난 자연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는 건축, 자연친화적인 건축으로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는 삼다도인 제주가 가지는 독특한 해양성 기후조건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 유지하는 건축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되는 도시·건축계획의 추진이다.

관광지로서 개발 성장된 제주지역은 개발에 의한 외적 성장에 비하여 삶의 질적 향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즉, 제주도민 주체가 아닌 육지의 자본에 바탕을 둔 타의적 개발로 인하여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상업주의적 지역개발은 자연 및 도시경관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개발에 대한 상대적 거부감과 반발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에 바탕을 둔 개발에서 삶의 질적 향상에 바탕을 둔 개발과 자연경관을 적절히 보존하는 도시·건축계획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27〉 역운을 막기 위해 마을의 기운이 약한 곳에 세운 방사탑



〈사진 28〉 제주도 지역경제센터(허영주, 1996년)



〈사진 30〉 1995년 8월 5일에 월거린 구제주대학본관(김중업, 1964년)

포토에세이: 도시내 건축의 역할 Photo Essay: The Role of Architecture in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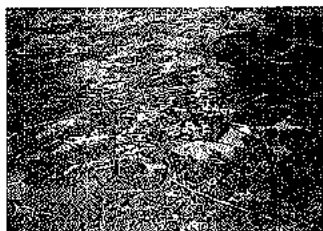
김태일/ 제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Tae-Il



1

건축테마 I : 제주의 경관과 건축

① Zoom out Cheju(하늘에서 바라 본 제주시의 전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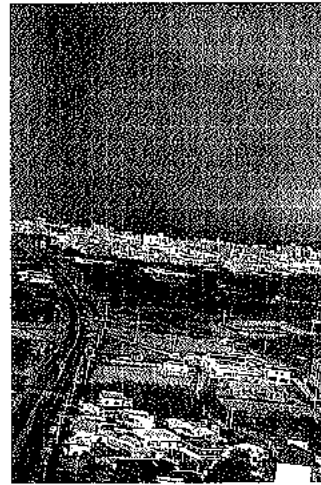


3



5

1. 한라산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
2. 바람, 여자, 돌이 많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현무암으로 쌓아 만든 담장은 바람을 적절히 막으면서도 통과되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3. 담장의 형상과 구조에 있어서 유사한 제주의 마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순응과 조화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4. 도시화하는 제주시의 전경, 넓은 도로와 높은 빌딩으로 매워지는 제주시는 이제 제주다움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5. 제주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형성된 신제주지역의 높은 빌딩의 스카이라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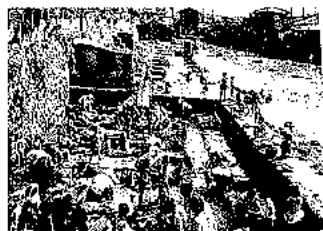
② Zoom in Cheju(빌딩에서 바라 본 제주시의 전경)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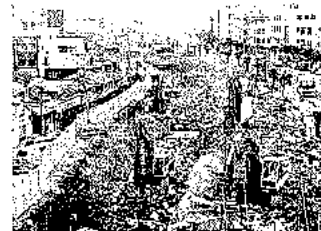
9



10



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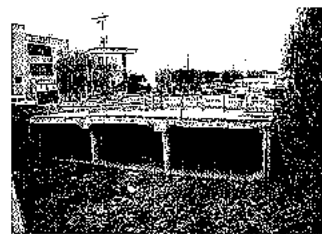
6. 제주KAL호텔에서 바라본 탐동과 항구의 모습. 무분별한 매립과 개발로 인해 아름다웠던 해변의 모습도 항구다운 모습도 상실한지 오래이다.
7. 무질서한 건축물의 색상과 형상으로 인한 훼손된 도시경관. 슬라브의 풍자물이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8. 콘크리트구조물로 만들어진 회색의 도시경관, 제주의 또다른 경관요소는 푸르름이며,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계획이 요구된다.
9. 제주의 하천은 주요한 경관요소이며, 지역사회에 있어서 주요한 삶의 장소이기도 하였다(과거의 산지천 모습, 「제주 100년 사진집」 인용사진).
10. 개발위주의 정책 속에서 하천을 단순한 상업공간으로 복개하여 경관이 파괴된 산지천 모습
11. 구조상의 문제로 다시 철거되는 산지천 모습



12



13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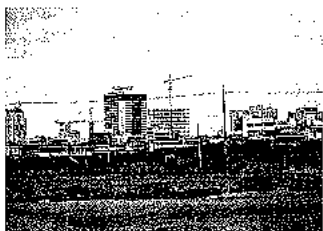


16



17

③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19



20



18



21



22



23



2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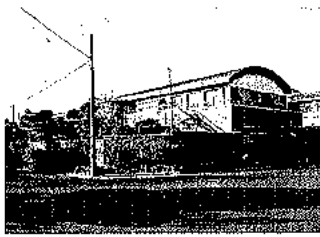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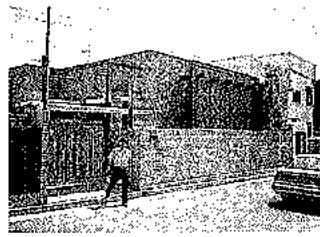
12. 산지천의 복개구조물은 철거되었지만, 과거의 모습과 기능의 하천으로 돌아 갈 수 있는가?
13. 또 다른 곳에서는 하천의 복개가 진행되는 모습에 약순현되고 있다(병문천의 모습)
14. 복개공사가 되고 있는 병문천의 모습
15. 복개된 병문천은 또 다시 차량을 위한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변하고...
16. 제주개발의 현실을 보여주는 복개된 병문천과 높은 빌딩으로 가려진 한라산의 모습
17. 제주 시내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모습. 도로의 폭과 건물의 높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없이 계획되어 한라산을 조망할 수 없는 공간구조로 되어 있다.
18. 한라산을 가로막고 있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제주공항의 물탱크
19. 상업자본의 상징인 오피스빌딩은 제주의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경관훼손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낳고 있다(신축중인 연동지역의 오피스빌딩).
20. 고도규제를 받아 건축된 아파트 단지의 전경. 그러나, 주변의 녹지공간과, 멀리 오름, 한라산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사라봉에서 바라본 모습)
21. 높아지는 콘크리트건물과 점차 사라져 가는 초가집.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한 장면
22. 탐들매립지는 바다에 있지만, 바다를 느낄 수 없는 장소이며, 넓디 넓은 공간속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문화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탐들매립지와 해변공연장의 모습)
23. 제주의 주요 경관축의 하나가 바다이다. 경관이 좋은 곳은 항상 아파트와 찻집이 자리잡고 있어 제주의 경관,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4. 관청이 모여 있었던 관역청의 주변의 모습(「탐라순력도」 인용사진)
25. 관역청은 행정장소의 공간이었지만, 주민들의 문화공간, 생활공간이기도 하였다(「제주100년 사진집」 인용사진).
26. 호텔과 오피스빌딩, 상업으로 둘러싸인 현재의 관역청 주변모습

건축테마 II : 건축단상(建築斷想)

① 주거건축



27



28



29



33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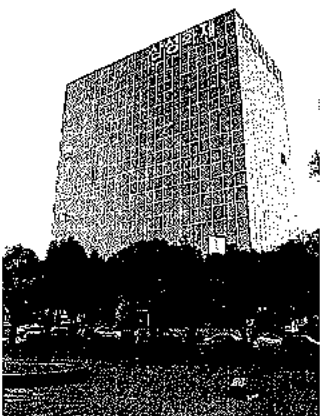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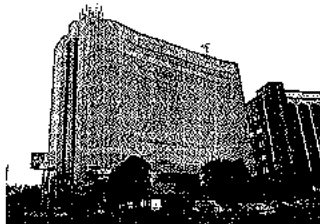


32

② 상업건축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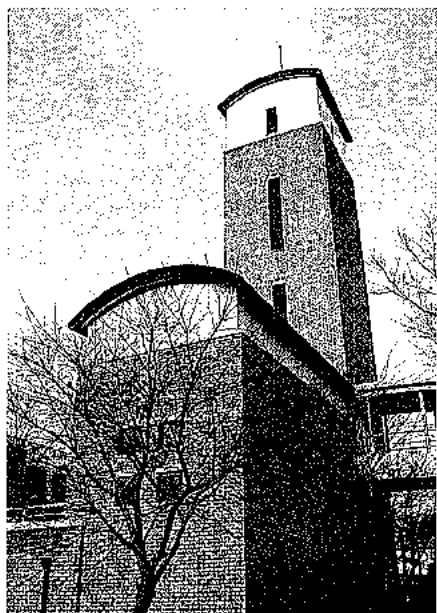
37



36

27. 달창 앞에 설치된 조경은 단조로운 달창에 생기를 주고 도로와의 조화를 이루며, 건물에도 여유를 주고 있다.(연동지역의 단독주택)
28. 시도되는 제주적인 현대주택의 개발 노력은 제주주거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제주시간건축 작품)
29. 기와와 적벽돌을 사용한 주택, 형태적 조화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의 조화속에서 제주다운 건축언어의 모색이 요구된다.
30. 다양한 입면과 온온한 색상, 녹지공간을 확보한 아파트는 시간이 지남수록 완결 인정되게 느껴진다(제주시 도남동 주택공사 아파트).
31. 급속한 도시화에 의한 주택부족 해결을 위해 건설된 신축 고층아파트단지과 높은 고가수조는 멀리서 조망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버렸다.
32. 판문인 제주항 여객터미널 앞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경사지를 단순히 옹벽으로 처리하여 부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부정적인 제주이미지를 남게 하는 것이 아닌 지... 경사부지의 조건과 자연경관을 고려한 계획이 아쉽게 느껴진다.
33. 상업성과 편리성 때문에 추상복합건물도 이제는 보편적인 건축이 되어 가고 있다.
34. 거대한 상업자본의 유입을 상징하듯 도시 한가운데 우뚝선 전면유리에 현대적 건물.
35. 기업의 이미지 전달을 위한 듯 서울 본사의 건물과 동일한 형상의 대기업 건물.
36. 신제주 지역의 개발과 투자를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오피스텔.
37. 제주시 외곽에 위치한 오피스빌딩, 개발의 끝이자 새로운 개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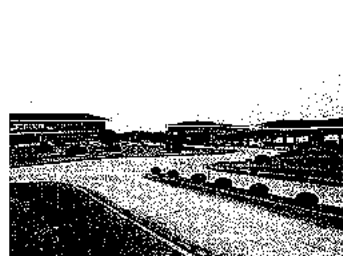
③ 공공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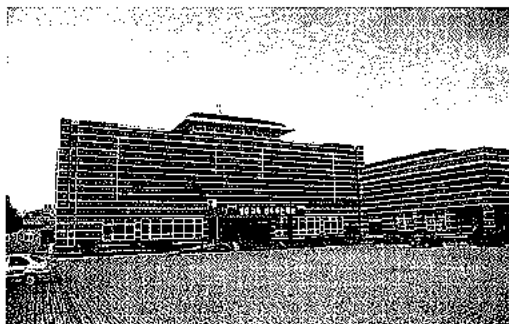
40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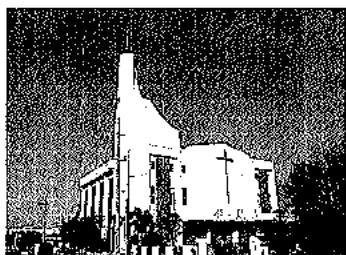


39



41

④ 종교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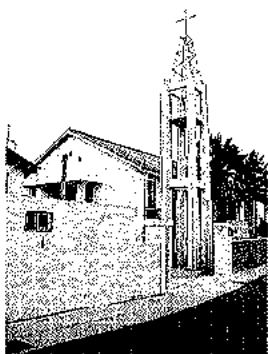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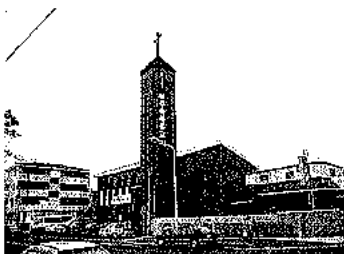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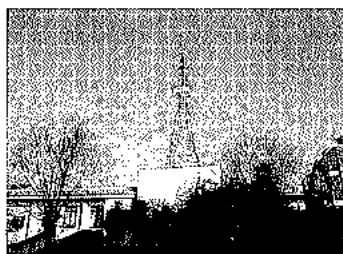
47



45



44



46

38. 강렬하고 경직되어 보이는 제주도청.
39. 형태와 마감재료에 있어서 제주다운 건축의 고민과 노력이 보이는 팔라교육원: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곳이었다면...
40. 완만한 곡선과 2분할적인 마감재료의 구성이 돋보이는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41. 제주시교육청: 지붕과 입면에 있어서 미완성의 제주건축언어, 그리고 입면상의 흰줄은 시각적 혼란을 느끼게 한다.
42. 신제주감리교회: 재료와 표현의 간결성이 보이지만, 십자가의 높은 탑과 건물의 비례감이 있었다면...
43. 제주영락교회: 건물의 규모와 신앙심은 비례하는 것일까? 십자가가 작게 느껴진다.
44. 제주순복음교회: 높다 높은 천장이 강조되는 것은 동시대의 교회건축의 유행일까?
45. 이룸모름 교회1: 입구의 높은 십자가는 건물의 규모와 무관하게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46. 이룸모름 교회2: 지붕위에 놓인 십자가는 천막인지 신앙의 표현인지 애매하게 느껴진다.
47. 제주성내교회: 입면형태의 중박성과 중앙의 강조는 하늘을 향한 신앙심의 표현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제주 실내건축의 발달과정과 현황 The Development and Current Trend of Jeju's Interior Architecture

이인호 / 제주산업정보대학 실내건축과 교수
by Lee in-Ho

머리말

제주의 실내건축은 역사의 변천속에서 창조의 추구하고 개념의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오늘의 급진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의 맥락이 단절된 시대적 상황 아래서 서구의 유입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사회문화로서의 기여와 정착에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제주의 실내건축은 섬이라는 특성과 관광지라는 입지성으로 인해 그 발전양상을 달리한다. 제주의 실내건축은 본토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 낙후되어 있었으나 관광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호텔이 발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대시설의 증가는 제주의 실내건축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의 건축과 실내건축은 관광휴양지로 고착된 지역여건에 비추어 방문객의 계속된 탐방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는 부가된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각별한 시도가 있어야 하겠다.

제주의 실내건축은 그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제주 실내건축의 생성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 현황을 파악한다. 연대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시대에 있어서 비중있게 대두되었던 사항들을 위주로 살펴본다.

도제(道制)의 실시와 불모의 상황

제주도는 1946년 8월 1일 전라남도의 예속

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는 1915년 도제(島制)가 실시된 이후 31년만의 일로써 9번째로 도(道)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제주 실내건축의 발달은 해방 후 도제(道制) 실시 이후로부터라고 보여진다. 그것도 그 당시의 상황이나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실내건축이라기 보다는 장식이었기 때문에, 기능성보다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더 비중을 두었다. 실내장치나 실내장식으로 불려지는 등 개념의 정립이나 계획의 기본지식 없이 경험과 미적 센스로 디자인을 하던 시기였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반듯한 건물 하나 제대로 없던 시기로 다방이나 음식점 등이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제주도에 화식(和食)집이라는 전문음식점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해방후 1947년 봄이며 제주시 관덕로(觀德路)에서 개점한 수선옥(水仙屋)이 그 효시였다. 수선옥은 지금 한일은행 제주지점이 자리하고 있는 앞쪽에 있었다. 6.25이후에는 산지교(山地橋) 서쪽 모퉁이에 자리한 서울미락(味樂)이 화식집으로 이름을 떨쳤다.¹⁾ 제주도의 최초의 다방으로는 1976년도만 제주연감에 의하면 1947년 10월 7일에 칠성다방(七星茶房)이 제주도에서는 최초로 문을 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다방이 생겨난 것은 1950년 전후라고 해야겠고 칠성로(七星路) 일대에 집중돼 있었다. 그런 다방 가운데서도 남궁다방이 첫손에 꼽혔다.²⁾

여명의 1950년대

4.3사건, 6.25로 이어진 사회적 혼란기였던 이 때는 행정기능을 수용할 관청건축들이 원조자재를 사용하여 지어졌다. 이 때의 건축은 일제하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절충양식을 나타냈다. 4.3사건 피해복구사업으로 제주석으로 벽을 쌓고 목구조의 양식트러스에 슬레이트를 이은 단조로운 창고형 주택이 중산간 마을의 일부에 지어 진것과 제주시 이도동과 삼도동 외곽의 몇 양식주택

1) 풍속도, 이기형, p.320-321, 한라일보사, 1990
2) 풍속도, 이기형, p.66, 한라일보사, 1990



1959년 8월 30일 교통부 예산으로 세워진
도내 최초의 서귀포관광호텔



현재의 파라다이스 호텔 전경

에서 주거형태의 변화를 나타낸 기마를 볼 수 있고 전통주거에도 뒷마루 앞에 유리문을 달아 비바람을 막는 부분적 변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³⁾

1954년 3월 13일에는 상설시장인 동문시장(東門市場)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오랫동안 정체됐던 이 일대의 도시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56년 11월에는 제주개발의 효시가 되는 국립 송당목장이 등장하였다. 국립 송당목장은 국내 최초의 대단위 목장이면서도 이승만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갈수록 유명세를 더해갔다. 급기야 제주를 방문하는 고관대작들은 반드시 이곳을 들러갈 정도였다. 이에 따라 도 당국도 으레 이곳을 귀빈들의 시할코스로 포함해 넣었다. 이러한 유명세를 타고 끝내 목장안에는 대통령전용 귀빈사(貴賓舍)까지 건립되었다. 이 대통령 귀빈사는 59년초 육군 공병대에 의해 지어졌다.

자유당정부는 1959년부터 전국에 교통부가 직영하는 국영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했다. 이는 “외화획득을 위해 지방에 별장분위가 물씬 나는 관광호텔을 건설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이승만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이 방침에 따라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후보지 가운데 무등산과 설악산, 서귀포 등 3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서귀포관광호텔 건립후보지는 해안절경과 섬섬, 문섬이 한 눈에 들어오는 토평동 515번지 소재 지금의 파라다이스호텔(옛 하니문하우스) 자리였다. 호텔 건립공사는 직접 교통부에서 건축기사를 파견, 직영사업으로 추진, 1959년 여름 도내 최초의 관광호텔인 서귀포관광호텔이 문을 열었다. 당시 투숙객용으로 제공된 방은 양실 7개가 고작이었다.⁴⁾

해방 이후 1950년대는 서귀포관광호텔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만한 실내건축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극소수의 유흥공간인 다방 등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태동의 1960년대

1960년대는 산업화와 더불어 국민소득의 증가로 상업공간과 공공공간 등의 수요가 서서히 증가되어 실내건축의 태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0년대의 실내건축은

건축을 전공하거나 응용미술을 전공한 소수에 의해 실내건축의 개념이 도입된 시기이다.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정부는 제주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제주사회가 격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주도로가 포장되고 한라산 횡단도로의 확장포장이 이뤄졌으며 한국 현대건축계를 대표하던 중견작가들에 의해 대형건축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아직까지 양적 해결, 기능 위주의 단조로운 건물에서 건축의 예술성을 새로 접하게 한 것과 함께 비교적 낙후된 도내 건축시공 기술면에 철근콘크리트구조를 도입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주택은 새마을운동의 지방개발사업에 의해서 상당수의 초가지붕 토속건축들이 슬레이트로 바뀌어지고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펜슬라브 주택 선호현상을 나타나게 되었다.⁵⁾

1963년 10월 17일에는 제주 초유의 민영호텔이 들어서게 될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고, 1963년 10월 13일에 제주관광호텔(현 하니관광호텔)을 개관하였다. 제주 최초의 민영호텔인 제주관광호텔이 들어섬으로써 제주 숙박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음은 물론이려나와 고급화의 불을 당겼다. 제주관광호텔이 들어선 이후 제2, 제3의 민영호텔이 제주 시와 서귀포시에 잇따라 들어섰다.

정착의 1970년대

1970년대는 각종 재료의 개발과 사회, 경제의 급진적 발전으로 실내건축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확고하게 정착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70년대초에 있기 시작한 해외건설분과 관광산업의 중점적 진흥, 유흥업소의 기업화, 건설 붐을 조성했던 오피스빌딩의 건립, 아파트군의 건설양상은 실내건축에 편중하였던 그 대상영역의 전환을 보게 되었다. 1974년에 정부는 제주도종합관광개발계획단이 성안한 계획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관광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제주시의 간선도로가 확장되었으며 중문관광단지 개발과 뉴타운인 신제주 탄생되었다. 1973년에는 제주전문대학이 개교하면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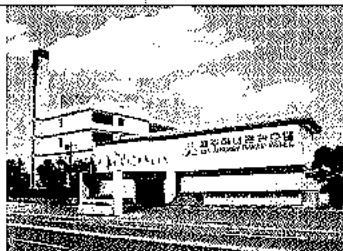
3) 김석운, 건축, 제주도지 II, p.329, 1993

4) 제주한서7, 건설법, p.185-186, 저민일보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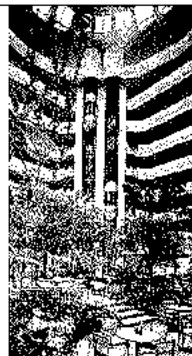
5) 김석운, 건축, p.329-330, 제주도지 II, 1993



도내 최초의 민영 제주관광호텔



현재의 하니관광호텔



로튼다 형식을 도입한 하얏트 리젠시 제주의 로비

축과를 개설하여 대학에서의 건축교육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어 제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기대를 갖게 하였다.

1974년 2월에는 제주KAL호텔이 개관되었다. 20여 층에 이르는 초고층의 이 호텔은 건축은 물론 실내건축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또 이 해에는 제주의 도시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연동시기지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계획은 얼마후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2년여의 진통 끝에 물거품이 된 뉴타운 건설계획은 신제주건설계획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신제주건설은 1978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도청을 비롯한 각급기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백 78세대의 제원아파트가 78년 7월 준공, 본격적인 아파트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주거양식과 실내건축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예고하게 되었다. 신제주건설은 한 전형적인 농촌부락을 몇 년 사이에 오늘의 '신제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시가지는 자연발생적으로 '구제주'라는 상대적인 이름이 붙여지면서 도시의 기능도 재조정되기에 이르렀다.

1979년 8월 25일에는 10억원이 투입된 불법건설된 남원방갈로 74동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철거되었다. 남원을 남원리 속칭 '큰엉' 해안이 1만여평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에 남제주군과 남원읍으로부터 변칙허가를 받아 방갈로를 지으면서 비롯됐다. 이 방갈로는 방 3개, 거실, 욕실 등이 갖춰진 21.9평형 74개 동이었다.

활성의 1980년대

80년대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열린사회라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함께 서울에서 개최되는 86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이라는 디자인계의 호재와 더불어 해외여행 자유화에 의해 서구의 사조가 여과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는 제5공화국이 들어섰으며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유통산업용 건물과 문화생활과 레저용 건물이 대두하였고, 상업적 요구에 의해 소규모 상업용 건물들이 등장함에 따라 실내 자체에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 패션화되

는 경향이 짙어졌다.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신축이 붐을 이루고 고층화, 대형화, 집단화 건축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제주건축의 고유성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80년 9월 29일에는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제주에서 열렸다. 당시 제주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전국대회 규모로는 사상 처음이어서 도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대단했다. 이 전국행사의 준비로 시가지 면모가 일신돼 도시발전이 상당히 앞당겨지는 부대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1981년 7월에는 초대형의 그랜드 호텔이 개관하였다. 이어 1982년 3월에는 서해호텔(현 홀리데이인 코리아 플라자 호텔)이 개관하고, 8월에는 서귀포시에 가족관광객을 위한 한국콘도가 중문관광단지 안에 들어섰고 뒤를 따라 9월 26일에는 제주시 지역에 로얄호텔이 모습을 나타냈다. 85년 3월에는 하얏트 리젠시 제주호텔이 중문에 들어서고 12월에는 서귀포KAL관광호텔이 서귀포 시내에 들어섰다. 1986년 6월에는 제주 프린스호텔이 문을 열었고 88년 8월에는 오리엔탈호텔이 문을 열었다. 89년 12월에는 국민호텔 호텔임페리얼제주가 개관하였다. 지하4층, 지상8층 규모로 건축된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국제적 체인망을 가진 호텔로서 건물 외관은 전체적으로 360°의 동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운다 형식을 도입한 로비에서는 최대한의 자연광을 내부에서 받아들이고 하늘과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는 대형호텔 등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이에 따른 실내건축도 활기를 띄었다.

성숙의 1990년대 현재의 상황

1990년대 들어 제주지역 최대의 관심사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제주의 실내건축도 이 계획에 따라 기대되는 바가 큰 시기이다. 30년만에 다시 살아난 지방자치제는 건축계에 도의회청사와 시의회청사 등 의회건축 특수라는 호재를 가져다 주었다. 아울러 국제회의 등이 개최됨으로 해서 더욱 활기를 띄기 시작한 제주의 실내건축은 다양한 기술의 표현과 기계미학적 표현추구는 기술적 활성화



지중해풍의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



제주 초기의 이미지를 살린 씨 빌리지의 레스토랑

의 디자인으로 기계문명과 하이테크를 바탕으로 개방적이며 동적인 표현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 제주의 전통성을 모색한 작품에서는 현대화된 전통공간의 성격부여 노력과 전통문양을 한 창호, 가구 등을 이용하여 표피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으며, 오브제적의 전통 공예품을 이용한 표현수단을 등장시켜 나타내고 있다.

1990년 5월에는 파라다이스 호텔 서귀포가 개관하고 7월에는 호텔 제주신라가 증문에 들어섰다. 파라다이스 호텔 서귀포는 주변의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리조트호텔이다. 지중해식 빌장호텔인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축되었다. 서귀포 해안의 절벽 위 웅장한 송림속에 균형을 이룬 곡선을 그린 담갈색의 테라코타 지붕과 열대성 식물, 호수로 단장된 파티오 가든이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호텔 제주신라는 유럽풍의 우아함과 아열대 분위기가 느껴지는 지중해 스타일의 리조트 호텔로 중문 골프장 앞의 해변에 면한 비스듬한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다.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밝고 환한 파스텔톤의 실내분위기로 되어 있는 로비를 중심으로 양날개에 객실을 두고 있다. 1991년 7월에는 전통호텔 씨빌리지가 개관하였고 8월에는 금지탑 라곤다호텔이 건립되었다. 씨 빌리지는 전통 민속호텔로 외관이 제주의 전형적인 초가로 치장되어 있으며, 실내는 서양식 스타일의 객실과 한국의 전통을 살린 객실이 각 실별로 분리되어 별장의 느낌을 주고, 가족호텔로서의 역할을 하므로써 타 호텔과의 차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1992년 12월에는 가족호텔 제주베버리힐즈호텔이 개관되었고 1994년 6월에는 그린릴라관광호텔이 문을 여는 등 호텔건축과 실내건축이 활기를 더해 갔다.

1990년 12월 12일에는 목공사업에 교체하여 의장공사사업이 신설되었다. 제주의 실내건축 사무소들도 면허를 취득하여 1997년 1월 현재 14개 업체가 의장공사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⁶⁾

전국 시도별 의장공사업체수 현황(1997.1.4.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135	143	89	61	82	55	88	3	13	12	23	27	36	44	14	1,775

1993년 3월에는 제주전문대학에 건축장식과가 개설되어 실내건축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주에서의 실내건축 교육은 그동안 미술학이나 건축과, 산업디자인과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비로서 제주전문대학 건축장식과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아름 해에는 제주관광전문대학에도 실내건축과가 개설되어 실내건축 교육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두 대학은 졸업전시회 등을 통해서 실내건축 작품을 선보이는 등 다른 곳보다는 늦었지만 활발히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주전문대학 건축장식과는 1998년 3월에 학과 명칭을 시대에 부응키 위해 실내건축과로 변경하였으며, 대학명칭도 제주산업정보대학으로 바뀌었다. 제주관광전문대학도 대학명칭이 제주관광대학으로 바뀌었다.

1994년 5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 1992년 2월 계획안에 대한 과업지시서 초안 작성 이래 2년 3개월만의 일이었다. 2001년을 목표년도한 종합개발계획은 8년동안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모두 7조 3천 9백여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은 중문, 성산, 표선 등 3개 단지와 10개 관광지구를 개발,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지로 조성하는데 두고 있다. 또 한라산과 해안면, 천연보호구역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철저히 보전하며 공항, 도로, 항만, 수자원 등 관광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2대핵 3중핵 도시체계로 개편, 발전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어촌 개발과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1994년 8월에는 제주도미술대전 건축부문에 1작품이 출품되어 비록 입상은 되지 못했으나 건축부문의 시작을 알리었다. 1990년 제주도미술대전에 건축부문이 생겨난 이래로 처음있는 일이었다. 이후 1995년에는 15작품이 출품되어 특선 2작품과 입선 9작품이 선출되었다. 1996년에는 30작품이 출품되어 대상 1점, 우수상 1점, 특선 4점, 입선 9점이 선출되었다. 1997년에는 36점이 출품되어 대상 1점, 우수상 1점, 특선

6) 실내건축자료, p.478,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장공사협회, 1997



파스텔톤 실내분위기의 호텔 제주신라

5점, 입선 11점이 선정되었다. 1993년에는 32점이 출품되어 우수상 1점, 특선 6점, 입선 9점이 입상했다. 제주도 미술대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출품작이 늘어나 건축과 실내건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작품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1995년 1월 21일에는 제주산업디자인협의회(CIDA)가 창립되었다. 산업디자인, 실내디자인, 공예디자인, 사진 등을 전공하는 디자이너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이 협의회는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하여 제주의 산업디자인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디자이너의 권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전시실에서 '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1998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자유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996년에는 제주시가 우수건축물상을 제정하여 현재 3회째에 이르고 있다. 제1회에서는 주거건축과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금상에는 제주관광민속관, 은상에는 김씨 주택, 동상에는 세기건설사옥이 선정되었다. 1997년 제2회에서는 주거건축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탐라상은 수상작이 없었으며, 한라상에 이씨 주택, 이어도상에 문씨 주택, 장려상에 김씨 주택이 선정되었다. 1998년 제3회에서는 일반건축물(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탐라상은 수상작이 없었으며, 한라상에는 신광빌딩, 이어도상에는 예치과의원, 장려상에는 제주산업정보대학 학생회관과 연동빌딩이 선정되었다.

1997년에는 제주산업대학교에 건축공학과가 개설되었다. 이후 제주산업대학교는 탐라대학교로 변경되었으며 학과명도 건축학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6월에는 '탐라의 여명'이라는 제목하에 제주시청 벽면에 벽화가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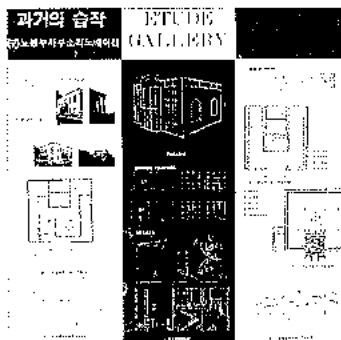
1998년 3월에는 한라전문대학에 건축설계과가 개설되었다. 한라전문대학은 명칭이 제주한라대학으로 변경되었다.

맺음말

제주의 실내건축은 섬이라는 특성과 관광지라

는 입지성으로 인해 그 발전양상을 달리한다. 제주의 실내건축은 본토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 낙후되어 있었으나 관광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호텔이 발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대시설의 증가는 제주의 실내건축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의 실내건축은 해방후 40년대 후반에 다방을 비롯한 디자인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50년대 후반에 서귀포관광호텔을 시작으로 호텔디자인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는 산업화와 더불어 국민소득의 증가로 상업공간과 공공공간 등의 수요가 서서히 증가되어 실내건축의 태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0년대는 관청건물과 박물관 등 공공건물의 디자인이 활기를 더해갔다. 대학에서의 건축교육이 이루어지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1980년대는 제주 특유의 향토성 건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실내건축에 있어서도 향토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특급호텔의 등장과 신혼여행객의 증가는 실내건축을 한걸음 나아가게 하였다. 1990년대에는 외장공업의 등장과 더불어 도내의 14개 업체가 의장공업 면허를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곳의 대학에서 실내건축에 대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형 판매공간과 전문점등이 곳곳에 등장하여 실내건축을 활성화하고 식음료공간도 전문성을 띄는 디자인으로 그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제주도미술대전에서는 건축부문에 있어서 실내건축 작품들이 활기를 띄고 있으며, 제주산업디자인협의회 활동도 기대가 된다. 근래에 IMF 영향으로 활동이 주춤했으나 메가리조트계획과 국제자유도시로의 움직임에 따라 점차 활기를 띄리라 생각된다.



철성로에 위치한 하이테크하고 모던한 패션숍
KOOGI



핑크스 골프클럽의 클럽하우스 로비

비제주인의 제주 건축읽기

Reading the Architecture of Jeju: An Outsider's View

황태주 /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by Hwang Tae-Joo

비제주인의 제주 건축읽기를 시작하면서

제주에 온지 이제 일년하고 반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제주 건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아니 상당한 시간이 더 지난다 하더라도 제주 건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며, 어쩌면 그별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만 아니라 풍토, 심지어 지역 토착민의 생활과 관습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삶과 죽음을 통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축적해온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36년이란 긴 시간을 지역적 정체성이 결여된, 또는 불특정 문화가 혼재된 지역에서 지냈던 필자로서는 한 지역의 일관된 역사적 정체성을 어쩌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의 집적체인 건축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필자가 이 글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비제주인이기 때문이며, 이는 외부인의 시각으로 본 제주의 건축읽기를 통해 제주건축의 정체성 이해에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그간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적 시각으로 접근할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자칫 피상적인 접근이나 근거없는 해석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

작년에 필자는 4학년 학생들의 조형과목 과제

로 제주조형의 모티브와 대표적인 제주건축의 조형분석에 대한 과제를 내준 적이 있었다. 과제의 목적은 건축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문화기질에 바탕을 둔 조형의식의 표출이며,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지역의 조형성을 찾아 분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 과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제주의 건축과 조형요소를 보다 빨리 이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학생들은 제주조형의 모티브로 한라산, 오름, 오름의 능선들이 형성하는 부드러운 곡선, 제주민가, 올레, 돌하루방, 화산암파 돌담, 방사탑 등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바람이나 제주인의 강인한 심성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강한 바람과 돌은 제주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까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었다. 제주의 건축은 바람의 영향을 피해야 할 수 없었으며,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고 죽어서까지 돌담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제주건축의 정체성 읽기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건축의 지역성 읽기 1 - 절충적 지역주의

제주건축의 지역성 모색은 1980년대부터 그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작된다. 제주의 지역성을 표현한 비교적 초기작품인 제주자연사박물관(김홍식, 1983/사진1)은 제주의 민가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 중정을 중심으로 회랑으로 구성된 전시실의 벽과 지붕은 모두 현무암으로 마감되었다.

제주건축의 지역성 표현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 즉 육지의 본토와 달리 민가에서 그 원형을 찾고 있다. 마을 어귀로부터 담장 내의 온실한 장소까지 펼쳐지는 기승전결의 공간전개, 돌담과 지붕의 간결한 볼륨으로 파악되는 건물형태, 건축의 주재료로서 현무암의 사용 등이 제주민가를 원형으로 하는 제주건축의 공통적 특성으로 파악된다. 제주민가에 나타나는 공간은 외부지향적이지 아닌 돌담 또는 건물내부로 끌어안으려는 강한 구심적 성격을 지향하며, 형태는 볼륨으로 파악되는 양귀감과 낮으면서 부드러운 지붕선, 고창을 통해 드러나는 처마선 등으로 수평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민가는



사진1. 제주자연사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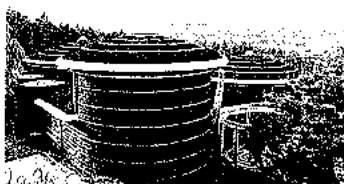


사진2. 기담미술관



사진3. 제주문예회관

부재의 조립, 즉 가구식 구성이 그대로 외부에 드러나기보다는 돌담으로 둘러싸여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지게 하며, 외부로 표출된 형태는 벽체와 지붕의 간결한 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부재의 수직적 표현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아 더욱 수평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수평성이 강조된 형태특성은 제주의 기후인자, 즉 바람의 영향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권위적이지 않고 소박한 제주인의 심성을 잘 표현해 준다.

반면, 본토의 경우 지역성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그 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이나 관아건축 또는 상류주택 등의 권위건축을 통해 건물형태나 공간전개방식의 원형으로 살고 있다. 따라서 그 표현양상은 권위성이 표현되는 강력한 대칭성이나 열주 등 전통건축에 대한 직설적 접근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자연사박물관의 경우는 제주의 민가에서 보이는 부드럽고 낮은 지붕선, 볼륨으로 파악된 매스, 주재료로 현무암의 사용 그리고 고창으로 강조된 처마선에 의해 수평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민속사전시실에서 보이는 긴 처마는 제주민가의 초기지붕에 나타나는 소박한 맛보다 기와집에서 보이는 권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열주 및 중정식 회랑, 회랑을 통해 각부가 연결되는 공간구성수법 역시 본토식의 한국성 또는 전통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회랑은 열주 밑에 작은 연못을 배치함으로써 권위적 성격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검은색의 현무암 벽체에 백색의 기둥선을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전통건축에서 보이는 가구식 구조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제주자연사박물관은 당시의 전국적 현상인 한국성 또는 전통성의 표현징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제주의 지역성을 모색해 가는 과도기적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작가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는 기당미술관(김홍식, 1984/사진2) 역시 제주의 전통적인 조형형태인 놀이마 불리는 곡식저장고에 원형을 두고 있다. 이는 마치 곡식을 저장하듯 마음의 양식인 문화예술을 저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당미술관의 외벽은 현무암 잔다듬과 현무암 막쌓기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실의 기능에 따른 계층적 질서

를 보여주고 있다. 공간의 전개수법은 제주자연사박물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전시공간을 회랑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곡선의 지붕을 가진 세 개의 원통형 매스는 서로 중첩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 원경을 제공하는 오름의 형상을 담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에서 보이는 것과 반대로 권위적인 수직성보다 수평성을 강조하기 위해 벽면에는 백색의 띠를 두르고 있으며, 지붕 밑의 고창이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입구부분은 서양의 고전건축에서 보이는 에디콜러를 도입하여 기념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구부분의 강조는 여전히 공간의 위계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시리즈를 연상하게 하는 제주문예회관(김홍식, 김상식, 1988/사진3) 역시 제주의 전통적인 민가에 그 원형을 두고 있다. 제주건축의 지역성을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작가는 제주문예회관에서 제주민가의 원형을 보다 충실히 재현하려 한 것 같다. 특히 이전의 두 개의 건물에서 보이는 거친 지붕마감과 달리 잔다듬한 현무암으로 제주민가에서 보이는 초기지붕의 띠장을 줄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이후 다른 건축물 지붕표현의 원형이 되고 있다. 위계적 질서를 갖는 지붕은 수평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중첩되어 제주의 자연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대극장은 무대와 객석이 형태적 필요성에 의해 두 개의 매스로 분리되어 상호관입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무대부분의 프로세니엄을 형성하는 매스는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보다 높은 층고를 형성하고 있으나 지붕 밑의 처마부분에 고창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을 두므로써 벽과 지붕의 분리를 시도하고 있어 수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주출입부의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단의 조성과 열주량, 매스와 매스의 연결을 위해 사용된 회랑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같은 작가에 의한 일련의 작품을 통해 표현된 제주건축의 지역성 찾기 작업은 지역성에 근거한 단순한 형태적 요소의 절충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의 정체성 모색을 위한 실험적 시도로서 제주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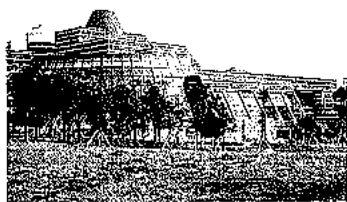


사진4. 제주관광민속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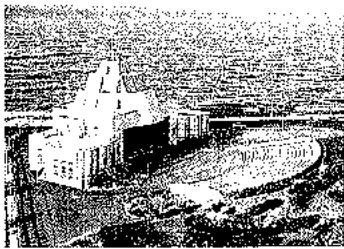


사진5. 탐들해변공연장



사진6. 제주국립박물관

과 논의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틀림없다.

제주건축의 지역성 읽기 2 - 추상적 지역주의

80년대 제주건축의 정체성 표현이 주로 민가를 원형으로 하는 역사적 요소의 절충에 있었다면, 90년대의 건축에서는 제주의 자연과 조형물을 추상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다음에 소개되는 두 개의 건축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현상공모에 의해 건축된 제주관광민속관(김희수, 1993/사진4)(이 건물은 최근 민간단체에 이양되어 제주민속관광타운으로 사용되고 있다.)은 제주의 지역성 표현을 위해 한라산과 오름의 형상을 추상화하여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외벽 마감은 80년대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현무암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둥미술관에서와 같이 수평성을 강조하기 위해 백색의 띠를 들렀다. 제주의 오름을 추상화한 사다리꼴의 피라미트 형태들은 서로 관통하면서 중첩되어 사용되었고, 다른 요소들의 모양과 차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한라산의 정상부를 의미하는 초록색의 원추형태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다소 직설적으로 추상화된 형태요소와는 별도로 2층의 사무실로 출입하기 위해 노출된 외부계단은 붉은 색의 기둥과 보로 구성된 장식적 구조체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반대쪽의 공연장 로비는 커튼월로 처리되어 있어, 장식적 구조와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제주의 지역성을 동시에 표현하려는 혼성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탐동해변공연장(김웅철, 1995/사진5)은 제주 특유의 조형물인 방사탑에서 보다 직설적으로 추상화된다. 특히 건물 상단에 까마귀 모양의 돌을 올려놓아 건물의 정점을 이루게 한 것은 이 건물의 원형으로 방사탑이 도입되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 방사탑은 농어촌부락에서 어떤 방위로부터의 불길한 징조나 지형이 비어있어 허전한 방위에 대한 방어조치로 쌓은 돌탑으로써 일종의 방벽기능을 하고 있다. 건축대지의 성격상 비어있는 바다로부터의 방어적 성격을 부여한다면 충분히 있을법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탐동해변공연장은 무대로써의 건물이 중심이 되어 부채꼴로 객석이

펼쳐져 있다. 건물의 마감은 이전의 건물들과 달리 화강석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어 재료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성 표현의 또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상설계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제주국립박물관(김기웅, 1992/사진6)의 경우에는 어떤 뚜렷한 제주의 지역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이다. 현재 내부마감단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이 작품은 기단부에 화강석 돌붙임과 몸통에 송이타일, 지붕에 동판을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3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기념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강한 축과 이로 인한 기념성 및 권위주의적 특성은 보이고 있지만,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관의 공간구성은 같다. 형태적으로 놀의 지붕과 제주의 오름을 연상하게 하는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이 중첩되어 나타나지만 벽체의 양피감은 약화되어 있어 매스로서의 중량감보다는 면으로서의 가벼움이 나타나고 있다. 독립기념관과 같은 것으로 사용된 지붕 재료는 부식후 벽체와의 분리된 느낌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제주건축의 지역성 읽기 3 - 비판적 지역주의

제주시립탐라도서관(김석운, 1989/사진7)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작가 자신의 사옥인 김건축사무소 건물을 분석해 보면, 외형은 일반적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단순한 박스형 매스에 송이타일 마감, 만사드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 붙임, 각종의 기능구성은 지하의 갤러리와 1층의 상점, 2층에 자신의 사무실과 상층부의 주거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1층 상점의 가로에서 진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굴절된 통로를 따라 걸어야 하며, 주공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작게 개방된 공간을 지나 길(브릿지)로서의 복도를 지나야 한다. 즉, 제주의 민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주공간에 접근시키기 위해 몇 개의 분할된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무엇보다도 독특한 공간은 지하 갤러리로부터 진입되는 폐쇄된 작은 외부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은 공간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허락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외부공간으로 전통적인 제주민가에서 보이는 안뒤의 현대적 해석으로 보



사진7. 제주시립탐라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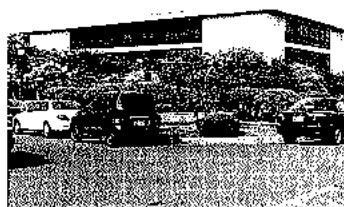


사진8. 우당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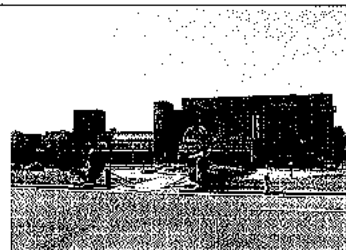


사진9. 제주학생문화원

이다. 제주민가의 독특한 공간인 안위는 인거리의 후면에 위치한 작은 외부공간으로서 타인에게 비공개되는, 말하자면 집주인의 비밀정원인 것이다.

제주시립탐라도서관 역시 전통적인 제주의 조형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건물의 배치는 강한 축을 중심으로 H자형의 대칭적 구성을 하고 있으며, 건물 전면의 열주는 이러한 대칭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송이타일로 마감된 전면의 파사드는 마치 이태리 베나스의 상 마르코 광장에서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베니스 고딕풍의 팔라조 듀칼레의 디테일과 흡사하다. 그러나 중앙 현관과 로비를 지나서면 건물 전면으로 가려졌던 외부공간이 펼쳐진다. 규모로 봐선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앙로비를 지나야만 한다(그러나 실제로 현재의 도서관 운영은 이 문을 폐쇄하고 있어 이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한바퀴 돌아야 한다). 실내는 중앙로비부분에 천창을 두어 상부까지 오픈시켰으며, 이 부분을 가로지르는 브릿지는 양翼부의 서가와 열람실을 연결하고 있다. 양翼부는 스폴릿 형으로 층을 구성하여 층고에 따라 크고 작은 공간을 기능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동선은 복잡하고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현대적인 건축의 기능과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지역의 전통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건물의 형태나 내용중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자세로부터 나온다. 제주건축의 지역성을 찾기 위한 또다른 방법은 바로 이러한 비판적 자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제주건축의 지역성 읽기 4 - 합리적 기능주의 vs 상징적 기능주의

우당도서관(김종성, 1984/사진8)은 서구 모더니즘 건축의 합리주의 원칙이 지역의 문화나 풍토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건물의 외부에 나타나는 엄격한 격자 그리드는 도서관 내부에 적용된 모듈의 구조적 질서를 짐작하게 한다. 순수입방체에 의한 좌우대칭적 형태와 상부의 장방형 매스를 가볍게 지지하는 기둥은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이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기둥의 열은 고전

적 열주가 나타내는 상징성과 거리가 먼 순수하고 합리적인 기둥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기능적 합리성과 간결한 구조미를 추구하고 장식성을 배제한 이 건물은 서구 모더니즘 건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로 들어가면 상부까지 오픈된 중앙로비는 천창으로부터 밝은 빛을 제공받고 있으며, 긴변으로는 열람실이, 짧은 변으로는 수직동선이 배치되어 간단하고 합리적인 실내공간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방형의 매스와 직각으로 걸쳐있는 양방향의 외부공간은 육중한 돌담으로 폐쇄된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있어 중앙로비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 공간은 공공시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개방된 외부공간도 아니며, 건물로 둘러싸여 있거나 내부로 끌어들인 중정형의 외부공간도 아닌 오직 이 건물로의 출입이 허락된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폐쇄된 외부공간인 것이다. 만약 이 건물이 제주인에게 친근감을 준다면, 그것은 간결한 형태와 합리적 기능을 추구하면서도 제주의 공간특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려 했던 설계자의 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학생문화원(강행생/사진9)과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허영주/사진10)는 합리적 기능주의를 추구하면서 기술 표현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과 레프초 센터, 극장 등의 문화기능을 수용하고 있는 학생문화원은 순수하고 합리적 형태에 장식적 구조체인 스틸 프레임용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하이테크의 기술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는 수평성을 강조하는 스틸 프레임과 가벼운 피막으로서의 커튼월이 매끄러운 표면을 나타내는 슬릭테크의 기술적 이미지를 표현하며, 수평성이 강조된 가벼운 피막과 수직성이 강조된 매스의 강한 대비와 형태의 부분 절삭 및 부가에 의한 강한 음영, 형태의 중첩과 관입으로 다양한 공간성이 표현되고 있다.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재벌기업체나 은행, 보험회사 등은 건축물 자체를 상업주의에 입각한 하나의 기호로 이용하고 있다. 대고객 관계가 중요한 이러한 업체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업체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독



사진10.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진11. 대한교육복지제주사육



사진12. 현대사육

특하고 상징적인 자신들만의 통일된 기호가 필요했던 것이다. 80년대 초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에 모습을 드러낸 대한교육보협사옥은 시민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이식시킨 후 각 지방도·시·마다 본사를 그대로 복사한 지점을 개설하였다. 1991년도엔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사진11). 이후 신흥 상업·업무지구로 신제주가 개발되면서 현대사옥(사진12)과 삼성화재사옥(사진13)도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업무시설들은 기능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인 평면배치를 위해 단순한 형태인 입방체를 선호하면서, 다양한 외피로 자신들의 상징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제주 건축의 지역성 읽기 5 - 이국적 낭만주의

외부인의 입장에서 제주는 이국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열대의 아지수, 신비한 자연이 빚어내는 환상적인 경관은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며, 이러한 이미지에 편승한 건물들은 대부분 천혜의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서귀포의 파라다이스호텔(김호, 1990)이나 신라호텔(박승, 1991), 그리고 곧 개관예정인 제주영화박물관(김석철, 1997/사진14)이 그러한 건축물들이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대개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작가의 개인적 성향을 나타내는 파시적인 건축형태가 매우 개방적인 외부공간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표현주의적 성향이 짙은 제주영화박물관의 경우에는 자폐적인 형태에서 감지되는 폐쇄적인 내부공간이 개방적인 외부공간을 밀어내는 듯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제주민가에서 보이는 비와 같이 건물이 끌어안은 폐쇄적인 외부공간의 감각과도 대비를 보이고 있다.

마치면서

지역의 정체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삶의 체험이 공간적 흔적으로 각인되고 공동의 기억에 남을 때 형성되는 역사적 생성물이다. 정체성의 확보란 문화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의 정체성은 파악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인식과 행위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제주건축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 정체성의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엄청난 결론은 어느 누구라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지역주의란 개인성에 대해 존중하며, 각자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감정적, 물리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기디온의 말을 뒤로하고 편협된 시각으로 시작된 제주건축의 지역성 읽기를 마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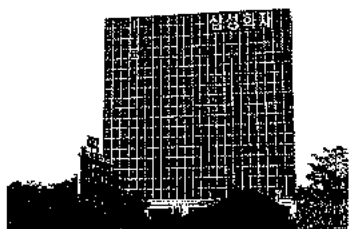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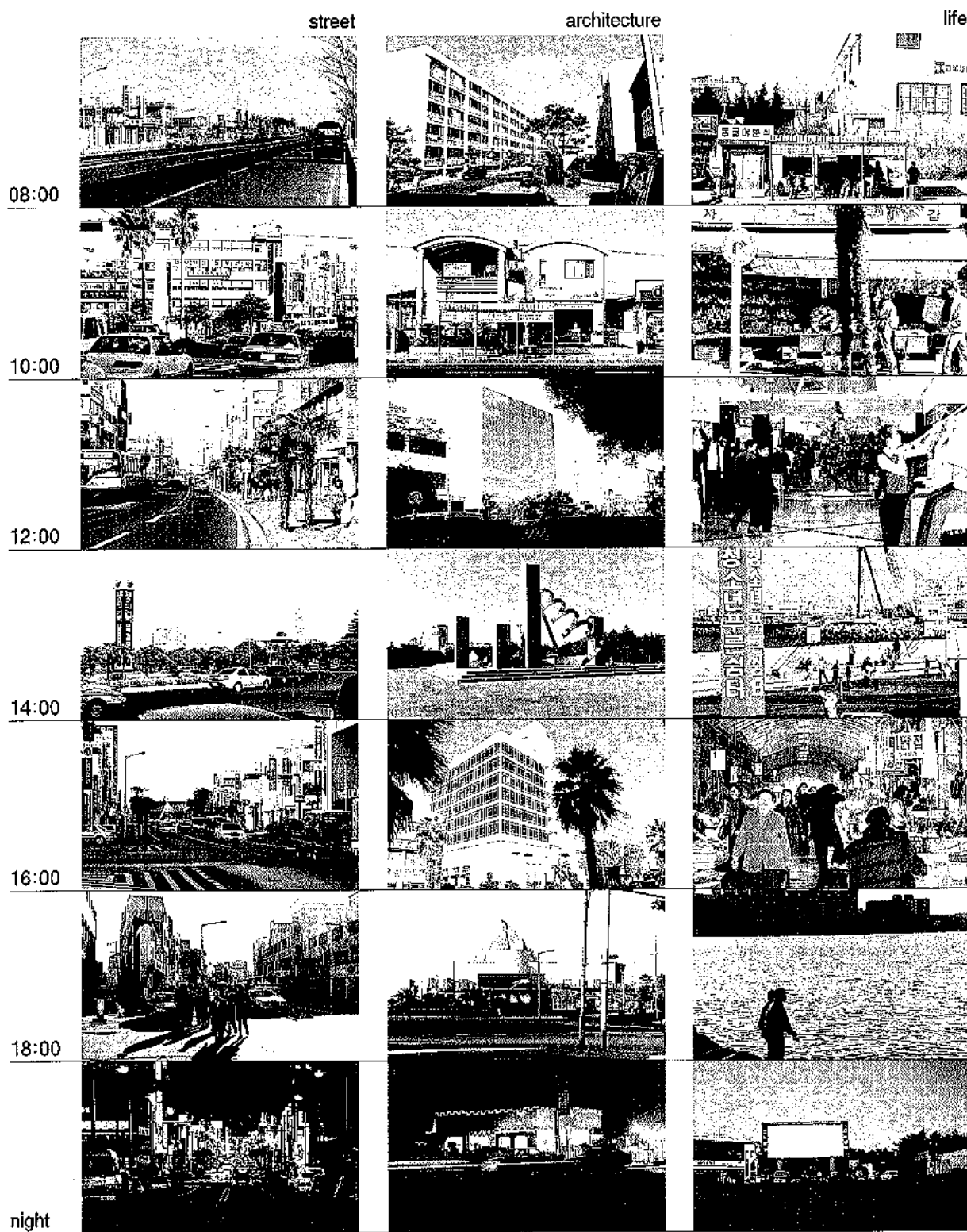
사진13. 삼성화재



사진14. 제주영화박물관

제주에서의 하루
One day in Jeju-City

황태주 /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by Hwang Tae-J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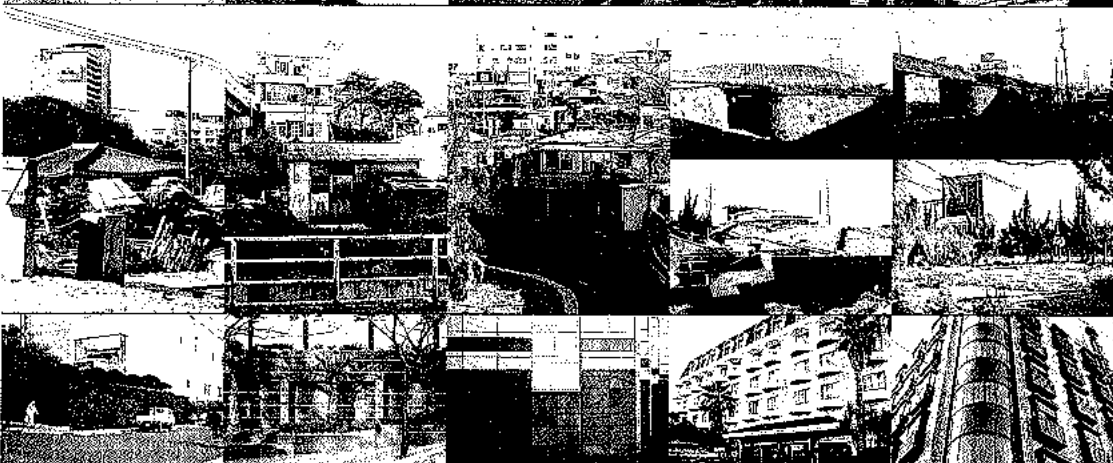
life



architecture
as phrase



contrast



detail



제주건축의 과제와 전망 The Issues and Prospects of Jeju's Architecture

김홍식/ 명지대학교 건축과 교수
by Kim Hong-Sik

세기말 개방화 시대, 제주의 위기

1) 19세기 이전의 제주

제주에는 토지가 화산재로 덮혀 있어서 박하고 작아서, 재생산을 이룰 수 있는 경제단위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선사시대 이래 외부와의 관계 안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찍(기원전)부터 배를 만들어 육지와 중국 심지어는 왜와도 교역을 했었다. 그러나 국경 문제가 비교적 명확해지는 역사시대 이후부터는 스스로 가까운 백제에 복속했고 백제가 망하자 다시 신라에 복속했다. 그러나 신라쪽에서 보자면 탐라가 뱃길이 멀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았는지 행정적으로 느슨한 관계를 유지했을 따름이지, 우산국(울릉도)처럼 군대를 파견하여 병합하질 않았다.

이런 관계는 고려 때에도 마찬가지였는 바, 삼별초 때나 고려말 몽고 잔당을 쳐부실 때도 주민의 고통이야 심했겠지만 탐라를 병합하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질 않는다. 필경 조선초에는 탐라의 귀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를 조정해 받치고 마침내 태종 때 조선의 군현이 설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제주민들은 러말선초에 걸쳐 자행되는 왜구의 침략에 대해서는 굳세게 저항하면서도, 조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력적 협박이 없었는데 스스로 복속되기를 바랐을까? 제주의 자연적 조건이 식량의 자급자족을 불가능하게 했고 특산물도 많이 생산되었으므로 외부와의 교역을 통해서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선이 거리상 가까웠을 뿐 아니라 중간에 추자도라는 기착지가 있어서 전통적 조선술로도 충분히 교역을 할 수 있었다.

조선초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서 유입되면서 육지의 발달된 농사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때는 화전에 의한 농법인 것으로 보이며 씨앗의 개량 등이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한적이거나 육지와 교역 증가는 제주의 부를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주의 화전농법은 대단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 것이었고 임란 이후 육지에서 유입된 인구의 증가는

다시 제주의 식량 자급 기반을 위협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정부의 제한적 교역정책은 이로 말미암아 제주민의 많은 저항에 부딪혔고 필경 정조대에 이르러 자유로운 통행을 허가하게 된다. 따라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18세기 전후에 제주에는 미증유의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부와 새로운 농사법을 바탕으로 신 개척지를 열기 시작한다. 농사에 거름을 쓰기 시작했고 특히 산성화한 밭에 오줌과 돼지분은 대단히 좋은 비료가 되었다. 아마도 제주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를 누렸던 시기는 19세기 후반이 아닌가 싶다. 육지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외국으로부터 더욱 고립되었으므로 제주의 특산물은 중국이나 일본 대신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의 농사는 육지에 비해 여전히 생산력이 지극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특산물에 의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를 꽤 축적했고 이들은 육지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외국에 개방하면서 제주의 상대적 비교우위가 차츰 사라지고 다시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때 다시 제주의 민란이 재발하는 것이다.

2) 20세기 제주와 오늘의 위기

1900년이 접어들자 제주에는 참으로 어려운 위기를 맞는다. 제주의 경제는 하루 아침에 그 기반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탈은 이전보다 더욱 극심해진다. 또한 일인들은 해안가에 있는 많은 미목(좋은나무)과 한라산의 나무를 남벌해 간다. 이를 위해 일주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의 경제적 기초를 흔들었을 뿐 아니라 남벌에 의한 한발은 이후 제주의 농업을 황폐화하게 한다. 더군다나 일본의 발달된 어민의 제주 해안에서의 남획은 제주의 어업을 파멸하게 만들었다. 이로부터 제주민들은 항토를 유리하여 부자들은 전라도로, 가난한 사람은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이들은 일제 말 징용자까지를 포함하여 전도민의 반 이상이 이에 해당하게 된다. 1920년이 되면 일본은 1차대전의 승전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일본화하기 시작한다. 제주에도 산지향을 축조하고 행정조직을 개편하며 교통로를 일본과도 연결한다. 제주의 경제가 일본인의 항도 아래 재편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1935년 이후에는 일인들의 전시체제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자립기반이 없는 제주도에서, 특히 식량 문제로 자급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시기는 해방후까지 연결되어 195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겨우 제자리를 찾게 된다.

1960년대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감귤 등 특산물에 힘을 쓰므로서 제주가 생긴 이래 가장 빠른 경제적 성장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의 산업은 1차산업이나 3차산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을 하지 못하고 단순생산 기반을 확충하는데 지나지 않

는다. 따라서 부의 축적이 고품으로 증대하지 못하고 더하기로만 진행되었으므로 산업사회로 진입한 오늘날에 와서 제주도 경제는 대단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90년대 후반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 개방화의 물결이 넘실대자, 제주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사회 내부에서의 비교우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진 비바람을 맞게 되었다. 제주의 1차산업인 감귤 등은 중국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고 3차산업의 주종인 관광은 그동안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하여 멀리 동남아는 물론 가까운 괌이나 오키나와에게도 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새로운 산업의 전환(구조조정)이 필요한 때가 되었으며 대규모 투자만이 이런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처방으로 되었다.

그러나 제주처럼 비싼 지대(땅값)을 지불하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에서는 평당 1불도 채 안되는 땅에서 굴을 재배하는데 여기서는 그 50배가 넘는 지대를 물면서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땅의 가격에 너무 거품이 부풀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인은 땅값의 하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제주인의 부는 바로 땅값에 있었기 때문이다. 벌써 제주의 많은 땅들이 외국인에게 팔려 나갔으며 그동안 이 땅값이 제주인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인다고 한다면 긍정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정책 당국자로서는 딜레마이다. 땅값을 부추기면 사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을 막으면 제주인과 여기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반대한다. 그것을 필경 사업자에게 사업의 소득에(땅값 상승에) 대한 매력을 부추기게 되고 사업 자체는 별 관심이 없게 된다. 결국 양쪽의 이해의 상충을 절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전망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정책당국에서는 국제자유도시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누가 제주인을 위해서 투자해 줄지 의문이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3) 전근대 건축 개황

• 3칸 안팎거리 내지 뽕3알4간집

아마도 전통적인 건축은 육지에서 말하는 (안채만 있는) 정택으로서 안거리를 중심으로 앞에는 마당 뒤에는 안뜰을 배치하는 형식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안거리는 2칸 내지 3칸집이었을 것이며 농사가 많은 집에서 헛간채가 마당 맞은편에 배치되는 정도였으리라 - 이런 두이자 배치는 육지의 경우 통상 서남해안에만 존재하는 형식으로 내륙지방에서는 그 배치 일반적이었다.

18세기 들어 농사법이 개량되고 부가 축적되자 제주도의 집들은 좀 높은 곳으로 올라오고 규모가 3칸집으로 커지며 밖거리에 쪽은구들을 시설하게 된다. 이후 차츰 밖

거리 안에 있던 쇠왕, 방애왕 등의 농작업공간이 묵커리로 나가고 규모를 갖춘 살림채로서의 밖거리가 탄생한다. 이때 부자집에서는 뽕3알4간집이란 구조가 탄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는 농사법과 함께 의학이 발달하여 인구증가율이 급속하게 증대한다. 따라서 요구되는 구들을 더 가질 필요가 있었으므로 부엌을 크게 만들고 그 안에 쪽은구들을 시설하는 방식이다. 19세기 말에 들어서면 이것이 4칸집으로 발전하지만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집의 규모는 바로 세금의 기준이 되었으므로 외형적으로는 3칸집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안팎거리와 묵커리 및 대문간채가 만들어지지만 본격적인 사랑채 공간은 만들어지지 않고 문간채 앞에 농사공간으로서 바깥마당이 설정되는 정도이다.

• 머리방의 등장

19세기에 들어서면 부자집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고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육지의 영향 - 이를 제주인들은 제주에 귀양온 학자들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으로 선비의 공간을 집안에 마련한다. 물론 이때 문문과 이문이라는 겹의 미학도 채용된다. 제주에 있어 전통적으로 밖거리는 젊은 세대의 집 혹은 경영에서 물러난 노인의 거처로 여겨져 왔으나 18세기 후반부터 자녀의 교육공간 내지는 선비의 공간으로서 밖거리 쪽은구들과 고방에 마련하는데 집의 옆 측면에서 진입토록 하여 집안의 동선과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간접이 방식 역시 육지부 서남해안지대의 기법으로서 서로간의 문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육지부와 다른 점은 이쪽이 밖거리에 시설하는데 비해서 육지부는 몸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집의 머리쪽에서 진입하는 것은 성리학의 예법에서 있어온 오랜 관행이므로 서남해안 문화의 직접적 영향이라기 보다는 성리학적 철학에 따른 독자적 공간해법이라고 여겨진다.

문문과 이문을 두는 것은 선비들의 공간에서 긴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랑마당이나 행랑마당 없이 단순한 울레에만 이렇게 시설하는 것은 양택론에서 주장하는 겹의 미학을 이렇게 제주적으로 해석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문문과 이문을 동시에 두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도시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둘 중 하나만 시설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농가주택에서는 긴 울레로 대신했을 뿐 대문시설은 하지 않았다. 대문은 묵안이나 납읍, 성읍, 대정등의 도시주택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관원들의 출입이 잦거나 혹은 육지와와의 문화교류가 많은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주로 유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 근대건축의 탄생

20세기에 들어서면 육지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동도서기의 사상이 들어온다. 우선 집에 현관을 덧붙인다. 다음은 전면 혹은 후면의 퇴마루(난간) 앞에는 미서기 유리창

을 시설한다. 정지는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벌동으로 독립하고 안거리는 모두 구들을 놓으며 상방과의 사이는 미서기 문을 설치하여 개방하기 쉽게 한다. 미서기문은 지게문(세살문)보다 값싸게 제작할 수 있고 도로레에 의해 쉽게 개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부엌이 벌동으로 독립되지 않을 때는 집안에 두 되 뒤쪽 구석으로 배치하여 정지간의 기능이 대폭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지가 죽은구들 뒤로 처마말을 이용하여 시설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간접이의 변천은 거의 1970까지 계속되며 70년대 이후 새로운 택지개발과 시멘트벽돌조의 새로운 건축형식의 발생이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유도한다.

제주의 건축을 만들었던 사람들

1) 제1세대 건축가

해방 전까지 제주에는 일반인에 의한 근대적인 건축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건물로는 구제주도립병원을 들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건물들은 당시 제주가 행정적으로 전남에 속해 있었으므로 전남도에 근무하던 일인 건축가사에 의해 설계됐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전남도청에는 한국사람으로 김순하씨가 근무했었지만 이분에 설계를 했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는 없으므로 일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기타 몇 개의 건물이 있었다고 하지만 모조양식의 조악한 것이었다. 이후 공백기를 거쳐서 본격적인 근대건축이 제주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 이때 건축된 건물로는 제주동문백화점(김한섭), 제주대학신 캠퍼스(이광노), 구제주대학 본관(김중업) 등이 유명하다. 1963년 필자가 동문백화점 현장을 가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콘크리트를 믹서로 비빈다고 했으므로 60년대 말까지는 거의가 손비비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시기 제주의 건축 붐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소규모 민간건축은 거의가 재향 건축가인 강기정씨가 담당했다. 제주의 건축교육기관으로는 한림공고가 있었는데 5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으므로 아직은 건축 일선에 나오기에는 일천했기 때문이다. 강기정씨는 나중에 목포공고가 되는 송정공업전문학교를 졸업했으며 아직은 교통이 전남쪽으로 편리했으므로 전남쪽의 학교 출신자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출향 건축가로서 김한섭씨가 민간, 관을 막론하고 조금 규모가 큰 건축물은 많이 설계했다. 제주에 인간관계가 두루했을 뿐 아니라 제주에선 아직 구조계산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김한섭건축연구소에서는 이것까지를 담당할 수 있었으며 또한 당시 제주에선 볼 수 없었던 투시도까지 그려서 표현해 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관이나 외지인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축설계에 서울의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하곤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주대학 설계였다. 제주

대학은 국립대학으로서 문교부와의 관계가 중요했고 당시 문학장(?)이 개인적으로 김중업씨와 가까웠으므로 처음에는 이광노교수에게 설계를 의뢰했다가 나중에는 김중업씨에게 부탁해서, 유명한 구제주대학본관과 농학부 및 수산학부 설계를 했다. 또한 제주 최초의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힐 옆의 (구) 제주관광호텔은 김태식씨가 설계를 했다.

이상과 같이 세가지 유형의 건축가가 있었는데 재향 건축가의 경우는 다수의 소규모 건축을 설계했지만 소위 기능만을 끌어내는데 불과했고 출향 건축가와 외지 건축가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예술적인 건축을 설계했다. 그렇지만 외지 건축가는 연줄을 따라 들어왔으므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향토건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주건축 문제의 모순 해결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김중업씨는 지나치게 예술성을 강조한 나머지 제주의 건축기술수준에 맞지 않아서 종내는 구조적 결함을 나타내곤 했다. 그렇지만 제주인에게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줬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제2세대 건축가

70년대가 들어서면 학부출신의 건축가들이 속속 입향하기 시작하며 서울에서 활동하는 출향 건축가의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 1973년에 제주 공항이 확장되고 1975년이 되면 신제주 구획정리와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되는 바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출향 출신으로 70년대 전반기에는 김한섭씨가 많은 작품을 남기지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젊은 사람으로 한양대 출신의 김희수씨가 다크호스처럼 나타난다. 김희수씨는 제주도라는 특징을 살려서 당시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제주칼호텔을 설계하면서 제주에 신축되는 관청 건물, 특히 학교 건축은 거의 독식하게 된다. 80년대에 들어서면 김홍식, 김삼식 형제의 작품이 몇 점 제주의 향토색을 추구하면서 지어진다. 대표적인 작품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기당미술관 등이 있다. 이때부터 제주에서 행해지는 건축은 하나의 화두처럼 향토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90년대 들어서면 건설부 공무원을 지낸 까닭에 드러나지 않았던 한규봉씨가 서귀포시청사를 비롯하여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은 중앙무대에서의 이름만큼이나 제주에서의 활약은 두드러지지 못하다.

그러나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지는 건축가는 재향 건축가들의 약진이다. 대략 20여명 이상으로 헤아려지는데 제1세대 강기정씨를 대신해서 강요준, 강행생, 강은홍 등과 후반의 김석윤, 김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김한섭씨의 제자이면서 육지에서 교육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 김창우씨 등은 한대 출신으로 김희수씨 설계사무소에서 훈련받았다. 이들은 학부출신답게 건축설계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경우가 강요준 설계의 제주도의회의사당, 김창우의 한림공

원안나소, 백형철의 과원주택 등이다. 90년대 들어서면 아들에 의해 설계되었던 강행생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학생회관 및 도립도서관 및 김석윤의 애일문화체육관, 제주도공무원교육원 등은 재향 건축가의 면모 변신을 확인시켜준다고 하겠다.

반면 외지인의 건축은 약간 주춤하며 80년대 들어서 중문등지에 지어지는 여러 건축물에 참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분이 김기웅씨 일 것이다. 제주의 지역성을 동근 지붕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포스트모던적 분위기를 살려서 국립제주박물관이라던가 중문 제주관광센터를 설계했다. 또한 지속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설계사무소는 자본을 바탕으로 들어온 삼우설계일 것이다. 제주신리호텔, 제주의료원 등이 있다. 90년대 들어서면 신축 건물이 많은 것만큼이나 여러 건축가들이 참여하지만 모두 단발성에 그치고 제주의 지역에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듯 하다.

3) 제3세대 건축가

90년대 이후 활약하는 세대로서 오히려 재향 젊은 건축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김유봉의 제주산업정보대학 학생회관이라던가 김한진의 조천만세동산기념관, 허영주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성추의 여치과의원 등 서울의 수준을 능가할 정도의 작품이 제공되고 있다. 이것은 제주대학과 탐라대학에 건축과가 개설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고 일반적인 건축주의 수준도 경제력의 향상과 함께 진일보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제민일보나 제주시에서 건축상을 제정하여 홍보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출향출신으로는 탐동해변공연장을 설계한 김용철이 약진했던 것으로 보이며 젊은 외지인 건축가의 진출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60년대와 70년대는 출향출신 건축가 몇문의 독점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향출신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 제2세대의 재향 건축가들이 약진하기 시작하며 관공서 건물을 중심으로 좋은 건축을 설계한다. 90년대에는 제3세대 건축가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며 이들은 학맥의 배경과는 무관하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등장한다. 아는 아마도 제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지역적 특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기도 하겠고, 경제적으로 이제 만물시대에 접어들었으므로 건축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는 사회적 필요성도 제기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제주에 대학교육기관의 등장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제주에 정식 학부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에도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은 지역성의

문제는 계속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2세대에 속하는 몇몇 건축가들에 의해 꾸준히 추구되었을 뿐 1세대의 건축가들은 물론 제3세대에 속하는 건축가들의 뇌리에서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더구나 외부에서 자본주를 따라 들어온 1회성 건축가들은 제주의 특이성에 놀라서 이국적이라는 의미의 바로크적 건축경향으로 흘러감을 알 수 있다.

제주 건축의 현황과 문제 제기

1) 제주의 경제: 경제적 동물과 문화적 인간 교육

60년대 이전의 기아적인 혹독한 경제 생활을 했던 제주인들은 삶의 목표가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지금도 어려운 IMF를 겪으면서 온통 시선은 경제문제에만 쏠려 있다. 제주의 교육 역시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 위주일 따름이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적 소양교육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대비 문화인의 수는 적지 않다. 사진 작가라든가 문학 동우회라든가 탐라의 문화를 탐구하는 모임이라든가 - 서예, 화가 등등 많은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잘 들여다보면 많은 제주인들이 문화생활에 탐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직 대부분의 제주인들은 문화 향유욕은 대단히 빈약한 지경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금 초등학교에서 탐라의 역사를 가르치고 박물관 견학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문화교육은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이다.

비교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도 서울 못지 않는 문화향유 욕구가 있다고 할지는 몰라도 아직은 그 층이 대단히 얇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제주는 어떤 현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어느 다른 지역 보다는 좋다. 왜냐하면 제주는 적당히 작고 문화를 상품화할 수 있는 적지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보화시대에 들어서서 개방화의 물결과 새로운 산업으로의 재편을 요구받고 있는 이때, 문화산업이란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의 사회적 여건은 제주를 육지의 어느 지역보다 월등한 문화사회로 진입시키기에는 아직 열악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의 소득증대에 따라 자연히 문화향유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주의 자본은 아직 규모가 대단히 영세한 편이고 제주에 투입되는 거대 자본은 모두 외지인의 것이다. 필경 제주인이 계획하는 건물은 건축문화 창달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고 외지인이 설계하는 건축물은 제주의 이국취향을 이식해 놓는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앞으로의 정보화사회는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제주도의 특수성은 외지인의 투자를 더욱 갈망하게 될 것이고, 소득도 외지인의 주머니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같은 사회에서

의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욕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으로 제주가 이런 문제를 능동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제주는 영원히 한국의 변방으로 남게될 것이고 동북아의 중심 지역으로의 비상은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자본의 성격과 제주의 건축

제주의 산업이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3차산업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산업이 없으므로 모든 공산품을 수입해야하므로 자본을 축적할 수가 없다. 다만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제주의 땅을 외지인에게 팔아서 쓰고 남은 정도이다. 지금 제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는 제주에 인프라를 깔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제주의 지자체는 이에대한 분담금을 담당하기에도 버거워서 새로운 문화적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관광산업의 주역을 담당하려고 투자하는 육지의 거대자본이며 마지막이 토착자본이거나 혹은 제주의 상대적 발전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육지의 개미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은 사회를 반영한다고 할까 - 자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선 토착자본은 영세성으로 인해서 성격이 미를 생산하는 문화라기 보다는 우선 값싼 기능적인 것만을 추구한다. 아름다운 건축문화의 창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본 축적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몇몇의 예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축이 등장한다. 이는 아름다움이 오히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건축가의 능력에 따라 상당 부분 진지하게 지역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제주적인 건축을 추구해 왔다. 아마도 제주도는 이런 류의 건축 혹은 건축가에 의해 인도되었다고 말할수 있겠다. 왜냐하면 정부의 대민용 건물인 까닭에 상업주의도 아니고 값싼 기능추구도 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외지인이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 관광산업에 투자한 건물들은 모두 제주의 이국취향만을 만족시키고 제주의 토속적 문화와 경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관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식견과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건축가를 통제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성이란 지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천착과 이를 건축적 외형으로 형상화하려고 했던 끊임없는 실험정신이 없이 하루아침에 눈썰미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통의 계승이란 그것에 대한 비판까지도 그것을 몸으로 체득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책상머리에 앉아 이론으로 전수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제주의 건축 교육

그 지역의 건축적 수준이란 역시 교육의 질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방 이후 한림공고에 건축과를 개설한 것은 제주의 건설에 지대한 공헌을 이룬다. 그렇지만 이들이 건축설계까지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70년대 중반 구제주전문대학에 건축과가 생기면서부터 건축사 보조원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새로운 건설 제3세대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역시 본격적인 것은 제주대학에 건축과가 개설되는 때부터이며 이후 탐라대학이 최근에 생겼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주시의 건축상이라든가 제민일보에서의 건축문화상이 제정되며 예총의 제주도전도 이제야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처럼 향촌의 교육기관은 그 지방의 문화발전에 대단한 기여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의 교수들이 외지인으로만 이루어져서 제주의 사회와 연계되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물론 제주도인으로만 이루어진 교수진도 문제일런지 모르겠으나 향토사람이 배제된 교수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주의 특수성으로 미뤄볼 때 외지인이 제주의 문화를 몸속 깊이 깨우치고 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성건축가들의 보수교육의 열악함이다. 지역적 한계 때문에 서울 등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쩐지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겹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자유경제적 체제처럼 치열한 자유경쟁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제주의 사회는 좁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서로 다 죽는 결과만 낳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래저래 지역이 좁고 문화의 중심부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제주의 큰 부담으로 남는다.

제주 건축,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1) 역사적환경보전과 문화환경의 창조

7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제주는 아름다운 전통적 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풍부한 전설과 민담이 얹혀 풍부한 문화경관을 형성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팽창하는 토목공사는 우리의 산하를 유린했다. 해안도로를 낸다면서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파괴했고 도로를 넓히면서 낭궁 편상 굽은물통 등 많은 역사적 문화경관을 여지없이 괴멸했다. 마을의 구획정리사업은 선진국에서처럼 전통적 문화경관을 계승하면서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 기법이 어려워져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정신 안에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길을 만들어 도시의 인

프리를 구축하는 사람은 모두 토목과 출신들이 한다.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곳에 삶을 담고 있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토목 기술을 새로운 하이텍이라고만 생각한다.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해 복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도외시한다. 한마디로 반문화적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건설은 많은 부분이 건축이 아닌 토목쪽에서 담당한다. 제주 역시 이 부분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 기술 쪽에서 바라보는 경관과 문화쪽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전혀 다르다. 경관이란 자연경관만이 아니고 문화경관이 더욱 중요하다.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살아 있는 역사적 문화경관은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하며 새로운 도시계획, 도로화장 등을 할 때는 기존의 역사적 문화경관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마을 안에는 옛 전통적 건물이 꽤 남아 있다. 이제 물리적 수명이 다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1개 면에 한군에 아니면 전 군 지역에 1 ~ 2곳을 선정하여 이들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이웃 일본이나 유럽의 핀랜드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곳에서의 계획방법은 역시 전통적인 기법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건축도 하나의 건물에서 무더기의 건축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이란 하나의 건축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하나 하나의 건축물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공적인 차원으로 경관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새로운 거리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간판을 제거토록 하고 가로수, 버스 정류장, 벤치, 도로 안내판, 가로 안내판 등등 모든 거리 장치까지를 포함하는 가로의 문화경관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여기서 방법의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았으나 지금부터의 문화행정은 점의 문화에서 면의 문화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각 가로의 성격에 알맞는 아름다운 문화경관을 가꾸어 가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문화환경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이텍한 거리, 미래 지향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건축가의 몫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중앙 정부에서 여기까지 아직 정책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방에서는 독자적이고 선진적 행정을 펴기에는 재정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2) 제주 건축의 향토성과 이국성

제주의 건축은 그 지역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향토성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과 추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자본의 성격과 작가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해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었다. 대체로 문화적인 성격이 짙은 몇몇의 건축과 몇몇의 재향 건축가에 의해서만 비교적 열성적으로 연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건축 자본의 성격보다는 작가 자신이 문제

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실험해 봤느냐 하는 정도가 바로 건축에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재주가 있는 건축가라고 하더라도 제주건축에 대한 오랜동안의 천착이 없이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관점은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주적인 향토성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작품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호텔이나 골프하우스의 경우 향토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국적인 취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건축자본의 성격이 제주에 대한 이국성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함께 묶여진 건축가 역시 1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국적인 신바르크풍으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역사적 관점을 교훈 삼는다면 제주의 젊은 건축가들은 역사적 건축문화에 대해 도파해서는 안될 일이고 반대로 치열한 극복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긍정적 혹은 극복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이텍한 현대적 건축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아련히 제주적인 건축 혹은 분위기의 맛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세제인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을 재창조한다면, 제주가 미래 건축 예술의 전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오늘날 제주건축의 과제와 하이텍 건축

제주 건축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향토성이다. 이것은 비단 제주만의 과제가 아니고 한국 전체의 문제이겠지만 제주에는 제주 나름의 독특한 문화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제주의 문화를 몸속 깊숙히 이해하고 제주의 정서를 건축의 표현으로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꾸준히 추구해야 할 화두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전통적인 맛을 같은 재질 다른 기술로써 질게 우려낼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다른 재료와 유사한 조형성으로 제주의 정서를 은근하게 품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제주 건축가라고 한다면 제주 문화환경에 대한 치열한 탐구의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적인 조형언어를 도의식하지는 것도 아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제주의 사회경제적 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기술 곧 하이텍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하이텍한 건축조형언어가 오히려 우리의 건축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므로 어느 지역은 이런 류의 하이텍하며 전원적인 건축을 권장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에 이런 류의 건축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외국의 것을 바로 모방한듯한 건축이 아니고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 다시말해서 작가의 치열한 조형정신이 담겨져 있는 - 그래서 제주적인 건축이 탄생했으면 싶다.

앞으로의 건축은 아마도 새로운 재료로써 철과 환경친화적 재료로써 나무가 새로운 신기술을 매개로 제주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알맞는 건축으로써 치열한 작가정신에 의해 구축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풍토성

The Regional,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Jeju's Architecture

일 시 / 1999. 1. 30(토). 15:00 ~

장 소 / 김건축사 연구소

참석자 / 김홍식(명지대 교수)

김석윤(대한건축사협회 제주지회장)

강행생(강행생건축사무소 대표)

하순애(제주문화포럼 원장)

김현동(제주대 교수)

이진희(제주대 교수)

양상호(탐라대 교수)

김태일(제주대 교수)



좌담장경

김홍식___우리는 제주건축을 다른 지역과 별도로 다루어야 하는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가? 섬이기 때문에 그런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행생 자연조건과 의식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위치, 지형, 기후, 토양, 역사, 문화 형성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역적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제주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타지역과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성, 풍토성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자연적 문맥은 위치, 지형, 기후, 토질, 건축 재료 등을 들 수 있고, 인문적 문맥에는 역사성, 의식구조, 가족제도, 가치관, 기술, 경제수준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문맥에는 건축물이라든지 취락, 도시농촌의 구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든 안하든 간에 지금까지 지역성·풍토성에 대하여 표출한 건축언어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마당을 중심으로한 별동 배치라든지, 안·팍거리형 살림집, 외부공간의 역동성과 곡선, 방향의 수평성, 모가 없는 것, 단순한 비례감, 절제된 단아함 등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제주건축은 자연속에서 인간의 근본을 찾았으며, 살아있는 생명체, 자연과 호흡하면서 자연 질서에 순응하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의 자연관은 신과 인간의 대화의 배경인데, 동양의 자연관은 자연속에서 근본을 찾으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순애___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주전통건축의 양식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것은 제주 자연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것은 상당 부분 없어져가고 있고, 제주나 육지부나 건축의 형태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건축의 구조나 양식에 의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정서와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주의 건축물들이 전통건축의 건축구조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제주인들의 정서, 가치관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점에서 전통건축을 꼭 되살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의 고유한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주건축은 다시 한 번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건축이 사람의 힘, 정신을 구조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주인들의 고유한 정신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주적인 건축이 다시 한 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문화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 문화적 이미지가 가장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건축입니다. 어떤 지역이든간에 문화적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특유의 제주건축, 제주에 발을 디디는 순간 느껴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의 경우에 제주의 역사성이라든지, 제주 특유의 향토성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계승해 나간다면 제주의 문화적 이미지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도정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건축이 그 일환이 되게 크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돈..... 제주다운 건축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제주다운 건축, 제주라는 문화, 제주다운.....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제주다운 것' 인지에 대한 개념상의 합의가 있어야 겠습니다. '인간다운'이 인간의 격(格) 곧 가치를 표상하듯이 '제주다운'은 제주의 격, 제주의 가치를 표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의 가치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제주의 가치는 제주도의 독특한 생태환경과 역사성과 전통성의 보존 및 계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라산과 수많은 오름, 그리고 청정한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아열대성 자연풍광과 생태, 척박한 토질과 거친 바람속에서 외세의 침탈과 국가 공권력의 핍박을 받으며 그 속에서 키워내고 지켜온 자주 저항으로 점철된 변방의 역사성, 제주인의 생활감정과 우주관이 반영된 무속신앙에서 제주의 가치, 제주다운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제주다운 건축이란 제주의 생태환경을 거스르지 않으며 역사성을 탐지하고 제주인의 생활감정과 우주관을 반영한 건축이라고 보아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다운 건축을 위한 과제는 과연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6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과 관광개발 과정에서 파괴되고 훼손된 전통성·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미의식을 창조적으로 계승·복원하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전통의 창조적인 계승·복원은 외적 형식의 기계적인 모방으로 전통을 골동화시키려는 복고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형식속에 내면화된 정신과 미의식을 오늘날의 문제의식으로 재현한 새로운 형식의 창조에서 가능합니다. 새마을 운동에서 그랬듯이 전통초가를 걷어내고 스테이트 지붕에 울긋 불긋 페인트칠을 한 획일화된 시골 마을과 전통과 현대의 어설픈 절충으로 정체성이 없는 국적 불명의 도시건축과 관광지 조성에 심각한 반성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송이와 현무암 등 토속재료의 무분별한 남용과 오용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오름을 마구 파헤쳐 송이를 채취하고 그것으로 인도를 포장하거나 관광지를 치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기(地氣)가 허한 곳을 보(補)한다는 풍수적인 기능과 처소를 무시하고 여기 저기 관광지의 울타리를 장식하고 있는 방사탑(거옥대)도 냉정히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내면에 담긴 정신성을 도외시하고 겉껍데기의 베끼기나 흉내내기는 향토성의 퇴락으로 전통성의 계승도 아닙니다.

오늘날 제주의 건축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는 제주다운 전통의 계승도, 제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배려도 아니라, 외래 관광객들의 취향과 편의 위주의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성읍민속촌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전통 건축사상에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통과도로)를 굽기로 여겼습니다. 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한 인본주의 사상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서깊은 옛 정의고을을 민속촌으로 복원하면서 마을 한기운대를 가로지르는 직선도로를 뚫어 옛마을의 고즈넉한 정취는 간데 없고, 대형 관광버스와 관광객들로 번잡스런 장터바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전통의 물자각에서 나온 도구적 편의주의 사고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남국의 분위기를 연출한답시고 간선 도로변의 아저씨 가로수를 심는 다든지 증산간 곳곳에 필요성과 타당성이 의심가는 도로를 내고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일도 이런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용성과 도구적 기능성만을 따지고 건축미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빚어진 고 김중업 선생의 작품인 구제주대 본관의 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건축사에 오점을 남긴 문화적 대형사고라고 봅니다. 현재 건축사적 가치가 있고 길이 기억될만한 기념비적 건축물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때는 늦었지만 건축의 해를 맞아 학계와 행정당국, 건축인들의 중지를 모아 지금이라도 이를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김석윤..... 제주 건축의 지역성 모색은 80년대 초반쯤부터 있어 왔는데, 그때 얘기로는 제주도의 향토성 건축의 구현방안으로 정리가 돼서 제주도에서 용역도 온적이 있고 연구가 된적도 있고 해서 비교적 전통의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파급효과가 상당히 미미하고 제한적이고 너무 연속성이 없이 관심있을 때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국가 정책의 세계화, 지역성, 역사성에서 지역 건축이 중요하다는 문제,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문제와 함께 힘입어서 좀 색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 15년, 20년 전에 지역건축의 고유성 문제의 초기단계보다는 요즘들어 좀 색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초기의 초기형태의 선은 뭐와 비슷하다든지, 아까 김현돈교수님이 지적한 송이와 현무암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는 것들이 8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발전적으로 잘 계승되어 시행이 됐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런 재료를 너무 많이 써버리고 또 독창적인 방법들이 아닌 타성에 젖은 방법들이 쓰여지다 보니까 기대한 방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형편이죠. 그것은 재료나 형태같은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전통의 계승문제는 모형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혹은, 다른 방법들이 건축계에 실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연구가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몇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적으로 전가가 되어온 내용들이 있는데 파급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건축은 아주 자연스럽게 옛날 선인들의 사고에 의해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건축이라는 것이 전문화되고 작가들이 한 작업으로 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건축의 고유성을 갖게 되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김홍식 _____ 제주도는 지역적·사회적으로 육지하고 역사속에 합쳐지긴 했었지만 독특한 자연과 역사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애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건축문화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은 사회적 반영물로서 자본주의가 투입됐단 말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제주성을 잃어버린 거죠. 상업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면서 아주 저급한 자본주의였기 때문에 전통을 지켜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결국 밀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IMF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과거의 산업사회같은 대물림은 안된다는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성이 다시 제기되는 것이고, 과연 철학이 있는가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독특한 환경속에서 형성됐던 제주인의 독특한 우주관이랄까, 가치관이 21세기는 전세계 인류에 어떠한 제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애깁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사라지진 않겠지만 제주의 독특한 문화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간직해야 되고 건축환경으로써 표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건축의 시대적 변천

김홍식 _____ 과거의 전통적인 제주건축의 특징은 무엇이고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라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제주건축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전통건축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편입되는 과정에서도 변화의 한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일깨워지는 것도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제주건축의 특징은 무엇이고,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석윤 _____ 시대적인 분류는 좀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주도의 전통건축은 비교적

섬이라고 하는 환경요건 때문에 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초기의 건축문화가 보존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제주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이 60년대 초인데, 관광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는 아니고 제주도가 군사정권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까지가 전통건축문화의 시대, 70년대 초반부터가 육지부에 나가서 건축교육을 받은 분들이 귀향하여 건축설계를 주도하면서 작가시대로 돌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80년대 초반에 와서는 우리의 제주도적인 건축을 해보자, 소박한 욕심으로 제주도의 향토성 건축을 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90년대에 와서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주체건축, 이런 것들이 공간론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그런 관계로 개편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홍식 _____ 제주건축은 굉장히 유구합니다. 원시시대부터 움집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육지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탐라국이라고 하는게 그때 당시에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독특했는데 철기시대로 들어오면서 재생산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여건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편입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철기시대부터 편입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스스로 나라를 들고 간단 말이지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중세 건축에 들어가고 특히 조선조 태종때에 오면 완전히 육지에 편입되는 과정을 겪죠. 원시시대부터 대략 고려말까지는 외기둥에 창기와 집이라는 제주만의 독특한, 육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 있었고, 조선조때부터는 육지에 편입이 되면서 신유교건축의 우주관이 제주도의 우주관과 결합되면서 마당중심, 안팎거리의 공간구성을 갖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18세기 이전과 18세기 이후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선비문화, 즉 남성우월주의문화가 들어와서 비로소 안팎거리에서 밖거리의 머리 부분에 선비의 공간을 배정해 주는, 머리로 진입하는 그런 건물이 들어옵니다. 좀 빠른때가 17세기에 들어오는데, 보통 일반화되는게 18세기, 19세기입니다. 현재 그걸 우리가 전통사회라고 한다면 대원군 시절이 가장 좋았습니다. 폐쇄사회일 때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지리적, 역사적 폐쇄성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서 박대통령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제주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어 사회적 변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잘됐든 못됐든 간에 산업사회에 진입하는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다음 생각은 하질 못했죠.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가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까 살아남을 길을 모색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모인 것이고,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죠.

강행생 _____ 70년대 후반에 신제주 개발 계획

이 수립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제주전문대학(현 제주산업정보대학)에 있을 때입니다. 이 지역의 건축가 몇 분은 지역성이라든지 향토성의 계승 발전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신제주 건설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건축가들이 제주의 건축을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국제주의 양식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동일한 미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향을 띠면서 마을의 취락이라든지 전통성이 해체되는 그런 경향을 느꼈습니다. 70년대 신제주 개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순애 ... 두 분 말씀은 제 생각에는 제주의 전통적 건축문화 속에서 내재되어 있던 제주인의 사회적 성격을 어떻게 지금 되살려서 제주의 독특한 문화의 색채로서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축사의 변천과정에 대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고 제주의 전통가옥들을 여러 차례 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육지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주거문화 형태는 실생활에 잘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주가 특히 두드러지고, 굉장히 간결하고 소박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구조들이 결국 또 어느 것 하나라도 아주 실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당시에는 생존 이상의 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없고 실용적, 실재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제주인의 사회적 성격하고 맞닿아 있지 않은가, 세계관도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추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제주인의 성격은 육지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실재적이고 실용성의 가치를 많이 추구합니다. 또 정서는 간결하고 소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대로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서 제주의 고유한 정서들은 상당부분 해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가 편승해야 할 점은 전통에 있어서의 소박성, 실질적 가치추구의 성향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빨리 편입할 수 있는 요소였을지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는 빨리 편입하고 빨리 적응하면서 제주 고유의 정서구조에서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적인 의식들은 많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제주문화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우리가 많이 상실하고 있다는 반성, 더불어서 과거의 우리 문화가 생존 이상의 추상적 영역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진단까지 덧붙여가면서 지금 제주인들의 가치관이나 혹은 제주 문화의 방향, 건축문화의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결, 소박, 실용성, 자연 친화성을 살리면서 어떻게 제주문화 이미지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인 것 같습니다.

김현돈 ... 덧붙이자면 우리 한국의 전통 건

축사상이라는게 우주와 합일하고 자연과 합일하는 풍수사상, 18세기, 19세기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실리주의, 합리주의적인 사상이 접목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쩌면 이런 것이 제주의 풍토 조건에서 잘 통용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업화 과정에서 60년대 이후에 자본의 논리, 관광개발을 이루려는 논리에 밀려서 하순애 선생님 말씀처럼 전통성이 훼손되고 상실되고 오염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생활감정과 정서, 우주관과 가치관들을 구현하면서 이것을 현대적인 미감으로 재현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건축인들의 심각한 고뇌와 지혜가 결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의 건축현실의 문제점

김홍식 ... 문제는 현재 건축가의 건축철학 또는 새로운 건축 가치관이 정립되어있는가 아니면 정체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조항도 얘기했는데, 사실 만들어진 제도도 악용되고 있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문제는 어떤가?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시공자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결론에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교육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구요. 오늘의 건축의 현실은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이진희 ... 건물이 서울에 있는 것이나 부산에 있는 것이나 제주에 있는 것이나 다 같다는 얘깁니다. 건물도 같고 건물 외형이 박스형에 유리를 끼운다든지 아니면 벽돌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본래 화강암이 나지 않고 현무암이 주로 나는데, 제주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화강석 돌붙임을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이 우리나라 어디에 가나 박스형으로 되었는데 옛날에는 아크릴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종류로 하는데 명동같은 데는 판자형, 브론즈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광고물을 보면 유럽의 경우 대장간이라고 하면 대장간같은 픽토그램으로 해서 그냥 보면 무슨 집인지 알 수 있게 하죠. 은행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인 경우 건물 안에 있는 집의 광고를 전부 밖에 걸어놔서 건물 전면이나 측면에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여 있고, 유리창에도 무슨 통닭집해서 썬팅까지 해가지고 붙여 놓습니다. 제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주 관광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제주 본래의 특징적인 것은 건물 외벽, 광고물뿐만 아니라 야외 의자나 휴지통을 만드는데 제주의 실정에 맞게 해서 제주의 물향벽이나 물향아리를 형상화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제주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가

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헌돈 도시환경에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신규법지사때도 그랬고 지금도 제주도의 정책이 너무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메가리조트라든지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 등 대규모의 개발들이 도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일방통행식의 논리로 과거의 군사시대에도 그랬듯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버리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환경친화적 개발, 규모있는 개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관계자들에게는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의 송전탑문제, 제주지역에서도 동부지역의 오염군락을 관통하는 송전탑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방조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라산 케이블카문제, 사실 국립공원의 관리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립공원의 개념이 과거의 이용자들의 편의에서 오늘날 환경친화, 자연보존으로 흐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미국의 국립공원인 경우 과거 공원 도로나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친화적인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경제성의 논리 - 사실 경제성의 논리로 긍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분야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에 대해서 한라산케이블카의 문제가 지금은 상당히 구체적이던데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정부의 환경마인드나 문화마인드의 결핍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도 역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겠고, 도·시·군의회의 견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민전체의 관심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김홍식 지금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성장장에 의해서 제주도가 지금까지 견딘 이유가 도민들이 땅을 팔아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값이 너무 부풀려져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도나도 많이 있기만 하면 돈 버는데 왜 땅을 팝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가 스스로 고성장장을 멈출 수 없는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거구요. 지금은 고성장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저성장장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공급을 넘는 시대에서 반대로 공급이 소비를 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가야되고 그래야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다섯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책임들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하순애 지금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주시같은 경우는 더욱 더 확장해 갈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의 문제에서 해부적인 문제도 많겠습니다만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점에서 본다면 도시의 수평적 확대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제주시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을 전망하면서 지금 외도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평적 확대가 엄청나게 제주지역의 문화에 질적으로 작용할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마인드에 대해서 누가 보충해 줄 것인가하는 것을 그냥 막연히 시민들이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는데, 좀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일 제주도 건축이 가지는 정체성, 아니면 지역적인 결함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원인은 1970년대 박정권이 국가 전체의 산업화 사회로 들어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던게 제주도의 관광거점화입니다. 관광거점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적인 문화, 지역적인 정서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개발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주도의 자본이 아닌 육지의 아니면 외부의 자본이, 그 자본도 저속한 그런 자본이 들어오므로 인해 제주도의 전반적인 산업, 문화 모든 걸 모두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상당히 제주인의 정신도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더 심화되고 그 이후 상업자본주의에 의한 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는데 육지로부터, 제주시의 지방에 거주했던 분들이 제주시로, 상업자본주의에 영향을 받아 입주, 인구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새로운 것이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고층 빌딩, APT가 등장하게 되고 나름대로 제주도의 문제가 야기된게 198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990년대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제기되어 좀 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혹은 지역 단체, 학계, 한편으로는 정계, 행정계에서도 지역에 대한 마인드를 조금씩 갖게 되었다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많은 제도가 생긴 것이 1990년대입니다. 경관심의라든지, 미관심의 기준안 등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악용되고 도구로만 사용된다는 측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0년대 이런

모임을 활성화시킨게 재작년(1997)에 있었던 지역성 재론이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건축가나 건축 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재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게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대적으로 각각 건축, 시공, 행정쪽에서 문제점을 거론하고 건축가의 잘못, 행정가의 잘못을 자꾸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 다음 제주도의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시키고 확산시켜야 하는가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거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가의 책임도 크지요. 또 건축가의 지역적인 한계성을 읽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건축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1970년대 시작된 개발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덜치지 못하는 모자란 부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방의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 하에 관광개발을 악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고 보고 좀 더 제주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이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깊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홍식 ____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성격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본의 비지역성 때문에, 우리가 지역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역성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자본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정책상으로 거기에 추정해서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됐고,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거리의 독특한 무엇을 만들어보려고 해도 독특하게 재생산될만한 제도로 된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지역적 감정을 포기해 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되어버리고 또한 자본이 그런걸 바라질 않습니다. 재생산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정책 당국이 이런걸 깨닫고 지원해주고, 우리가 왜지 품종을 보존하듯이 이런걸 보존해줘야 하는데 정책 당국도 바쁘단 말이죠. 상당한 고속성장에서 저속성장으로 가야합니다. 지금은 마이너스로 가야죠. 지금 우리는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 세대를 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본주의 논리를 잘 이해하면서 오늘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 거꾸로 보존차원으로 우리의 독특한 자원들을 보존해야 제주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주 훌륭한 건축가가 있어서 제주의 모든 건축이 그 사람을 거쳐서 하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이진희 ____ 우리가 도시설계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이 건물, 저 사람은 저 건물을 설계해서 가로 통일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로 전체의 건물을 설계한다고 할 때, 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죠.

제주 도시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김홍식 ____ 건축은 도시와 맞물려 있습니다. 신제주, 서귀포 신시가지 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진희 ____ 제가 볼때는 신제주의 문제점을 찾으려면 중문관광단지의 문제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중문관광단지가 처음 개발될 때는 청와대 오고수님(현 한양대 재직 중)이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에서 조경학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이 출세한 사람들을 데리고 만찬을 연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중문단지를 개발하는 컨셉을 잡았고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작품이 나왔는데, 지금 중문단지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중문단지가 동양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아니고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이나 부산의 관광객이 오면 거기서 짐을 풀고 다음날 관광을 하고 와서 밥먹고 자고 하는데, 한국인들의 위락 패턴이 술마시는 사람들은 1차에 식사하고, 2차에 술먹고, 3차에 맥주 마시면서 즐기고, 술 안마시는 사람들은 뭘 보거나 즐기는데, 중문단지는 잠자는 기능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또 잠자는 기능도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러데 신제주의 경우 비싼 호텔, 싼 호텔, 비싼 음식점, 싼 음식점들이 많고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중문에는 접할 기회가 없고, 쇼핑할 기회도 없었니까 사람들이 신제주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제주의 상업지역은 포화상태가 되고,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값이 주택이라면 2억이었던 것이 상업지역이 들어서면 4억이 되어서 막 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집을 팔고 나와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주거지역을 떼내로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도지구, 화북지역, 연동택지 개발지역이 이런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이 침투하면서 생긴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유의 관광단지를 만들지 못했다고 봅니다.

강행생 제주도 마을은 1970년대 미국의 도시계획가 페리가 주장한 하나의 모인주개념으로서 옥지부와 같이 우물을 중심으로 하는 직계형으로 발전이 되어오다가 최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도로망 계획입니다. 올레를 테마로 하는 가로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취락구조는 도로망이 바둑판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죠. 신제주의 경우도 업무지구와 관광, 그 다음에 상업 등의 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생활의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망 개발이라든지 미관상의 지역이 미봉식 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경우 시각적으로 이상이 오는데, 이런 현상이 있어서 기존 주거환경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해안면의 기존 환경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거의 주거지역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계속 안해 주려고 하죠. 민선화되면서 이런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보호할것인가가 문제인데, 도시계획의 핵심적인 것이 50만 이상이 되어야 주거지역의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1종 · 2종 ·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을 세분화 할 수가 없죠. 주거지역을 빼면 상업지역, 1년도 안되서 계속 상업지역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기존 주거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뉴욕은 용도별로 3종을 분리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주도의 지역확장 도시를 이루는 것이 하천이거든요. 제주시인 경우는 '병문천, 산지천'이 있는데, 이것들은 한라산과의 녹지공간이 그대로 이어진 곳이죠. 60년대에는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녹지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린벨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시인 경우는 제주시권, 신제주, 삼양지구권, 아라동, 봉개동, 그 경계에 있는 것이 녹지조성구역이죠.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하천의 녹지공간, 생산녹지공간들이 도시화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김석운 처음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다음은 주체적인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현돈 하순에 선생이 말했듯이 제주도의 전통건축의 특성은 자연친화적이며 소박하고 간결한 절제된 아름다움에 있다고 봅니다. 자연과 우주에 합일하려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사상에서 나온 보편성을 공유하면서도 제주도의 특유한 풍토성과 역사성이 반영된 지역적 특수성이 또한 발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러한 건축문화의 전통은 60년대

이후의 개발 정책의 와중에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되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특색 없고 개성 없는 건축물이 생활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와 도시 주거단지 조성은 옥지부 대도시의 그것과 아무런 차별적 특성을 갖지 못한 채, 그 때 그 때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좌우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목표와 전망속에 철학이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이 바뀐 통합영향평가제에서 도시미관 심의는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하겠고, 개발사업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아울러 개발로 인해 주변의 문화유적과 주민의 문화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도도 조려화하면 어떨까? 동부지역의 수려한 오름군락을 관통하는 한전의 송전탑 건설은 이제라도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며, 기존의 송전탑과 전신주도 단계적으로 모두 지중화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전향적인 문화마인드를 갖춰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도 · 시 · 군의회의 견제기능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public art)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인 정착화도 절실합니다. 도시환경과 삶의 질이라는 맥락속에서 공공미술의 잠재적 중요성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미술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 속의 미술, 공공장소에 대한 미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미술은 특정 장소에 놓여지는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문화프로그램, 예술공간이나 문화시설 등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재조작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미술은 그것을 실현하는 훌륭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를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만남의 장으로 변화시키려면,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주민들간의 공동체적 교류를 촉진하려면, 공공장소는 편리하고 쾌적하며 미적일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정서를 반영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공공미술은 황폐해진 도시환경을 인간화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이러한 과정에 예술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기회를 실현하고 문화예술을 진흥시킨다.

2천년대를 대비, 제주도 발전 방향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고, 농촌과 도시를 새롭게 재구성, 제주다운 건축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합니다. 각 시, 군별로 특색있는 문화마을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제주다운 정취를 느끼고 개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도 전체에 미적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해 도시와 농촌의 이미지를 통합시켜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집 하나 하나, 거리의 가로수, 보도블럭 하나에도 꿈과 낭만이 있고 인간적인 체취와 표정이 묻어있는 생명이 충만한 역동적인 섬, 문화의 향기로 살아 넘치는 아름다운 섬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순애____도시계획이 지금 맞물려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의 건축 현실도 효율성을 지향해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생산성, 효율성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건설의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귀안점이란 말입니다. 외에도 왜 택지지구가 지정되었는가 하면 신제주와 이호를 연결하는데 건설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가야할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효율성을 가지려는 의지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향성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입니까? 우리가 대안을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안 될거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IMF시대에 건설비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된다, 저렇게 해야된다.' 하는 것은 다 비용의 문제거른이고,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서 말씀하시면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자체의 비용뿐만 아니라 상, 하수도 연결 같은 부분에도 지금 도시계획을 자주 수정적으로 늘려가야 비용이 덜 든다는 얘기고, 그런 것까지도 효율적으로 생각하거나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홍식____현재 중문관광단지, 신제주, 서귀포 같은 곳이 제주다운 풍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제주다운 도시계획이 안된 이유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의지가 없었어요. 생각자체가 서양식이예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주의 경우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재생산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육지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제주다운 것을 무시해 버려요. 두 가지 경우인데, 좀 괜찮은 경우는 미국식 아니면 외국식-한국식은 없고-아무도 전통적인 경관에 대해 본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주도의 경관이 뭔가 알아보고 제주다운 경관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생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안된단 얘기고, 설계자가 의지가 없는데 정책당국이 대단한 의지가 없는 한 안돼요.

이진희____설계같은 문제는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고객과 디자이너의 관계죠.

김홍식____고객이 디자이너에게 비탈 수 없지만, 지방정부에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자가 제주 사람이 없어요. 제주도 경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도시계획가도 그런 생각은 없고, 개발논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정책당국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름답고 독특한 제주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없고, 효율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땅 팔아서 어떻게든 돈 벌겠다는 거예요. 좋은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단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거기에 개발이 되면 땅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죠.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운동을 하는 방법밖엔 없어요. 연구비를 받아내서 경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경관을 연구하게 해야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집 현관 앞에 조그만 정원을 갖고 있듯이 우리도 올레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올레를 이쁘게 꾸며보자.'고 하면서 용역비도 주고 자주 키워주는 거죠. 도시계획도 외부에 맡기지 말고 제주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법이 안되어 있으면 법을 고쳐야 해요. 지방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제주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건축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건축도 어떻게 할 것냐'를 고민해야겠죠. 우리나라의 도시 설계자들은 건축이 어떻게 들어서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제주가 있으면 상징성이 있어야 해요.

김석윤____작은 관광에서부터 문화적인 것을 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제주시를 볼 때 드라마가 없는 제주도'라고 김진애씨가 말했는데, 즐거리가 있는 도시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없고, 구제주권, 신제주권은 서로의 상관관계도 없죠.

김홍식____제주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제주도의 시민의식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 제주도 시민의식을 말살하고 정신의 상징성을 상실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주만 해도 5·18광장이 있었어요. 우리도 관덕정 앞 광장이 역사의 현장이었고, 정신적 지주란 말이에요. 그걸 도로로 쓸게 아니라 광장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도 그런 시민의 광장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도청 앞에도 광장을 만들어 줘야죠. 도시 어디에도 정신적 지주가 전혀 없어요. 제주도는 도시계획 자체가 어긋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인들이 도시계획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피를 받았다고 해서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정책 입안자들도 개발논리를 따지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자원을 고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일____그 중에서도 가장 책임이 크게 행 정쪽입니다. 도시계획은 건축가가 입안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틀을 잡아주는 행정쪽이 개발위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197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정책입안자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는 비전문가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은 용역을 육지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죠. 또 하나는 입안자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자체는 좋지만 개발의 주체가 누구인가, 제주인들이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주 공무원들의 인식이 관광개발, 관광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자본을 형성하지 못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건축가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그 중에도 건축주가 수급을 한다하더라도 자본주의에 편승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결부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키우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주도에도 사람을 단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양상호...다방면에서 얘기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상대적인 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용자 공급자 사이에서 차이가 있고, 주민과 관광객, 거기에 관공서라는 입장의 차이, 그리고 전문가 입장,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는데 시민과 관의 입장차이, 즉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각자의 입장차이가 어긋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 건축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가장 큰 지역에 공간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위레벨에는 국토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가 있습니다. 도시설계의 한 부분으로 단지설계라든가, 조경설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마구 혼란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 작은계획이 일맥성이 부족하지요, 또 한가지는 건축에서 엘리트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에서 예산이 많은 것은 육지의 건축가에게 부탁을 하는 현상이 있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건축행위들은 지역 건축가들에게 맡겨지는데, 지역건축가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요구하는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건축주에 조금이라도 대항하면 다른 건축가를 찾아버리죠. 저변에서의 건축행위와 관에서의 건축행위가 완전히 괴리돼 버리는 것이죠. 보존과 개발에서 보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보존입장으로는 개발을 향해서, 개발을 상대개념으로 인정하고 연구도 하고 있으며, 개발쪽에서는 보존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정치, 개발논리로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부재는 말씀드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의 과제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역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전문가 역시,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없다면 게을리 하고 있고, 관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논리대로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어서는 두가지 점이 지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건축의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방향

김홍식...오늘은 제주다운 건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신 않았지만, 문제점을 제시하면 해결방안을 얘기하는게 되지요. '우리는 제주다운 건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고, '도시계획의 문제점, 주민의 입장검토, 그린벨트 해제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것과 건축가라는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 두가지를 묶어서 얘기해봅시다.

하순애...여러 말씀중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행정쪽에 책임이 크지만 거기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건축문화가 부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풀어가야지, 어느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운동이라고 해도 시민운동의 주체는 참 막연합니다. 시민단체라고 해도 소수시민의 모임이지 전체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인 의지가 없구요. 또 시민운동이 정치나 경제 문제, 환경에만 관심이 있었지, 문화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누가 먼저 기치를 내걸면서 시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기왕에 건축사협회도 만들어져 있고, 건축학회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해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건축가들이 자기인식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수받고 일하는 서비스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성장의 문화시대에 건축가가 문화전달자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건축이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사회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누가 해야되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가장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건축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해야 합니다. 건축가 자신의 자기이해가 문화 운동가와 문화 창조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문화의 해에 사업을 벌여주셨으면 합니다.

건축이 문화에 얼마나 큰 부분인가 하는 프로그램 하면서 교육적인 역할도 해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감각적 문화의 시대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의식을 바꿔서 창의까지 이끌어내가기에는 참 힘들기 때문에 체험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레 회복하기 운동, 담장 없애기 운동, 골목 아름답게 꾸미기 등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시고, 핵심적인 것들은 협회에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운동의 선구자가 되려는 외람된 부탁을 해봅니다.

김석윤 — 현대 건축이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건축 문화에 대한 책임이 작가들에게 있어요. 전통적인 건축들이 전부 보존화된 민중들의 손에 의해 형성되어 왔지만 요즘시대에 와서는 건축은 건축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작가의식을 건물 안에 쓰는 것이 건축가들에게 의무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그런 캠페인을 말로는 쉽게 해왔는데, 전문가들의 책임입니다. 또 주변에 많이 보급시키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런것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작가들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작가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작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어느 한 생각만을 가지고 작가를 찾으려는 욕심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부분적 보다는 하나씩 차곡차곡, 우리 전문가들 자체에서도 참여하는 사람들끼리만이라도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지역이 좁다보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현대건축은 이런것이어야 하는 단정적인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전개돼 나가고 있고 건축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큰 욕심을 가지지 말고 전문가는 전문가들대로 노력하고, 시민은 시민들대로 단계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99년에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해서도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돈 — 앞에서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건축은 공학과 미학, 그리고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한국 전체의 건축문화가 그랬고, 제주도 건축문화가 그랬고, 공학만 있고 미학은 없는, 기술만 있고 예술은 없는 이런 기형적인 건축문화, 오염된 건축문화가 상당히 팽배해 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몇 년 전에 웅담에 구제주대 본관 철거문제가 제기됐을 때, 많은 건축인들이 반대를 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효율성과 기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철거가 결정이 되고 그 당시에 제주대 총장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자꾸 보존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그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팔면 부족한 강의실 몇 동을 건설할 수 있는데 자꾸만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 행정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존보다는 철거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서구의 지나친 기능주의적 사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지만 과거처럼 절대 빈곤의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 어느정도 먹고 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건축문화, 도시환경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다운 건축이라고 했을 때 제주의

전통성과 역사성, 그리고 제주인의 독특한 신앙, 우주관 등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제주다운 건축을 건축가들 사이에서 지혜를 짜모아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작업들도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빠뜨리게 있는데 김홍식 교수님도 얘기 하셨는데, 제주도를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섬, 동북아시아의 거점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정책은 오히려 평화의 섬에 거스르는 카지노, 도박장 등을 운운하면서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면서 제주도의 전통과 역사성을 담은 공간과 공간 속의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겠다고 봅니다. 또 지난해 4·3, 50주년이었는데, 4·3 기념관이 라도 좋고, 4·3 역사관이라도 좋고, 이런 4·3에 대한 발굴된 자료나 앞으로 발굴될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의 건립도 좀 더 구체적으로 건축인들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홍식 — 사실 어느 나라의 건축문화가 꽃피울 때를 보면 그 민족의 자존심이 가장 강할 때 -소득 만불이상 이런게 아니고-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제일 났다고 생각할 때 건축문화가 꽃피었어요. 제주인이 20C초까지만해도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놈의 탄압속에서도 자존심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런데 자존심을 언제 잃어 버렸는가 하면 4·3때 완전히 잃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이 형편없는 땅덩어리 속에서 육지와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해 왔단 말이죠.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육지는 계급사회인데 여기는 비교적 평등사회를 형성해 왔고, 나름대로 굉장히 근대적인 사회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했는데, 4·3사건 때 여지없이 뭉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존심 회복운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제일의 사회를 형성하겠다는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주시민증을 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존심있는 제주도민을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앉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서서 죽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고 법제도는 어떻게 개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데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안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진희 — 우리 제주도에서 일반 건축사들이 할 수 있는게 관광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공원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나하면 예를들면 공원을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공원계획을 할 때는 조경하는 사

람들이 공원 전체를 계획하고 나무심고 시설물 놓고 하는 것은 조경하는 사람들이 하고 일단 조경하는 사람들이 해 놓으면 그 다음은 상, 하수도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통신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 하수도는 상, 하수도 회사에서 도면을 가져가서 도로부서에 넘기고 여기저기 넘겨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측량을 먼저 해야죠. 측량기술사, 조경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도로기술사 등의 상당히 여러분아가 들어갑니다. 이랬을 경우에 50만 인구밖에 안되는 제주도에 이런 일이 일년에 한 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기술사가 다섯 개 분이라고 했을 때 한 지소에 다섯명씩만 놓고 한다면 회사 설립·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 기반이 없어요.

김홍식___재정적 기반이 제주도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의 정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도시 설계가 아니고 도시 기본 계획이란 것은 학술단체가 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학술단체가 두 개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주시나 도에서 육성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법 제도가 없으면 잘라서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진희___제주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육지에서 하디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용역비 1, 2억은 큰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1, 2억을 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나온대로, 제주 정신은 생각할 새도 없이, 회사에 이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빨리 설계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제주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주환경의 문제

김홍식___이제 마무리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린벨트 해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해안도로라든가, 환경보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김현돈___환경 문제만 하더라도 해안도로나 매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탐동이 매립후에 제기된 여러 가지 생태환경의 문제라든가, 활용도라든지 도민의 정서 생활에 끼친 여러가지 악영향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립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주민 단체에서 시위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개발 로비에 밀려서 그렇게 된거고, 부산에서도 낙동강 하구를 매립할 때 그 당시만 해도 환경정책이 열악한 시기였지만 학계와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매립은 낙동

강을 죽이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하구의 철새 도래지라든가 천혜 자연적 조건을 망치는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 당시에서도 개발 정책에 밀려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또 심심치 않게 공유수면 매립문제 등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뚫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제주도의 도로여건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그다지 불편한 점을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외채를 들여와서 도로를 건설하고 포장하고 해안도로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해안도로를 만들때는 주변에 있는 '환해장성'이라든지, 이런 제주의 전통, 역사성을 모두 파괴하는 것까지도 서슴치 않으면서 편의주의적인 행정의 발상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중산간도 여기저기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도로를 만들면서 파괴되는 자연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단체 대표로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마을하고 여론을 확인시키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을 볼 때는 아직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학회라든지 여론의 주도층이라고 할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의식의 개선도 있어야 되겠고, 운동도 좀 더 조직적인 방향으로, 실행행사도 불사하는, 온 몸으로 구체적인 환경운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진희___저는 참고로 도민의 입장,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개발의 정책결정에 대한 연구라고 해서 우리 관광개발학과에서 용역을 받아서 주민들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열흘넘게 했습니다. 통계를 보니, 최근에 신문을 보면 메가리조트를 만드는데 위락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 것으로 앞았어요. 그런데 어떤 오픈 카지노라든지, 이런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반대하는 사람의 수 보다 많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제주도가 3개 단지 20개 지구가 다 안되고,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제가 알고로는 원래 2개 단지 10개 지구였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A라는 동네는 개발해주고 우리 동네는 개발 안하느냐고 데모하고, 우리동네 개발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3개 단지 20개 지구가 되다보니 다 망치고 있어요. 경쟁력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먼저 땅값이 올라갑니다.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녹지, 공업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린벨트가 용도변경되면 자연녹지가 됩니다. 자연녹지가 되면 최소 20%까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땅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내 땅값이 올라가니까 해제해야 된다는 생각들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건물들이 막 들어서면

서 개발이 이루어져서 제주도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의 생각이 주민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시민단체의 글을 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리조트를 연구하면서 보면 때로는 어느 리조트 앞의 땅 값이 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졸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할 때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찬성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의 공익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이지 그것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라 봅니다.

김현돈___그런건 아니고 예로 최근에 케이불카 건설의 논란에 대한 KBS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케이불카 건설에 대해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는 타당성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택시 운송조합 등의 이익단체에서 신문에 광고도 내고, ARS조사만 하더라도 그 조사가 가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전화를 백통도 걸 수 있거든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가능한 것이 이러한 제도입니다. 특히 제도를 어떻게 이용·악용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보면 오히려 제도를 악용해서 여론을 자기들의 개발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도민 전체, 개개인에게 모두 물어볼 수 없지만 표집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과 함정,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행정가들이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진희___그 다음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산을 깎아서 무자비한 개발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개발은 제주의 독창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이런 관점에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개발의 명제로서 첫째 제주의 철학과 문화가 반영이 되어야 하겠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개발을 한다고 해서 미래 후손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자원의 이용을 통한 개발은 현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후세대와 우리 세대가 갈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후세대들도 쾌적한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개발의 목표로는 지역의 특성을 보존하고 쾌적한 자연과 경관 수준을 유지하고 주민이나 관광객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하겠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 추진 방향에서는 환경 및 경관영향평가를 강화해야겠고, 그 다음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순애___아까 여론 조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론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일반 시민이 자기 이해관계에 설 때 선택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발이 되어야만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을 이런 정책, 도시계획이나 개발에서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회의 가치를 선택적인 맥락에서 보는 선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수행할 수는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개발에서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윤___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하면 상당부분 개발에 충실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제주군 한림읍 귀덕리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주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기대가 높아요.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다고 해서 그걸 개발의 발미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김홍식___자본주의 사회는 현실이익을 추구해야 하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1C 자본주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런 자본주의로 가면 멸망한다는 것을 20C 초에 봤던 말이죠. 그렇다고 공산주의로 갈 수는 없으니까 생산은 자본주의로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자본주의라야 됩니다. 보장 정책을 충분히 세워주면서 소위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면가, 물론 불로소득은 없어야죠. 자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게 불로소득의 문제인데, 하나는 토지에 의한 불로소득이고, 또 하나는 금융소득에 의한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나 토지는 정확한 것이고, 주식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21C 자본주의라는 것을 토지에 있는 공개념에 도입하는데, 주식의 제도를 도입하는게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조금만 이익을 보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쪽 방향으로 주민들을 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일___건축물들은 건축가의 잘못이라기 보단 건축주의 잘못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용성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건축주

를 탓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제 나름대로 생각해왔습니다. 먼저 이러한 건축주를 제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쪽에서 더욱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도에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 노력도 하고, 이제는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현실적으로 법적인 장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축가 자신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능성은 있는데, 그 기능성을 너무 단순히 끝내 버렸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건축문화의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자본주의에 탐닉한 건축주, 일부의 건축가, 행정가들을 선도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자본주의 논리에서 맥락을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건축주의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다든지 하면 장려금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건축사들 앞에도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또 자꾸 수평적 확대를 말씀하시는데,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 건물을 잘 짓고 하면 공비를 내렸을 경우에 융적률을 완화시킨다는 제도가 있는데, 수평적으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수직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도시의 경관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와 선도, 인센티브,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제도 정비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상호 —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하고 파괴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입장들이 총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환경이라는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에서의 역사, 문화환경이라는 것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대정향교의 대성전 복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니고 완전히 재건축이었고, 재건축의 기본적인 전제가 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육지 어디에나 있는 양식이나 기술을 그대로 재현했죠. 그래서 이전에 대정향교 대성전이 가지고 있던 건축적인 내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관덕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면에서 제주 목관아지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복원이라는 말을 정확히 한 다음에, 복원이라는 얘기가 거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에 있는 집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제주의 전통건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가? 제주 건축의 원형이 뭔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런 저런 선행작업들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 논리도 좋고, 개발 논리도 좋지만 일시에 해치워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환경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이론

적인 방법에서도 좋고 여러 측면에서 작업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역사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정체성이라든가, 독자성이라든가, 지역성 등등 많이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접근을 하고, 또 정체성이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접근을 안하면서 말은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라든가, 연구하지 않은 시민의 입장에서라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 — 도시건축환경은, 환경에 대해서 넓은 의미가 아닌, 공간을 아름답게 제주답게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산지천도 걷어내서 새로 용역을 주었는데, 절대 제주도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역사, 문화환경을 말씀하셨지만 절대 설계자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연친화적 건축으로 회복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개별적인 건축에서 전반적인 건축으로, 도로 경관도 한 사람이 설계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파리 같은 데서는 밤에 경관을 위해서 전체적인 조명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밤의 야경을 위해서 조명을 어떻게 하겠단가, 심지어는 어디서는 오징어배가 없어서 일부러 오징어배를 띄운다고 합니다. 이전 개별적인 경관에서부터 전반적인 경관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어떤 용역을 주고,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아까도 간판얘기를 하셨지만, 도로 경관을 정해서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해서 집단적인 계획을 해야합니다. 규제는 풀고 있지만, 규제는 풀어도 규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제한법입니다. 복지정책을 쓰는 자본주의로 가려면 제한이 있어야죠. 복지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을 다뤄야 한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지역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도시계획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시장보다 더 오래 30년간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경관을 만들어 냈어요. 그 사람이 표가 또 많았는데, 그렇게 하나까 더 표가 많아져서 시장도 바꿀 수가 있었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만, 그런 경관을 하나하나 보면서 느낀 논리는 뭐냐하면 미래를 담보한 복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본주의가 멸망의 길로 가는거죠. 문제 해결 노력만 한다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는 점차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철학을 21C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그 다음 복지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현재의 권한은 권리를 담보하는 것

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놓고, 적게 가진 사람은 혜택을 받아가면서 하는게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일어나서 큰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5만원 짜리가 500만원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배 아파서 안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땅 팔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말이지요.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외국인에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외국인이 전부 투자 하지 않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해서 앞으로의 개발은 공개념으로 가는게 좋겠더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모든 것도 복지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 실천으로서는 지역별로, 건축에서부터 지역의 경관으로, 해안경관, 도로의 경관, 도시전체의 경관을 해야죠.

김석운 — 허부구조의 얘기가 필요한데, 도시계획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아요. 건축문화만 얘기한 것 같은데, 도시건축 얘기를 건축계, 문화계 분들과 얘기하다보면 이상적이고 지향할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반영될만한 장치가 막혀있다는 얘기죠. 계획을 진행하는 방법도 전체적인 방법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고, 너무 유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계획을 보니까 반으로 갈렸어요. 한 20m도로가 별도봉쪽으로 꼭 붙어 올라갔어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도 실현이 안되는데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 없는 실정처럼 되죠. 이런 것들을 해소할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강행생 — 참가한다면 경관, 미관심의가 사라지고, 앞으로는 도시계획 설계자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 설계자구로 지정되었을 때에 지역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 탐라대, 제주대 연구소에서 기본 영역을 받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하고, 과연 이러한 조직이 있을때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것이냐 하는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운 — 제주 개발법이 바뀔니다. 제주 발전특별법의 주목적이 뭐냐면 관광 사업을 특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강행생 — 관광개발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이 곧 지역사회를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현돈 — 문제는 관광입니다. 제주도는 보존 논의의 중심에 관광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의 중심에도 관광이 있고, 다른 것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적

인 장치, 부속물 형태로 의식이 되어갑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대체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히 개발에 따른 문제는 악순환 되리라 봅니다.

김홍식 — 관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를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산업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 관광만 가지고 지탱하려 한다면 지금 현재는 국가 전체가 너무 당혹하니까 제주도라도 이용해서 제주도의 자원을 고갈시키더라도 살고 보자는 식의 개념인 것 같은데, 제주도의 1~2차 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게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태리의 베네통이 조그만 마을에 생겼어요. 프랑스의 꼬냑이라는 것도 조그만 마을에서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 자부심도 있고, 자부심이 있으면 관광객이 와도 친절하고 그 자체가 건축문화도 좋아지고 하는 건데, 관광객이 오면 속이기 일쑤이니 이게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정리하면 제주도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그 방법도 문제이지만 그 성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 관광산업에서 나온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협회소식 / 91

건축계소식 / 94

현상설계 / 100

해외잡지동향 / 108

전시리뷰 / 115

회원현황 / 12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4

협회소식 KIRA news

한국건축문화대상, 우리협회 탈퇴

정부, 언론사의 주도는 부당 문제제기
올 행사에 대다수 회원 불참

우리협회가 올 해부터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행주체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이 행사의 시행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는 지난 9월 28일 있었던 본협회 제1회 임원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의 결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우리협회가 올해부터 이 상의 시행주체에서 탈퇴하게 된 배경 등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우리협회 단독으로 시행해 오던 「한국건축전」을 92년부터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개최하던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우리협회가 「한국건축전」을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94년부터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 운영해 왔으나 그간의 행사 시행과정에서 비전문가의 심사참여, 언론사 상업논리의 개입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순수건축문화제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주체에서 지진 탈퇴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 예술분야의 각종 공모전 및 시상제도가 국전에서 민전으로 바뀌고 있는데, 건축관련 시상제도에 관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으며, 언론사가 주도하는 이 상에만 유독 정부표창이 주어지는 것은 다른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건축시상 제도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는 이 상의 주도자가 아닌 후원자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는 대부분 회원들이 불참하여 협회의 의지에 동참한 결과, 올 해 대상작(대통령 표창)은 수상작을 선정하지 못한 채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행사를 강행했다. 이번 일에 대해 건축계 관계자들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이 건축계의 진정한 시상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는 시행주체로서, 정부는 이를 격려하는 후원자로서, 언론은 건축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전달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우리협회에서는 이러한 건축상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그동안 심사를 맡았던 심사관계자와 수상자 등 건축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지 12쪽 참조)

99년도 제10회 이사회

회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등 처리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9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21일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이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회의안: 회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회의안: 회관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3회의안: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회의안: 2000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에는 이건호이사, 위원중 임원 3인은 변종환, 류성희, 조태중이사, 회원 3인에는 정효환, 신문섭, 이영기회원을 각각 선임하기로 하고 건축사회회장 3인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이의구회장,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참석

자격상호인정 등 공동관심사 협의



이의구회장을 비롯한 우리측 참관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 참석해 WTO시장개방에 따른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교육제도와 건축사자격 취득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협의했다.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동북아시아 3개국 건축사단체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방문, 건축사등록에 관한 제도, 정책, 법규 등의 자료교환, 학술·문화사업 협력, 기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97년 1월 제1차 북경회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결성키로 하고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탄생했다. 지난해 제2차 우리나라 제주회의에 이어 열린 올해 회의에서 일본의 경우는 APEC의 Engineering 자격조건을 기

준으로 논의할 것을 제의한 데 반면, 우리측은 APEC의 기준이 아닌 UIA의 기준을 갖고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결국 3국의 민간단체가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 문제가 남아있고,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실무교육에 대한 개혁이 검토중이므로 당분간 현실적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또한 현재 활동중인 뛰어난 건축사들에 대해서는 3국이 그 실력의 동등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본측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차기 회의는 내년 하반기에 중국의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이의구회장 외에 우남용부회장, 이관영이사, 이정근·이필훈국제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내년 중국 상하이 대회에 북한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구 회장, PPC회의 참석

10월 8일, 9일 체코 프라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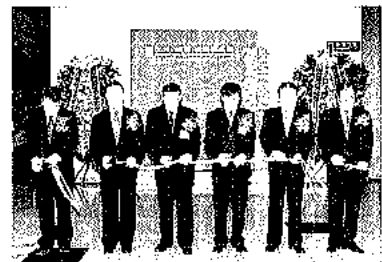


국제건축사연맹(UIA) 산하 전문운역업위원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 Meeting) 제8차 회의가 지난 10월 8, 9일 이틀동안 체코 프라하 Martinicky Palace(프라하성내)에서 2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의구 우리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근창, 이인호 국제위원과 건축가협

회에서 조영중씨가 참석했다. 이번 8차 회의는 지난 1998년 12월 와싱턴 회의때 보완, 수정되고, 올해 2월 일본 나고야 이사회를 거쳐 제10차 UIA총회에서 채택된 UIA 건축실무에 관한 국제표준 권고 협정(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을 근거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각 분과별 주제와 전문실무위원회는 작년 와싱턴 회의때 이미 구성되어 각 전문실무위원회에서는 주제별 내용을 연구, 조사하여 초안이 제출된 가운데 위원장인 미국 James Scheeler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토의 안건의 검토, 북경 총회에서 채택된 권고 협정내용의 세부지침 사항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건축사회, 후쿠오카 건축작품 교류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광주건축사회에서는 JIA 후쿠오카회와의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광주·후쿠오카 건축작품 교류전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에서 광주건축사회 회원,

JIA후쿠오카 회원, 광주전남지역 학생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총 85점이 전시됐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무등파크호텔에서는 광주·후쿠오카 친선의 밤이 개최되어 이의구 우리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는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상호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건축사회, 회원전 및 학생작품전

순천 문화예술회관과
MBC 목포문화방송국에서



전남건축사회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건축사 회원전과 학생작품전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MBC목포문화방송국에서 각각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남건축사 회원작품 35점과 학생 우수졸업작품 8점 등 총 43점이 전시됐다.

전북건축사회, 회원전 및 학생작품전

전북건축사회관 전시실에서

전북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북건축사회관 2층 전시실에서 전북건축사 회원작품전 및 99학생건축설계 작품과 도내대학 재학생 우수졸업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도민들이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개최됐으며, 전북건축사회원 작품 55점과 도시중산층 주택 재개발 계획을 주제로 한 99학생건축설계 응모작 66점, 그리고 도내대학재학생 우수졸업작품 38점 등 총 159점이 전시되어 조형창작 예술로써의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제고와 후진양성을 통한 전북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충북건축사회, 고건축 답사

제4기 시민건축대학 강좌 중 실시



충북건축사회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제4기 시민건축대학 강좌중 지난 10월 28일(목) 고건축 답사를 했다. 시민과 회원 103명이 참여한 이번 답사는 충남지역 윤증고택, 신원사 종약단, 감사 등을 돌아보며 전문강사의 생생한 현장설명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회원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

금번 국세청의 전문직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가 좀 더 저렴한 가격과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여 카드회회기는 소비자가의 1/4수준으로 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은 적용을 4~5%보다 낮은 매출금액의 2.5%~3%로 책정기로 하는 등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본협회 또는 각 시도건축사회의 안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99. 하반기(2차) 가맹점 확대 조치 주요내용]

1. 업 종

서비스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116개업종 추가 (총 209개 업종)

※ 서비스업: 건축사, 변호사, 법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포함.

2. 지 역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 읍·면지역중 관광지역 등과 같이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포함.

3. 사업규모

개인사업자: 98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전문인적용역업종)

법인사업자: 지정업종 전체

서울국제심포지엄, 정보.문화.건축@서울.21 개최

11월 19, 2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21세기를 위한 서울국제심포지엄인 ICAS21(Infomasion, Culture, Architecture@Seoul21)이 11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와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우리협회를 비롯해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문화와 지역을 초월한 교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을 점검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다. 임창복(성균관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1월 19일 행사는 15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의 '21세기 서울 도시·건축의 문화적 정체성', 빌 할리어(런던대)교수의 '컴퓨터와 문화, 연구도구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11월 20일 행사는 헬렌박(경기대건축전문대학

원)교수의 진행으로 논문과 작품발표 그리고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하세가와 후미오(일본)의 '도시계획에 미친 비트뱅크의 영향', 게르하르트 슈미트(스위스 취리히 공대)교수의 'ETH World-중복된 현실을 향하여', 평실림(상하이 통지대)교수의 '동아시아 도시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 임창호(서울대)교수의 '미래도시의 계획: 서울의 새로운 천년 구상', 한스 스티먼(독일)의 '베를린: 새천년 도시건축', 제해성(아주대)교수의 '21세기 정보도시 서울의 건축과 그 문화적 정체성' 등의 논문발표 이후에 야마모토 리켄(일본),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연구소), 벤 반 버클(네덜란드)의 작품발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에는 양 갑(서울시 주택국), 이회봉(중앙대), 승효상(이로제), 임연철(동아일보)씨 등이 참여한다.

서울건축사복지회, 신용카드 발급

연회비 1년 면제 등 혜택

서울건축사복지회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삼성카드사와 제휴, 이달중 '건축사복지회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연회비 1년 면제, 2년간 교통상해 보험 무료가입의 혜택 외에도 삼성계열 자동차보험 가입시 10% 환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사용금액의 1%가 가입자 앞으로 적립되며, 보너스클럽을 이용할 때는 3~5%가 적립되는데, 적립된 포인트는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달중 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문의: 02-585-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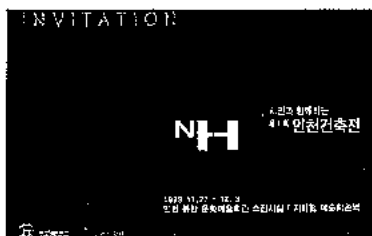
(주)한샘, 아카시아건축상 공식 후원

매회당 미화 2만달러 기증하기로

(주)한샘에서 아카시아건축상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 이는 아시아 각 회원국협회에서 제출하는 응모작품을 부문별로 심사하여 시상하는 아카시아건축상에 (주)한샘에서 후원금으로 매회당 미화 2만달러를 아카시아에 기증하기로 한 것으로 아카시아에서도 지난 제10차 아카시아포럼 행사를 통해 매우 큰 수확으로 평가했다.

제1회 인천건축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99건축문화의 해 인천광역시 추진위원회는 인천 시민과의 문화적 연대를 구축하고자 전시회를 마련한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과 인천 지하철 예술회관에서 11월 27일(토)부터 12월 3(금)까지 전시할 이번 행사는 기존의 단순한 패널 전시나 인천에 대한 관례적인 소개의 차원을 넘어 창조적 의지가 담긴 입체적인 전사로 기획, '문화인, 인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기 위한 문화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열린 문화축의 신선한 행사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출신 및 인천지역 활동 건축가 작품, 인천시민 건축백일장 수상 작

품, 학생공모전 수상 작품, 인하대, 인천대 건축공학과 학생 작품, 원정수교수의 인하대, 인천대 건축공학과 교수 작품, 인천국제공항 등이 전시된다. 한편, 12월 2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원정수교수와 건축가 이일훈을 초청하여 '한국건축 어디로 가고 있나?'와 '일상속의 건축'에 대해 강연과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인하대 건축공학과 구영민교수
(032-860-7580)

제2회 울산 건축대전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서는 울산광역시, 한국예총울산광역시지회, 99건축문화의 해 울산지역 추진위원회, 울산건축사회,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의 후원과 월간건축세계, (주)이건창호 협찬으로 제2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을 일반공모전, 초대작가전, 연합전시회로 구성되어 개최했다.

기간: 1999. 11. 13~18. (6일간)

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2·3전시장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99서울학심포지엄 개최

「"종로" - 시간, 장소, 사람」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에서는 11월 17일(수) 13시부터 18시까지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99서울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학연구소에서 20세기 서



울변천사 연구의 두 번째 기획연구로 추진중인 「"종로" - 시간, 장소,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련된 것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종로·동지의 여러모습-한국현대사에서의 '종로' 읽기/권오만(시립대 국문과 교수)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종로의 모습/이동하(시립대 국문과 교수) ▷대한제국기~일제하 종로의 상가와 상인/전우웅(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일제하 종로의 문화공간/장규식(시립대 국사학과 강사) ▷종로의 경관 읽기/조경진(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종로의 상업건축과 공간논리/김성홍(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종로 경제경관의 변화/남기범(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씨가 참여했다.

99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심포지엄

「페미니즘과 건축」 주제로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원장 정진원)에서는 11월 12일(금) 오후 6시에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페미니즘과 건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천외영(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페미니즘의 건축/이강현(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보그적 예술, 사이보그적 생태/김원방(미술평론가)의 주제발표가 있은 후

이종건(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이선영(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류전희(숭실대 건축공학과 교수)씨가 토론에 참여했다.

건축 & 문화 잡지 ARCHI 21 발간

TAS건축(소장 오인환)에서 국배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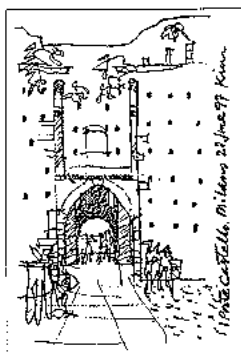


TAS건축사사무소(소장 오인환)에서 국배판으로 건축&문화 잡지 ARCHI21을 발간했다. 지난 10월 1일 창간호를 낸 이 잡지는 무가지로써 20대의 건축&실내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이 참여로 만들어 가는 '젊은 잡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 잡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건축인의 건전한 대학 문화를 담아내고, 건축인 상호간의 참여로 연대감 형성을 추구하며, 내용에 있어서 계획, 설계 위주의 편식이 아닌 건축&실내 건축과 관련된 전 분야 특히 매호마다 대학 문화 소개(학교탐방, 동아리 소개), 현장 이야기, 여성 건축인 소개 및 비현, 낙선작 위주의 소개로 언더그라운드(Under Ground)적인 성격 등의 다양성을 시도하고,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시도하는 내용과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진학 및 취업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전국대학(교)과 설계사무소, 건설 회사, 대형서점까지 배포 중이며, 앞으로 회원제(정기구독)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TAS건축사 사무소 ARCHI 21 편집부(02-3675-0213)

김성국 전시회

토탈 현대 미술관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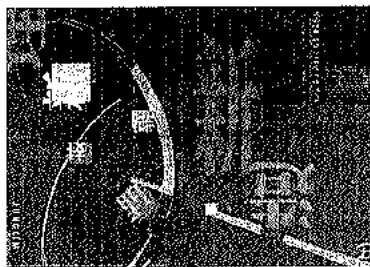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성국 교수가 그동안 작업했던 국내외 작품과 세계 각지의 여행스케치를 모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친필드로잉과 디테일 도면이 원본 그대로 전시되어 건축가 김성국의 작품과정을 여과 없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토탈미술관(02-379-3994)

정림건축, 창립32주년 기념 전시회

11월 20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주)정림건축은 지난 95년 De-Reconstruction의 해체 이벤트로 건축을 예술의 장으로 승화시켰으며, 그 이후 정림은 재구축되었고, 1999년에는 창립



32주년과 새 천년의 밀레니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우리건축이 단지 물리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이었다면,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건축이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정림은 이번 전시를 개최, 한국 근대건축과 그 중 32년간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한 정림작품과의 '역사적 회전(time rotunda)'을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정림을 관계지우려고 한다. 전시는 11월 20일 시작하여 2000년 1월 31일까지 정림건축 1층 전시장에서 계속된다. 문의: 02-708-8600

홍익대 건축학과, 미국 IIT 건축대학과 자매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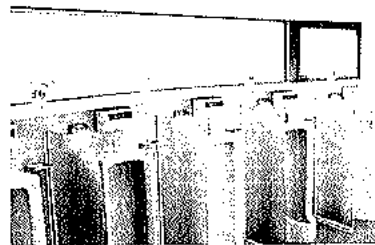
IIT 건축대학 Donna Robertson 학장 방문으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지난 10월 22일(금)에 I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시카고) 건축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IIT 건축대학 학장인 Donna Robertson 교수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이번 자매결연으로 앞으로 교수 및 학생 교류, 그리고 전시회 개최 등 상호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홍익대 건축학과는 지난 1997년에는 영국 AA스쿨과도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상에 수원시의 '반딧불이 화장실'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와 조선일보의 공동주최로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수준 높이기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의 심사결과가 지난 10월 8일 발표됐다. 전국에서 지역심사를 거쳐 최종심사에 오른 106곳의 화장실 가운데 수상작을 확정, 발표했는데, 대상에는 수원시의 '반딧불이 화장실'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설악산국립공원내 소공원화장실,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현대백화점 울산점이 선정됐다.

사랑의 집짓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최우수상에
'콘크리트블록 위의 나무다락방'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는 국제 해비타트(Habitat)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랑의 집짓기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에서 68개의 작품이 응모된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서범석, 정성희, 윤숙희씨의 공동안인 '콘크리트블록 위의 나무다락방'이 차지했으며, 이밖에도 우수상 1점,佳作3점, 장려상3점, 입선작 다수가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주)현대산업개발·스페이스21 전시관에서 전시됐다. 수상안들은 입주예정

자, 자원봉사자, 건축전문인들을 주축으로 실제 건설되며, 공모자들도 직접 시공에 참여할 예정이다.

밀레니엄사업을 위한 건축포럼 개최

1차: 10월 22일, 2차: 11월 18일

건축가협회에서는 건축문화의 해와 다가오는 밀레니엄을 계기로 밀레니엄사업을 위한 건축포럼을 서울 대학로 라이브극장에 개최했다.

1차 포럼

일시: 1999년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대학로 라이브극장(광장건축 지하)

발표: 김봉렬(한국종합예술학교)/ 21세기의 건축행위

한경구(강원대학교)/ 프로세스에 관하여

정기용(기용건축)/ Reality & Mythology

사회: 민현식(한국종합예술학교)

토론: 김 원, 조성룡, 강성원, 이종호, 김영준

2차 포럼

일시: 1999년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대학로 라이브극장(광장건축 지하)

발표: 강성원(미술평론가)/ 가치론에 관하여

이진우(계명대학교)/ 환경을 둘러싼 인식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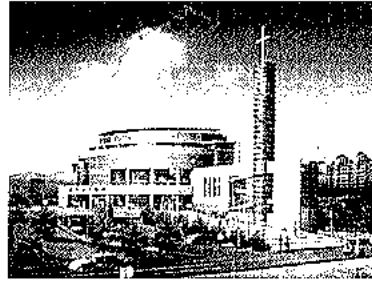
심광현(한국종합예술학교)/ 문화연구 관점에서 도시공간, 건축

사회: 민현식(한국종합예술학교)

토론: 김 원, 조성룡, 정기용, 한경구, 김봉렬, 이종호, 김영준

예조건축, 평택성결교회 현상설계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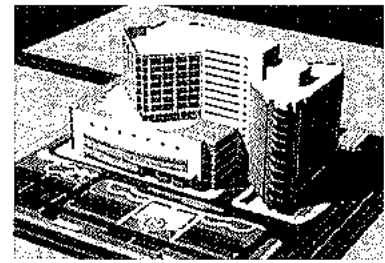
2000년에 착공



평택성결교회에서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념교회신축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예조건축(주영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는 4개의 서울지역업체와 5개의 평택업체가 지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사는 민병호(아주대), 정무웅(단국대), 이차돈(중앙대), 민창기(평택대), 서관석(성림건축)씨가 맡았다. 당선안인 예조건축안이 미래지향적인 교회의 이미지에 부합해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발주처측은 밝혔다. 대지면적 1,400평에 연면적 1,000평,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평택성결교회는 오는 2000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삼우설계+서인건축, 을지의과대학 부속 문산병원 터키 당선

을지의과대학부속 문산병원은 의료 및 의료외적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에 맞추어 새로운 의료 공급체계를 위해 을지의과대학부속 문산병원 건립을 위한 터키입찰을 실시, 총 6개팀이 지명되어 참여한



결과 삼우설계(김창수)+서인건축(최동규)의 공동안과 서울건축인, 원도시건축인 등 3개팀이 1차에서 선정되었고, 최종 삼우설계와 서인건축의 공동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발주처측은 당선안이 의료시설이라는 점에 부합하여 기술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을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대지면적 21,546.70㎡, 건축면적 6,694㎡, 지하4층 지상13층의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다. 2000년 9월에 착공 예정이다.

「춤과 건축과의 만남」 개최

11월 27일까지 포스트극장에서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창무예술원산하 창무댄스컴퍼니가 춤과 건축의 만남을 시도한다. 매년 춤과 타장르를 결합하여 무용예술의 창작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실험의 장을 만들어가는 창무 큰 춤

판이 그것이다. 무용인과 건축인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될 이번 공연은 정적인 건축물과 동적인 인체의 조화로움의 만남으로 인한 충돌과 조화, 공존 그리고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포괄적인 창작 기획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건축물을 배경으로 무용공연이 있고,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포스트극장에서 건축가와 무용가들의 총 4회 공연을 비디오로 상영하고, 건축담론과 안무의도를 함께 듣고 토론하는 비디오포럼 행사가 마련된다.

문의: 공연예술기획 02-3369-210, 277
▷ 이 숙 재 - 합 성 호 의 Dancing Architecture/포스코센터

- 공연: 11월 12일(금) 오후 12시 30분
- 작품: 〈사랑은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 속의 현대인들〉

- 비디오포럼: 11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 박 인 자 - 이 종 호 의 Dancing Architecture/바른손센터

- 공연: 11월 13일(토) 오후 1시
- 작품: 〈시간속으로의 여행〉
- 비디오포럼: 11월 27일(토) 오후 3시 30분

▷ 한 소 영 - 서 현 의 Dancing Architecture/장충공원수표교

- 공연: 11월 19일(금) 오후 6시
- 작품: 〈박제된 인간〉
- 비디오포럼: 11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정 윤 - 민 선 주 의 Dancing Architecture/서울에니메이션센터

- 공연: 11월 20일(토) 오후 1시
- 작품: 〈열린 담, 살아있는 신화〉
- 비디오포럼: 11월 23일(화) 오후 7시 30분

「집과 정원전」 개최

토탈미술관에서 11월 15일까지

동양과 유럽에서 활동중인 건축가 8명이 모든 문화의 기본이 되는 집과 정원을 주제로 각각의 문화와 시대를 반영하는 작업을 전시하는 「집과 정원전」이 지난 11월 15일까지 토탈미술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경록(재미건축가), 토마스 한(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켄트 마르티누센 & 말렌트 앤더슨(덴마크), 민성진(S.K.M. 디자인), 파터 타귀리(미국), 아론 탄, 안 유첸, 조셀 왕(이상 대만) 등 8명의 작가가 같은 주제에 대한 작가의 서로 다른 해석과 연구를 보여줬다.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구로구,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

서울시 구로구는 관내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건물)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일조기준을 정남방향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지정 고시하고,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적용방법: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법 제53조제3항10호에 의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정남방향으로 적용코자 하는 경우로서 정북방향 대지(건물)소유자 전원의 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에 대한 합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이외의 공동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 이하인 부분, 8미터 이하인 부분, 8미터 초

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각각 1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아카시아북」

판매에 따른 안내

영문본, 양장본(국배판) 232쪽(컬러)
정가 3만5천원(특별할인가 1만8천원)

「아카시아북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은 지난 95년 우리협회와 도서출판 발언이 공동으로 편찬한 것으로 한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 15여개국 아시아국가를 대표하는 80여 건축가들의 빼어난 현대 건축물들을 600여컷의 컬러화보 및 도면 자료와 함께 건축가들의 설계개념, 철학을 충실히 담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고 등의 건축가와 작품 소개는 다른 자료에서는 보기힘든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발언에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할인가간으로 설정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정가의 50%수준인 1만8천원에 공급한다.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T:02-581-5711 F:02586-8823)

도서출판 발언

(T:02-929-3546 F:02-929-3548)

건축신간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시공이야기
21세기 건축의 예언가들
현대집합주택 테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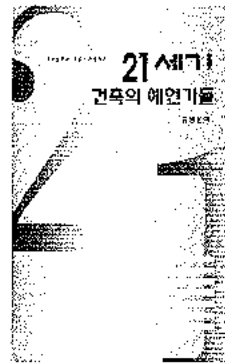
◆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시공이야기



쌍용건설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현장에서 함께 일한 기술자들이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엮은 기술정보서이다. 긴 시간 동안의 자료와 근거조사, 검증을 통하여 토공사부터 골조, 조적, 방수, 미장, 타일 석공사 그리고 마감공사와 조경까지의 전공정을 컬러 사진과 시공도면, 공중 결과를 상세하게 곁들여 놓았다.

김광만, 현동명, 김영춘 지음/292쪽/1만8천원/건설기술네트워크 발행

◆ 21세기 건축의 예언가들



현대건축의 거장인 르 꼬르뷔지에, 미스 반 데 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세사람에 관한 건축이야기 <건축의 예언가들>에 이어 피터 아이젠만, 베르나르 추미, 프랭크 게리, 램 쿨하라스, 안드레아 브랑지, 제르미노 첼란트 그리고 백남준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21세기 건축의 예언가들>이 현대건축사에서 발간되었다. 이 책은 일본 건축가인 아라타 이소자키가 각각의 거장들과 함께 건축과 문화에 관해 논하며 그들의 작품성향과 프로젝트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대화체로 기술하고 있다. 어렵지 않게 읽어가면서 21세기를 이끌어갈 건축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아라타 이소자키 지음/김병윤 역/486쪽/1만5천원/현대건축사 발행(02-549-6444)

◆ 현대집합주택 테마3



이 책은 주거단지의 주요한 테마가 되고 있는 것들을 3가지로 구성, 테마들의 주요사례로 30여개 일본 집합주거단지를 열거하고 있다. 테마1에서는 현대집합주택의 유형을 밀도와 지형조건 등 물리적 기준에 따른 분류와 수요층의 주택구매 성향변화, 사회여건에 따른 집합주택의 변화 양상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테마2에서는 새롭게 다시 요구되고 있는 주거단지 개발 방식인 마스터아키텍트(Master Architect)방식을 새도시 개발, 도심재개발 등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경관, 환경적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한다. 테마3에서는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계획으로 주거단지 계획에서의 환경친화적 개념과 계획요소, 환경친화적 주거단지가 실현 가능한 개발 시스템을 실제 사례에서 찾아보고 있다.

이현호, 이정형지음/151쪽/2만2천원/도서출판 발언 발행(02-929-3546)

호서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설계학 전공 실습생 신청

호서대학교 건축학부의 건축설계학 전공(정원 45명)은 우리 나라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나갈 건축사를 배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설계학 전공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금년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본 전공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 건축실무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현실적인 감각과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방학중 3학점의 실습학점을 선택과목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습비 지급 등 건축사사무소의 부담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주간의 실습기간중 성과를 바탕으로 실습사무소의 건축사가 실습학생에 대한 평가 및 학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자료 등은 학교측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직 서둘고 부족한 점이 많은 학생들이지만 실무실습이 학업이나 장래에 여러 좋은 영향을 주리라 믿습니다. 실습생을 받아주시는 건축사사무소는 전화나 Fax로 사무소명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학교측에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실습생 신청 기간: 1999. 12. 3.(금)까지

Tel: 0418) 540-5490

Fax: 0418) 548-5126

E-mail: archi@office.hosco.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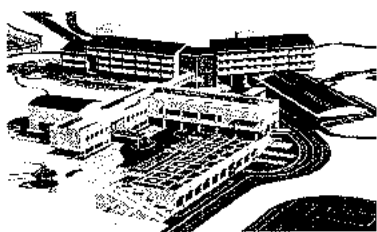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영주 경륜훈련원

Cycle Racing Training
Center in Yeongju

▶ 당선작 / 이공건축(나한진, 이관직)

대지위치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 105번지 외
지역지구	준도시 · 준농림지역, 시설용지지구
대지면적	386,717.4㎡
건축면적	8,462.9㎡
연면적	건축물 - 11,197.8㎡ 피스타 - 271.3㎡
조경면적	15,014㎡
건폐율	2.2%
용적률	2.55%
규모	4개동, 지하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외벽 - 적벽돌 치장쌓기, 콘크리트 제물치장 / 창호 - THK 18컬러복층유리, THK 12강화유리 / 지붕 - 아스팔트 싱글, THK 0.8수지피복강판
도로현황	북서측 6m도로
설계팀	김동진, 김호경, 김호정, 이호숙, 이희태, 장진욱, 박찬규, 신희락, 이정희, 장성욱, 오세웅, 오선준, 천홍철, 이정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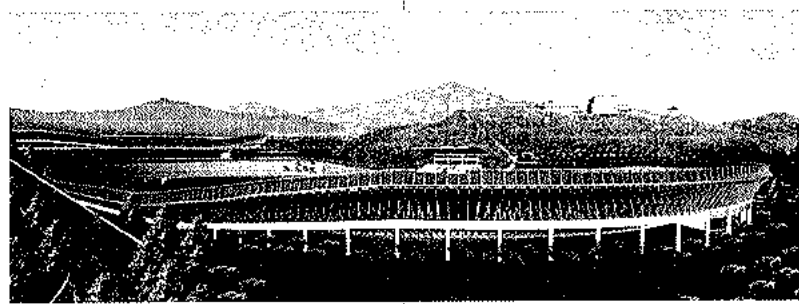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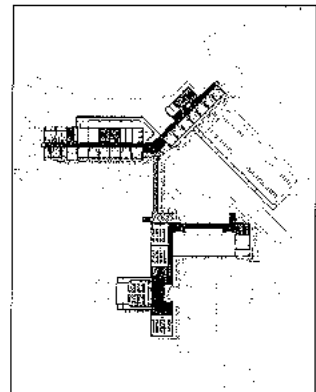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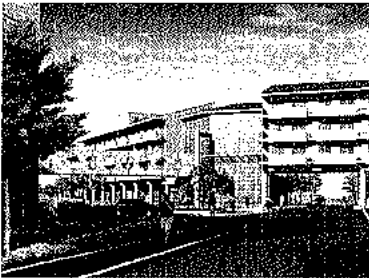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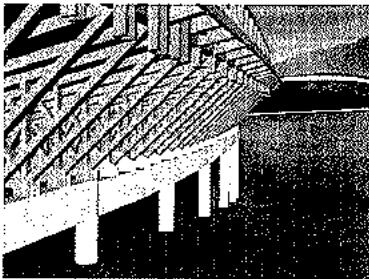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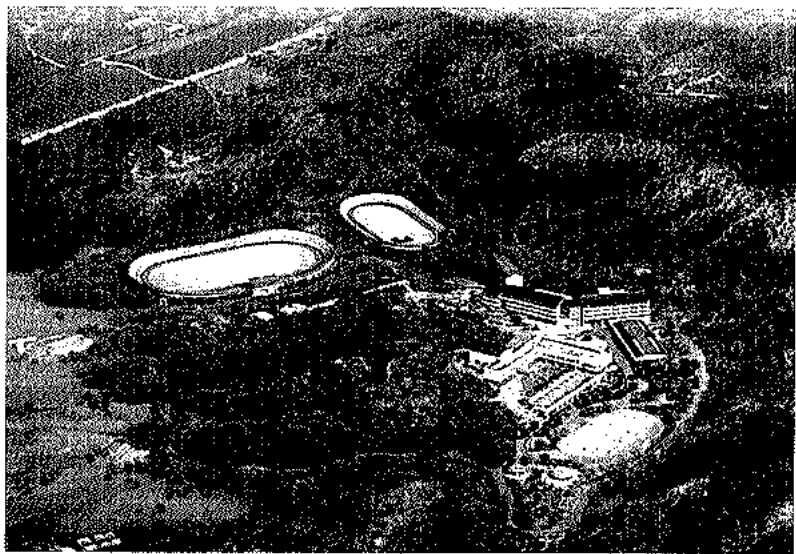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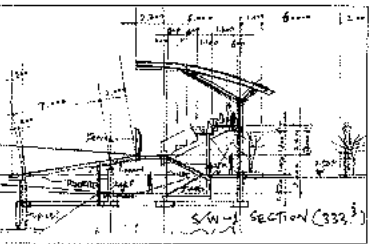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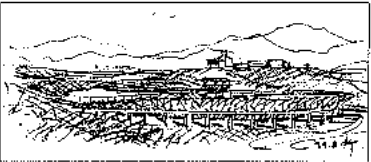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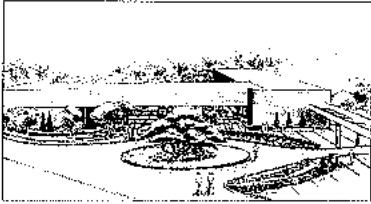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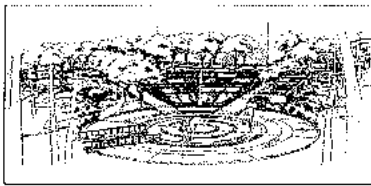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들어서게 될 경륜훈련원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경기를 실시, 이공건축+삼성엔지니어링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는 당선작외에 간삼건축·건정건축+현대산업개발, 공간건축+한진건설, 금성건축+동아건설, 범건축+현대건설, 포스에이씨+금호건설·대림산업, 회림건축+LG건설 등 7개 팀이 참여, 턴키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설계점수로 4개팀을 선정한 다음 시공관련 심사로 당선안을 선정하도록 진행되어 설계심사에서 회림건축, 범건축, 이공건축, 포스에이씨 안이 순위에 들었고, 그 중 이공건축과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당선팀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설계경기 지침에는 기존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주변 문화유적확인지역을 피하여 시설물을 배치하고, 일체의 인공축조물(도로, 옹벽 등)도 배치하지 말 것을 명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서게 되는 경륜훈련원은 경륜 프로선수들을 양성하게 되며, 경륜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되면서 각 지자체에 1개씩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륜장 신축은 앞으로 계속될 듯하다. 신축될 영주 경륜훈련원은 부지에 문화유적확인지역이 설정되어 있고, 313미터와 250미터 두개의 피스타(경사트랙)와 3킬로미터의 주행도로, 학교, 기숙사, 운동장 등 생활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가슴을 설레게도 하지만, 처음부터 공부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심리적인 중압감도 심각하다. 이 경륜훈련원은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 이상의 특수기능의 내용과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의 문제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스테디 과정이었다. 새로운 기능에 대한 공부와 지방에 위치한 대지를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경륜은 자전거경기를 일종의 대중오락으로 변환하여 자전거 스포츠를 확산 보급하고, 경제적인 유동을 활성화하는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특유의 제도이다. 자료를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 피스타(원형의 자전거트랙)의 비틀린 원형의 독특한 조형은 스피드와 원심력의 기능적인 요구가 만들어낸 3차원의 곡면으로서 대단히 완결이 있는 매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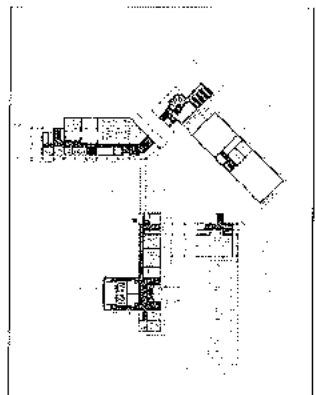
우리는 몇 주일을 계획해서 만들었던 계획을 전부 뒤집었다. 남은 시간도 문제였지

만, 대지해석의 근본방향이 더욱 문제였다. 오밀조밀 양지바른 동네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300여 미터의 대형트랙을 두 곳이나 만들고 삼천 미터나 되는 도로, 또한 접근로 등... 대지 훼손을 줄이고 시설간 시각적인 관리상 조망과 기숙사 학생들의 일조와 소백산의 기가 막힌 조망을 위해서 구릉에 중심건물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나니 국도에서의 접근과 시설의 종류별 집중배치, 약 300m의 연습용 직선 및 등판주로의 문제가 짜이듯이 해결되고, 유적확인지역을 피해 배치할 수 있었다. 그 후에도 기능과 조형, 대지에 대한 프로젝트의 많은 문제는 토론과 논쟁과 그리고 발전을 거치면서, 밤으로 낮으로 모두들의 체력의 한계를 통한 투쟁과 극복의 대상들이었다. 긴 여름이었다. 도면과 보고서의 편집과 설명회의 준비를 통해 우여곡절이 많은 프로젝트였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회는 언제나 즐거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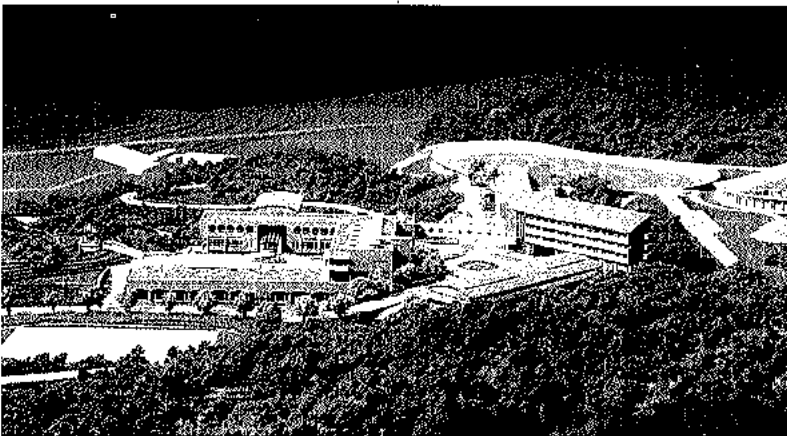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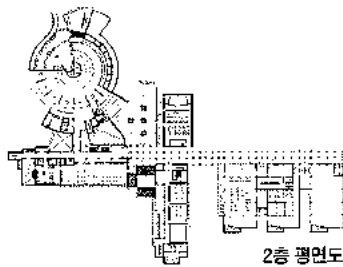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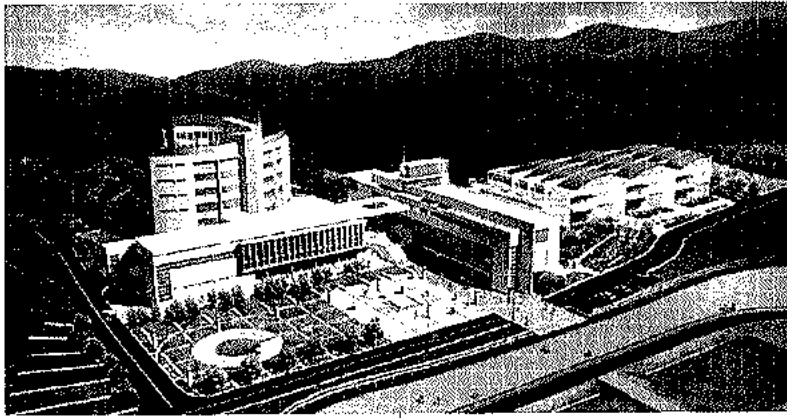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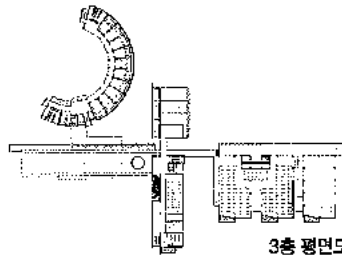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터를 고르고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연을 고려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공간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는 것은 한국 전통 건축물에 있어 일관되어 온 특징이다. 경륜훈련원은 경사진 지형에 건물을 순응시키기 위해 높고 낮은 건물터를 형성하고 공간의 특성에 따라 위계를 형성하여 건물 및 시설물의 배치가 자연스럽게 남향이 되도록 하였다. 지형의 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결과 전체 구성은 입체적인 짜임새를 갖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다양한 전망과 공간적 체험을 가능케 하였다. 시설 배치에 있어서는 전체 시설을 교사동, 후생동, 기숙사동, 체육시설 등의 일반 교육시설과 피스타, 등판주로, 수영주로 등의 육외훈련시설로 구성하고 부지 내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보호구역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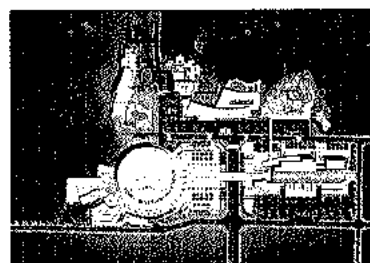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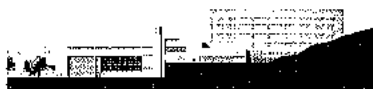
▶ 참가작 / 건정건축(노형래) + 간삼건축(김자호)

대지면적 386,719㎡
 건축면적 6,212.48㎡
 연면적 11,154.11㎡
 건폐율 2.05% 용적률 3.38%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외부 마감 화강석, 콜게이트패널 등
 설계팀 고종준, 이신수, 주영준, 김상우, 백형철, 전민영, 김종호, 장우석, 이상배(건정) + 이영식, 양희중, 전해룡, 김미연(간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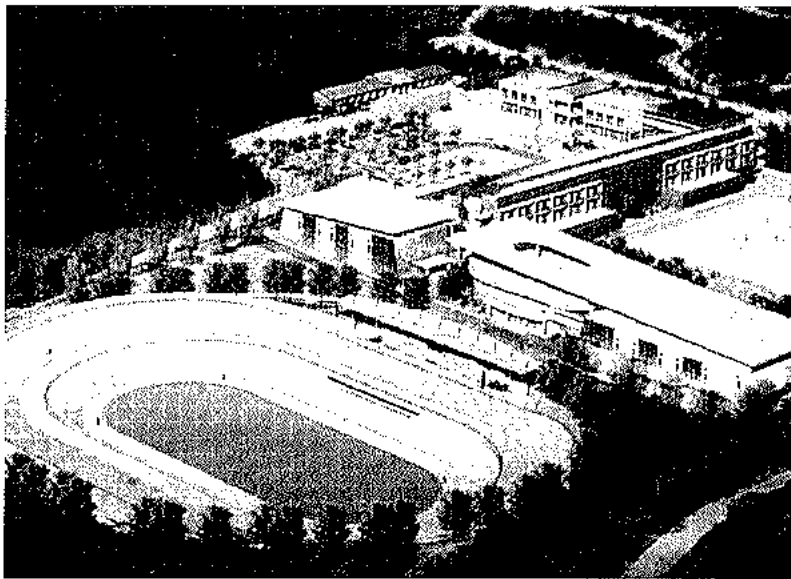


모형도



일반 교육시설은 중심시설인 교사동 및 기숙사동은 남향으로 배치하고, 식당을 포함한 후생동은 전망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체력단장, 자전거보관소 실습장, 연습장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동은 2층으로 시설을 집약화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훈련원의 중심시설인 333피스타는 스포츠시설 최적의 방위측인 남북측으로 배치하여 기본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획하여, 순환주로는 3km를 기본으로 하여 2.5km, 2km, 1.5km의 단속주로로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수평주로는 동판주로 사이에는 교육대기장을 두어 강의는 물론 훈련원생들의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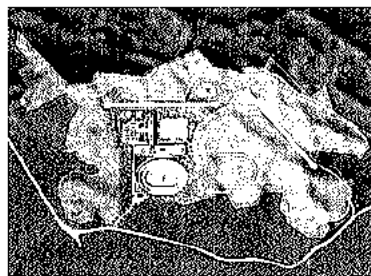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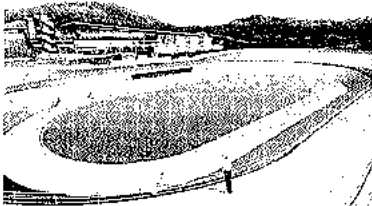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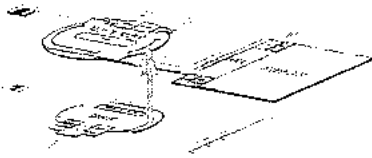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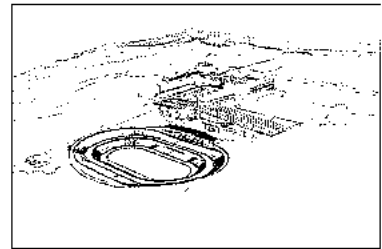
훈련시설의 조닝: 자건거관련시설을 자건거보관소를 중심으로 하여 유기적으로 연결, 분리, 통합시켰고, 자전거보관소는 또한 기숙사와 연결통로를 연결하였다.

기숙사중심의 시설 조닝: 기숙사 전면에 전면광장과 주차장, 후면에 운동장을 두어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였으며, 강의동, 체력단련장, 그리고 자전거보관소를 연결통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동적 공간과 정적 공간의 조닝: 기숙사를 축으로 하여 좌측에는 정적 공간 존, 우측과 허부에는 동적 공간 존으로 구분하였다. 동적 공간 존은 자전거훈련시설과 운동장, 체력단련장으로 구성되며, 정적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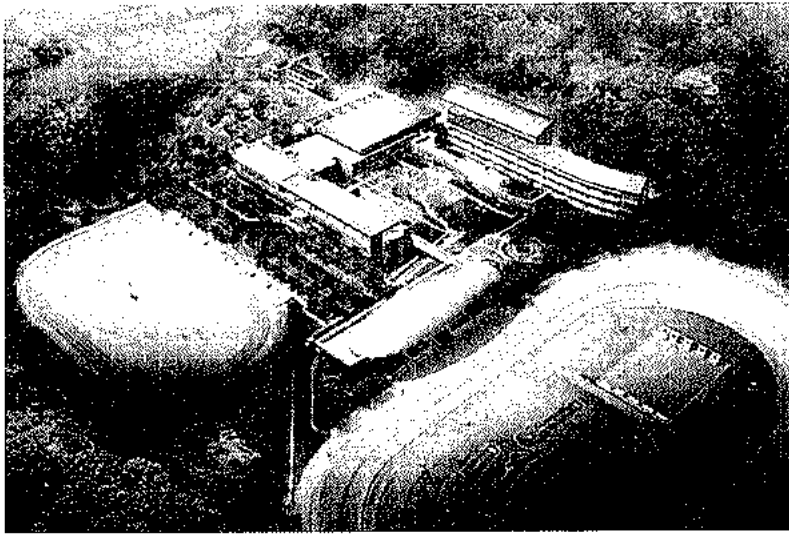
▶ 참가작 / 공간건축(이상립)

건축면적	5,516.24㎡	수장 - 지상1층 / 체력단련장	
연면적	11,244.83㎡	- 지상2층 / 직원숙소 - 지상1	
조경면적	1,641.62㎡	층 / 정문관리소 ~ 지상1층	
건폐율	1.43%	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용적률	2.57%	외부마감	화강석, 적벽돌, 샌드위치 패널
규모	기숙사 - 지하1층, 지상3층 /	주차대수	70대
	교사동 - 지상2층 / 자건거보		
	관소 및 실습장 - 지상2층 / 연		



간은 기숙사, 교사동, 직원 숙소로 구성되었다. 기숙사는 동적·정적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 분리시키는 장축의 배치형태를 취하였다. 교사동은 교실 뿐만 아니라 관리기능실로 포함되므로 본관 성격이 강하여 모든 시설물들의 위계, 질서부여 측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인 학생광장의 중앙부에 배치하였다. 진입로에서 교사동으로 이어지는 강한 방향성과 노출성이 교사동으로 완결되는 감을 배제시키기 위해 교사동 전면에 완충적인 공간인 학생광장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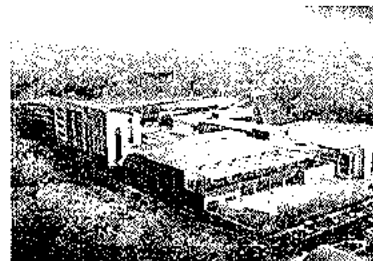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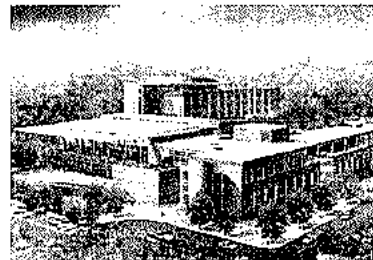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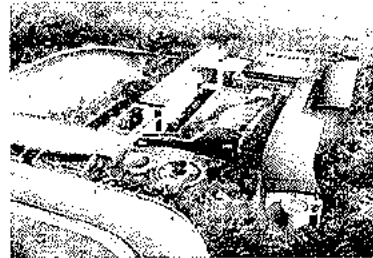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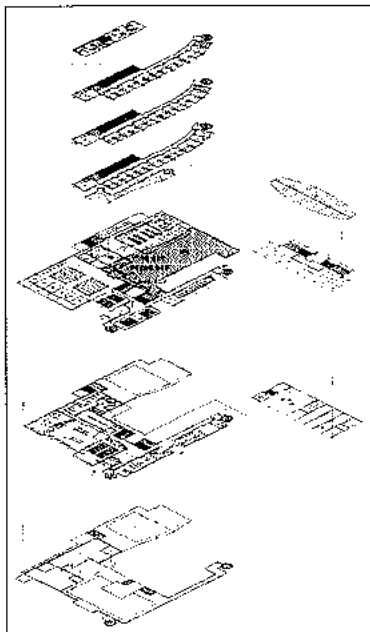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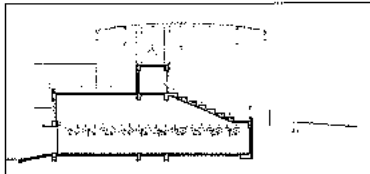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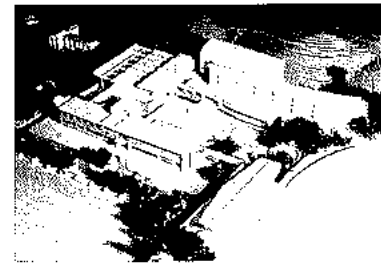


산중턱에 놓인 경주현원은 정문에서 진입로를 따라 피스타(Pista)에 이르는 길이 마치 사찰의 일주문부터 대웅전까지 다다르는 시퀀스를 담고 있다. 이것은 방향성을 부여하고, 연속적으로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공간의 깊이와 풍부함을 격상시키는 장치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각 건물은 독립된 외부공간을 갖게 된다. 방문자는 레벨과 시선축의 변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한된 프레임에 갇히게 되지만, 주차장 레벨에 올라서면서 실내연습장 지붕의 부유하는 처마 이미지를 경험하게 된다. 교사동 전면의 진입광장은 지형에 따른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는데, 현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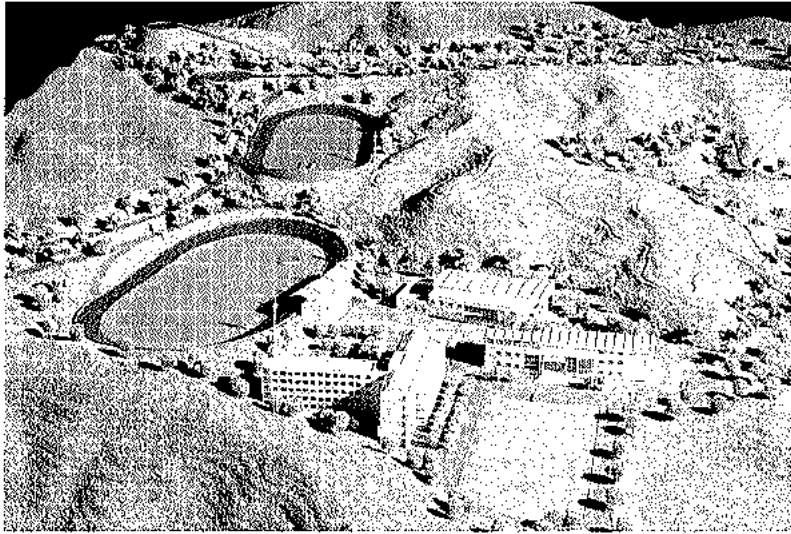
▶ 참가작 / 금성건축(한종언, 정해상)

대지면적 386,717.36㎡
 건축면적 5,775.06㎡
 연면적 11,250.8㎡
 건폐율 1.49% 용적률 2.91%
 규모 교사동 - 지하1층, 지상2층 /
 기숙사동 - 지하1층, 지상4층
 / 실내연습장 - 지하2층, 지하

구조 1층 / 자전거보관소 -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벽식구조, 철골트러스조 및 철골조
 설계팀 전영식(P.M), 김용권, 백승웅, 배성택, 최승철, 김미정, 김성량, 신은정, 김성민, 방인준(설계), 배지만, 김병훈



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운동장과 더불어 정연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담아낸다. 교육과정상 최상의 위치를 갖는 피스타에 이르는 길은 관람석 하부에 형성된 폭 6m의 좁은 오르막 통로를 통해 누하진입의 건축적 감동과 역동적인 훈련장면을 제공하면서 연출된 인공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점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기숙사, 실내연습장, 교사동으로 위요된 중앙광장은 훈련생들의 생활공간으로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수용하는 전통적인 보자기 개념을 가진 마당공간으로 활용된다. 학교의 중심시설이 도서관이듯 훈련원의 중심시설은 피스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로경륜선수를 양성하는 일본경륜학교와 관련시설을 밀도있게 분석하고, 전통적인 지역특성과 훈련원의 정신적 지표를 이미지로 담아 최적화된 훈련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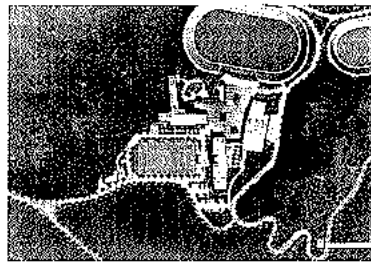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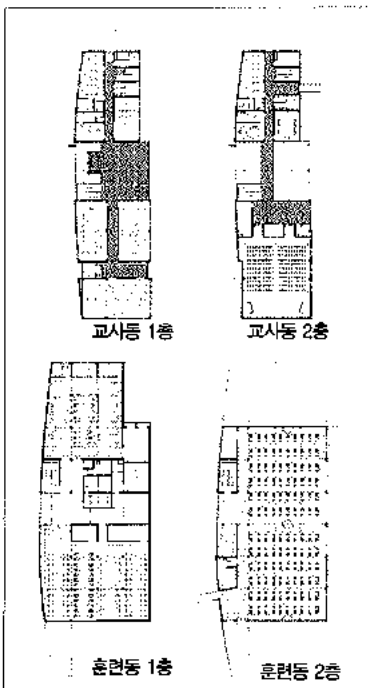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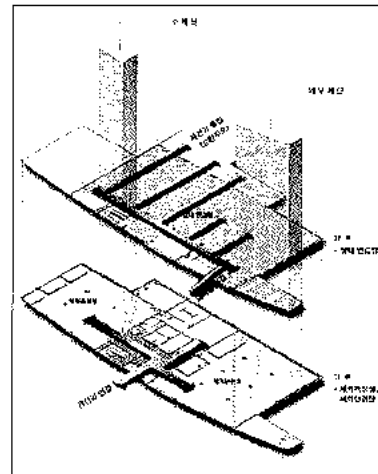


이번 계획안 설계과정에 있었던 논의점 중에서 첫째는 일시적인 속도경쟁이 아니고 지속반복적인 순위 경쟁을 하는 경향이 유일하게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불가피했던 한 개소만 제외하고서는 50개소 중 49개소 모두 특수 아스콘 피스타(타원형 자전거트랙)를 사용한다는 점이 었다. 하나는 이의 특허권과 연관해서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한정되어 있어 타 컨소시엄에서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 하나 특수 아스콘 피스타가 고가여서 애초부터 예산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었다. 그래서 예산에 맞는 콘크리트 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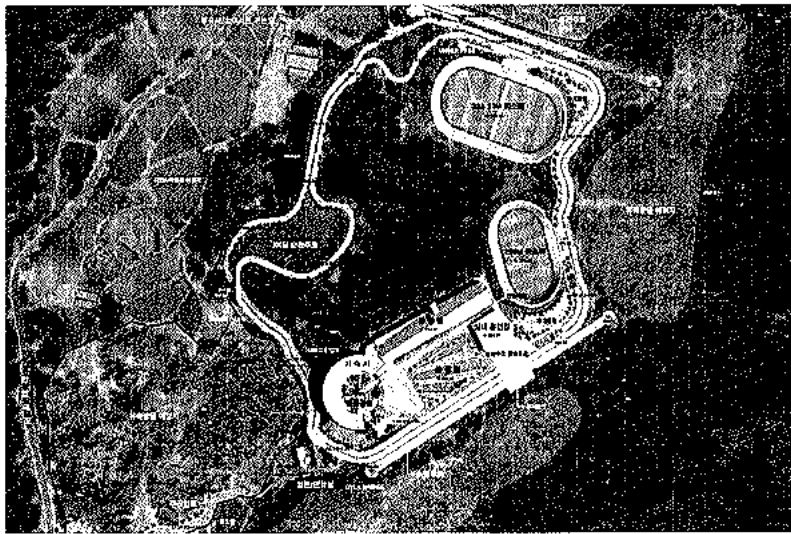
▶ 참가작 / 범건축(박영진, 김관석)

대지면적 116,982㎡
 건축면적 3,362.61㎡
 연면적 11,249.76㎡
 건폐율 0.87% 용적률 2.25%
 규모 기숙사 - 지하2층, 지상5층 /
 교사동 - 지상2층 / 훈련동 -
 지상2층 / 실습동 - 지상2층
 / 점문관리실 - 지상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 철골조

외부마감 외벽단열시스템, 알미늄커트월
 토목설계 다산엔지니어링
 구조설계 주식회사 청-민우구조
 기계설계 삼신설비
 전기설계 문유현 전기설계사무소
 조경설계 그라운드 조경
 CG 우연
 설계팀 원형준(PM), 서영호(JC), 홍
 기남, 김상엽, 오광석, 최영
 재, 박사욱, 지혜진



의 일반 경기장-경륜장이 아니고- 이 대부분인 이탈리아에 가서 확인한 결과 경륜장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다. 또한 프리텐션 구조의 콘크리트 피스타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시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계획의 전제로서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다음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대지에 접근하는 우리의 기본 방향이었다. 이 대지에는 4개소의 문화유적 확인지역이 있고, 일부의 기존 경작지가 있을 뿐 대부분이 삼림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개발해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였다. 그것이 각 설계팀의 공유한 철학과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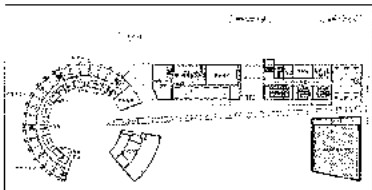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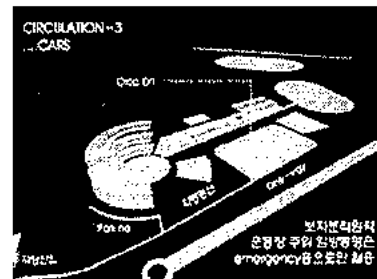
풍기에서 소수서원 및 부석사로 이어지는 순흥문화유적개발지의 주축인 지역간 선도로 주변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전통적 건축배치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인 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지형순응
 - 지세에 따른 시설물 배치
 - 토지효율의 극대화 및 토공사량 최소화
- 전통친화
 - 자연에 순응하는 전통건축 배치개념 도입
 - 지형 위계질서에 따른 시설물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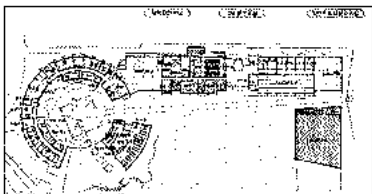
▶ 참가작 / POS - A.C.(이강우, 심성보)

건축면적	6,524.60㎡
연면적	11,240.91㎡
건폐율	1.69%
용적률	2.77%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외부 마감	외벽 - 적벽돌+화강석, 지붕 - 청동골슬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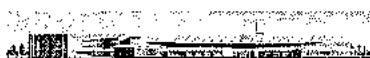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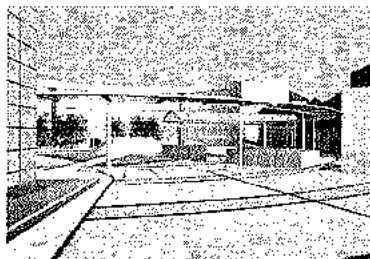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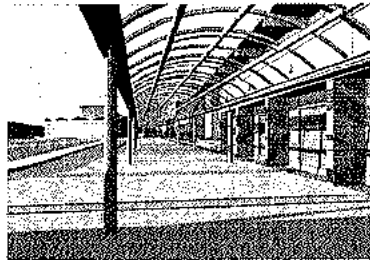
피스타	철근콘크리트조 + THK2 아 크릴릭레진마감
설계팀	강준만(설계총괄), 오완근, 우준호, 정준영, 정영철, 이 배원, 김종목, 김관욱, 강제 호, 유석하, 류지선, 김대원, 강방웅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환경친화

- 주건물동 산중턱에 남향배치, 채광, 조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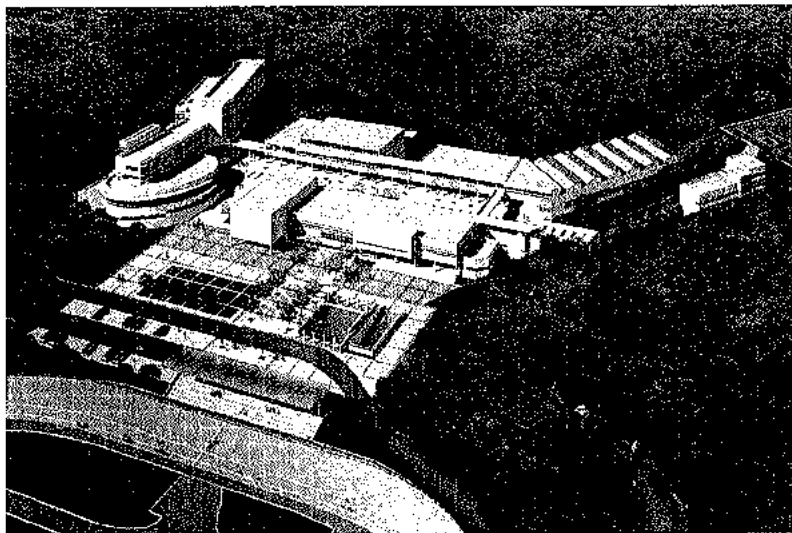
디자인 개념

• 조형성, 상징성

- 추진력의 상징인 크랭크축을 형상화하여 역동적이고 스피디한 이미지를 갖춘 훈련시설로서 상징화
- 피스타 이미지를 지붕형태의 디자인 어휘로 채택하여 경륜훈련원만의 독특한 조형이미지로 표출

• 교육 및 훈련전용시설로서의 장

- 미래를 향한 고된 훈련을 감내하는 젊은 선수들의 순수한 열정을 표현하고, 그들을 북돋아주는 훈련원의 상징적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
- 커리큘럼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동선을 건축동선화로 유도하여, 실내외 교육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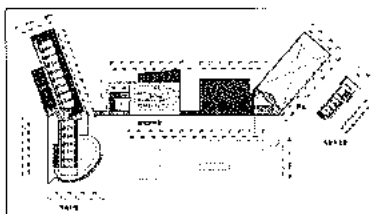
대지 현황 분석에 따라, 대지의 중앙에 있는 Y자 형태의 구릉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건물군을 배치하였다. 대지로의 진입입은 두 개의 접근로 중에서, 문화유적확인지역과 사유지를 침범해야만 하는 남측 진입로를 제외하고, 전면도로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한 서측 진입로쪽에 계획하였다.

대지영역은 Y자 대지 형상의 목부분을 기점으로, 크게 전면부와 후면부의 두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자전거 광장을 중앙에 두고, 전면에는 피스타를 배치하여 경륜훈련원으로서의 인지성을 고려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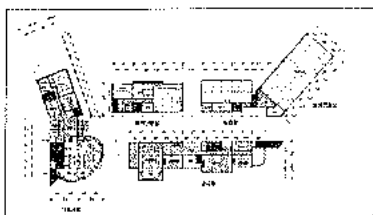
▶ 참가작 / 화림건축(이영희)

대지면적 386,719㎡
 건축면적 6,409.08㎡
 연면적 11,249.63㎡
 건폐율 1.66% 용적률 2.9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외부마감 외벽 - THK 30회강석버너
 구이 / 창호 - THK 130세미
 단열비, THK 24복층유리,
 방수 - 3T 도막방수, 액체방
 수 C종 / 지붕 - 복합단열 패
 널, 평데크 슬라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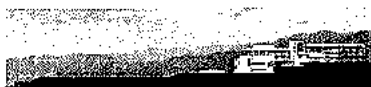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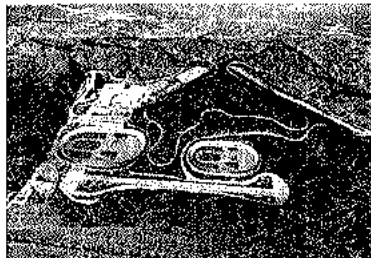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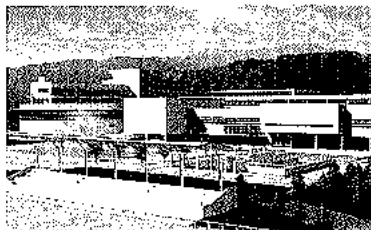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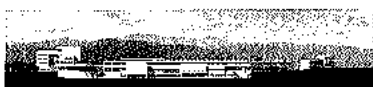
구조설계 정일구조기술사사무소
 기계설계 우원
 전기설계 나리기술단
 조경설계 서안
 토목설계 다산컨설턴트
 설계팀 정영균, 임동건(설계총괄),
 심재춘, 이세훈, 김광범, 박
 병규, 이영조(계획설계), 정
 용석, 박은희, 이정후, 김동
 훈(기본설계), 전기연, 이동
 원, 김이준(C.G)



레벨3 평면도



레벨2 평면도



도로소음이 적고 조망이 유리한 후면에는 건물군을 배치하였다. 훈련원의 상징적 공간인 자전거광장은 옥외 훈련시설과 건물군의 중심에 계획하여 두영역을 거증적으로 연결하도록 했고, 동시에 3km 순환주로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다.

특히 전통 가람건축에서 볼 수 있는 공간 전개방식을 재해석하여 대지의 경사를 따라 공간의 위계를 부여하였는데, 영주부석사의 산지형 가람배치 방식을 모티브로 하여 기승전결의 단형 외부공간 전개방식을 취하면서, 경륜장의 정문에서부터 <진입광장> <피스타> <자전거광장> 건물군을 경사지를 따라 위계적으로 배치하였다.

외장재는 내구성이 강한 화강석을 사용하여 훈련원 전체에 밝은 이미지를 주도록 했다.

Domus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u

建築文化

新建築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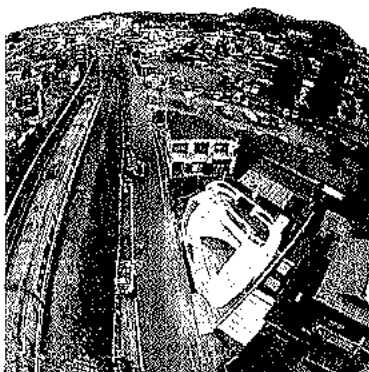
1999년 9월호

이번호의 이슈는 '자연으로부터의 교훈'으로서 자연에서 얻어지는 형태를 모티브 삼아 디자인된 작품들을 그것

의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컨셉과 함께 소개하였으며, 건축부분도 또한 형태적 측면에서 자연으로부터 모티브를 얻거나,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한 작품들을 다루었다.

■ 근작소개

▶ Eisaku Ushida와 Kathryn Findray의 동경 트러스 벽 주택



이 작품은 구조의 강고함에 의해 그 이름이 붙여졌다. 영화의 시퀀스에 가까운 일련의 이미지들은 프랭크 게리의 건축과 유사한데, 그의 것에 비해 이 건물은 내향적이다. 또한 이 건물은 공간성의 새로운 형태를 제공하는 실험적 작품으로서, 유동적이면서 밀도 높고 액티브한 공간은 고전적인 원근법적 시각을 신선한 감각으로 대체하였다. 거리와 하늘을 연결하는 시퀀스에 의해 풍화된 해안의 바위와 같은 형태 안에 인간의 움직임



담아내었다.

▶ Imre Makovecz의 헝가리 Makó 소재, 문화센터

다양한 재료의 조합과 특이한 형태의 유리 타워를 지닌 이 건물은 문화에 관심있는 농업중심 공동사회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같은 자리에 농자개혁가 Ferenc Erdei에 의해 지어졌었던 문화센터는 소비에트 점령기간에 파괴되고 오늘날 유기적 형태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건물은 일어났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유적의 일부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재료사용에 있어서 그 조합이 특히 흥미로운데, 바탕은 백색 플라스틱이며 그 위에 슬레이트 지붕이 얹혀 있다. Makovecz의 건축은 네오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흐름안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또한 50년대의 이태리 건축가 Gardella와 Ridolfi의 건축에서 보여진 바 있다. 모든 것은 헝가리적 문화적 전통안에서 조합되어 있으며, 고도로 세련된 구축적 표현은 땅과 하늘사이의 연결체로 인지된다.

▶ Farshid Moussavi와 Alejandro Zaera-Polo의 런던 Belgo 레스토랑



건물사이의 좁은 틈에 끼인 파사드는 진면을 광고판으로 사용하여, 사진과 레스토랑의 주메뉴가 번갈아 디스플레이 되도록 설치되었다. 좁은 틈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뒤쪽의 큰 홀로 연결된다. 홀을 구성하는 연속적 막은 역동적이고 진동하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벨기에 요리 전문 레스토랑인 점을 감안하여, 건축가는 벨기에 문화를 참조하여 디자인하였다. 침들은 보쉬와 브뤼겔의 회화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색상을 지니며, 내부 공간은 중세 볼트지붕의 기억을 담고 있다. 외부에서 인지되는 전체성은 스틸 합금, 한가지 재료의 사용으로 강화되며 내부의 목재를 사용하여 배의 웅골을 연상시킨다.

그 외에 ▶ 식물의 형태로부터 유추해낸 목조 건물로서, 땅위로부터 들어 올려진 플랫폼에 얹혀있는, Edward Cullinan Architects의 영국, 후크 공원 웨스트민스터 여관을 소개하였다.

■ 디자인

▶ 모델로서의 자연에 대하여

자연의 형태나, 생체공학 원리를 디자인에 적용하는 흐름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생체공학의 심도있는 레벨에서 디자인은 자연을 이용하고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자연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의 융통성이며, 선입관 없이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디자인에 있어서 이러한 접근은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모든 양식적 태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생체공학에의 관심은 형태의 진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환경적 매체로서의 목재

도무스 아카데미 연구센터의 이번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의 디자인에 있어서 목재의 다양성에 대한 깊은 지식과 문화적 측면을 되찾는 것이다. 기술적 혁신을 이룬 실제 프로젝트와 미적, 실제적으로 질 높은 다양한 종류의 목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Architecture

1999년 9월호

이번 호는 알도 반 아이크의 건축이 미친 영향을 재조명해보았으며, 카투니스트 S a i l



Steinberg의 건축 드로잉에 담긴 현대건축에 대한 비평을 다루었다. 또한 Smith-Miller+Hawkinson Architects의 코닝 유리 박물관과 Joan Soranno의 미네아 폴리스 무용센터 등을 근작으로 소개하였다.

■ 알도 반 아이크의 인본주의적 건축

1960년대, 알도 반 아이크는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였다. 그의 암스테르담 고아원(1957-60)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이 건물을 통하여, 당시에 만연하던 무의미한 형태주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적 가치를 건축에 되돌려 놓았다. 결과적으로 반 아이크의 건축에서 특징적인 것은 입면이나 재료가 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잘 구축된 평면이다. 평면은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 근작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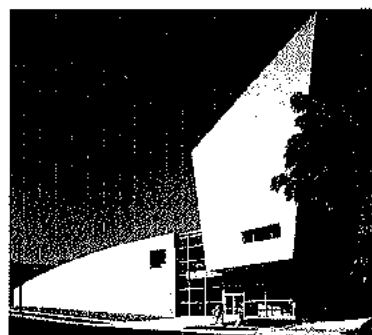
▶ Smith-Miller+Hawkinson Architects 의 코닝 유리 박물관 증축

뉴욕시와 나이가이라 폭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은 Wallace K. Harrison에 의해 1951년 지어졌다. 최근 뉴욕의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기존 건물의 2배에 가까운 증축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현대의 카오스 이론과 후기 구조주의 철학에 근거하여 작업활동을 하고 있는 Smith-Miller는 불확정성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건물의 비선형적 동선과 느슨하게 규정된 공간, 그리고 자연현상의 예측불가능성을 흉내낸듯한 비정형의 평면은 그의 건축적 사고를 반영한다.

▶ Joan Soranno의 미네아 폴리스 무용센터



Joan Soranno는 캠퍼스 내의 개성 없는 블록의 코너를 역동적 형태로 활력을 주고 있다. 스튜디오와 극장으로 이루어진 두 블록을 유리 박스 홀로 연결하고 있다. 로비의 유리 커튼월은 스튜디오 블록의 일층부분까지 연결되어 건물을 지지하는 두껍고 기울어진 기둥을 노출시키고 있다. 적절한 비례의 로비는 Soranno가 이름 붙인 두 개의 솔리드 사이에 끼인 보이드로서, 리허설 블록의 완만한 곡선 벽을 따라 놓인 계단이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 밖에 ▶ Bernstein & Lehrer Landscape Architecture의 LA 공공 도서관 ▶ Stanley Saitowitz의 샌프란시스코 Yerba Buena Lofts을 자세히 다루었다.

■ 카투니스트 Saul Steinberg의 건축 비평

5월 12일 타계한 뉴욕의 아티스트 Saul Steinberg는 스케치로서 현대건축을 재치있게 비평해 왔다. 그의 드로잉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현대 미국 건축의 상황을 짚어내고 있다. the New Yorker지의 커버 그림 86장과 600장이 넘는 그 밖의 드로잉 중에서, 맨하탄 9번가에서부터 서구세계를 조망한 파노라마 뷰는 매우 유명하였으며, 이후 그는 세계 각 도시를 그의 날카로운 붓으로 그려내었다.

■ 기 타

▶ the Celebration Chronicles: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Property Value in Disney's New Town의 저자이자, 사회비평가인 Adrew Ross 인터뷰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10월호

근작으로는 Alberto Campo Baeza의 비즈니스 센터와 Jourda & Perraudin의 정부 훈련원 등이

소개되었으며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는 의상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의상실을 직접 디자인한 Rei Kawakubo의 미래적이며 독창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소개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9세기의 스페인 항구 도시 Cartagena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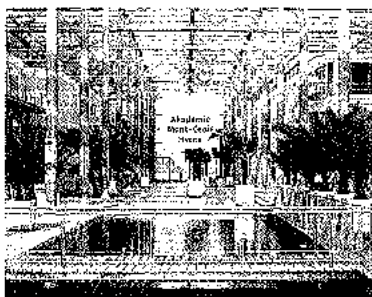
■ 근작소개

▶ Alberto Campo Baeza의 스페인 마요르카 비즈니스 센터



단순한 기하학 차용, 최소한의 재료 사용, 독특한 빛의 조작이 돋보이는 이 비즈니스 센터는 전통적인 지중해의 타이폴로지를 추상화하였다. Campo Baeza의 텍토닉은 매우 절제되어 있다. 1m 간격의 트레버틴 그리드를 직각 삼각형 블록에 따라 채워나갔다. 이 데카르트적 카펫은 6m 간격의 구조 그리드와 포개어지며, 사무실의 투명한 유리벽은 앞의 기둥을 반사하여 또 다른 열주랑을 형성한다. 방문자의 잉카에 대한 기억은 트레버틴과 오렌지 나무와 그늘, 그리고 하늘로 열린 삼각형의 개구부이다. 건축가는 원래 선과 야의 극장에 높은 공용의 파빌리언을 짓고자 하였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극장은 전체 계획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높이 세우는 것만큼, 안을 파남에 의해서 건축가는 그의 원초적인 관심은 공간의 형성임을 보이고 있다.

▶ Jourda & Perraudin의 독일 Herne-Sodingen 정부 훈련원



이 건물은 건축적 측면, 프로그램 측면에서 모범이 된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정부의 타이트한 예산에 의해, 삭막한 막사와 같이 지어지기 쉬운 사설에 재치있는 답안을 제시하였다. 전직 광부들의 주거로 둘러싸여 있는 이 대지는 Ruhr지역의 가장 깊은 광산지대 중 하나에 자리잡고 있다. 이 건물은 직

업훈련원 뿐 만 아니라, 도서관, 커뮤니티 홀, 복지회관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시의 중심 시설로 자리잡았다. 과거의 지역과 추상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기념비적 스케일과 반복적인 구조는 과거 공업적 광경중 하나인 공장의 용광로와 거대한 건물 외피를 환기시킨다. 투명한 유리 피막으로 덮여 있으며, 168m길이의 목재 골조의 격납고는 건물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한다.

▶ Eric Owen Moss의 Culver City 사무동 ▶ Tadao Ando의 고베 근교, Toto 회사 휴양관 ▶ Shubin + Donaldson Architects의 LA 광고 에이전시 사무실 ▶ Bulanda & Mucha의 폴란드 Boydgoszcz, 은행 본사 ▶ Enrique Browne의 칠레 Paine, 사무실 건물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 인테리어 디자인

▶ Rei Kawakubo의 뉴욕과 동경의 의상실

Rei Kawakubo는 Comme des Garçons 의상실 배후의 움직임은 아이디어이다. 그녀는 자신을 의상디자이너로 소개하지만, 그녀의 이상은 조각가에게 가깝다. 의상에 형상화된 '움직임', '촉각', '에너지' 등과 같이 손으로 만져질 수 없는 주제는 상점 전체의 이미지로 확장되었다. 자유분방한 개인주의와 실험성이 이전의 흑백위주의 단순한 디자인 흐름을 대체하였다. 동경의 삼은 오피스 건물의 육중한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끼었다. 파사드를 맡은 Future System은 거리와 인테리어간의 연결체를 고안하였으며, 거리의 극장을 만들어 내었다. 육중한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푸른색 점 패턴의 시트지가 붙은 곡면 유리벽을 등으로써 매개체를 형성한다.

■ 기 타

▶ 19세기 모습 그대로 전해지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스페인 항구 도시 Cartagena

▶ 주택특집으로 호주 브리스베인에 위치한 Donovan Hill의 주택 소개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9월호

이번호는 인테리어 특집으로, 레스토랑, 바, 아파트먼트 등의 주목할 만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소개



하였으며, 건축적 가구를 만들어내는 소규모 디자인 그룹들의 대표적 작품과 프로필을 실었다. 한편 뉴트라가 1946년에 지은 Kauffman 주택 복구, 몬트리올에서 열린 스까르파 전시회 등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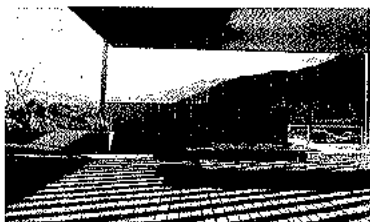
■ 스까르파 전시회

10월 31일까지 몬트리올의 캐나다 건축 센터에서 스까르파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는 그의 작품사진 및 나무 모델을 중심으로 건축가 George Ranalli에 의해 총 지휘되었다. 1953년과 78년 사이에 지어진 8개의 작품이 전시되며 특히 까스텔베키오 박물관과 브리온 가족 가족 묘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앞의 작품은 14세기와 나폴레옹시기 그리고 1920년대의 리노베이션되었던 건물들 다시 작업한 것으로서, 파괴와 상상적 부가, 그리고 극장성, 공간에 대한 그의 사고를 보여준다. 브리온 가족묘지는 가장 시적이고, 랜드스케이프와의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이다. 그밖에 파사드 처리면에서 쟁점이 되는 Popolare 은행 등도 전시되어 전시회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 근작소개

▶ Marmol and Radziner의 Kauffman house 복구

리처드 뉴트라가 1946년 지은 이 집은 그의 모더니스트의 이상이 순수하게 표현된 것으로 20세기의 비위계적이고 유



동적 공간과 최신 공업재료의 표현적 사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후 소유주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바깥에 따라 건물도 변경이 되었다. 건축사를 전공하는 건축주 Beth Harris는 뉴트라의 처음 의도대로 건물을 돌려놓기로 하고, 이전에 뉴트라의 주택을 보수한 경험이 있는 Marmol and Radziner Architects에게 복구를 맡겼다. 외벽 마감에 쓰인 운모석을 찾아내어 이전과 똑같이 재현하였으며, 뉴트라의 드로잉들을 바탕으로 캐비닛 등을 제작하였다. 건축적 유산을 보존한다는 입장에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를 강화하였으며, 사막의 더위에 견디기 위해 냉방시스템을 부가하였다.

그 밖에 ▶ Emil Prikryl의 프라하 Benedikt Rejt Gallery의 현상적 공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건축적 가구를 만들어내는 디자인 그룹 콤팩트하고 혁신적인 건축적 요소는 내부공간을 빠르게 변형시킬 수 있다. 의자, 캔틸레버로 된 계단, 발명품 같은 부엌 가구 등이 젊은 디자인 그룹에 의해 건축적 고안물로 디자인되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FACE는 그들의 작업을 공간적 장치로 일컬으며, 건축, 예술, 환경 디자인의 영역을 넘나들며 작업하는 Loom은 아주 작은 인테리어 요소도 매우 건축적으로 만들어낸다. 또한 Studio Sumo도 가볍고, 유연하며, 탈부착이 건축적 장치물을 만들어 내며, 일상에서 찾아낸 사물을 다른 의도에 활용한다. 러버메이드 밀폐용기를 벽에 붙여 캐비닛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식당에서 쓰였을 거대한 주전자를 욕조로 변형하였다.

■ 건물 유형 연구- 인테리어 디자인

▶ Adam D. Tihany의 라스베가스 Aureole 레스토랑
Tyhani의 디자인 개념은 사람들을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처럼 만드는 직설적인 라스베가스 상업시설의 주된 디자인 흐름과는 다르다. 건물의 파사드에서 인테리어까지 추상적 디자인을 읽을 수 있다. 50ft길이의 큐브를 브릿지를 통해 진입하도록 되어있으며 큐브의 중앙에는 와인 타워가 천장까지 닿아있다. 파사드에는 타원형의 개구부가 비스듬히 뚫려있으며 벽의 단면부에는 핑크색이 칠해져있다. 그 개구부 사이로 큐브 내부가 들여다 보인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테이블이 있는 영역은 낮은 천장을 두고 부드러운 빛을 방사하는 네 개의 조명 박스를 설치하였다.

그 외에 ▶선(禪)적이고 고요한 이미지로 바뀌놓은 Maya Lin Studio의 Norton 아파트먼트 인테리어 ▶John Friedman Alice Kimm Architects의 산타 모니카 Club Sugar ▶Rei Kawakubo, Takao Kawasaki의 도쿄 Comme des Garçons 본점 ▶Patkau Architects의 밴쿠버 공항 라운지 등의 인테리어를 특집으로 실었다.

■ 기타

- ▶ 평등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디자인의 이상으로 삼으며 노력하는 남아프리카 건축의 새 세대
- ▶ 건축가들이 말하는 현 건축교육이 직면한 10가지 중요한 문제

이번 호의 특
집 에 서 는
「Reality?
Virtual
Reality?」란
제목으로 디
지탈 테크놀
로지 시대의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아디 사
미르 지온(Adi Shamir Zion)의 에
세이 "New Modern: Architecture
in the Age of Digital Technology"
를 시작으로 엔릭 루이스 헬리, 데코
이, 녹스, 마이클 실버, 켄트 라슨,
샵 등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을 선
보이고 있다.

■ 특집: Reality? Virtual Reality?

▶ 엔릭 루이스 헬리, 클라우드 9 (Enric
Ruiz-Geli, Cloud 9)



"cloud 666 tree" Project - New
Head Office for the Mies van der
Roh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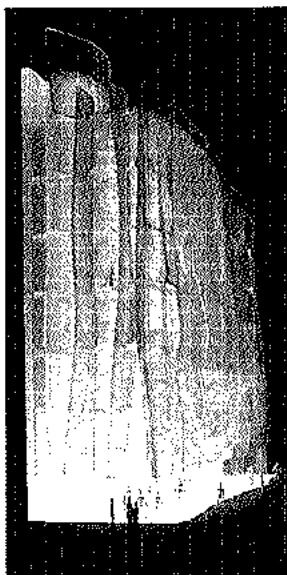
이 작품은 미스 반 데르 로에 재단의 새
로운 본부 건물 현상설계에서 1등으로
당선된 안이다. 작업은 1998년 3월 13
일 촬영된 미스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사진에서 시작된다. 주요한 개념은 줌인
(zoom in)과 줌 아웃(zoom out). 컴
퓨터에서 스캐닝하여 얻은 파빌리온의
사진을 확대·축소해 가면서 프로젝트가
벌어질 사이트를 찾는다. 프로그램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각각
건물의 위/아래, 왼쪽/오른쪽, 앞/뒤가
된다. 맨 먼저 찾아진 공간은 파빌리온

사진의 오른쪽 나무위의 구름, 나무가지
는 반(反)중력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곳
에 떠 있는 공간-구름이 완성되었다. 그
다음에 찾아진 공간은 왼쪽 아래의 음영
진 부분, 음영을 공간화하여 지하로 파진
음영과 반대되는 빛의 공간을 만들어 낸
다. 마지막은 미스가 항상 자신의 이성적
인 건물 앞에 대조적으로 그려 넣었던 나
무. 이 나무는 유일하게 미스의 건물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물체이다. 이 세 가
지(구름, 그림자, 나무)가 미스의 파빌리
온 주위에 마련된다. 미스의 건물에 대한
철저한 해석에 바탕을 둔 이 작품은 작업
의 진행과정에서 그 결과물에 이르기까
지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 데코이(dEC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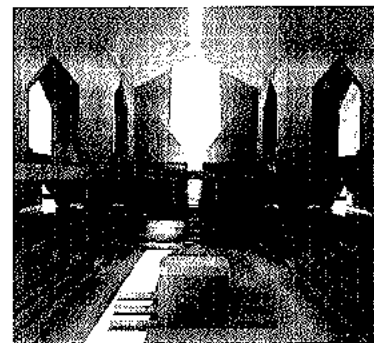
데코이는 건축을 비롯하여 프로그래밍,
수학,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의 여러 분야
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이룬 집단이
다. 이들은 현대의 기술의 발전이 디자인
뿐만 아니라 그 창조와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느
슨하면서도 가벼운 네트워크는 개개의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이러한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결과물
들을 내 놓고 있다. 그들의 작품들은 현
대의 뉴 테크놀로지 없이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것들이다.

▶ 샵 (SHoP/Sharples Holden Pasquarelli)



샵의 Museum of Sex는 뉴욕 맨하탄
의 5번가에 계획되어진 건물이다. 이 박
물관의 큐레이터는 전시 내용에서 독창
적이고 명확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
으며, 건축가에게 성을 주제로한 전시공
간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는가를 질문
하였다. 모델의 계획은 복합화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남성-여성, 이성-동성, 관찰
자-참여자 등의 양분된 구도를 탈피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가장 큰 관건이 된
건물의 외관은 만국통일 유리벽면의 두 세
커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피막이며 피부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디
자인되었다.

▶이 외에도 녹스(NOX)의 작품인
freshH2O EXPO의 Freshwater
Pavilion과 Blowout, V2_Lab,
Michael Silver의 잠수교(Downing
Bridge)와 액정 유리의 집 등이 소개되
었다. 이들 작품은 현대의 건설기술과 컴
퓨터를 이용한 3차원 곡면의 사용 등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켄트 라슨(Kent Larson)은 컴퓨터 그
래픽을 이용하여 칸의 미완성 프로젝트
인 소크 인스티튜트의 Meeting House
와 미체베 이스라엘 시나고그(Hurva
Synagogue)를 재현해 내었다.



建築文化

1999년 10월

이번 호는 별 다른 특집 없이 최근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꾸며졌다. 소개된 작품들의 대부분은 주택으로 무

노 겐조의 URC House III외에 6개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각각의 주택에는 '가족을 담는 주택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을 주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등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소규모의 오피스 빌딩들을 비롯하여 학교, 호텔 등의 최근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 작품

▶ ADH Architect/와타나베 마코토 + 키노시타 요우코의 주택 'NT'



일본에서 핵가족의 비율은 전체 세대의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약 25%. 핵가족이 차후에도 대표적인 가족형태가 될 지는 의문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족은 일반적인 핵가족세대와는 다른 건축적인 요구가 발생한다.

이러한 요구를 총칭하여 건축가는 '轉住'라 칭하고 이러한 전위의 대표적인 예를 조리와 세척의 가사분담에서 찾고 있다. 계획된 주방의 형태는 오픈 커친.



말 그대로 개방된 공간에 가족 구성원 누구나 쉽게 다가가 조리과 세척의 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거실. 현관 옆에 작은 접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공동의 공간은 다목적 공간이 아닌 라이브러리로 변화였다. 일렬로 벽을 보며 마련된 책상과 의자에 가족 구성원은 저마다의 업무와 학습을 하게되며 작업과 휴식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

이 라이브러리와 주방·식당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위한 공간은 최소한으로 줄여 브릿지를 통하여 공공의 공간으로 연결된다. 공공의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공간의 4/5가까이에 이른다.

▶ 우노 겐조(海野健三)의 고단열·고속열 주택 'URC III'



건축주는 소재를 중요시 하는 사람으로, '철은 녹이 슬더라도 철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했으면'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주택은 노출된 철판 및 철골을 비롯하여 재료의 물성이 풍부히 느껴지는 다소 투박한 형상을 하고 있다. 외벽과 내벽에 침대 매트리스의 형상으로 된 벽이 URC공법으로 만들어진 벽면이다.

지진의 피해에 대하여 고민을 한 건축가가 건축주 스스로 시공 가능한 RC공법을 고안하여 만든 공법이다. 따라서 마감은 다소 거친 솜씨로 마감되어 있다. 먼

저 각재 모양으로 세워진 콘크리트 기둥에 단열재를 끼우고 마감은 천으로 된 막으로 하여 부분부분 조여준 형태. 주택의 단열 성능은 뛰어나다고 건축가는 말하고 있다. 이 벽면에 토양을 삽입하여 벽면에 식물을 키우고,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을 rut들리고 있다.

▶ 이 밖에 테즈카 다카하루와 테즈카 유이의 카마쿠라이마 주택, 카모 키와코와 마뉴엘 타르디스(Manuel Tardits)의 코에 주택, 오카타 사토시와 아틀리에 a+a의 쿠니타치 주택, 요코가와 켄의 언덕위의 캔버스(Canvas on a Hill), 타케우치 마사요시의 톨 하우스(Tall House) 등의 주택과, 도심지에 고밀도의 학교를 완성한 호소학원고등학교, 아라이 치아키의 에이스 퍼스트(Ace First) 빌딩, 워크스테이션의 아자부 대학 수의학 의료 센터, 토투카 모토의 MBS빌딩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新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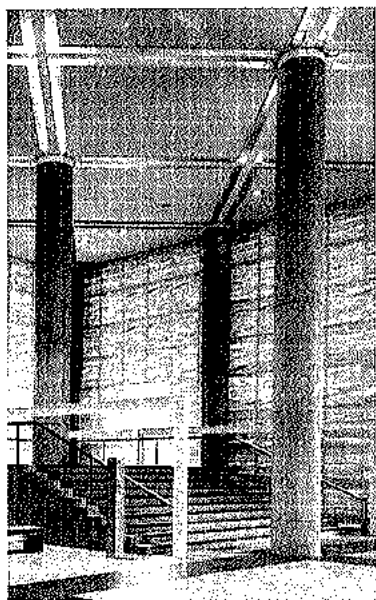
1999년 10월

소규모 프로젝트를 주로 다루었던 건축문화의 최근작 소개와는 대조적으로 신건축에서는 비교적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 카와사키 키요시(川崎清)와 환경건축연구소의 합동작품인 리토오(栗東)예술문화회관 '사키라'를 비롯하여 경마장, 오피스, 호텔, 집합주택 등 다양한 최신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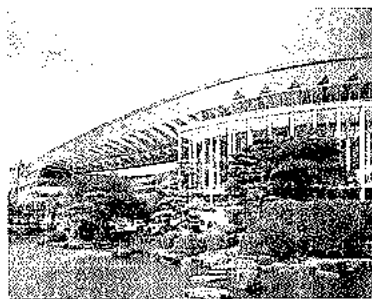
▶ 카와사키 키요시(川崎清)와 환경건축연구소 - 리토오(栗東)예술문화회관 '사키라'



리토오 예술문화회관은 각각 800, 400, 200석을 지니는 공연장과 부대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이다. 외부공간으로는 넓은 상징광장과 케스케이드가 계획되었다. 대공연장과 중공연장을 건물 양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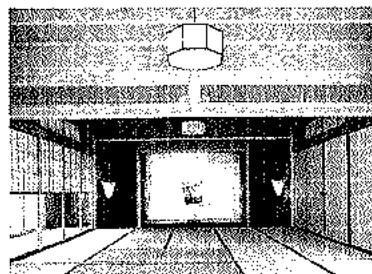
두고 중앙에 서비스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그 상부에 소공연장을 배치하였으며, 공연장의 사이사이에 중정이 계획되었다. 입구홀의 외벽을 얇은 대리석으로 마감하여 내부에서 대리석을 투과한 빛으로 조명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대공연장 무대 뒤편을 유리로 개방하여 후면의 케스케이드의 모습과 함께 다량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 일본경마시설+토하타(東畑)건축사무소 - 코쿠라(小倉)경마장



코쿠라 경마장은 명치시대부터 있어왔던 역사가 긴 경마장이다. 주변에는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어 녹지가 풍부한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수립된 기본적인 컨셉트는 흥행장으로서의 위치확립과 함께 주변환경과의 조화였다. 다층이 구조를 갖는 거대한 구조물의 외관의 꼭면부에는 거대한 열주랑을 세워 콜로세움의 이미지가 느껴지며, 단순한 경마장이 아닌 '말'을 테마로 한 테마 공원의 성격을 지니도록 계획되었다.

▶ 오가와(小川) 건축설계사무소 - KKR 호텔 카나자와



카나자와의 KKR호텔은 3000평 규모의 그리 크지 않은 호텔이다. 그러나 '카나자와만의 것'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계획당

시의 컨셉트였다. 화려하지 않은 외관을 지녔으나, 좁은 대지안에서도 일본식 정원을 'ㄱ'자로 둘러싸며 라운지와 일본식 다타미바닥을 갖춘 홀들을 면하게 하여 풍부하고도 특색있는 공간체함을 제공하고 있다. '白梅의 間'과 '紅梅의 間'이라 이름붙여진 두 개의 일본식 홀은 카나자와만의 특색을 갖추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식 공간의 연출은 화려하지 않은 외관의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로비라운지의 면적에 크게 욕심내지 않고 중규모와 대규모 집회장 앞의 포이어 공간을 넉넉히 줌으로서 실용적인 공간 배분을 하고 있다.

▶ 아오키 준(清水淳) - 루이 비통 (LOUIS VUITTON) 나고야

유명한 패션 상점인 루이비통의 나고야 지점의 설계를 의뢰 받은 건축가는 내부에는 일체 손을 대지 말라는 조건을 함께 받았다. 내부는 루이 비통의 전속 업체에서 맡기 때문이다. 내부의 공간을 먼저 계획하고 그것이 그대로 외부로 드러나도록 공간을 만들어온 건축가에게 내부를 손댈 수 없다는 말에 건축가는 맨 처음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더블 스킨구조의 외벽을 계획하여, 내측의 불투명한 상자형의 공간과 그것을 감싸는 유리의 외피로 구성하게 되었다. 이 두가지 외피에 규칙적인 문양들을 넣어 두 세가지의 문양들이 엇갈리면서 연출하는 문양의 효과로 외부를 연출하고 있다.

99건축가미술전

35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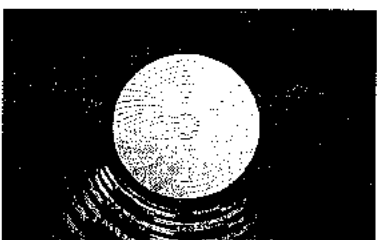
건축가미술동회(회장 한창진)회원들의 작품전시회인 99건축가미술전이 지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협회 회관 1층 아키텍트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올 해로 8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35명의 건축가가 참여했다.



물고기. 담채 / 한창진



16th홀. 유화 / 손석진



CANCUN하얏트호텔. 사진 / 조성렬



배래봉의 철쭉. 사진 / 최상채



백운 저수지. 유화 / 김민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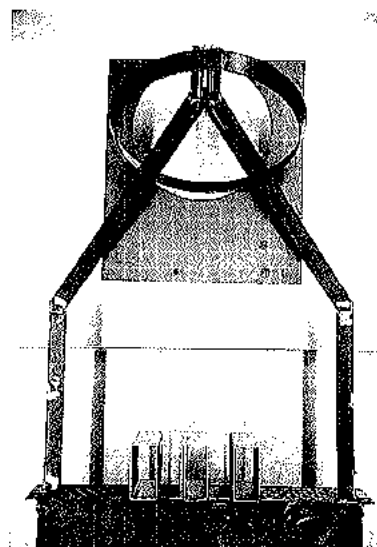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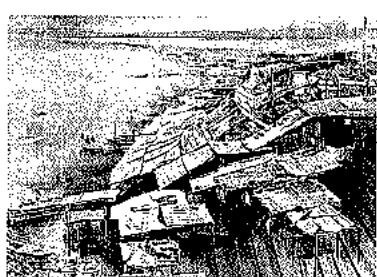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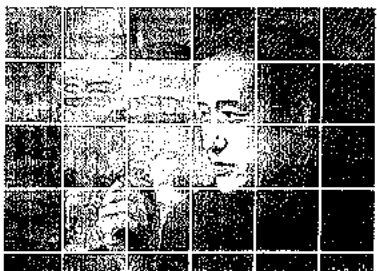


IMAGE 99. 조각 / 최영집



인도 강가. 수채 / 강성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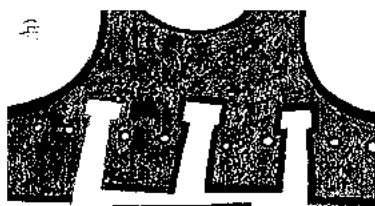
자화상 as printed / 김낙중



북한산의 겨울. 유화 / 김석환



백운호수가 보이는 풍경. 유화 / 김선암



第8回 建築家美術展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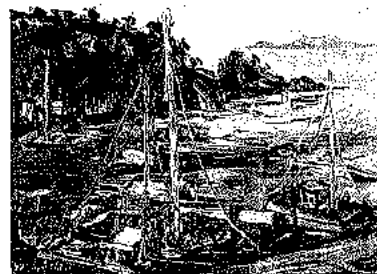
질서, 수채 / 김호경



우리들 세상, 유화 / 부대진



누드 - 하모니를 위한 드로잉, 파스텔 / 이종환



강화도 포구, 유화 / 최현호



낙영산 그리고 용대천, 유화 / 송인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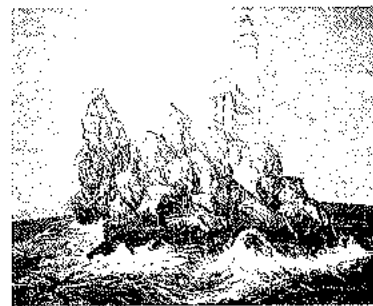
풍경, 유화 / 안호열



정선, 유화 / 양광명



북한강 이야기, 혼합재료 / 우경국



오륙도, 유화 / 오경진



천지, 사진 / 이강업



어떤 생각..., 수채 / 이관직



추경(秋景), 유화 / 이기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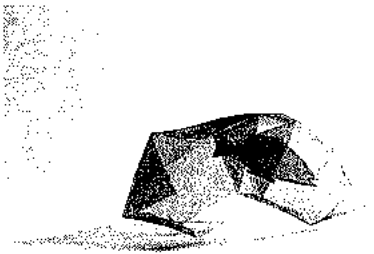
물빛, 유화 / 정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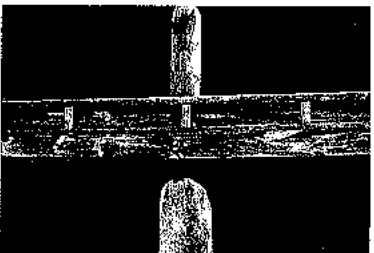
봄향기, 유화 / 신길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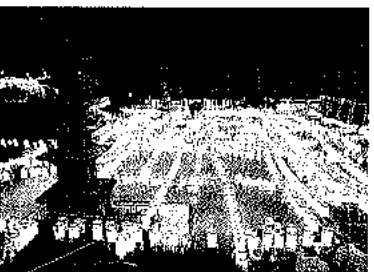
고종, 유화 / 양준모



YOU CAN SEE2, 조각 / 최승원



시간의 흔적, 사진 / 김영섭



화엄사 연등, 사진 / 심우석



6월의 북기산맥, 사진 / 최윤호



대정리 풍경, 유화 / 강정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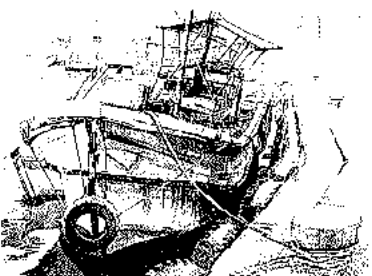
여름풍경, 유화 / 윤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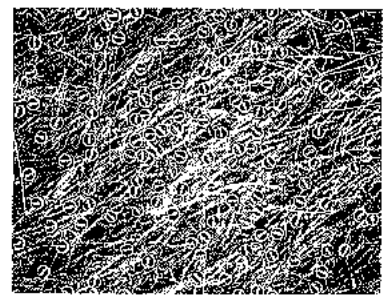
하늘과 땅, 정연학



새벽 호수, 사진 / 안연수



기다림, 수채 / 김재열



미국식 자본주의가 세상을..., 조각 / 이종상

- 한창진 / 한정건축
- 손석진 / (주)켄디
- 조성렬 / 큐빅디자인연구소
- 최상재 / 최상재건축
- 김인배 / 미협 회원
- 최영집 / 탑건축
- 강성익 / 한라건축
- 김낙중 / 중원건축
- 김석환 / 터·을건축
- 김선양 / 한중건축
- 김호경 / 가람나라건축
- 부대진 / 진아건축
- 이웅환 / 화영건축
- 송인창 / 송인창건축
- 최한호 / 중원(엔)건축
- 안호협 / 서울지방조달청
- 양광명 / 서양화가
- 우경국 / 예공건축
- 오경진 / 본건축
- 이관직 / 이공건축
- 이강업 / 한양대
- 정영호 / 일우건축
- 이기범 / 도시건축
- 양준모 / 신원건축
- 신길웅 / 홍일건축
- 김영섭 / 김영섭 도시건축
- 최승원 / 양가주망 건축
- 최윤호 / 원건축, 전남건축사회 회장
- 심우석 / 순천건축사회 회장
- 정연학 / 건축가협회 회원
- 안연수 / 서울시청 건축지도과
- 윤태식 / 합동건축
- 강정행 / 창건(엔)
- 이종상 / 토팩(엔) 건축
- 김재열 / (주)보르네오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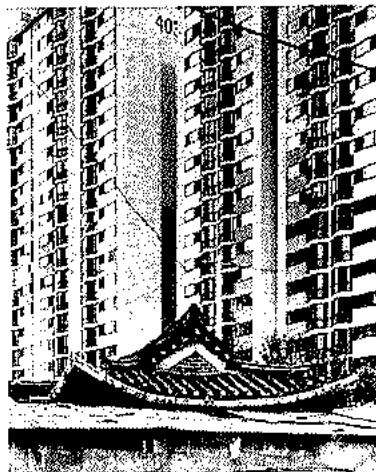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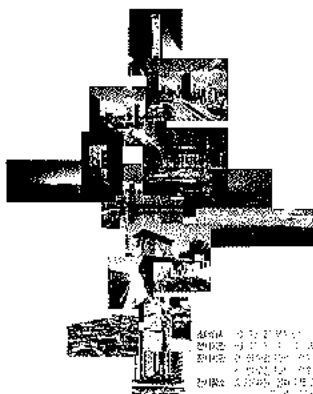
도시와 건축 사진전 - CITYSCOPE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구문화원에서

한국건축사진가회(APOK)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한화빌딩 1층 중구문화원에서 제1회 CITYSCOPE 전을 개최했다. 도시의 생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 관찰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도시와 그에 속한 건축과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총 14명의 사진작가들이 참여해 한국의 건축 및 사진 문화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참여작가는 다음과 같다. 김경호, 김용관, 김재경, 김철현, 김태오, 류경수, 박영채, 박완순, 백운열, 이인미, 임정의, 염승훈, 정정웅, 조명환

Urban & Architecture

CITYSCOPE



박영채 Untitled 1999작 25×20cm
Gelatin Silver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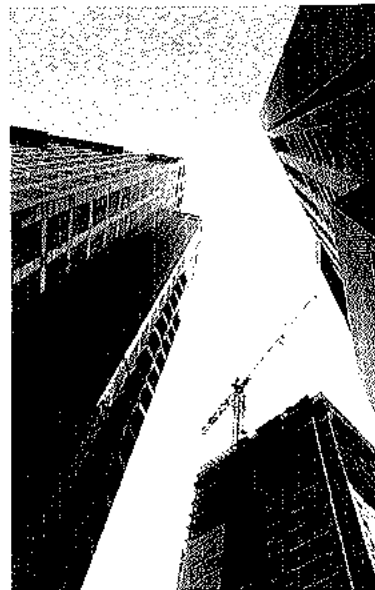
백운열 도시의 이미지(City Image)
1998작 40×50cm



박완순 종로(Chong-No)
1999작 50×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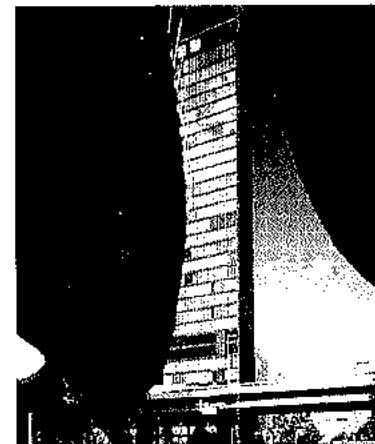
염승훈 서울 1999(Seoul 1999)
1999작 50×60cm Gelatin Silver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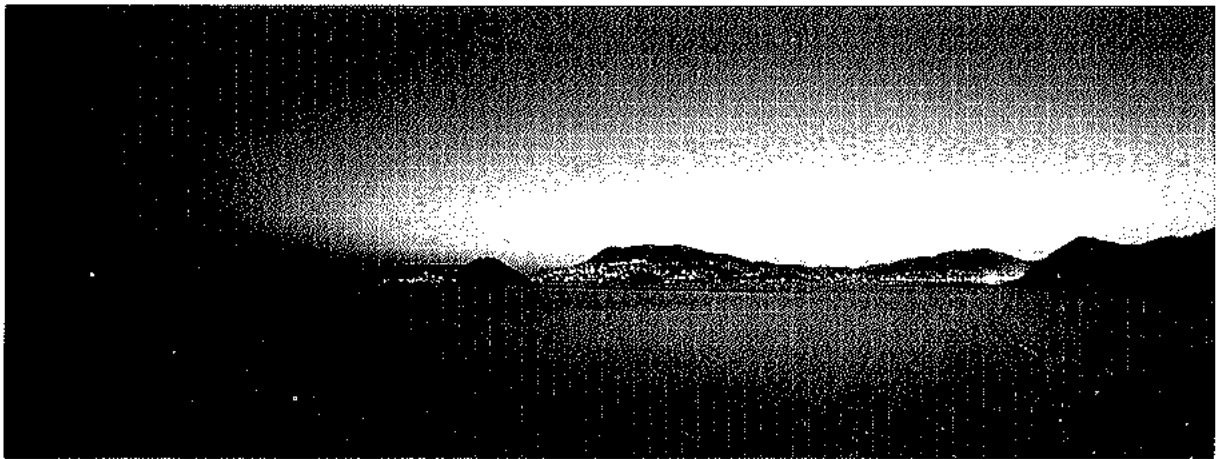
김경호 Urban Fantasy 1999작
Gelatin Silver Print



이인미 Through 1999작 50×70cm
Gelatin Reversal Print



정정웅 Untitled, 1999작



조명환 부산항(Port City of Pusan) 1999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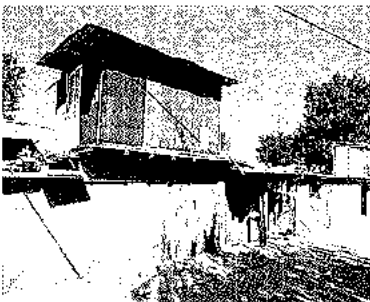
김재경 도시의 커(Urban Layer)
1999작 25×20cm Gelatin Silver Print



김동관 Untitled 1998작 50×100cm
Civarcrome Print



김철현
Architecture & Environment, 1999작



류경수 Untitled 1999작 64×74cm
Color Reversal Print



김태오 도시의 생장(City Occurrence) 1999작 40×80cm
Color Reversal Print, Lighting Color



임정익 사진도시(Photo City) 1999작 80×240cm

99 대한민국 건축대전

일시: 1999년 10월 14일~10월 23일
장소: 예술의 전당 미술관

○ 제18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 초대작가 작품 74점: 초대작가부문은 기성 건축가들의 미발표 작품 또는 계획작품을 출품.
- 일반공모부 작품 1,039점: 수상 114점(대상 1점, 우수상 3점, 특선 6점, 입선 다수)

제18회째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건축대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반공모부문의 경우 심사위원을 미리 공고하였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방향의 관점을 「건축

- (주)정림건축 신사옥 / (주)정림건축
- 김옥길 기념관 / 김인철(아르키움건축)
- 아트선재 센터 / 김종성(서울건축)
- 오피스콘서트홀 빌딩 / 손학식+Ken Min(SKM Design)
- 용인 솔마당집 / 조병수(솔토스·조병수건축연구소)
- 하늘마당 II / 방철린(인토건축)
- 한호제 / 민규암+권혁천+김인한(토마건축+경희대)

○ 제18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심사평

금년의 보편적 심사기준은 건축적 해결의 완성도와 주제의 사회적 공공성이었다. 총 응모작 1039점 가운데 1차로 130작

상황에 대한 포괄적 해결이 아쉬웠다. 〈다윗들의 동네〉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난지도 일대의 벤처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된 작품이다. 또한 작업진행과정상의 충실한 태도가 돋보였으나, 프로그램을 건축의 구축으로까지 이끄는 단계별 필연성이 아쉬웠던 작품이다.

〈MEDIA MUSEUM〉은 총무로 인쇄 글목에 미디어 수단들의 역사를 전시한 계획이다. 건축적 사고의 수준과 전개과정은 매우 치밀하며, 시대의 흔적을 유지해 나갈 방법을 선언적으로 제시했다. 단 지나치게 작가의 내면으로 향하는 자의식 때문에 공공적 태도에 논란을 일게 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Imge of empty spac in the city〉는 도시집합 주택에 대한 허구적, 낭만적 커뮤니티 개념을 통렬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작품이다. 침묵의 공간 설정, 골목길의 적극적 도입, 단위주택의 독자적인 환경조성 등, 현실을 직시한 사상주의적 태도가 돋보인다. 단, 부정적 현실에 대한 좀 더



대상 / 박재완



우수상(대한건축학회 회장상) / 박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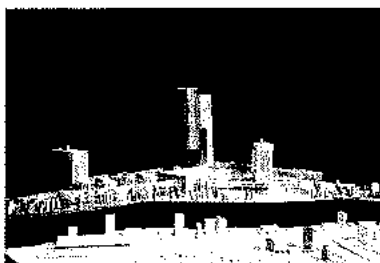
전시리뷰 exhibition

가」지에 명확히 기재하여 심사의 공정성은 물론 출품자들의 작품 성향을 읽기 쉽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올해는 작품 접수를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차 작품 제출안 접수·심사에서 입선후보작을 선정하였고, 2차 패널·모형 작품 접수 및 심사에서는 1단계로 입선후보작을 선정하고, 2단계로 심사위원들과 수상 후보 출품작가들과의 공개 질의, 응답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대상 1점, 우수상 3점, 특선 4점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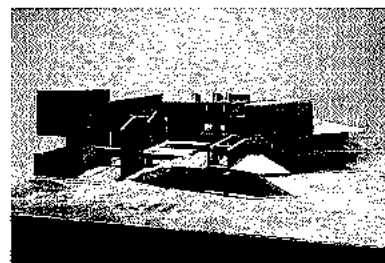
○ 제21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이 상은 매 해당년도에 완성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 및 그외 협력사들이 노력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작품 7점을 선정하여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에게 각각 시상하고 전시한다.



우수상(대한건축가협회 회장상) / 김준수

품을 선정하여, 104점을 입선작으로 골랐고, 3차 심사에서 10점을 입선작으로 결정했다. 응모작들이 다양한 주제와 규모, 접근방법들을 가졌기 때문에 일률적 선정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작가의 독창적 개념, 대사회적 이슈의 부각, 건축적 기본기의 축적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작과 우수작을 선정했다. 〈달은...해가 꾸는 꿈〉은 동대문 종합운동장의 스탠드하부 공간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장소가 부르는 목소리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낙후된 공공영역에 필요한 소수기능과 공간을 훌륭히 구현했다. 다만, 이 프로젝트가 시선을 돌려야 할 언론의



우수상(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 유은정

추방적인 치유책이 아쉽지만, 신인으로서 가져야 할 적극성과 강렬한 메시지를 높이 평가했다.

○ 심사위원

위원장: 김병현(장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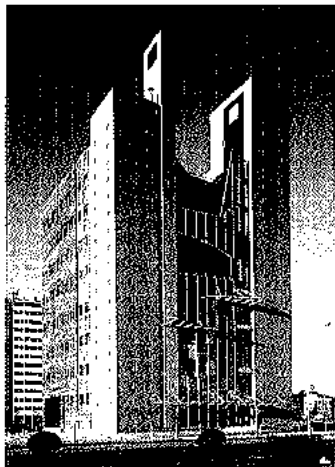
위 원: 고주석(오이코스), 김병운(백제예술대학교 건축학과), 김봉렬(국립예술학교 미술원 건축과), 유원재(다건축), 이종호(메타건축), 최두남(최두남건축)

제4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일시: 1999년 10월 28일~11월 13일
장소: 부천시청, 의정부시 청소년회관

「제4회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설계자에게는 창작성과 독창성을 시공자에게는 건실한 시공품도를 조성하며 건축주에게는 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키고자 시행된 것으로 매우 뜻깊은 행사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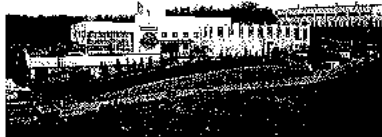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문 대상 / 자생당병원

2일간 현장심사와 '99. 9.16 최종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올해 최종확정된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 대상작으로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에 소재한 산부인과 병원인 "자생당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주거부문 금상에 안산시 대부동소재 "이철형씨 주택" 비주거부문 금상에는 화성군 동탄면 소재 "Slumberger K.T.C" 등 주거부문에서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입선1점 총4점과 비주거부문에서 대상1점,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입선2점 총6점이 입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계획작품부문은 경기도소재 대학생 (건축전공자)의 작품을 '99. 9.1 ~ 9.14



사용 승인된 건축물 비주거부문 금상 / 슬럼버제 한국기술센터

상작품으로는 대림대학 건축과 2학년 김대원, 이경화, 조아라씨의 공동작품인 "Open restroom & culture"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밖에 입선작으로 17점이 선정되었다.

이들에 대한 시상은 10월 27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다. 사용승인된 건축물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 그리고 기념동판 등을 수여했으며, 계획작품부문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 금상 8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또한 수상작품 전시회는 10. 28~11. 5일까지 부천시청 전시실에서 11. 6~11. 13까지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 열렸다.

▷ 사용 승인된 건축물부문 수상작 현황

- 비주거부문

- 대상 / 일산자생당병원 / 공간건축(장세암+이상림)
- 금상 / 슬럼버제 한국기술센터 / 환경그룹건축(이영수)
- 은상 / 수원성모승전대성당 / 당건축

전시리뷰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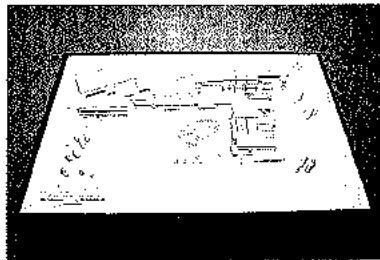
건축사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경기도지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경기도지회에서 후원하는 「경기도건축문화상」의 올해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사용승인된 건축부문은 응모대상을 경기도소재 건축물로서 '97. 1.1 부터 '98. 12. 31일까지 2년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시장 · 군수의 추천과 개별접수된 작품 등으로 '99. 7. 1 ~ 7. 31일까지 접수 받은 결과 총 57점 (주거부문 13점, 비주거부문 44점)이 출품되어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에 따라 도내 건축공학과 교수 4명, 건축사 2명, 기술사 2명, 도의원 2명을 관계기관으로 부터 추천받아 '99. 8. 16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9. 8.20일 경기도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제1차심사위원회에서는 아주대 제해성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사전접심사를 거쳐 12작품을 2차심사대상작품으로 선정하고, '99. 8.30일부터 8.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주거부문 금상 / 이철형씨 주택

일까지 도내소재대학에 학교별 3작품 이내로 추천요청하여 14개교 47작품의 우수작품을 추천 받은 후 '99. 9.15 ~ 10. 5일까지 경기도건축사회관에서 작품접수를 받은결과 13개교 30작품이 응모하였다.올해 최종확정된 계획작품부문 대상작으로는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김선호,양영모씨의 공동작품인 "Complex park in urban context"가 선정되었으며, 금상으로는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황경학씨의 작품 "Multi library in public"가, 은상작으로는 동서울대학 건축과 2학년 이우원, 백정미, 박효경씨의 공동작품인 "건축문화가 흠추려한다"가, 동



계획작품 부문 대상 / Complex Park in Urban Context

(박호건)

- 동상 / 한양프라자 일산점 / 범건축(강기세, 박영진)
- 입선 / 군포시민회관 / 부림건축(김호)
- 입선 / 삼성프라자 / 원도시건축(윤승중+변용+김석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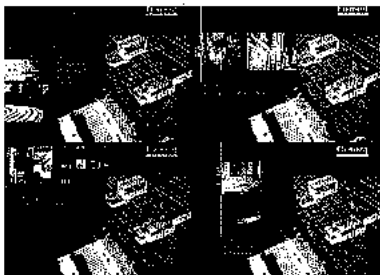
- 주거부문

- 금상 / 이철형씨 주택 / 삼성건축(김영수)
- 은상 / 일산주택 I / O·C·A건축(임재용)
- 동상 / 마두동 976-2 / 가이건축(홍문성)
- 입선 / 평택주택 / KAS건축(윤삼기)

제17회 공간학생건축상

「SPACE」- 복합 상업·문화공간」

33년간 건축잡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월간 SPACE가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 중 하나인 제17회 공간학생건축상의 심사결과가 확정, 10월 5일 공간 소극장에서 시상식 및 전시회가 개최됐다. 총 193팀이 신청하여 그 중 88팀이 작품을



최우수상: 이상목, 이주한, 고해석 作 「Inter-Polis」 주위의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차분하게 형태로 이끌어간 점이 흥미롭다. 표현방식도 주제에 어울리게 선택되었다. 더욱이 최근에 이야기의 소재가 된 용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점, 그리고 기하학을 형태발생의 기반으로 삼은 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왜 구태여 원형인지 알 수 없으나 단순한 전체 형태와 그 안에 수줍게 열린 틀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눈치채겠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고 동영상에서의 느낌과는 달리 도면이 주는 공허감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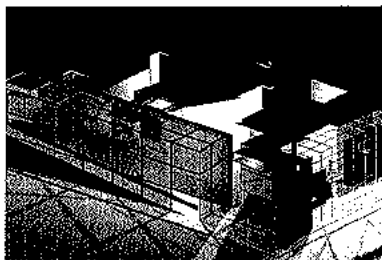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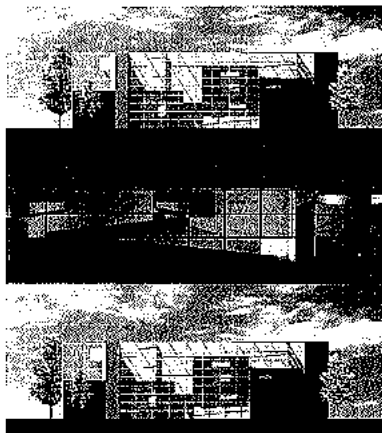
전시리뷰 exhibition



제출,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개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9일 본심사를 통해 이상목, 이주한, 고해석(국민대 건축과) 팀의 「Inter-Polis」가 최우수상 및 CG 부문 특별상을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이재현, 표범수, 구은지(성균관대 건축과)의 「Grafting in SSamzie」가, 후원사 특별상인 썸지상에는 박승호, 김경선, 문형덕(경기대 건축과)의 「Photo-Essay」가 선정되었으며, 이외에 가작 6점, 입선 5점이 입상작으로 결정되어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간소극장에서 전시됐다.

제17회 공간학생건축상은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학생들의 건축적 사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패널이 아닌 컴퓨터 작업을 통해 작품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타 장르와의 디자인 협력을 권장하여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축 프로세스를 요구했다. 따라서 1인 체제로 이어오던 심사위원 구성을 바꾸어 올해에는 건축(민현식 교수, 정진국 교수), 미술(김홍희씨), 음악(안이영노씨), 그래픽(홍석기 교수), 디자인(문기종 부사장)과 관련된 인물들로 구성, 각 전문분야별로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우수상: 이재현, 표범수, 구은지 作 「Grafting in SSamzie」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종료되었다기보다 계속 변화와 성장의 기제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사물을 대하는 방식이 독특함에도 여기서는 기계적 시선이 아니라 인간적 시선으로 의식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느껴보려하고 있다. 또한 무엇까지는 않지만 대지와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 흔적이 내부의 외부의 분절과 소통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3차원 공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어휘를 구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수상작

대상 및 CG 부문 특별상: 「Inter-Polis」 (이상목, 이주한, 고해석 / 국민대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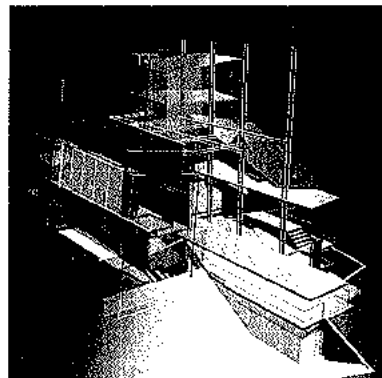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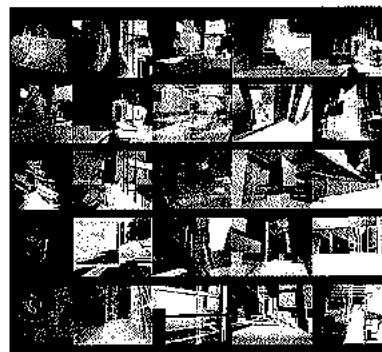
우수상: 「Grafting in SSamzie」 (이재현, 표범수, 구은지 / 성균관대 건축)

썸지상: 「Photo-Essay」 (박승호, 김경선, 문형덕 / 경기대 건축)

가작: 「Obzee of the city」 (김나리, 윤현아 / 연세대 건축, 김시영 / 국민대

공업디자인), 「Art Build+ing」 (윤태준, 조혜진, 선주용 / 인하대 건축대학원), 「Fusion in light」 (정일권 / 상균관대 건축), 「공간변이」 (안철영, 이준화, 김관준 / 인하대 건축), 「Flowing senses in void」 (우준승 / 성균관대 건축), 「Our treasure」 (곽선남, 조정란 / 영남대 건축)

입선: 「Cosmos vs chaos」 (박병언, 이상현 / 동아대 건축), 「Inverse」 (김태곤, 배준호, 이창동 / 한양대 건축), 「Interweave」 (이성규, 김승욱, 이영림 / 홍익대 건축), 「相生」



썸지상: 박승호, 김경선, 문형덕 作 「Photo-Essay」 시간에 대한 감수성과 세련된 형태구성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재현방식(포토에세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감한 것과 공공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다리의 영상을 받아 도시 속으로의 과감한 걸출을 시도한 것은 권장된다. 그러나 여길 요소들의 상호공존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상업성의 표피적 수준에 머물렀고 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의 고유한 특성이 구체화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흠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길수 / 홍익대 산업디자인, 김보성 / 국민대 공업디자인, 박경선 / 이화여대 정보디자인), 「Circus in the city」 (설형진, 복갑수, 장익수 / 인하대 건축대학원)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9월)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7,145	2,802	676	528	225	237	260	138	825	169	184	179	193	102	244	311	71
금 별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회 원 수	7,106	2,738	675	528	224	237	259	138	821	169	184	175	192	101	243	311	71
입 회	30	16	4	1		1	3	1	2		3					3	
재 입 회	4	2	1													1	
전 입	5	1	1					2					1				
전 출	-12	-6			-2			-4									
사 패 업	-9	-1	-1		-1		-1		-3	-1			-1				
사 망	-2																
등록취소		-2	-2														
금월말 회원수	7,142	2,807	680	529	227	238	258	139	818	168	187	175	191	102	243	315	71
계	7,161	2,811	681	529	222	238	259	139	822	168	188	179	192	103	244	315	71

99년도 회원변동사항(9월 누계)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 별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입 회	524	156	42	30	17	15	20	16	64	15	22	16	13	8	23	19	7
재 입 회	59	22	8	2	1	3		1	7			2	4			3	
전 입	102	39	4	2	7	4	4		15	4	1	8	1	4	2	3	1
복 권	1	0	1														
소 계	686	218	54	34	25	22	24	17	86	19	23	26	1	2	2	8	7
계	689	218	54	34	25	24	28	21	105	20	27	30	25	10	29	32	7
전 출	98	28	1	4	5	1	1		24	2	3	9	2	3	3	1	
패 업	176	78	5	7	6	5	2	2	27	1	3	5	6	2		3	7
사 망	12	5		1	1				1							2	
등록취소	4	1	1														
소 계	290	113	6	12	12	6	3	2	52	3	6	14	8	2	4	10	0
계	295	114	6	12	12	6	5	2	73	5	7	16	11	5	9	12	0
누 계	394	104	48	22	13	18	23	19	32	15	20	14	14	5	20	20	7

설계도서신고현황

99년도 9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9월분(98.9) 3백9십6만2천3백3㎡ 보다 68.3%(2백7십만6천4백20㎡) 증가한 6백6십6만8천7백23㎡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9월 누계분 4천1백6만6천86㎡ 보다 9.7%(3백9십8만1천6백41㎡) 증가한 4천5백4만7천7백27㎡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8월분(99.8) 5백4십9만4백12㎡ 보다 21.5%(1백1십7만8천3백11㎡) 증가한 6백6십6만8천7백23㎡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2,110,106	3,962,112	1,852,006	87.8
대구	86,342	102,373	16,031	18.6
인천	81,768	212,062	130,294	159.3
광주	59,939	119,986	60,047	100.2
대전	7,509	87,319	79,810	1062.9
울산	22,933	54,873	31,940	139.3
경기	331,686	1,201,502	869,816	262.2
강원	61,554	93,318	31,764	51.6
충남	114,550	156,582	42,032	36.7
전북	47,152	137,964	90,812	192.6
전남	47,062	60,634	13,572	28.8
경북	52,207	68,552	16,345	31.3
제주	23,667	45,723	22,056	93.2
감소지역				
부산	373,541	101,246	(272,295)	-72.9
충북	179,883	84,568	(95,315)	-53.0
경남	362,404	179,909	(182,495)	-50.4
합 계	3,962,303	6,668,723	2,706,420	68.3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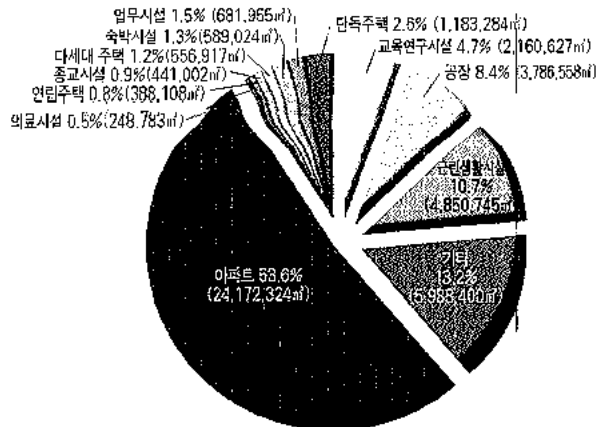
(용도)

단독주택	153,157 152,612 (-3.5%)	
다세대주택	55,969 114,248 (104.1%)	
연립주택	45,321 77,359 (70.7%)	
아파트		3,047,668
근린생활시설	530,857 708,985 (33.6%)	3,918,416 (28.6%)
종교시설	47,613 26,327 (-44.7%)	
의료시설	46,903 13,494 (-71.2%)	
교육연구시설	255,067 230,587 (-9.6%)	8월 9월
업무시설	49,912 24,650 (-50.6%)	연면적 합계/ 8월: 5,490,412㎡ 9월: 6,668,723㎡ (21.5%)
숙박시설	44,816 32,766 (-26.9%)	
공장	573,179 507,856 (-11.4%)	
기타	634,950 861,423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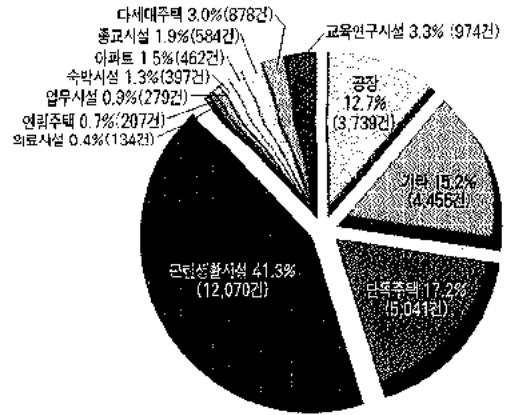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9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477	506	102,457	627	665	152,612	150	159	50,155	49.0	
다세대주택	62	62	26,267	156	170	114,248	94	108	87,981	334.9	
연립주택	13	14	19,687	39	43	77,359	26	29	57,672	292.9	
아파트	38	100	2,216,263	71	116	3,918,416	33	16	1,702,153	76.8	
근린생활시설	1,131	1,159	369,406	1,275	1,327	708,985	144	168	339,579	91.9	
종교시설	60	62	30,374	41	42	26,327	(19)	(20)	(4,047)	-13.3	
의료시설	10	10	17,754	13	14	13,494	3	4	(4,260)	-24.0	
교육연구시설	91	103	207,478	141	150	230,587	50	47	23,109	11.1	
업무시설	34	35	183,569	32	34	24,650	(2)	(1)	(158,919)	-86.6	
숙박시설	43	49	35,274	42	45	32,766	(1)	(4)	(2,508)	-7.1	
공장	220	292	141,586	488	618	507,856	268	326	366,270	258.7	
기타	595	704	612,188	482	575	861,423	(113)	(129)	249,235	40.7	
합 계	2,774	3,096	3,962,303	3,407	3,799	6,668,723	633	703	2,706,420	68.3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9월 누계)



연면적 (총 45,047,727㎡)



건수 (총 29,221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9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54	354	2,110,106	481	483	3,962,112	127	129	1,852,006	87.8	
부산	166	249	373,541	112	163	101,246	(54)	(86)	(272,295)	-72.9	
대구	129	129	86,342	176	176	102,373	47	47	16,031	18.6	
인천	118	118	81,768	99	103	212,062	(19)	(15)	130,294	159.3	
광주	82	104	59,939	108	146	119,986	26	42	60,047	100.2	
대전	26	26	7,509	127	127	87,319	101	101	79,810	1062.9	
울산	50	59	22,933	67	67	54,873	17	8	31,940	139.3	
경기	582	673	331,686	835	987	1,201,502	253	314	869,816	262.2	
강원	199	218	61,554	162	186	93,318	(37)	(32)	31,784	51.6	
충북	154	200	179,883	254	276	84,568	100	76	(95,315)	-53.0	
충남	223	175	114,550	210	210	156,582	(13)	35	42,032	36.7	
전북	103	103	47,152	109	111	137,964	6	8	90,812	192.6	
전남	129	136	47,062	125	127	60,634	(4)	(9)	13,572	28.8	
경북	165	188	52,207	186	219	68,552	21	31	16,345	31.3	
경남	220	270	362,404	271	327	179,909	51	57	(182,495)	-50.4	
제주	74	94	23,667	85	91	45,723	11	(3)	22,056	93.2	
합계	2,774	3,096	3,962,303	3,407	3,799	6,668,723	633	703	2,706,420	68.3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9월 누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4,407	4,461	22,445,959	3,449	3,467	24,674,692	(958)	(994)	2,228,733	9.9	
부산	1,398	2,444	2,412,580	1,409	2,012	1,287,427	11	(432)	(1,125,163)	-46.6	
대구	895	895	722,244	1,412	1,412	1,115,252	517	517	393,008	54.4	
인천	1,113	1,123	1,741,967	988	1,029	2,225,391	(125)	(94)	483,424	27.8	
광주	843	1,043	633,645	1,119	1,345	899,286	276	302	265,641	41.9	
대전	651	651	567,929	801	801	473,226	150	150	(94,703)	-16.7	
울산	415	438	240,279	833	846	548,694	418	408	308,415	128.4	
경기	6,216	7,243	4,918,102	6,582	8,019	6,731,754	366	776	1,813,652	36.9	
강원	1,708	1,897	896,754	1,580	1,728	632,211	(128)	(169)	(264,543)	-29.5	
충북	1,590	1,956	1,819,930	1,956	2,232	1,123,899	366	276	(696,031)	-38.2	
충남	1,518	1,269	813,698	1,634	1,634	933,942	116	365	120,244	14.8	
전북	727	727	502,529	1,106	1,127	694,361	379	400	191,832	38.2	
전남	964	1,061	507,880	1,503	1,556	739,106	539	495	231,226	45.5	
경북	1,479	1,656	812,032	1,727	2,002	1,113,495	248	346	301,463	37.1	
경남	1,774	2,185	1,786,502	2,386	2,778	1,566,485	612	593	(220,017)	-12.3	
제주	570	670	244,046	736	827	288,506	166	157	44,460	18.2	
합계	26,268	29,719	41,066,086	29,221	32,815	45,047,727	2,953	3,096	3,981,641	9.7	()=마이너스